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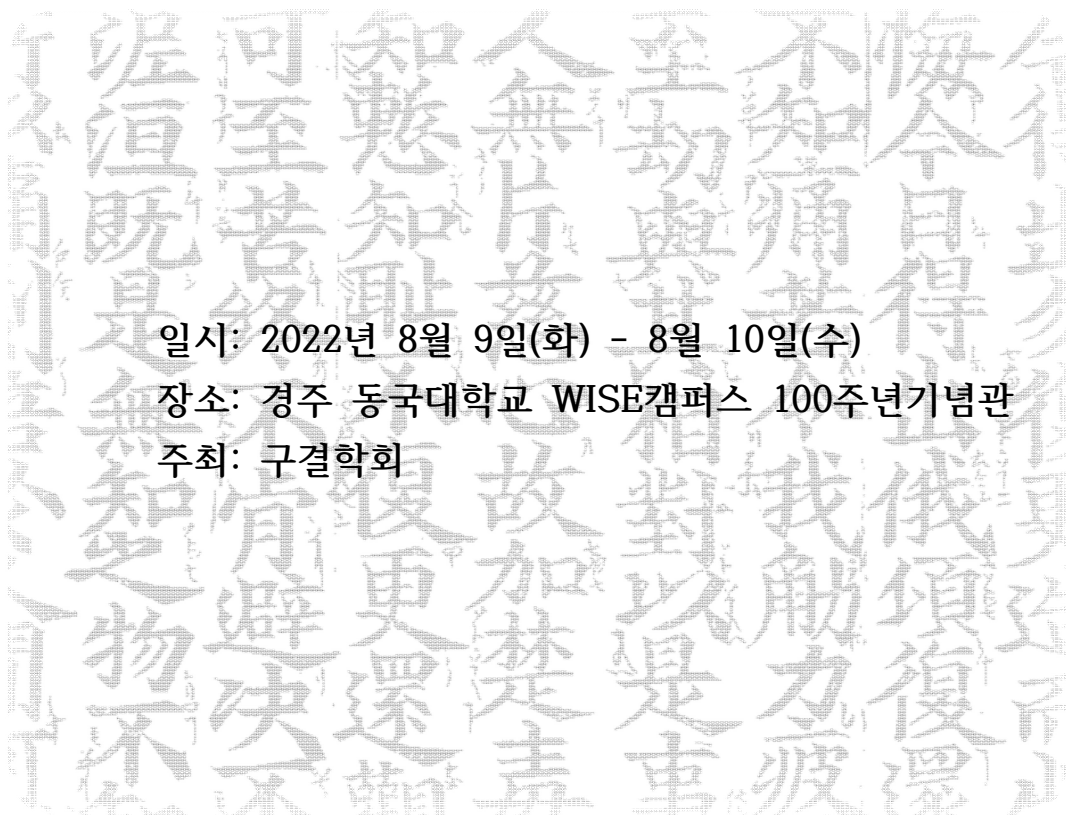
제62회 구결학회 여름 전국학술대회

一字多義 구결자에 대한 종합적 고찰

일시: 2022년 8월 9일(화) - 8월 10일(수)

장소: 경주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100주년기념관

주최: 구결학회



제62회 구결학회 여름 전국학술대회

一字多義 구결자에 대한 종합적 고찰

일시: 2022년 8월 9일(화) - 8월 10일(수)

장소: 경주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100주년기념관

주최: 구결학회

■ 제62회 구결학회 전국 학술 대회 일정표 ■

<제1부> 2022년 8월 9일(화)

시간	발표 내용 및 발표자/토론자	사회자
13:30~13:50	참가자 등록	
13:50~14:00	<개회식> 개회사: 김성주(구결학회장)	문현수(인하대)
[기획 주제 발표] 一字多義 구결자에 대한 종합적 고찰		
14:00~14:25	구결자 ‘ㄷ/ㄴ(여)’에 대한 고찰 발표자: 전기량(동국대)	하정수(동국대)
14:25~14:50	구결자 ‘ㅁ(고)’에 대한 고찰 발표자: 문현수(인하대)	
14:50~15:15	구결자 ‘ㄷ(느)’에 대한 고찰 발표자: 이강혁(서울대)	
15:15~15:40	구결자 ‘ㄹ(ㄹᄇ)’ 및 ‘ㄴ(은)’에 대한 고찰 발표자: 최준호(서울대)	
15:40~16:00	휴식	
16:00~16:50	<종합 토론> 좌장: 박진호(서울대) 토론자: 이용(시립대) 이병기(한림대)	
16:50~17:00	휴식	
[초청 발표] 일본 훈점어학회 학자 초청		
17:00~17:50	近世琉球の漢文訓読 발표자: 中野直樹(Nakano Naoki, 常葉大学短期大学部)	신웅철(단국대)
17:50~18:40	日本語音韻史研究とキリシタン文献 발표자: 山田昇平(Yamada Shohei, 奈良大学)	
18:40~	저녁 식사	

<제2부> 2022년 8월 10일(수)

시간	발표 내용 및 발표자/토론자	사회자
[개인 연구 발표]		
10:00~10:25	완판본 판소리계 소설 <심청전>의 언어적 양상 발표자: 任夢婕(Ren mengjie, 전남대)	최성규 (겨레말큰사전 편찬회)
10:25~10:50	한국 진언집 『佛頂尊勝陀羅尼』 梵字 텍스트의 판본 비교 고찰 발표자: 안영희(云南民族大学)	
10:50~11:15	기림사 소장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권7의 각필 부호 연구 발표자: 김형진(대구가톨릭대)	
11:15~11:40	新羅 時代 啄評[水刀 邑 ㄹ]의 解讀 발표자: 이건식(단국대)	
11:40~11:55	<임시총회>	
11:55~12:00	<폐회식> 폐회사: 김성주(구결학회장)	문현수(인하대)

■ 목 차

<기획 주제 발표>

구결자 ‘ㄴ/ㄷ(여)’에 대한 고찰	전기량	7p
구결자 ‘ㅁ(고)’에 대한 고찰	문현수	30p
구결자 ‘ㅌ(느)’에 대한 고찰	이강혁	59p
구결자 ‘ㄹ(로)’ 및 ‘ㄴ(은)’에 대한 고찰	최준호	72p

<초청 발표>

近世琉球の漢文訓読(근세 류큐의 한문훈독)	中野直樹(Nakano Naoki)	89p
日本語音韻史研究とキリシタン文献(일본어 음운연구와 기리시탄 문헌)		104p
- 山田昇平(Yamada Shohei)		

<개인 연구 발표>

완판본 판소리계 소설 <심청전>의 언어적 양상	任夢婕(Ren mengjie)	119p
한국 진언집 『佛頂尊勝陀羅尼』 梵字 텍스트의 판본 비교 고찰	안영희	137p
기림사 소장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권7의 각필 부호 연구	김형진	158p
新羅 時代 啄評[水刀邑 ㄹ]의 解讀	이건식	173p

<기획 주제 발표>

구결자 ‘ㄴ/ㄷ(여)’에 대한 고찰

전기량(동국대)

1. ‘-여’를 다룬 논의들

국어사적 연속선상에서 ‘-여’를 다룬 논의들은 후기 중세 한국어의 감탄 어미 및 호격 조사에 대한 연구에서 이들의 기원을 찾는 과정에서 ‘-여’를 바라보았다.

(1) 가. 獄卒이 그 말 듣고 머리를 수겨 쇠슬히 노하 버리고 머리 조사 一千 디위 나
마 절하고 讚歎하야 닐오디 “도홀씨 도홀씨 오닐낫 果報 | 여 釋迦牟尼佛入 弟
子入 ㄴ출 보스 받더” 하고(獄卒聞是語已 低頭放却鐵叉 頂禮一千餘拜 讚言 善哉
善哉今日果報得見釋迦牟尼佛弟子面) <월석 23:82b>

나. 忽然히 空中엿 소리를 드르니 닐오디 우는 聖女 | 여 슬허 말라(忽聞空中聲曰
泣者聖女勿至悲哀) <월석 21:21ab>

(1)과 같이 ‘-을씨’, ‘-은더’, ‘-이여’ 등 후기 중세 한국어의 감탄 어미 및 호격 조사에 대한 선행 연구 대부분은 그 기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鄭在永 1992, 이승희 1996, 장윤희 1996, 장윤희 1998/2002, 鄭在永 2001 등). 이에 자토석독구결의 ‘-ㄴ/ㄷ:’에 주목하여 ‘-ㄴ/ㄷ:’와의 관련성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였다. 이승희(1996)를 비롯하여 다수의 논의에서 이른바 ‘감탄 조사’라는 ‘-여’를 설명하고, 자토석독구결의 ‘-ㄴ/ㄷ:’에서 그 관련성을 찾았다.

그러나 사실 자토석독구결의 ‘-ㄴ/ㄷ:’의 모든 용례만을 놓고 보면 ‘-ㄴ/ㄷ:’가 감탄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에서 쓰이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자토석독구결 자료만을 대상으로 한 논의들에서는 ‘감탄 조사’라는 등의 설명보다는 다른 성격으로 ‘-ㄴ/ㄷ:’를 설명하는 일이 많다. 연결어미, 동명사어미, 종결어미 등 다른 어미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ㄴ/ㄷ:’에 대해 언급한 논의들(南豐鉉 1996가, 1996나, 1996다, 장경준 2004, 김지오 2012가, 김지오 2019, 이병기 2019 등)에서는 ‘-ㄴ/ㄷ:’를 감탄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종결 또는 연결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ㄴ/ㄷ:’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그 의미 기능을 감탄 조사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진호(2005)에서는 ‘-ㄴ/ㄷ:’가 가진 ‘도치’라는 구문의 패턴에 주목하였고, ‘-여’의 의미를 ‘감탄’이라고 정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남풍현(2018)과 전기량(2017, 2018)에서 ‘-ㄴ/ㄷ:’의 성격을 ‘감탄’이 아닌 ‘서술·종결’에 두고 이해하였는데 남풍현(2018)에서는 ‘-ㄴ/ㄷ:’을 ‘서술격 조사’로, 전기량(2018)에서는 ‘서술 보조사’로 이해하였다.

그런데 사실 ‘-ㄴ/ㄷ:’의 성격이 ‘감탄’이 아닌 ‘서술·종결’이라 하더라도 모든 ‘-ㄴ/ㄷ:’의 예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서술·종결’로는 모두 설명되지 않는 ‘-ㄴ/ㄷ:’의 다양한 용법은 ‘서술·종결’의 ‘-ㄴ/ㄷ:’가 이미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 그 본래 의미와 멀어져 다의적으로 쓰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

2. 분포와 문법적 지위

2.1. 분포의 확인

자토석독구결의 ‘-ㄴ/ㅅ’은 <화소>, <화엄>, <구인>, <자비>에서는 주로 ‘-ㅅ’ 표기되고, <금광>, <유가>에서는 ‘-ㄴ’로 표기된다.¹⁾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는 ‘-ㄴ/ㅅ’가 동명사 어미 ‘-ㅅ’이나 ‘-ㅍ’과 결합한 ‘-ㅅㅅ/ㅅㅅ’, ‘-ㅍㅅ/ㅍㅅ’를 비롯하여, ‘ㅅㅅ’ 및 ‘ㅍㅅ/ㅍㅅ’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동명사 어미+의존명사’의 구성에 ‘-ㄴ/ㅅ’가 결합한 ‘-ㅅㅅㅅ/ㅅㅅㅅ’, ‘-ㅍㅅㅅ’로 쓰이거나 또는 ‘-ㅅㅅㅅ’, ‘-ㅍㅅㅅ’, ‘-ㅅㅅㅅ’를 확인할 수 있다(‘-ㅅㅅㅅ’, ‘-ㅍㅅㅅ’의 예 없음)(전기량 2017).

‘-ㄴ/ㅅ’는 (2)에서 보듯이 주로 명사 및 조사, 동명사 어미 뒤에 후행한다. (2가, 나)는 명사에 후행한 것이고, (2다, 라)는 조사에 후행한 것이다.²⁾ (2마, 바)는 동명사 어미 ‘-ㅅ’, (2사, 아)는 동명사 어미 ‘-ㅍ’에 후행하여 각각 ‘-ㅅㅅ, ㅅㅅ’, ‘-ㅍㅅ, ㅍㅅ’로 쓰인 것이다.³⁾

(2) 가. 是 如 ㄴㅅ ㅅ 十種 乙 名 下 内外 乙 依 ㅅ ㅅ 生 圓滿 ㅅ ㅅ ㅅ (이와 같은 열 가지를 일컬어 안팎을 의지한 생원만이라고 한다.) <유가03:18-19>

나. 語 ㅅ 境界 不思議 ㅅ ㅅ ㅅ 知 ㅅ ㅅ ㅅ 是 乙 名 下 說法 三昧 ㅅ ㅅ ㅅ (말의 境界 不思議인 줄 아는 것을 이를 일러 說法三昧의 力이라 한다.) <화엄20:15>

다. {於}自心 ㅅ ㅅ 清淨 ㅅ {令}ㅅ ㅅ 未 ㅅ ㅅ ㅅ ㅅ ㅅ ㅅ 必 ㅅ {於}衆苦 ㅅ ㅅ 得 ㅅ 解脫 ㅅ ㅅ 吉祥性 乙 成 ㅅ ㅅ 不 ㅅ ㅅ ㅅ ㅅ 由 ㅅ ㅅ ㅅ ㅅ ㅅ (제 마음에서 청정하게 하지 못하는 데에는, 반드시 못 괴로움에서 능히 해탈하여 길상성을 이루지 못하는

1) 다만 <화엄>에서 ‘-ㄴ’의 한 예와 <자비>에서 ‘-ㄴ’의 두 예를 확인할 수 있다.

가. 或 ㅅ 有 ㅅ 刹土 ㅅ 佛 ㅅ 無 ㅅ ㅅ ㅅ {有} {於}彼 ㅅ ㅅ ㅅ 正覺 成 ㅅ ㅅ ㅅ 示現 ㅅ ㅅ ㅅ <화엄 14:15>

나. 廣 ㅅ 十方 ㅅ 一切 地獄 ㅅ ㅅ 現 ㅅ ㅅ 受 ㅅ ㅅ ㅅ ㅅ ㅅ 當 ㅅ ㅅ 受 ㅅ ㅅ ㅅ ㅅ <자비17:03-17:04>

다. 其 苦 ㅅ ㅅ ㅅ 知 ㅅ ㅅ ㅅ 知 ㅅ ㅅ ㅅ 知 ㅅ ㅅ ㅅ 復 甲 更 ㅅ 還 ㅅ ㅅ ㅅ ㅅ ㅅ <자비21:16-17>

‘-ㄴ’			‘-ㅅ’	
				
<화엄14:17>	<자비17:04>	<자비21:17>	<화엄14:15>	<자비17:04>

2) 남풍현(2018: 57)에서는 조사 ‘-ㅅ’에 ‘-ㄴ’이 연결된 것으로 보이지만 ‘ㅅㅅ’로 유도되는 구결 전체를 명사구로 본 문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3) 이 글에서 활용한 자토석독구결 입력 자료 및 현대어역 등은 2019년 1월판 자토석독구결 전산입력 자료 ‘sktot_2019_01’의 ‘sktot_2019_01_text’의 번역본 및 주석본을 활용하였음을 밝힌다.

- 것에 말미암은 까닭에서 그러하다.) <유가22:03-04>
- 라. 一リ | ヲロ尸入 1 亦ッ 1 續ッ 今 不 失 分 異リ | ヲロ尸入 1 亦ッ 1 續ッ 今 不 失 1 入 ム : (‘한 가지[一]이다’ 한다면 또한 이어질 것이 아니며 ‘다른 것[異]이다’ 한다면 또한 이어질 것이 아닌 까닭에서이다.) <구인14:07-08>
- 마. 是 如 支ッ 1 三 支 七 廣 聖 教 七 義 1 謂 十 十 種 二 1 ム (이와 같은 세 지의 자세한 성스러운 가르침의 의미는, 말하자면 열 가지와 열 가지이니,) <유가 07:18>
- 바. 我 1 無 始 ム ハ 已 來 ㄹ 1 ム 飢 餓 乙 以 [三] 1 入 ム 故 支 身 乙 喪 ㄹ 1 ム 數 ㄹ 無 七 1 ム : (‘나는 아득한 옛날부터 이제까지 굶주림을 말미암은 까닭으로 몸을 망치되 수없이 하였으나’) <화소10:09>
- 사. 卽 ㄹ 此 十 種 七 生 圓 滿 乙 名 下 修 瑜 伽 處 所 ㄴ / ム (곧 이 열 가지의 생원만을 일컬어 유가를 닦는 처소[修瑜伽處所]라 하는 것이니,) <유가03:19-20>
- 아. 菩 薩 二 成 佛 ヲ 尸 未 二 ㄹ 七 七 時 十 菩 提 乙 {以} ㄷ 煩 惱 {爲} ㄷ ナ ム : 菩 薩 二 成 佛 ヲ 尸 未 二 ㄹ 七 七 時 十 煩 惱 乙 以 ㄷ 菩 提 {爲} ㄷ ナ ム 七 1 (菩薩이成佛하지 않은 때에菩提를 써煩惱 삼지만菩薩이成佛한 때에煩惱를 써菩提 삼는다.) <구인15:18-19>

(3)은 ‘ㄴ/ㄷ’이 의존명사 뒤에 후행한 예들을 제시한 것이다. (3가)는 의존명사 ‘二’ 뒤에 후행한 것이다. (3나, 다, 라)의 ‘ㄴ/ㄷ’, ‘ㄴ/ㄷ’, ‘ㄴ/ㄷ’는 동명사어미 ‘尸’ 뒤에 의존명사 ‘二’가 결합하고 여기에 다시 ‘ㄴ/ㄷ’가 결합한 구성이다. 동명사 어미 ‘ㄴ 1, 尸’과 의존명사가 결합한 구성 뒤에 ‘ㄴ/ㄷ’이 후행한 ‘ㄴ 1 失 ㄴ/ㄴ 1 失 ㄷ’, ‘ㄴ 尸 失 ㄷ’를 (3마, 바, 사)에서 볼 수 있다. (3아)의 ‘ㄴ 1 丁’는 ‘ㄴ 1 失 ㄴ/ㄴ 1 失 ㄷ’와 동일한 구성인데 (3아)와 같이 나타날 때도 있다. (3자)의 ‘ㄴ 尸 丁’는 ‘ㄴ 尸 失 ㄷ’와 동일한 구성이다.

- (3) 가. 或 刀 有 ㄴ 1 眼 無 七 1 二 : 或 刀 有 ㄴ 1 耳 無 七 1 二 : (또 있다, 눈 없는 이가. 또 있다, 귀 없는 이가.) <화소15:18>
- 나. 亦ッ 1 法 七 光 明 乙 以 ㄷ 而 ム 法 乙 演 說 ノ 尸 ム 窮 盡 尸 無 二 ㄹ ナ ム : {有} 疲 倦 乙 生 二 尸 不 ヲ ㄴ 七 七 1 (또한 법의 광명을 써 법을 연설하되 다함이 없게 하나 실증을 내지 않는다.) <화소25:20-26:01>
- 다. 又 二 法 有 七 1 {於} 現 觀 乙 修 ノ 今 十 極 障 導 二 尸 {爲} 入 乙 ヲ ナ ム (또 두 법이 있다. 현관을 닦는 데에 극히 장애가 되는 것이.) <유가24:10>
- 라. 若 七 有 ㄴ 1 菩 薩 二 初 七 ㄴ 發 心 ヲ ㄷ 誓 二 ㄹ 求 ヲ ㄷ ㄴ 當 ハ 佛 菩 提 乙 證 ヲ 七 ㄴ ナ ム : (만약 있다,菩薩이 비로소發心하여 맹세하며 구하여서 반드시 부처님의菩提를證得하고자 하는 것이.) <화엄09:04>
- 마. 或 刀 有 ㄴ 1 刹 土 二 佛 失 無 而 ㄹ 1 失 ㄴ : {有} {於} 彼 二 十 1 正 覺 成 ト ㄹ 1 入 乙 示 現 ヲ ㄴ ㄹ (혹 있다,刹土가 부처 없는 것이. 거기에는正覺을 이룬 것을 보이며) <화엄14:15>
- 바. 彼 一 1 塵 乙 ム ハ 內 ㄷ 七 衆 1 多 二 1 刹 1 或 刀 有 ㄴ 1 佛 失 有 ㄴ ハ 而 ㄹ 1 失 ㄷ : 或 ㄴ 1 佛 失 無 而 ㄹ 1 失 ㄷ : (저 하나는 티끌로부터 안의 많은刹土는 혹 있다, 부처님이 계신 것이. 혹 있다, 부처님이 없으신 것이.) <화엄14:15>
- 사. 或 刀 有 ㄴ 1 國 土 二 法 乙 知 尸 不 ヲ ㄴ 尸 失 ㄷ : {於} 彼 二 十 1 {爲} ㄷ ㄹ 妙 法 藏

乙 説口モヲカ(혹 있다, 國土가 法과 같지 않은 것이. 거기에는 (중생을) 위해 묘한 法藏을 이룰 것이며) <화엄14:16>

아. 當ハ 知リ 即チ 此 解脫圓滿ト 無餘依涅槃界ト {以}ニ 而ニ 上首 {爲}ニ ヲリ 下ニ (반드시 알아야 한다, 곧 이 해탈원만은 무여의열반계로써 으뜸을 삼는 것이다.) <유가 05:16-17>

자. 時ト 波斯匿王ト 言ニ 善ニ 事ト 大事セ 因緣ニ 故ノ ヲ 示ス 事ト 示ス (때에 波斯匿王은 이르시되 훌륭하시다. 큰 일의 인연으로 하신 것이구나 하고) <구인03:20>

차. 善男子 是ニ 名ト 菩薩摩訶薩ニ 羼提波羅蜜ト 成就ス 事ト 示ス (선남자여, 이것을 일컬어 菩薩摩訶薩이 羼提波羅蜜을 성취함이라고 하는 것이다.) <금광03:09-10>

(2)와 (3)을 통해서 ‘-ㅅ/ㅈ’에 선행하는 요소들이 대체로 명사 또는 명사구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南豐鉉 1996가, 1996나, 1996다, 장윤희 1998/2002, 황선엽 2002, 박진호 2005, 박진호 2015, 김지오 2012, 전기량 2017, 남풍현 2018, 전기량 2018, 전기량 2020 등)에서 자토석독구결의 ‘-ㅅ/ㅈ’을 ‘조사’로 이해하였다.

2.2. ‘-ㅅ/ㅈ’ 선행요소들의 분석 문제

남풍현(2018)과 전기량(2018)에서 ‘-ㅅ/ㅈ’을 각각 ‘서술격 조사’와 ‘서술 보조사’로⁴⁾ 파악한 것에 대해서 이병기(2019)에서는 ‘-ㅅ/ㅈ’가 조사와 어미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음을 논의하면서 ‘-ㅅ/ㅈ’을 ‘어미류’로 이해하였다(이병기 2019: 106). 이병기(2019)에서 ‘-ㅅ/ㅈ’ 조사와 어미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3)에 제시한 ‘- 1 ㅅ/ㅈ’, ‘- ㅍ ㅅ/ㅈ’, ‘- ㅅ ㅅ/ㅈ’, ‘- 1 ㅈ/ㅈ’가 의존명사가 아닌 서술격 조사(계사)가 결합한 형태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병기(2019)에서는 동명사 어미 ‘- 1’과 ‘- ㅍ’ 뿐만 아니라 ‘- ㅅ’와 ‘- ㅈ’도 동명사 어미로 이해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자토석독구결의 자료의 ‘-ㅅ/ㅈ’의 용례를 검토하다보면 ‘- ㅍ ㅅ’는 <금광>, <유가>에, ‘- ㅍ ㅈ’는 <구인>에 분포하는 한편, ‘- ㅅ ㅅ’는 <화소>, <화엄>, <자비>에만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화소>, <화엄>, <자비>에서는 ‘- 1 ㅅ’와 ‘- ㅅ ㅅ’가 계열 관계를 보이므로 ‘- 1’, ‘- ㅍ’, ‘- ㅅ’가 같은 문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추정한다(이병기 2019: 108). 또한 ‘1 ㅈ’ 구조에 대해서도 ‘동명사어미+의존명사’ 구성이 아닌 ‘동명사 어미+서술격 조사’ 또는 ‘동명사 어미+주격 조사’의 결합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ㅅ’에 대해서도 그동안 ‘동명사 어미 ㅍ+의존명사 ㅈ’ 구성으로 당연하게 분석해 오던 것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ㅅ/ㅈ’의 문법적 지위에 대해서도 재고의 여지가 있게 된 것이다.

(4) 가. 即チ 此 十種セ 生圓滿ト 名ト 修瑜伽處所ト (곧 이 열 가지의 생원만을 일컬어 유가를 닦는 처소[修瑜伽處所]라 하는 것이니,) <유가03:19-20>

4) 이병기(2019: 106)에서는 전기량(2018)에서 ‘-ㅅ/ㅈ’의 문법적 지위를 조사로 파악하고 ‘서술격 조사’로 명명하였다고 하였으나, 전기량(2018: 28-30)에서는 남풍현(2018)의 ‘서술격 조사’라는 용어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고 ‘-ㅅ/ㅈ’를 ‘서술 보조사’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하였다.

나. 少セツ 方便乙 以う 一切 法乙 了ノルム 自然 明達^{ソナヘ} 他乙 由[三] 悟ル 不^レソナヘ (조그마한 方便으로써 一切 法을 알되, 自然히 명확하게 아는 것이지 남으로 말미암아 깨닫지 않으며,) <화소19:10-11>

이병기(2019)에 따르면 (4)와 같은 예문에서 (4나)의 ‘ㅅ’가 ‘동명사 어미+의존명사’의 구성으로 파악되었던 것은 해당 내용에서 지시적인 명사의 의미가 파악되었기 때문인데, 동명사 어미 자체적으로도 지시적인 명사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과, ‘ㅅ’과 ‘ㅅ’가 의미적, 기능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에서 ‘ㅅ’가 ‘동명사 어미+의존명사’로 볼 수 없으며 적어도 ‘동명사 어미+서술격 조사’의 결합으로 볼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지적대로라면 ‘-ㅅ:’는 ‘동명사 어미+의존명사’ 구성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ㅅ:/:’가 결합한 선행 요소가 더 이상 명사라고 볼 수 없게 된다. (3)에 제시한 ‘-ㅅ:/:’의 분포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3마-사)의 ‘-ㄱ ㅏ-:’, ‘-ㅍ ㅏ-’에 대한 문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남풍현(2018)에서는 이때의 ‘ㅏ’에 대하여 강조의 의미를 지니는 의존명사라고 설명하였는데 이병기(2019)에서는 이때의 ‘ㅏ’를 ‘의존명사 ㅏ+서술격 조사(계사)’가 결합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이병기(2019: 111, 각주 32)에서는 ‘ㅏ’가 명사적인 성격과 동사적인 성격이 모두 있음을 언급하면서 ‘ㅏ’가 갖는 동사적인 성격은 서술격 조사와의 결합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ㅏ’뒤에 ‘-ㅏ’나 ‘-ㅓ’와 같은 조사가 결합한 것을 보면 명사적인 성격은 의존명사를 따로 상정하거나 어미 및 조사의 구분을 아예 하지 않는 한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분포적인 면에서 명사적인 쓰임의 예가 동사적인 쓰임에 비해 그 예가 소수이지만 (5가, 5나)와 같이 ‘ㅏ’에 후행하는 ‘-ㅏ’나 (5다)와 같이 ‘-ㅓ’ 등이 결합한 예를 볼 때 ‘ㅏ’의 명사적 성격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5) 가. 乃ッシ 盡命ッ尸矢十 至リッ乃 亦ッ一 悵ノ尸 所ヲ 無セリノ^ニ應セッ一リヲ
 セッソナ^ニセ^リ (그런 것들(에서) 목숨을 다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하여도 또한
 아끼는 바 없이 해야 하는 것이다 한다.) <화소10:12-13>

나. 跏趺坐乙 捨ッホ 1 1 + 1 當 願 衆生 諸 1 行法ヲ 悉ク 散滅ノ 尸矢十 歸ノ尸
入乙 觀ッヒ 立(跏趺坐를 풀 경우에는 반드시 원하기를 衆生은 모든 行法이 다
散滅 하는 것에 돌아가는 것을 觀하소서 (할 것이며)) <화엄04:03>

다. 幻師リ 幻法乙 見^ル矢セッ^コ 諦 實^ニッ^ロ 卽^チ 皆セ 無^ク 1^リ 3^セ 1^ッ 尸^入
乙(幻師가 幻法을 보듯이 諦實로 하니 곧 모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구인
15:09_1>

또한 ‘矣’의 명사적 성격은 (6)에서도 알 수 있다. (6)은 ‘NP1이 (비유하면) NP2와 같다’의 구조를 보이는 구문이다. 동명사 어미 뒤에 ‘矣’가 쓰이고 그 뒤에 아무 것도 쓰이지 않았다. (6가)는 ‘본래 스스로 들인 것’인 NP1과 ‘소의 두 뿔’이라는 NP2가 같다는 것인데 이때 ‘矣’가 주격 조사가 생략된 채 쓰인 것임을 알 수 있다.

(6) 가. 有人 無_人 1 本_木 1 自_己 二_リ 1 矢_矢 譬_入 1 牛_牛 二_リ 角_角 {若_若} 1 ッ_ッ か (有와 無는 본래 스스로 둘인 것이 비유하면 소의 두 뿔과 같으며) <구인15:03>

나. 世間 1 一か 異ッ 1 不 矢リ 1 矢 譬入 1 空谷 ヲセ 響 如 ヌッ (世間은 하나이며 다르지 않은 것이, 비유하면 空谷의 메아리 같아.) <금광13:14-15>

다. 一切 世間세간에 衆많은 苦患고환은 深깊고 廣넓고 하여서 無없는 것이 大海대해 같거늘)
 <화엄18:12>

라. 皆₇ {是}₄ 假誑₇ 空₃ 花 {如}₁ (모두 이는 거짓으로 되어 있는 것이 공중에 있는 꽃과 같은 것이므로,) <구인14:12-13>

전술하였듯이 이병기(2019)에서 ‘ㄱ, ㄴ, ㅅ’가 같은 문법적 지위임을 추정하는 근거 중의 하나는 문헌의 상보적 분포이다. 구체적으로 ‘-ㄴ’은 <금광>, <유가>에, ‘-ㄴ’은 <구인>에 분포하고, ‘-ㅅ’은 <화소>, <화엄>, <자비>에서만 확인된다는 점이다. 둘째, <화소>, <화엄>, <자비>에서 ‘-ㄱ’과 ‘-ㅅ’이 계열 관계를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화소>와 <화엄>에 ‘-ㄴ’은 단 한 차례도 확인되지 않고 ‘-ㅅ’이 계속 확인된다는 점이었다. 그런데 ‘-ㅅ’과 유사한 의미로 쓰이는 것에 ‘-ㄱ’도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7) 가. 亦ッ1 {於}彼ヲ+ 而… 善根乙 退ル 不ッカ 常リ 勤セ 修行ノ尸ム 曾ハテカ
廢捨ル 未ッナ^{ホミ} 但ハ 彼 境界乙 因[三] ヲハ 衆生乙 攝取ッ[欲]人 爲[三]
イ 眞實乙 說ッヨハ 佛法乙 成熟 令リナ^{ホカ} (또한 저기에서 선근을 물리지
않으며, 항상 부지런히 수행하여 조금도 버리지 않을 것이나, 다만 저 경계로
말미암아 중생을 섭취하고자 (이들을) 위하여 진실을 말하여서 불법을 성숙하
게 할 것이며,) <화소13:16-19>

나. 唯ハ 涅槃^ニ {以}シ 而… 上首 {爲}シ^テ 唯ハ 涅槃^ヲ 求^フ 唯ハ 涅槃^ヲ 緣
 ヲ^{ツキ} 而… 法^ヲ 聽聞^ス 殊^ニ 下 他^ヲ 引^ク {於}己^ノ 信^ヲ {令}リ
 {爲}ム^{コト} 不^レ冬^カ 利養^ニ 恭敬^ニ 稱譽^ニ ノ^ヲ 爲^ス 邑^ノ 不^レ冬^カ
 殊^ニ (오직 열반으로써 으뜸[上首]을 삼고, 오직 열반을 구하고, 오직 열반을
 연하고 하여 법을 자세히 듣는 것이니, 남을 이끌어 자기를 믿게 하려고 하지
 않고, 이양(利養)이니 공경이니 칭찬[稱譽]이니 하는 것을 위하려고 하지 않고
 하는 것이다.) <유가04:17-19>

(7가)의 ‘-ㅅ:’는 배경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의미는 (7나)의 ‘-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김지오(2012)에서는 ‘-ㅅ:/:’, ‘-ㅅ:/:’에 대해 절 접속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이들 형태의 의존명사 삽입형으로 ‘-ㅅ:’와 ‘-ㅅ’를 다루었다. 김지오(2012: 233-236)에서는 ‘-ㅅ:’가 ‘-ㅅ’와 마찬가지로 ‘-ㅅ:’, ‘-ㅅ’와 동일한 기능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ㅅ:’의 ‘ㅅ’도 ‘동명사 어미+의존명사’로 분석되어야 할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지적대로 ‘-ㅅ:’와 유사한 구성을 가지는 다른 형태와의 비교를 통해 분석이 이루어 진다면 ‘동명사 어미+의존명사’의 분석이 더욱 자연스럽다.

2.3. 문법적 지위

그렇다면 ‘-ㅏ/ㅑ’의 문법적 지위는 조사가 아닌 것일까? 이병기(2019)에서 말한 ‘어미류’라는 표현은 조사와 어미의 성격을 모두 가진 것이되, 어미의 성격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조사와 구분하는 차원에서 이르는 것이었다. 하지만 ‘ㄴ/ᄃ’가 어미의 성격보다는 조사의 성격이 더 강하다는 점에서는 조사로 그 지위를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며, 조사 중에서도 보조사가 선행 성분으로 체언 및 조사, 어미 등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조사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설명력이 좋다고 생각한다.

(8) 가. 아기가 눈도 코도 다 예쁘다.

나. 나이 삼십에 집도 있고 차도 있다.

다. 내년에도 또 놀러 오렴.

라. 오늘까지 어려우시면 내일까지도 괜찮습니다.

마. 고구마는 구워도 먹고 삶아도 먹는다.

바. 집 앞까지 갔다가도 그냥 왔지요.

국어사적으로 ‘ㄴ/ᄃ’와 유사한 성격을 보이는 문법 요소로는 의문문에 쓰이는 ‘-가’, ‘-고’ 등의 의문 보조사도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

(9) 가. 佛子 云何^ᄃ 用心^ᄃ 能^ᄃ 一切 勝妙功德^ᄃ 獲^ᄃ 乎^ᄃ (佛子여 어떻게 마음 쓰는 경우에 能히 一切 勝妙功德을 얻는다 합니까 하는 경우에) <화엄 02:17-18>

나. 何^ᄃ 云何^ᄃ {者} {爲} 五^ᄃ 行^ᄃ 十^ᄃ 方^ᄃ 諸^ᄃ 如來^ᄃ 一切 菩薩^ᄃ 離 不^ᄃ 而^ᄃ 諸^ᄃ 法^ᄃ 相^ᄃ 行^ᄃ 乎^ᄃ (어떠한 것을 다섯 가지라고 하느냐 하면,) <금광02:22>

다. 云何^ᄃ 十方^ᄃ 諸^ᄃ 如來^ᄃ 一切 菩薩^ᄃ 離 不^ᄃ 而^ᄃ 諸^ᄃ 法^ᄃ 相^ᄃ 行^ᄃ 乎^ᄃ (어찌 十方의 모든 如來이니 一切 菩薩이니 하는 이가 文字를 여의지 않고 모든 法相에 行하신다 합니까?) <구인 15:21-22>

라. 世尊^ᄃ 一切 菩薩^ᄃ 云何^ᄃ 佛果^ᄃ 護^ᄃ 十^ᄃ 地^ᄃ 行^ᄃ 乎^ᄃ (世尊이시여, 一切 菩薩은 어떠한 것을 佛果를 지키며, 어떠한 것을 十地의 行을 지킬 因緣이라고 하겠습니까?) <구인 03:22-23>

마. 爾^ᄃ 時^ᄃ 波斯匿王^ᄃ 言^ᄃ 第一義^ᄃ 中^ᄃ 世諦^ᄃ 有^ᄃ 乎^ᄃ (그때에 波斯匿王은 이르시기를, 第一義의 가운데에 世諦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까?) <구인14:18>

바. 何^ᄃ 法^ᄃ 最^ᄃ 初^ᄃ 在^ᄃ 何^ᄃ 法^ᄃ 最^ᄃ 後^ᄃ 在^ᄃ 乎^ᄃ (어느 법이 가장 처음에 있으며, 어느 법이 가장 뒤에 있겠는가 하는 것과) <화소08:03>

사. 二 非^ᄃ 得^ᄃ 乎^ᄃ 何^ᄃ 得^ᄃ 乎^ᄃ (둘 아닌 것이라면 어찌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까닭으로) <구인15:05_2>

아. 何^ᄃ {於} 此^ᄃ 而^ᄃ 慈忍^ᄃ 生^ᄃ 容^ᄃ 乎^ᄃ (어찌 이들에게 자비와 인내를 베풀 수 있겠는가 한다 하셨다) <자비21:20-21>

자. 彼^ᄃ 正法^ᄃ 受用^ᄃ 而^ᄃ 轉^ᄃ 知^ᄃ 恐^ᄃ 資緣^ᄃ 乏^ᄃ 是^ᄃ 如^ᄃ 所^ᄃ 受^ᄃ 正法^ᄃ 退失^ᄃ 乎^ᄃ ((그들은) 그가 정법을 수용하여서 전하는 줄을 알아, 두려워하는 바는(/두려워하기를) ‘자연이 모자라서 이

와 같은 받은 바 정법을 잃을 것인가?’ 하는 까닭으로,) <유가03:15-17>

(9)는 자토석독구결 자료의 의문문의 예이다. (9가, 나)의 ‘-ㅅㅁ’, (9다, 라)의 ‘-ㅅㅅ’, (9마) ‘-ㅅㅅ’는 ‘ㅅ’에 의문 보조사 ‘-ㅁ’, ‘-ㅅ’, ‘-ㅅ’ 등이 결합한 것이다. 이때 ‘-ㅅㅅ’의 ‘아’는 ‘리’ 뒤에서 ‘ㄱ’이 약화되어 ‘가’가 ‘아’로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장윤희 2002). (9바)의 ‘-ㅅㅅㅁ’는 청자높임의 기능을 하는 어미 ‘-ㅅㅅ’에 ‘-ㅁ’가 결합한 것이다. (9사, 9아)의 ‘-ㅅㅁ’는 동명사어미에 의문 보조사 ‘-ㅁ’가 결합한 것으로 당시에 하나의 어미로 굳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장윤희 2002: 80), 고은숙(2011: 90)에서는 (9자)의 ‘-ㅅㅅ’ 역시 당시에 하나의 어미로 굳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9)를 통해 의문 보조사 ‘-가’, ‘-고’ 등의 분포 양상도 ‘-ㅅ/ㅅ’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동명사 어미에 직접 후행하거나, 동명사어미+의존명사 구성에 후행하거나 또는 어미에 후행하는 등 조사와 어미의 성격을 모두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10)에서 보듯이 15세기 한글 자료에서도 이러한 양상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다.

(10) 가. 이 썻리 너희 중가 이 두 사르미 眞實로 네 항것가 <1459월인석보 8:94b>

나. 이는 賞가 罰안 <1467몽산범어약록언해,53b>

다. 尊者 | 엇데 期約애 그르 히시^느니잇고 尊者 | 무로되 므슴 期約애 그르히^느뇨(魔言. 尊者. 云何違於言要. 尊者問言. 違何言要。) <1459월인석보 4:35ab>

다만 (9)와 (10)에 쓰인 의문 보조사는 점차 어미화하여 체언 뒤에 바로 결합하여 의문을 나타내는 형식으로는 더이상 쓰이지 않게 되었지만 반면, ‘-여’의 경우는 명사를 나열하는 조사로 쓰이는 등 아직 명사구를 선행 요소로 요구하는 일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는 조사와 어미의 성격을 모두 가지는 문법 요소들의 각기 다른 변화 양상인 것이므로 변화의 결과까지 동일해야 하는 필연성은 요구되지 않아도 된다. 그 변화의 결과가 상이하다고 해서 적어도 문법적 지위에 있어서 두 문법 요소간의 관련성에 대한 비교를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3. ‘-ㅅ/ㅅ’ 용법

3.1. 종결과 연결의 ‘-ㅅ/ㅅ’

3.1.1. 종결의 ‘-ㅅ/ㅅ’

‘-ㅅ/ㅅ’의 의미·기능에 대한 논의는 후기 중세 한국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까지 포함하여 李賢熙(1982), 李弼榮(1986), 허용(1975), 장윤희(1998/2002), 정재영(2002), 이탁(2002), 박진호(2005), 전기량(2017), 남풍현(2018), 전기량(2018), 전기량(2020)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여’는 감탄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주로 논의되었으나(李賢熙 1982, 허용 1975, 이탁 2002, 장윤희1998/2002), 박진호(2005), 전기량(2017)에서는 ‘-여’가 감탄의 의미를 지녔다고 보면 설명할 수 없는 용법들이 있어서 그 자체를 감탄의 의미만으로 파악

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남풍현(2018)에서도 ‘ㄴ/ᄃ’를 ‘서술격 조사’로 이해하였으며, 전기량(2020)에서는 ‘ㄴ/ᄃ’과 ‘-ㅣ’를 비교하여 ‘ㄴ/ᄃ’에 ‘-ㅣ’와 같은 서술-종결의 기능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먼저 ‘ㄴ/ᄃ’의 대표적인 용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 가. 次第^ㄴ居士^ㄴ寶^ᄃ蓋^ᄃ法^ᄃ淨名^ᄃ等^ᄃ八百人^ᄃ問^ᄃニカ
(차례로居士이신寶라蓋라法이라淨名이라 하는 것과 같으신八百人에게 물으시며) <구인03:01-02>

나. {是}ᄃ乙 名^ᄃ下 無記法^ᄃノネナ^ᄃㅣ(이것을 이름하여 無記法이라고 한다.) <화소 08:18-19>

다. 佛子^ᄃ云何^ᄃセ^ᄃ乙 菩薩^ᄃ分減施^ᄃノ々ロ{爲}ᄃナネ^ᄃ入^ᄃㅣ(불자야, 어떠한 것을 보살의 分減施라고 하는가 하면) <화소09:09>

라. 彼^ᄃ一^ᄃ塵^ᄃ乙^ᄃハ 内^ᄃヲセ 衆^ᄃ多^ᄃ一^ᄃ刹^ᄃ或^ᄃ刀有^ᄃナ^ᄃㅣ佛^ᄃ有^ᄃナハ^ᄃ而^ᄃイ^ᄃ一^ᄃ矢^ᄃᄃ或^ᄃナ^ᄃㅣ佛^ᄃ無^ᄃ而^ᄃイ^ᄃ一^ᄃ矢^ᄃᄃ(저 하나는 티끌로부터 안의 많은刹土는 혹 있다, 부처님이 계신 것이. 혹 있다, 부처님이 없으신 것이.) <화엄15:10>

마. 當^ᄃハ 知^ᄃイ^ᄃㅣ 卽^ᄃ此 解脫圓滿^ᄃ一 无餘依涅槃界^ᄃ乙 {以}ᄃᄃ而^ᄃ上^ᄃ首 {爲}ᄃᄃ乙^ᄃ一^ᄃᄃ(반드시 알아야 한다, 곧 이 해탈원만은 무여의열반계로써 으뜸을 삼는 것인 줄을.) <유가05:16-17>

바. 一切法^ᄃ空^ᄃ一^ᄃ入^ᄃ乙 {以}ᄃᄃᄃ故^ᄃノ 空^ᄃ刀 空^ᄃナ^ᄃㅣ 何以故^ᄃ入^ᄃ一 般若^ᄃ一 無相^ᄃᄃᄃ二諦^ᄃ一 虛^ᄃᄃᄃ空^ᄃᄃᄃᄃ一^ᄃᄃᄃ(一切法 空한 것을 말미암은 까닭으로 空도 空하다. 어떤 까닭이나 하면,般若는 無相하며 二諦는 虛이고 空이고 하며 한 까닭으로이다.) <구인15:14-15>

사. 善^ᄃ而^ᄃ一^ᄃ{哉}ᄃᄃ仁者^ᄃ諦^ᄃ聽^ᄃ而^ᄃᄃᄃ應^ᄃセ^ᄃナ^ᄃㅣ(훌륭하십니다/하시군요, 그대여. 자 세히 들으시오.) <화엄 09:02>

아. 善^ᄃナ^ᄃ一{哉}ᄃᄃ佛子^ᄃᄃ(좋습니다, 불자여.) <화엄02:10-11>

자. 佛子^ᄃ菩薩^ᄃ一云何^ᄃセ^ᄃᄃᄃ無過失身語意業^ᄃ乙 得^ᄃカ云何^ᄃセ^ᄃᄃᄃ不害身語意業^ᄃ乙 得^ᄃカ(佛子여菩薩은 어떻게 (하여야) 無過失身語意業을 얻으며, 어떻게 (하여야) 不害身語意業을 얻으며,) <화엄01:04-06>

차. 則 能 衆^ᄃヲ {爲}ᄃᄃ說法^ᄃᄃᄃセ 時^ᄃᄃᄃ音聲^ᄃᄃ類^ᄃ乙 隨^ᄃイ^ᄃノ^ᄃム 難^ᄃᄃᄃ思議^ᄃノ^ᄃヲ^ᄃモ^ᄃヲ^ᄃカ (곧 能히 衆生을 위해 說法하는 때에 音聲이 部類를 좇되 어렵게야 思議할 것이며)<화엄13:14>

(11)에서 보듯이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 ‘ㄴ/ᄃ’의 용법은 매우 다양하다. ‘ㄴ/ᄃ’는 (11가)와 같이 명사구를 나열할 때 쓰이고, (11나), (11다)에서 보듯이 대상을 이름 짓거나 대상에 대해 설명할 때에도 ‘ㄴ/ᄃ’가 쓰인다. (11라-아)에 쓰인 ‘ㄴ/ᄃ’의 용법은 도치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11라)는 용언의 주어가 도치된 것이고, (11마)는 목적어가 후치된 예이다. (11바)와 같이 명제에 대한 이유가 도치될 때에도 ‘ㄴ/ᄃ’이 문장의 맨 끝에 붙어 쓰인다. 감탄의 의미가 분명히 파악되는 경우 (11사, 아)처럼 ‘-ㅣ’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용언 어간은 모두 ‘善’이다. ‘VP^ᄃㅣ’의 뒤에는 모두 ‘NP^ᄃ’가 후행하는데 전기량(2017/2018)에서는 이때의 NP는 부름의 대상으로 ‘VP^ᄃㅣ’에 해당하는 논항이 도치된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11자)는 15세기의 ‘엇더’와 관련이 있는 형태이다. 이때의 ‘ㄴ/ᄃ’

은 주로 ‘(云)何’의 뒤에 분포하는 것으로 흔히 말음첨기라 이해해 왔던 것이다. 남풍현(2018: 57)에서는 (11차)의 ‘云何_ㄷ ㄷ’의 구조는 의문사 ‘云何’를 체언으로 하고 여기에 ‘-ㄷ/ㄷ’가 결합한 것에 보조사 ‘-ㄷ’가 첨가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11차)는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체언 뒤에 ‘-ㄷ/ㄷ’가 결합하여 처소를 나타내는 조사로 쓰인 것이다. ‘時_ㄷ’와 유사한 ‘上_ㄷ’의 예가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 확인된다.⁵⁾

우선 ‘-ㄷ/ㄷ’가 서술·종결의 기능을 보이는 용법들을 다시 확인해 보자. (12)는 문장을 종결하는 데 쓰인 ‘-ㄷ/ㄷ’의 예이다.

(12) 가. 當ハ 知_ㄷ 亦 思修所成_ㄷ 若 知_ㄷ 若 見_ㄷ 清淨_ㄷ 而 轉_ㄷ {令} ㄷ ㄷ (반드시 알아야 한다, 또 사수소성의 지와 견과를 청정히 전하게 하는 것이다.) <유가12:17-18>

나. 生_ㄷ 含_ㄷ 生_ㄷ 妙報_ㄷ 受_ㄷ 生_ㄷ (生을 함하는 生은 妙報를 받는 것이다.) <구인11:12>

다. 又 此 正法_ㄷ 住_ㄷ 者_ㄷ {於} 无戲論涅槃界_ㄷ 中_ㄷ 心 樂_ㄷ 安住_ㄷ 證得_ㄷ 樂欲_ㄷ (또 이 올바른 법에 머무는 자는 무희론열반계 가운데 마음 즐겁게 안주하여서 증득하는 것을 바란다.) <유가20:17-18>

라. {此} 菩薩_ㄷ 深智慧_ㄷ {有} 實相_ㄷ 了知_ㄷ 廣_ㄷ 衆生_ㄷ {爲} [三] 諸_ㄷ 法_ㄷ 演說_ㄷ 一切 諸_ㄷ 佛_ㄷ 經典_ㄷ 違_ㄷ 不_ㄷ (이 보살은 깊은 지혜를 지녀서 實相을 了知하여 널리 중생을 위하여 모든 법을 연설하되 일체 모든 부처의 경전에 어긋나지 않는다.) <화소24:18-19>

마. 亦 憂慮_ㄷ 謂_ㄷ 我_ㄷ 今_ㄷ {者} {爲} 何 所_ㄷ 在_ㄷ 无_ㄷ 事_ㄷ {令} ㄷ ㄷ (또 우려하여서 이르기를 ‘나의 나는 지금 어느 곳에 있는 것인가?’ 함이 없이 하고 하게 하는 것이다.) <유가22:22-23>

바. 何以故_ㄷ 般若_ㄷ 無相_ㄷ 二諦_ㄷ 虛_ㄷ 空_ㄷ 一_ㄷ 故_ㄷ (어떤 까닭이나 하면, 般若는 無相하며 二諦는 虛이고 空이고 하며 한 까닭으로이다.) <구인15:14-15>

사. 定心 中_ㄷ 慧_ㄷ {於} 所知_ㄷ 境_ㄷ 清淨_ㄷ 轉_ㄷ 故_ㄷ (정심 가운데 있는 혜가 소지의 경계에서 청정하게 전(轉)하는 까닭에서이다.) <유가06:16-17>

(12가)에서 보듯이 ‘-ㄷ/ㄷ’는 ‘- ㄷ ㄷ’의 형태로 문장을 서술·종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2나, 12다)와 같이 ‘- ㄷ ㄷ, - ㄷ ㄷ’의 모습으로 문장을 종결하기도 한다. (12라, 마)의 ‘- ㄷ ㄷ’, ‘ㄷ ㄷ’ 역시 마찬가지이다. (12바, 사)는 ‘- ㄷ ㄷ ㄷ/ㄷ’의 모습으로 쓰여 이유나 까닭을 나타낼 때 쓰이기도 한다. 문장을 종결하는 것은 동일하다. ‘-ㄷ/ㄷ’의 이러한 서술·종결의 기능은 상위문 외에 내포문 종결에도 쓰이는데 (13)과 같다.

5) 황선엽(2002: 48-49)에서는 후기 중세 한국어 자료에서 파악되는 처격 조사의 의미는 매우 다양하지만 이두나 자토 석독구결 자료에서는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외의 다른 의미를 찾기 매우 어렵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 기록적 성격이 강한 한문으로 된 불경 번역인 자토석독구결 자료의 특징으로 인한 것이라 하였는데, 실제로 자토석독구결에서 ‘-ㄷ/ㄷ’가 ‘-+’와 함께 처격 조사로 쓰인 예가 ‘時’, ‘上’ 등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는 매우 제한적인 표현 뒤에서만 일부 확인된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

(13) 가. 四+一 {於}惡業乙 現在+ 不作ッ尸入乙 卽_レ 彼乙 說_レ {爲}已_レ 清淨
乙 作ッ_レ 一丁ノヲ(넷째는 악업을 현재에 짓지 않는 것을, 곧 그것을 말하여
‘이미 청정을 지은 것이다’할 것이라,) <유가22:04-06>

나. 此 五相乙 由ッ尸入乙 當ハ 知_レ 是乙 名下 初處+ 觀察ッ尸丁ノヲ
一丁(이 다섯 상으로 말미암아 (관찰)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를 일
컬어 처음 처소[初處]에서 관찰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다.) <유가17:04-05>

(13가)의 밑줄 친 ‘一丁’는 [이미 청정을 짓-]에 결합하여 ‘이미 청정을 지은 것이다’라고 하여 내포문을 종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13나)의 ‘一尸丁’도 [처음 처소에서 관찰하-]에 결합하여 ‘처음 처소에서 관찰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내포문을 종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3)과 같은 구성을 흔히 명명 및 설명 구문이라 하는데 아래에서 예를 더 확인할 수 있다.

(14) 가. 是 如_レ 第五心_レ 上_レ 種種_レ 功德法藏_レ 猶_レ 滿足ッ尸 未_レ 是
乙 名下 禪波羅蜜_レ (이와 같이 第五 心이 위의 갖가지 功德法藏에 아
직 가득 차지 아니한 것, 이것을 일컬어 禪波羅蜜이라 하며) <금광
02:07-08>

나. {是}_レ 名下 無記法_レ (이것을 이름하여 無記法이라고 한다.) <화
소08:18-19>

다. 第二發心_一 可愛住_レ 三摩提_二 攝受ッ_一 得_レ 生ッ_一 (第二發心은
可愛住라 하는 三摩提가 攝受하는 까닭으로 능히 나며) <금광08:17-18>

라. 佛子_一 云何_二 菩薩_一 分減施_レ {爲}ッ_一 (불자야, 어
떠한 것을 보살의 分減施라고 하는가 하면) <화소09:09>

(14)에 쓰인 ‘ㄴ/ㄷ’은 인용 조사라도고 한다. 전기량(2017/2018, 2020)에서는 (14)의 ‘ㄴ/ㄷ’ 역시 (12), (13)과 같은 내포문 종결의 예로 이해하였다. (15)에서 (14)의 ‘ㄴ/ㄷ’의 자리에 대응하는 ‘ㄴ 一’의 예를 확인할 수 있다.

(15) 가. 云何ッ_一 名下 {爲}十種 過失_二 一_一 (어떤 것을 일컬어 열 가지 잘못
이라 하는가?) <유가30:15>

나. 大師圓滿_二 一_一 {者} ... {於}一切 境_二 得_レ 障導 無_二 一_一 (值)遇
ッ_一 (대사원만이라 하는 것은, ... 일체의 경계에서 능히 장애가 없으신 이
[=대사]를 만나는 것이다.) <유가02:19-23>

다. 云何ッ_一 得_レ 所_二 如_一 道_二 修習ッ_一 (어떤 것을 얻은
바와 같은 도를 닦아 익히는 것이라 하는가?) <유가28:23>

라. 何_二 {等} 一_一 法_二 壞_一 不_二 一_一 (어떤 법들이壞할 수
없다 하는가?) <화소18:20>

전기량(2018)에서는 ‘ㄴ/ㄷ’의 기능이 서술·종결에 있으며 종결어미 ‘ㄴ 一’와 나란히 비교할 만하다고 하였다. (14)와 (15)에서 보듯이 두 형태가 모두 내포문을 종결하고 인용 조

사의 용법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또한 뒤에서 확인하겠지만 이유절이 도치되는 경우에도 ‘-ㅓ/ᄃ’의 자리에 ‘-ㅣ’가 온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하면 ‘-ㅓ/ᄃ’와 ‘-ㅣ’가 평행한 형태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정확히는 이때의 ‘-ㅓ/ᄃ’에 대응하는 것은 계사의 활용형이라 할 수 있는 ‘-ㅓㅣ’ 또는 ‘-(ㅓ)ㅣ’이다.

‘-ㅓ/ᄃ’가 서술·종결의 기능을 하는 것은 계사와의 관련성 때문이다. ‘-ㅓ/ᄃ’가 선행어로 명사구를 요구하고, 서술성을 지니고 있으며, ‘-ㅣ’와 유사하게 이해되는 것은 ‘-ㅓ/ᄃ’가 계사와의 관련성이 매우 깊다는 것을 시사한다(전기량 2018: 14, 각주 5). 구체적으로는 계사 ‘-이-’와 어미 ‘-아/어’와의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주로 명사구를 요구하는 것과 서술성을 지니는 것은 계사 ‘-이-’와 좀 더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위치가 주로 문장의 종결 위치하고 후행 언어 표현을 연결하는 특징은 어미 ‘-아/어’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16)은 명사구를 나열하는 ‘-ㅓ/ᄃ’의 예이다. 남풍현(1996가, 2018)에서는 이때의 ‘-ㅓ/ᄃ’에 대해서 ‘-ㅓ/ᄃ’를 명사구를 접속하는 조사라고 하여 문장의 종결소로 기능하는 ‘-ㅓ/ᄃ’과는 별도의 것으로 이해했다.

(16) 가. 次第…居士ᄃᄃᄃ寶ᄃ蓋ᄃ法ᄃ淨名ᄃᄃᄃ等ᄃᄃᄃ八百人ᄃᄃᄃ問ᄃᄃᄃ
(차례로居士이신寶라蓋라法이라淨名이라 하는 것과 같은八百人에게 물으시며) <구인03:01-02>

나. 此 陀羅尼呪ᄃ誦持ᄃᄃᄃ白ᄃᄃᄃᄃᄃ得ᄃᄃᄃ一切 怖畏ᄃᄃᄃ一切 惡獸ᄃᄃᄃ一切 惡鬼ᄃᄃᄃ人非人 等ᄃᄃᄃᄃᄃ災橫ᄃᄃᄃ諸惱ᄃᄃᄃᄃᄃ度脫ᄃᄃᄃ五障ᄃᄃᄃ解脫ᄃᄃᄃ
(〔初地菩薩이〕 이 陀羅尼呪를 誦持하면 능히 一切 怖畏인 一切 惡獸니 一切 惡鬼니 人非人 등이니 災橫이니 모든 煩惱니 하는 것을 度脫하여 五障을 解脫하며 <금광09:08-10>

(16)의 ‘-ㅓ/ᄃ’의 자리에 나타나는 ‘-ㅣ’의 예를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17) 가. 謂ᄃᄃᄃ世間ᄃᄃᄃ有邊ᄃᄃᄃ世間ᄃᄃᄃ無邊ᄃᄃᄃ世間ᄃᄃᄃ亦有邊 亦無邊ᄃᄃᄃ世間ᄃᄃᄃ非有邊 非無邊ᄃᄃᄃᄃᄃᄃᄃᄃᄃ(이른바 世間은 有邊이다, 世間은 無邊이다, 世間은 亦有邊 亦無邊이다, 世間은 非有邊 非無邊이다 하는 것과) <화소 06:05-08>

나. 世間ᄃᄃᄃ有常ᄃᄃᄃ世間ᄃᄃᄃ無常ᄃᄃᄃ世間ᄃᄃᄃ亦有常 亦無常ᄃᄃᄃ世間ᄃᄃᄃ非有常 非無常ᄃᄃᄃᄃᄃᄃᄃᄃᄃ(世間은 有常이다, 世間은 無常이다, 世間은 亦有常 亦無常이다, 世間은 非有常 非無常이다 하는 것과) <화소06:12-16>

(16)의 명사구 나열 구문의 기본 구조는 ‘[NPㅓ/ᄃ NPㅓ/ᄃ]ㅓ-’이고, (17)의 구조는 ‘[VPㅣ VPㅣ]ㅓ-’로 모두 동사 ‘ㅓ-’가 후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7가, 나)의 ‘-다’를 평이하게 이해하는 방법은 내포문 종결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16)과 같이 명사구를 접속하는 조사라고 논의된 ‘-ㅓ/ᄃ’의 자리에 ‘-ㅣ’가 분포하는 예를 통해서 (17)의 ‘-다’ 역시 동사구를 접속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만약 이때의 (17)의 ‘-다’를 접속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본다면 다음의 예들에 쓰인 어미들도 접속의 기능을 해야 한다고 설명해야 할 것이다.

- (18) 가. 사람들 사이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면서 말들이 많다.
 나. 사람들 사이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하면서 말들이 많다.
 다.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말들이 많다.
 라.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면서 말들이 많다.

(18)에 쓰인 ‘-다, -냐, -라, -자’는 인용된 문장의 종결어미인 것이지 각 문장 안에서 접속의 기능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16)의 예를 다시 볼 필요가 있다. (16)은 명사구를 접속하는 조사로 논의된 ‘-ㅁ/;’의 예이다. (16)의 ‘-ㅁ/;’ 역시 앞에서 검토한 것처럼 내포문을 종결하는 기능을 하는 점, 인용 조사의 용법으로 쓰이는 점을 참고한다면 (16)의 ‘-ㅁ/;’도 내포문 종결을 하는 보조사로 해당 예문에서 명사구가 나열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명사구를 접속하는 조사 ‘-ㅁ/;’의 용법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하는 것일까? 다음의 설명을 통해 서술·종결의 기능을 하는 ‘-ㅁ/;’이 명사구를 나열하는 환경에서는 좀 더 명사구 접속으로 그 기능이 변화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ㅁ/ㅂ’의 자리에 ‘-ㅁ’가 분포하는 일 즉, 두 형태의 분포상의 동질성을 확인했다고 해서 (16)의 명사구 나열 구문과 (17)의 동사구 나열 구문의 성격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16)과 같은 명사구 나열 구문의 구조를 ‘[NPㅁ/ㅂ: NPㅁ/ㅂ:]ㅁ-’로, (17)과 같은 구문의 구조를 ‘[[NPㅁ VP] | [NPㅁ VP] |]ㅁ-’로 파악했을 때, (16)과 (17)의 차이는 후행하는 동사 ‘ㅁ-’에 있다. ‘[NPㅂ/ㅁ: NPㅂ/ㅁ:]ㅁ-’의 ‘ㅁ-’는 명사구 ‘NPㅂ: NPㅂ:’가 후행하는 아우름 명사구와 동격을 이루는 요소가 될 수 있으나, 후자의 ‘[VP | VP |]ㅁ-’의 ‘ㅁ-’는 선행 용언을 모두 아우르기보다는 공통된 일종의 화법동사로서 이들을 아울러 묶기 어려운 구성이다. 둘째, 전기량(2017/2018, 2020)에서는 명사구 나열 구문의 내적 구조를 ‘-ㅁ/ㅂ’가 단순히 NP를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NPㅁ/ㅂ:]ㅁ-]_{S1} + [[NPㅁ/ㅂ:]ㅁ-]_{S2}’로 접속한다고 이해하였다. 이에 본문의 (15가) ‘寶니 蓋니 法이니 淨名이니 하는 것’은 각각 ‘[寶라 하는 것]’, ‘[蓋라 하는 것]’, ‘[法이라 하는 것]’, ‘[淨名이라 하는 것]’이 접속된 구성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아래의 예 (19)를 보면 ‘[[NPㅁ/ㅂ:]ㅁ-]_{S1} + [[NPㅁ/ㅂ:]ㅁ-]_{S2}’라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 (19) 가. 云何ッ 1 乙 聞正法圓滿 11 / 今口 (어떤 것을 문정법원만이라고 하는가?)

<유가04:06>

나. 謂 1 若 正說法 2 若 正聞法 3 ノ今セ 二種乙 摠^ヲ 名下 聞正法圓滿^ノ 牙 1
(말하자면 바르게 법을 설하는 것과 바르게 법을 듣는 것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총괄하여 일컬어 문정법위만이라 한다.) <유가04:06-07>

(19나)는 (19가)에 대한 답변이다. (19가)에서 ‘-ㅏ/ㅑ’의 자리에 ‘-ㅓ’가 온 것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19나)의 답변에는 앞에서 설명한 명사구 나열 및 명명 구문을 모두 들어 있다. ‘어떤 것을 문정법원만이라고 하는가’에 대한 답변의 내용을 보면 ①바르게 법을 설하는 것 ②바르게 법을 듣는 것,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9나)를 ‘[[NPㅏ/ㅑ]ㅓ-]_{S1} + [[NPㅏ/ㅑ]ㅓ-]_{S2}’의 구조로 이해하면 문정법원만에 대해 알 수 없게 된다. 즉 [[바르게 법을 설하는 것]을 총괄하여 일컬]-+[[바르게 법을 듣는 것]을

총괄하여 일컫-]]의 구성이 되므로 바르지 못한 해석이 되는 것이다. 특히 ‘二種乙 摠々 名_ヲ’를 참고하면 S1과 S2를 각각 나누어 이해하기 보다는 명사구를 ‘-ㅏ/ㅑ:’가 접속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러한 예를 바탕으로 서술·종결의 기능을 하던 ‘-ㅏ/ㅑ:’가 명사구 나열 구문에서 명사구 접속을 하는 조사로 쓰인 것으로 해석해 볼 가능성이 있다.

3.1.2. 연결의 ‘-ㅏ/ㅑ:’

앞에서 ‘-ㅏ/ㅑ:’이 가진 종결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사실 ‘-ㅏ/ㅑ:’를 종결형으로만 이해하면 다음과 같은 예문의 해석은 어색한 경우가 생기게 된다.

- (20) 時_ナ 無色界セヨ₁ 量 無セ₁ 變ノ₁ヒセ 大香花乙 雨_リム 香₁ 車輪 {如} 1 ヲ₃ 花₁ 須彌山王 {如} 1 ヲ₃ 雲 {如} 1 ヲ₃ 而_ニ 下_リ ヲ₃ヒセカ(때에 無色界的 것들은 한이 없는 변화하는 大香花를 뿌리되 (그) 향은 車輪 같고 꽃은 須彌山王 같았는데 구름 같이 내렸으며) <구인02:14-15>

이와 관련하여 김지오(2019: 72-74)에서는 ‘-ㅏ/ㅑ:’가 연결과 종결의 경계를 공유하는 형태라고 논의하였다. 김지오(2012)에서는 ‘-ㅏ, ㅑ:’ 뒤에 접속사 ‘而’가 온다는 사실과 도치된 목적어절이나 주절 안에 ‘-ㅏ, ㅑ:’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통해 ‘동명사어미 -ㅏ/ㅑ:’와 결합한 ‘-ㅏ/ㅑ:’는 연결의 기능을 수행하는 형태임을 주장한 바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여3’은 연결과 종결의 두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형태임을 주장하였다(김지오 2019: 73).⁶⁾

전기량(2018)에서는 순접과 역접을 나타내는 이러한 형태들에 대해서 그 의미를 부정한 것은 아니나 서술·종결의 기능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김지오(2012)에서 논의한 대로 ‘-ㅏ, ㅑ:’가 특정한 환경에서 ① 배경 상황 제시, ② 설명 부연 ③ 대립 또는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면 ‘-ㅏ/ㅑ:’이 아닌 ‘-ㅏ, ㅑ:’의 의미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 (21) 가. 我_ヲ 身_ニ 財寶_ニ 及_テ 以_テ 王位_ニノ₁ 悉_ス {是} 1 1 無常_ニ 敗壞_ス 々₃ {之} 法_ニ 1 1 我₁ 今_ッ 1 盛壯_ッ 富_カ 1 1 天下_乙 {有} 4 1 乞者_ニ 現前_ッ 當_ハ 不堅_ッ 以_テ 而_ニ 堅_ッ 法_乙 求_ノ 1 1 (‘나의 몸이니 財寶니 및 王位니 하는 것은 다 이는 無常이라서 敗壞되는 법인데 나는 지금은 건장하며 부유함에 있어서는 천하를 가졌으며 乞者が 나타나며 하니 마땅히 견고하지 못한 것으로써 견고한 법을 구하겠다.’ 하며) <화소12:01-02>

나. 若_セ 世界_ニ 始_カ 成立_ッ 1 1 衆生₁ 資身_セ 具_乙 {有} 4 1 未_リ 1 1 見_コ 1 (만약 世界가 비로소 成立되니 衆生은 몸의 바탕을 가지지 않은 것을 보니) <화엄19:12>

6) 국어사적으로 연결과 종결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문법 요소가 그리 낮은 것은 아니다. 이용(2008)에서는 이두의 ‘-哉’, ‘-齋’, ‘-之와 석독구결 자료의 ‘-ㄹ’에 대해서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한편 남풍현(2018)에서는 명사구 나열 구문에서 ‘-ㅏ/ㅑ:’를 설명하면서 자토석독구결의 ‘-저’와 함께 비교하면서 ‘-여’와 그 양상이 유사함을 설명하였는데, ‘-ㄹ’에 ‘-ㅏ/ㅑ:’이 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다. 十方一切諸伎樂鐘鼓琴瑟ノ令一切類非¹悉¹和雅¹妙音聲¹奏¹ナ¹令¹(시방세계의 일체 모든 풍악과 종과 북과 거문고는 한가지 종류가 아닌데도 모두 조화로운 미묘한 소리를 내거늘)
<화엄15:24-16:01>
- 라. 善能¹一切衆生¹善根成熟¹ス¹亦¹一切衆生¹成熟¹ス¹ノ可¹セ¹者¹見¹不¹多¹々¹(능히一切衆生の善根을成熟시키나, 또한一切衆生이成熟시킬만한이(成熟시킬만한一切衆生)를보지않으며,) <금광14:18-19>
- 마. 菩薩¹成佛¹未¹リ¹時¹菩提¹以¹煩惱¹爲¹菩薩¹成佛¹未¹リ¹時¹煩惱¹以¹菩提¹爲¹(菩薩이成佛하지않은때에菩提를써煩惱삼지만菩薩이成佛한때에煩惱를써菩提삼는다.) <구인15:18-19>
- 바. 有爲¹迴向¹而¹著¹不¹著¹故¹(유위에 회향하나 집착하지 않는 까닭이며) <화소26:15-16>
- 사. 亦¹法¹光明¹以¹而¹法¹演說¹ノ窮盡¹無¹リ¹有¹疲倦¹生¹不¹著¹(또한 법의 광명을 써 법을 연설하되 다함이 없게 하나 싫증을 내지 않는다.) <화소25:20-26:01>
- 아. 是故¹於¹彼¹厭惡¹而¹住¹不¹厭惡¹非¹(이런 까닭으로 그것(=諸欲)에 대해 염오하면서 머무는 것이지, 염오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유가20:16-17>
- 자. 少¹方便¹以¹一切法¹了¹自然¹明達¹他¹由¹[三]¹悟¹不¹著¹(조그마한方便으로써一切法을알되,自然히 명확하게 아는 것이니 남으로 말미암아 깨닫지 않으며,) <화소19:10-11>

(21가, 나)는 ‘-ㄴ/ㄷ’가 배경 상황을 제시하는 일에 쓰인 것이다. (21다-사)는 양보의 의미를 나타낸 예이다. (21다)에서 ‘-ㄴ/ㄷ’, (21라, 21마)에서 ‘-ㄴ/ㄷ’, (21바, 21사)에서 ‘-스’의 예를 볼 수 있다. (21아, 자)는 선행절을 부정의 방식으로 부연 설명한 것인데 (21아)에서 ‘-ㄴ/ㄷ’, (21자)에서 ‘-스’를 볼 수 있다.

‘-ㄴ/ㄷ, -ㄴ/ㄷ’와 함께 ‘-스’와 ‘-ㄴ/ㄷ’, ‘-ㄴ/ㄷ’의 예를 비교해 보면, ‘-ㄴ/ㄷ’, ‘-ㄴ/ㄷ’는 종결어미로 쓰이는 일이 많고, ‘-ㄴ/ㄷ, -ㄴ/ㄷ’와 함께 ‘-스’는 연결어미로 쓰이는 일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연결어미의 기능은 동명사 어미만으로도 가능하기도 한 것이어서 절 접속의 기능이 ‘-ㄴ/ㄷ, -ㄴ/ㄷ, ‘-스’에서의 ‘-ㄴ/ㄷ’에서 온 것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발화의 내용이나 사유의 내용을 인용할 때 동명사 어미만으로도 쓰이는 일이 다음과 같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 (22) 가. 爾¹時¹佛¹大衆¹告¹十六大國王¹意¹國土¹護¹々¹因緣¹問¹欲¹ス¹ト¹知¹白¹ロ¹ミ¹乃¹(그때에佛은대중에게말씀하시기를“十六大國王이뜻에國土를수호할인연을묻고자하시는것을알고있다.그러나) <구인03:17-18>

나. 時¹波斯匿王¹言¹善¹リ¹大¹事¹因緣¹故¹ノ¹ト¹リ¹ト¹

기 어려우시니), <금광15:01>

3.2. 논항 도치의 '-ㅁ/ㅂ'

‘-ㅓ/ㅖ’의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바로 논항을 도치시킨다는 것이다. ‘-ㅓ/ㅖ’이 결합한 논항은 문장의 종결 위치에 나타난다.

- (23) 가. 一切法 空¹入^乙心^乙 {以}シ入^ニ 故^ノ 空^カ 空^ツナ¹ | 何以故入¹ 般若¹ 無相^{ツカ} 二諦¹ 虛^リ 空^リ 空^ツツ^カツ¹入^ニ (一切法 空한 것을 말미암은 까닭으로 空도 空하다. 어떤 까닭이나 하면, 般若는 無相하며 二諦는 虛이고 空이고 하며 한 까닭으로이다.) <구인 15:14-15>
- 나. 彼 一¹ 塵^乙 入^ニ 內^ニセ 衆¹ 多^リ 刹¹ 或^カ 有^ナ | 佛^矢 有^ナハ^ハ無^シ 矢^ニ 或^ナ | 佛^矢 無^シ 一¹ 矢^ニ (저 하나는 티끌로부터 안의 많은 刹土는 혹 있다, 부처님이 계신 것이. 혹 있다, 부처님이 없으신 것이.) <화엄 15:10>
- 다. 當^ハ 知^シ | 卽^シ 此 解脫圓滿¹ 無餘依涅槃界^乙 {以}シ 而^ニ 上首 {爲}シ^テ 一¹ (반드시 알아야 한다, 곧 이 해탈원만은 무여의열반계로써 으뜸을 삼는 것이다.) <유가 05:16-17>
- 라. 善^ハ 哉¹ {哉} | 仁者^ニ 諦^ニ 聽^ル 應^セツ^ナ | (훌륭하십니다/하시군요, 그대여. 자세히 들으시오.) <화엄 09:02>
- 마. 善^ナ 哉¹ {哉} | 佛子^ニ (좋습니다, 불자여.) <화엄 02:10-11>

명제에 대한 이유가 도치되었을 때에는 (23가)와 같이 이유에 해당하는 내용에 ‘-ㅓ/ㅖ’가 결합한다. (23나, 다)는 용언의 주어나 목적어가 후치되고, 도치된 논항에 ‘-ㅓ/ㅖ’가 결합한 예이다. 서술어가 ‘有’일 경우 주어에 해당하는 논항이, 서술어가 ‘知’일 경우 목적어에 해당하는 논항이 도치된 것이다. 감탄의 의미가 분명히 파악되는 경우 (2사, 아)처럼 ‘-ㅓ/ㅖ’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용언 어간은 모두 ‘善’이다.⁷⁾ ‘VP ㅓ/ㅖ’의 뒤에는 모두 ‘NP :’가 후행하는데 이때 NP는 부름의 대상으로 ‘VP ㅓ/ㅖ’에 해당하는 논항이 도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기량(2018)에서는 감탄 구문의 도치는 한문 원문의 ‘哉’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이유절이 도치된 구문의 예는 다음과 같다.

7) 南豊鉉(1996다: 24)에서는 ‘-ㅓㅓ’의 ‘ㅓ’에 쓰인 ‘여’는 평서법의 종결어미이나 억양에 따라 감탄의 뜻을 나타내게 된 것으로 보고 ‘-ㅓㅓ’에도 감탄의 뜻이 있다고 파악하였다. 반면 전기량(2018)에서는 ‘-ㅓㅓ’는 주로 도치 구문에 쓰이고, 감탄 구문에서는 ‘-ㅓㅓ’의 예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장윤희(2002)에서는 ‘-ㅓㅓ’나 ‘-ㅓㅓ’ 외에도 ‘-ㅓㅓ’도 감탄형 어미로 파악하였다. 그런데 아래 예를 보면 이때의 ‘-ㅓㅓ’는 마치 주어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어서 이런 경우에 화자가 어떤 대상에 대한 감탄을 나타내는 상황으로 보기는 더욱 어렵다.

가. 若セ 王ヲ 身セ 手足： 血肉： 頭目： 骨髓：ノ今セ 得コロコイ入テ 我ヲ{之} 身命テ 必ハ 冀
 リテ入テ 存活セシコイコロコイ | (만약 王의 몸의 손.발이니 피.살이니 머리.눈이니 골수.뇌니 하는
 것을 얻으면 나의 身命은 반드시 바라건대 살아나고자 합니다.) <화소10:19-20>

나. 我1 當ハ 統領ッヲハ ワヲ 福樂乙 受^セイッホロ乙イッホロ1 + (나는 마땅히 統領하여서 왕의 복락을 받고자 합니다.) 했을 때에) <화소11:11>

- (24) 가. 一 文: 一 句: ノ 々 セ 義理 難リシ 盡ナシセ | 何以故: ヲ 示スル
 一 {此}ニ 菩薩 十尸 種セ 無盡藏ニ 成就ッナ 一入ニ {故}ニ 一: (한 문장이
 니 한 구절이니 하는 것의 의리는 어렵게야 다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이 보살
 은 열 가지 무진장을 성취한 까닭이다.) <화소25:11-12>
- 나. 一切 法 空ッ 一入ニ {以}シ入ニ 故ノ 空ヲ 空ッナ | 何以故入 一 般若 一 無
 相ッカ 二諦 一 虛ニ 空ニ 空ッ 一入ニ {一切 法 空한 것을 말미암은 까
 닭으로 空도 空하다, 어떤 까닭이나 하면, 般若는 無相하며 二諦는 虛이고 空
 이고 하며 한 까닭으로이다.) <구인15:13-15>
- 다. 世尊下 希有難量ノ 示ニ 是 金光明經ニ 微妙ッニ 之 {之} 義ニ 究竟 滿足
 ヲ 皆 能カ 一切 佛法ニ 一切 佛恩ニ 成就ッカ 一入ニ (‘세존이시
 여, 希有하여 헤아리기 어려우십니다, 이 金光明經은, 微妙하신 뜻이 究竟 滿
 족시키시며 모두 능히 一切 佛法이니 一切 佛恩이니 하는 것을 成就하며 하시
 기 때문입니다.) <금광13:20-21>
- 라. 諸 行法ニ 說モ 去來ノ 所 無ニ 一切 法 一 異ッ 一 無ッ 一入ニ {故}ニ (여러 行法을 說하나 가거나 오는 바 없다. 一切 法은 다름이 없기 때
 문이다.” <D금광14:21-22>

앞에서 ‘-:/’의 서술·종결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면서 ‘- |’와 간단히 비교한 바 있는데,
 이유절 도치 구문에서도 이와 유사한 예가 확인된다. 아래 (25)는 명제에 대한 이유가 후치
 된 것인데 (24)였다면 ‘-:/’가 나타날 자리에 ‘- |’가 나타난 예이다.

- (25) 가. 聲聞ヲ 法: 獨覺ヲ 法: 菩薩尸 法: ノ 々 壞ッ 示可セッ 一 不矢 一 矢ナ | 何
 以故: ヲ 示スル 一 一切 法 一 作ノ 無カ 作者 無カ 言說 無カ 處所 無カ 生
 不矢カ 起 不矢カ 與 不矢カ 取 不矢カ 動轉 無カ 作用 無 一入ニ 一 (聲聞
 의 법이니 獨覺의 법이니 菩薩의 법이니 하는 것이 壞할 수 없는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一切法은 만듦이 없으며, 作者가 없으며, 言說이 없으며, 處所가
 없으며, 生 아니며 起 아니며, 與 아니며 取 아니며, 動轉이 없으며, 作用이 없
 기 때문이다.) <화소19:02-09>
- 나. 亦ッ 一 法セ 光明ニ 以 而 法ニ 演說ノ 窮盡尸 無リ 一 有
 疲倦ニ 生リ 不ッ 何以故: ヲ 示スル 一 {此}ニ 菩薩 一 盡虛空徧法界
 セ 邊尸 無 一 身ニ 成就ッ 一入ニ {故}니 一 (또한 법의 광명을 써 법을 연설하
 되 다함이 없게 하나 실증을 내지 않는다. 왜냐 하면 이 보살은 盡虛空徧法界
 의 끝없는 몸을 성취하기 때문이다.) <화소25:20-26:03>
- (26) 가. 一 文: 一 句: ノ 々 セ 義理 難リシ 盡ナシセ | 何以故: ヲ 示スル
 一 {此}ニ 菩薩 十尸 種セ 無盡藏ニ 成就ッナ 一入ニ {故}니 一: (한 문장이
 니 한 구절이니 하는 것의 의리는 어렵게야 다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이 보살
 은 열 가지 무진장을 성취한 까닭이다.) <화소25:11-12>
- 나. {此}ニ 藏ニ 成就ッ 一入ニ 一切 法ニ 攝ノ 陀羅尼門ニ 得 現在前ノ
 一 百 一 萬尸 阿僧祇セ 陀羅尼ニ 以 眷屬 {爲}[三] 一 一 {此}ニ 陀
 羅尼ニ 得尸 已 一 法セ 光明ニ 以 廣 衆生ヲ {爲}[三] {於}法ニ
 演說ッ 一入ニ (이 장을 성취한 까닭에, 일체 법을 다스리는 다라니문을

얻어서 現在前하되 백만 아승기의 다라니를 써서 권속 삼은 것을 하며, 이 다라니를 얻고 나서는 법의 광명으로써 널리 중생을 위하여 법을 연설하는 까닭으로이다.) <화소25:12-15>

(26가)는 (24가)와 동일한 예이고, (26나)는 (26가)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다. 둘을 비교해 보면 같은 장면임에도 (26가)에서는 ‘ㄴ/ː’이 쓰였지만 (26나)에서는 ‘ㄴ’이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若有’, ‘或有’의 주어나 ‘當知’의 목적어 논항이 문말로 도치된 경우의 예를 확인해 보자.

(24) 가. 或^ㄴ 有^ㄴ 眼 無^ㄴ 一^ㄴ 二^ㄴ 或^ㄴ 有^ㄴ 耳 無^ㄴ 一^ㄴ 二^ㄴ 或^ㄴ 有^ㄴ 鼻 舌 及^ㄴ 以^ㄴ 手 足 無^ㄴ 一^ㄴ 二^ㄴ (혹 있다, 눈 없는 이가. 혹 있다, 귀 없는 이가. 혹 있다, 코니 혀니 및 손이니 발이니 하는 것이 없는 이가.) <화소 15:17-19>

나. 彼 一^ㄴ 塵 乙 內^ㄴ 有^ㄴ 衆 多^ㄴ 刹 或^ㄴ 有^ㄴ 佛 有^ㄴ 佛 無^ㄴ 佛 一^ㄴ 刹 (저 하나는 티끌로부터 안의 많은刹土는 혹 있다, 부처님이 계신 것이. 혹 있다, 부처님이 없으신 것이.) <화엄 15:10>

다. 或^ㄴ 有^ㄴ 國土 法 乙 知^ㄴ 不^ㄴ 有^ㄴ 佛 (혹 있다, 國土가 법과 같지 않은 것이.) <화엄 14:16>

마. 又 二法 有^ㄴ 一^ㄴ {於}現觀 乙 修^ㄴ 極 障 導^ㄴ 佛 {爲} 入^ㄴ 二^ㄴ 法 (또 두 법이 있다. 현관(現觀)을 닦는 데에 극히 장애가 되는 것이.) <유가 24:10>

(24가)에서 ‘ㄴ/ː’, (24나)에서 ‘ㄴ 一 刹 有^ㄴ’, (24다)에서 ‘ㄴ 佛 有^ㄴ’, (24라)에서 ‘ㄴ 佛 有^ㄴ’의 예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有’의 주어 논항이 도치된 것들로 후치된 주어에 ‘ㄴ/ː’이 결합한 것이다. 아래 (25)는 ‘知’의 목적어 논항이 도치된 예들로 모두 ‘ㄴ 一 刹’의 예를 확인할 수 있다.⁸⁾

(25) 가. 當^ㄴ 知^ㄴ 一^ㄴ 卽^ㄴ 此 解脫圓滿 一 無餘依涅槃界 乙 {以} 而 上首 {爲} 一^ㄴ 刹 (반드시 알아야 한다, 곧 이 해탈원만은 무여의열반계로써 으뜸을 삼는 것이다.) <유가 05:16-17>

나. 當^ㄴ {於}是 如^ㄴ 心 安住 一^ㄴ 時 知^ㄴ {應} 已^ㄴ 名^ㄴ 諦現觀 一^ㄴ 刹 入^ㄴ 一^ㄴ 刹 (반드시 이와 같이 마음이 안주(安住)하는 때에, 알아야 한다, 이미 일컬어 제 현관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다.) <유가25:21-22>

8) 주어 도치 구문이나 목적어 도치 구문은 ‘有’나 ‘知’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도 주어나 목적어가 도치되어 쓰이는 일을 확인할 수 있다.

가. 若^ㄴ 法 有^ㄴ 非^ㄴ 一^ㄴ 刹 不可^ㄴ 捨^ㄴ 不^ㄴ 捨^ㄴ 一^ㄴ 刹 (‘만약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불가하다, 버리지 않는 것이여’ 하는 것을.) <화소14:03>

나. 又^ㄴ 光明 乙 放^ㄴ 妙莊嚴 一^ㄴ 刹 量^ㄴ 無^ㄴ 寶蓮華 乙 出生^ㄴ 一^ㄴ 刹 (또 光明을 낸다, 묘한莊嚴이니 하는 것이. 한량 없는 보배 연꽃을 내되) <화엄16:06>

다. 又^ㄴ 光明 乙 放^ㄴ 妙莊嚴 一^ㄴ 刹 種^ㄴ 妙華 乙 集^ㄴ 帳 {爲} 一^ㄴ 刹 (또 光明을 낸다, 꽃莊嚴이니 하는 것이. 갖가지 묘한 꽃을 모아서 휘장 삼거늘) <화엄16:08>

마. 世尊 希有難量 一^ㄴ 刹 是 金光明經 (세존이시여,希有하여 헤아리기 어려우십니다, 이 金光明經은.) <금광13:20>

다. 五失相應ッ1 臥具1 知ノヲ{應}セ1 聲聞地ヲ十 當ハ 説白ノ尸 如支ッ1
 111(다섯 가지 과실에 상응하는 와구(臥具)는, 알아야 한다, 성문지(聲聞
 地)에서 마땅히 말할 바와 같은 것이다.) <유가 14:05-06>

4. 남은 문제

‘-ㅏ/ㅑ’의 기능을 서술·종결로 이해하였을 때 아래 (26)의 문제를 만나게 된다.

(26) 時十 有ナ1 量11 無セ1 貧窮ッヒセ{之} ①人1 來ッ3ホ 其 前3十 詣3 而
 … {是}11 言乙 ②作ッナ尸1(그때에 있다, 한량이 없는 빈궁한 사람이 와서
 그 앞에 가 이 말을 하는 일이.) <화소12:09-10>

(26)은 ‘有’에 해당하는 주어 논항이 도치된 구문인데 이때 ‘人’에 결합한 ‘-ㅏ/ㅑ’은 종결성
 을 갖는다기보다는 주격 조사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여서 문제가 된다. 즉 ‘-ㅏ/ㅑ’가 서술·
 종결의 기능을 하는 것이라면 왜 ①에서는 종결의 기능을 하지 않는 것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답을 할 수 있다. 첫째, 도치된 논항을 ②까지 보고 이
 때의 ‘-ㅏ/ㅑ’가 주격 조사의 자리에 잘못 나타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或有’ 구문에서
 주어 논항이 도치되었을 때 도치된 논항에 ‘-ㅏ/ㅑ’가 아닌 주격 조사가 나타난 예가 (27)
 에서 확인되는데 이를 참고할 수 있다.

(27) 佛子3 {此}11 菩薩1 假使…ハ 有ナ1 量11 無セ1 衆生11 或カ 有ナ1 眼 無
 セ111 或カ 有ナ1 耳 無セ111 或ナ1 鼻1 舌1 及セ 以3 手1 足1
 ノ今 無セ111(불자야, 이 보살은, 가령 있다, 한량없는 중생이. 혹 있다, 눈
 없는 이가. 혹 있다, 귀 없는 이가. 혹 있다, 코니 혀니 및 손이니 발이니 하는
 것이 없는 이가.) <화소 15:17-19>

둘째, 도치된 논항을 ①까지 보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26가)의 문장을 다음의 구조로 이
 해할 수 있다.

(28) 가. 時十 有ナ1 量11 無セ1 貧窮ッヒセ{之} 人1(그때에 있다, 한량이 없는
 빈궁한 사람이)
 나. 來ッ3ホ 其 前3十 詣3 而… {是}11 言乙 作ッナ尸1((그 사람이) 와
 서 그 앞에 가 이 말을 말하기를)

앞에서 (22)을 설명하면서 동명사 어미 ‘-尸’은 발화나 사유의 내용을 이끌 때 쓰여 연결
 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같은 환경에서 <화소>, <자비>에서는 ‘-尸’이 아닌 ‘-尸1’가 이
 러한 기능을 담당한다고 하였는데 이를 참고하면 (28)과 같은 이해가 타당함을 알 수 있다.
 또한 (26가)의 바로 뒤에 후행하는 내용이 다음과 같이 ‘貧窮 人’의 발화 내용이 바로 이어
 진다는 점에서는 (28)의 해석이 좀 더 타당해 보인다.⁹⁾

- 문현수(2015), 『유가사지론』 권20의 석독구결의 문법: 어미, 장경준 외 『『유가사지론』 권 20의 석독구결』, 역락, 59-77.
- 박영준(1999), 호격조사 ‘-이여’와 감탄문 종결어미, 어문논집 39, 안암어문학회, 424-451.
- 박지용 외 편(2012), 향가 해독 자료집(pdf),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 박진호(1998), 「고대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고대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121-205.
- 박진호(2005), 「倒置 構文의 助詞 ‘-이여’에 대하여」, 임흥빈 외, 『우리말 연구 서른아홉마당』, 태학사, 461-470.
- 박진호(2015), 보조사의 역사적 연구, 國語學 73, 國語學會, 375-435.
- 徐泰龍(1988), 국어활용어미의 형태와 의미, 탑출판사.
- 徐泰龍(2003), 조사 ‘-아’와 어미 ‘-아’, 한국어문학연구(구 동악어문논집) 41, 한국어문학 연구학회(구 동악어문학회), 5-35.
- 안대현(2013), 『華嚴經疏』 卷35 석독구결의 현대어역, 구결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41-85.이용(2008), ‘-저’의 역사적 고찰, 『진단학보』 105, 진단학회, 187-206.
- 安大鉉(2013), 『華嚴經疏』 卷35 자토석독구결의 현대어역, 구결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구결학회, 41-85.
- 이강혁(2019), 전기중세 한국어 ‘(-)ㅎ-’ 연구: 자토석독구결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병기(2019), 고대국어 동명사 어미의 문법적 특징과 과제, 口訣研究 43, 口訣學會, 89-125.
- 이승희(1996), 중세국어 감동법 연구, 국어연구 139, 국어연구회.
- 이용(2013), 『함부금광명경』 권3 자토석독구결의 현대어역, 구결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구결학회, 141-225.
- 이탁(1999), 중세국어 감탄구문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 이탁(2002), ‘-이여’의 기능 연구, 國語學 40, 國語學會, 247-268.
- 李賢熙(1982), 국어 종결어미의 발달에 대한 관견, 國語學 11, 國語學會, 143-163.
- 李賢熙(1994가), 계사 ‘-이-’에 대한 통시적 고찰, 주시경학보 13, 탑출판사, 88-101.
- 李賢熙(1994나), 中世國語 構文研究, 新丘文化社.
- 장경준(2004),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1)- 권8, 03:04-04:11 부분을 중심으로, 口訣研究 12, 口訣學會, 191-224.
- 장경준(2013), 『유가사지론』 권20 자토석독구결의 현대어역, 구결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구결학회, 227-337.
- 장경준(2019), 자토석독구결 전산입력 자료(sktot_2019_01).
- 장경준·오민석·문현수·허인영(2015), 『유가사지론』 권20의 석독구결 역주, 역락.
- 장윤희(1996), 중세국어 ‘-이썻녀’ 구문의 구조와 성격, 관악어문연구 21,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349-379.
- 장윤희(1998/2002), 중세국어 종결어미 연구, 태학사.
- 전기량(2017), 자토석독구결의 ‘-ㅅ/ㅆ’ 구문에 대하여, 국어사연구 24, 국어사학회, 207-238.
- 전기량(2018), 중세 한국어 ‘-여’ 구문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기량(2020), 자토석독구결에서 종결을 나타내는 ‘- ㅅ/ㅈ(여)’와 ‘- ㅌ(다)’의 용법과 그 변화, 口訣研究 44, 口訣學會, 141-179.
- 鄭在永(1992), 통합형어미 ‘-ㄴ든’과 ‘-ㄴ더’에 대한 고찰, 國語學 22, 國語學會, 371-395.
- 鄭在永(2001), 국어 감탄 구문의 변화-감탄법 종결어미의 변화를 중심으로-, 震檀學報 92, 震檀學會, 293-325.
- 허웅(1975), 우리 옛말본-15세기 국어 형태론, 샘문화사.
- 황선엽(2006), 고대국어의 처격 조사, 한말연구 18, 한말연구학회, 305-328.
- 황선엽(2002b), 국어 연결어미의 통시적 연구-한글 창제 이전 차자표기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황선엽(2013), 《舊譯仁王經(上)》의 역주에 대하여, 구결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구결학회, 3-40.
- 황선엽·하귀녀·이전경 외(2009), 『석독구결사전』, 박문사.

구결자 ‘ㅁ(고)’에 대한 고찰

문현수(인하대 한국학연구소)

1. 머리말

- 석독구결에서 다양한 용법을 보이는 구결자 ‘ㅁ’의 쓰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찰.
- 우선 자토석독구결에서의 ‘ㅁ’의 쓰임을 기술한 후, 점토석독구결에서 ‘ㅁ’의 표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봄
- 쟁점 사항에 대해서 검토함.

2. 자토석독구결에서의 ‘ㅁ’의 쓰임

- [1] 연결어미 -ㅁ와 그 관련형 -ㅁㅁ, -ㅁㅁㅁ, -ㅁㅁㅁㅁ, -ㅁㅁㅁㅁㅁ 표기
- [2] 의문첨사 -ㅁ 표기
- [3] 의문형어미 -ㅁ 표기
- [4] 말음첨기 ㅁ 표기
- [5] 선어말어미 -ㅁㅁ, -ㅁㅁㅁ, -ㅁㅁㅁㅁ 표기
- [6] 선어말어미 구성 -ㅁㅁㅁㅁ 표기
- [7] 연결어미 -ㅁㅁ과 그 관련형 -ㅁㅁㅁㅁ, -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 -ㅁㅁㅁㅁㅁㅁ 표기
- [8] 연결어미 -ㅁㅁㅁ 표기

[1] 연결어미 -ㅁ와 그 관련형 -ㅁㅁ, -ㅁㅁㅁ, -ㅁㅁㅁㅁ, -ㅁㅁㅁㅁㅁ

- (1) ㄱ. <화소16:02> 菩薩ㅁ {之}ㅁㅁ 聞ㅁ 卽ㅁ 便ㅁ 施與ノㅁㅁ
보살은 이를 듣고 즉시 곧 施與하되
ㄴ. <화소13:12-14> {此}ㅁ 菩薩ㅁ 未來ㅁ 諸ㅁ 佛ㅁㅁ{之}ㅁ 修行ㅁㅁㅁㅁㅁ 所ㅁ 聞ㅁㅁ 有 非ㅁㅁㅁㅁㅁ
了達ㅁㅁ {於}相ㅁ 取ㅁ 不ㅁㅁㅁ
이 보살은 미래의 모든 부처가 수행하시는 바를 듣고서 있는 것이 아닌 줄 깨달아 알며, 상을 취하지 않으며,
ㄷ. <화소12:18> {是}ㅁ 念ㅁ 作ㅁ 已ㅁㅁㅁㅁㅁ 悉ㅁ 皆ㅁ 施與ノㅁㅁ 心ㅁㅁ 悔恨 無ㅁㅁㅁㅁㅁ
이 생각을 함을 이미 하고서는 다 모두 베풀어 주되 마음에 후회 없이 하며,
ㄹ. <화소12:03-04> {是}ㅁ 念ㅁ 作ㅁ 已ㅁㅁㅁㅁㅁ 卽ㅁ 便ㅁ {之}ㅁㅁ 施ㅁㅁ
이 생각을 함을 이미 하고서는 곧바로 이를 보시하며
ㅁ. <유가32:01> 此ㅁ 除ㅁㅁ 更ㅁ 若 過ㅁㅁ 若 增ㅁㅁㅁㅁㅁ 無ㅁㅁㅁㅁㅁㅁㅁ
이것을 제외하고는, 다시 (이보다) 지나치거나 (이보다) 더하거나 한 것이 없는 것이다.

- ㅁ는 (1ㄱ)처럼 연결어미 ‘-고’를 표기하는 데 쓰이며, (1ㄴ)처럼 연결어미 ‘-ㅁ’에는 강세첨사 ‘-ㅁ[ㄱ]’이 후행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예는 유가사지론 계통 자료보다는 화엄경 계통 자료에서 주로 관찰됨.

의 身命은 반드시 바라건대 살아날 것입니다.

ㄴ', <사비21:10-11> 免脫ノ令セ{之} 日リ 至1 {毎} | 个 | 恒リ 加シ 勸諭ソロシ尸丁

(지옥을) 벗어나는 날이 될 때마다 항상 더욱 권유하기를,

㉔. <금광13:04-05> 衆生^リ {於^ニ}見^ル乙 失^ルリ^ト乙 世尊^ニシ 能^ク 濟度^スソ^ニロ乙カ

衆生이 正見을 잃은 것을 世尊이라야 능히 濟度하시며,

已。 <金剛13:14-15> 世間ノ一ハ異リテ 不失リテ 譬入リ 空谷ニセ 響 如キコト 不度コト 亦
不滅コト ヲツトノリ入ニ 唯ハ 佛リニシ 能カ 了知コトニロフカ

世間은 하나이며 다르지 않은 것이, 비유하면 空谷의 메아리 같아, 不度하고 또한 不滅하고 하는 것을 오직 부처라야 능히 了知하며,

口. <구인14:18-19> 爾^セッ¹ 時^ト 波斯匿王¹ 言^ニ 第一義^セ 中^ウ 世諦^有セ¹ッ^ロウ^今 不失^リウ¹モ^ウ 若^セ 言^ニ 無^セ¹ッ^ニウ^ヲ入¹{者} 智¹ 二^リッ^ニ應^セッ¹ 不失^リロ¹乙^カ 若^セ 言^ニ 有^セ¹ッ^ニロ^ヲ入¹{者} 智¹ 一^リッ^ニ應^セッ¹ 不失^リ |

그때에 波斯匿王은 이르시기를, “第一義의 가운데에 世諦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까? 만일 이르시기를 없다고 하신다면 智는 (마땅히) 둘임이 아닐 것이며, 만일 이르시기를 있다고 하신다면 智는 (마땅히) 하나임이 아닐 것입니다.”

曰. <구인14:18_2> 第一義セ 中ノ十 世諦 有セ | ソロク | 今 | 不 | 矢リ | ク | ヒ |

第一義의 가운데에 世諦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까?

- ㅁ은 (5ㄱ)처럼 선어말어미 ‘-고-’를 표기하기도 함.
- 선어말어미 ‘-ㅁ-’는 (5ㄴ)처럼 선어말어미 ‘-ㅁ[오]-’가 후행할 때, (5ㄴ')를 제외하고 모두 ‘-ㅁㅅ(골)-’의 형태로 실현됨. (5ㄴ)과 (5ㄴ')를 비교해 볼 때, ‘ㅅ’은 특별한 기능을 갖지 않는 것으로 생각됨.
- ‘-ㅁㅅ-’은 (5ㄷ)처럼 연결어미 ‘-ㅅ[며]’에 선행하기도 하는데, (5ㄷ)처럼 ‘-ㅁㅅ-’로도 실현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에도 ‘ㅅ’과 ‘ㅅ’은 특별한 기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이 특별한 기능을 부여하기 힘든 ‘ㅅ’과 ‘ㅅ’의 예로, ‘得ㅅㅅㅅ<금광14:24>’, ‘六大動ㅅㅅㅅㅅㅅㅅ<구인 11:12>’, ‘不(ㅅ)ㅅㅅㅅ<화엄15:05>’ 등을 들 수 있음.
- 선어말어미 ‘-ㅁ-’는 (5ㅁ)처럼 선어말어미 ‘-ㅅ[시]-’의 뒤에서 ‘ㅅ’이 탈락하여 ‘-ㅅ-’가 되는 경우도 있고, (5ㅂ)처럼 계사 ‘-ㅅ[이]-’ 뒤에서 ‘ㅅ’이 탈락하여 ‘-ㅅ-’가 되는 경우도 있음. 이들은 모두 구역인왕경에서만 관찰됨.
- 이때 선어말어미 ‘-ㅁ-’의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함.

[6] 선어말어미 구성 - ㄱ ㅏ -

(6) ㄱ. <화산10:07-08> 時+ 或力有ナリ 人リ來ッホ {是}リ 言乙 作ッナア丁 汝1 今ッ1 {有}+
ヌ1 所乙 悉ッ 當ハ 我ヲ+ 與ッロハ而立ッホ1 | +

그때에 또 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이 말을 하는 일이. “당신은 지금 가지고 있는 바를 다
마땅히 나에게 주소서.” 했을 때에

㉞. <자비18:15-17> 今日 道場^{ミチノ}ニセ 同リ 懺悔^{コンカイ}ソトイヒセ 者^{モノ}、及セ 其 父母^{フボウ}、師長^{シチヤウ}、一切 眷屬^{ケンロク}
 ニノタラ 罪垢^{ツミカゲ}ヲ 洗除^{センジュ}ソニ下^シハ 得^エル 清淨^{セイジヤウ} 令^シリロハニハ

今日 道場에 있는 다같이 懺悔하는 자이니 및 그 父母이니 師長이니 一切 眷屬이니 하는 이의 罪垢를 洗除하시어서 능히 淸淨하게 하시며

㉔. <자비20:04-21:21> 地獄經より云ニ尸地獄セ間より住ノヒセ宮城セ縦廣一三丈萬里リ
一銅鐵ニ成リ所リ…獄卒一答ッ言ナリ此如ッ罪惡セ諸一苦乙受トヒ
セ者一父母乙孝尸不ッ…何ニ於此ヲ而ニ慈忍乙生リテ容セツヤ尸ロツト

ソロハニ |

지옥경에 이르시기를, “지옥의 사이에 있는 궁성의 세로 가로는 삼만 리인데 구리와 철로 이룬 바이며, … 獄卒은 답하여 말하기를, “이와 같은 죄악의 모든 괴로움을 받는 자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아니하며 (하니) … 어찌 이들에게 자비와 인내를 베풀 수 있겠는가?” (獄卒이 답하여 말)한다.” (지옥경이 말씀)하셨다.

已. <화엄14:09> 菩薩₁ 勤₇ 大悲行_乙 修₃ 호 願_{入1} 一切_乙 度_口 口_ハ 口_ミ ノ_{尸ム} 果_{直尸} 不_ッ尸_丁
ノ_尸 無_口 ヲ₃ ナ_牙 四

菩薩은 부지런히 大悲行을 닦아서 願하건대 一切를 건네고자 하되 果 아님 없이 할 것이라

- 선어말어미 ‘-ㅁ-’에는 (6ㄱ-ㄷ)처럼 선어말어미의 위치에 쓰여 선행하는 선어말어미들의 배열 순서를 바꾸는 ‘-ㅁ-’가 후행하기도 함. 이러한 ‘-ㅁㅁ-’의 대표적인 예로는 (6ㄱ)의 ‘-ㅁㅁ 而 立’, (6ㄴ)의 ‘-ㅁㅁ 二 一’, (6ㄷ)의 ‘-ㅁㅁ 二 一’처럼 선어말어미 ‘-시-’가 후행하는 예를 찾아볼 수 있음.
- 또한 ‘-ㅁㅁ-’은 (6ㄷ)처럼 어말어미 ‘-ㅁㅁ-’가 후행하는 예도 발견되는데, 이는 중세국어의 ‘-고저’의 선대형으로 추정됨.

[7] 연결어미 -ㅁ 1과 그 관련형 -ㅁ ㅏ 1, -ㅁ ㅏ ㅏ 1/ㅁ ㅏ ㅏ ㅏ 1, -ㅁ 1 :

(7) ㄱ. <구인15:02> 諸 1 法 1 因緣 有ッカ ッロ 1 有人 無人セ 義リ {是}リ {如} | ヽナ |

모든 法은 인연으로 있으며 하니 有와 無의 뜻이 이와 같다.

ㄴ. <유가04:08> 又 正說法 3 + 略口1 二種 有セ1

또 바르게 법을 설하는 것에, 간략히 말하자면, 두 가지가 있다.

七、＜和合本11:16＞若 能 法ヲ 永キ 滅スロフ 不 失ヒレ入ル乙 知ヒル入ル則 得コトホ 辯才リ 障礙ソフ
無シテ才カ

만약 能히 法이 영원히 滅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앎는 것을 보면 곧 능히 辯才가 막힘이 없을 것이며

已、＜号08:20-09:01＞ 一切 衆生ヲ {於}生死セ 中ヲナソシ 多聞ノヲ 無口ナヲ {有} {此}リ 一切 法
 乙 了知ス 不(ノ)能リ失ツトリ四

“일체 중생은 생사의 가운데 있어 많이 들음이 없으니, 이 일체 법을 아는 것을 능히 못하는
이러서,

口. <구인11:13> 天尊 1 快兮 十四 王ヲウ乙 説口ハニ 1 {是}リ 故ニ 我 1 今ッ 1 略兮 佛乙 歎ッ
自口トリ | ソモハニ |

“天尊은 快히 十四王에 대한 것을 說하시니 이 까닭으로 나는 지금 略히 佛을 讚歎드리는 것입니다.” 하셨다.

日、＜号全11:18-19＞ {此}リ 轉輪位₃十 王₁ 處_ソ 前_カ 1ム 已_シ 久_ホハ_前口₁ 我₁ 曾_ハ 力_力 得_ル
 尸 未_リ ヲセロ乙_カ |

“이 轉輪位에 왕은 處하시되 이미 오래되셨으나, 나는 조금도 얻지 못했습니다.

- ㅁ은 (7ㄱ-ㄴ)처럼 연결어미 ‘-ㅁ 1[곤]’의 일부를 표기함. 이때 ‘-ㅁ 1[곤]’은 (7ㄱ)처럼 이유, 원인의 의미를 나타내거나(황선엽 2004), (7ㄴ)처럼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음(장경준 2007: 163).
- ‘-ㅁ 1[곤]’은 (7ㄷ)처럼 피부정 서술어에 쓰인 어미구성을 표기하는 데에도 쓰임.
- 황선엽(2004)에 따르면, 연결어미 ‘-ㅁ 1[곤]’의 경우 (7ㄷ)처럼 선어말어미 ‘-ㅅ-’가 개재하거나 (7ㅁ)처럼 선어말어미 구성 ‘-ㅅㅅ-’가 개재하여 불연속 형태로 쓰이는 경우가 있

음. 이들은 모두 (71)처럼 이유, 원인의 의미로 해석됨.

- (7ㄴ)과 같이 ‘-ㅁ 1 : [곤여]’ 구성으로 쓰이기도 함.

[8] 연결어미 - 口 七

(8) ㄱ. <斗全15:18-20> 或カ 有ナリ 耳 無セリリ； 或ナリ 鼻； 舌； 及セ 以手； 足； ノ今 無セリリ； 來ッホ 其 所ノ十 至リ 菩薩尸十 告ッホ 言白ナリ丁 {我}又ラ 身一 薄祐ッホ 諸一 根 殘缺ッロセノ一

또 있다, 눈 없는 이가. 또 있다, 귀 없는 이가. 또 있다, 코니 혀니 밋 손이니 발이니 하는 것이 없는 이가. 와서는 그 곳에 이르러 보살께 고하여 사퇴기를, “우리의 몸은 박복하여 모든 근이 이지러지려고 합니다.”

ㄷ. <마태12:12-13> {吾}又尸 曹1 今ッ1{者} 各ヲ求ノ尸 所乙 {有}斗口セノ1リ四
願口尸入1 普リ慈乙 垂リ而下ハ 得ヲ満足 令リ口ハ而立ッヲ

우리는 이제는 각자 구하는 바를 두게 되었는지라, 원컨대 널리 자비를 드리우시어서 능히 채워져 족하게 해 주십시오.” 하여,

七. <금광15:03-06> 是時十 大會七{之}衆一 座乙 從七 而三 起ニ下 偏袒右肩 右膝着地 合掌恭敬ッ白ウホ 頂三 佛足乙 禮白口 而三 佛 白 言白ニ尸 若有處處ヲ 此 金光明經乙 講宣ム白口ナ一 矢ニ 是會七 大衆一 皆悉 彼ム 往ル 爲ノ 聽衆リ尸入乙 作ッ口七ノ牙分

이때 大會의 大衆은 자리로부터 일어나시어 偏袒右肩 右膝著地 合掌恭敬하여서 정수리로 부처의 발에 禮數하오고 부처께 사되어 말씀드리시기를, “만약 있다, 곳곳에서 이 金光明經을 講宣시키는 이가. (그렇다면) 이 法會의 大衆은 우리들은 모두 다 거기가 (그를) 위하여 聽衆이 되고자/되려고 할[바랄] 것이며,

己、＜金광15:07＞{我}チ 等ッ 11 皆 當ハ 盡ヒセ 心ニ 供養ッ 自カ 諸 聽衆乙四刀 安隱
快樂ッ {令}リ ロロセノ 牙カ

우리는 모두 마땅히 다하는 마음으로(마음을 다하여) 供養하며, 모든 聽衆으로 하여
금도 安隱 快樂하게 하려고 할 것이며,

는 (8)처럼 연결어미 ‘-ㅁ ㅅ[곳]’의 일부를 표기함. 이때 ‘-ㅁ ㅅ’은 동사 ‘ㅎ-’와 1인칭 주어와 호응하는 선어말어미 ‘-오-’의 결합형인 ‘-ㅁ-’가 반드시 후행함. 그리고 ‘-ㅁ ㅅ’이 쓰인 서술어의 주어는 반드시 복수라는 특징을 보이며, 현대국어의 ‘-려고’와 마찬가지로 (8ㄱ-ㄴ)처럼 예정의 의미를 나타내거나 (8ㄷ-ㄹ)처럼 소망의 의미를 나타냄(문현수 2020).

3. 점토석독구결에서의 α 의 표기

3.1. 화엄경 계통: 주본 화엄경의 점토

- □와 관련된 점토 중 해독 결과가 비교적 확실한 경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1] 34(·)[□]: 연결어미 -□, 의문첨사 -□, 선어말어미 -□-, 연결어미 구성 -□+ 1,
연결어미 구성 -□+ 1

(9) ㄱ. <주본화엄31, 16:24-17:01>

A:爾時[53(·)]金剛幢菩薩[33(·)]承佛[35(·)]神力[41(·),53(i)]普[24(l)]觀十方[34(·)]而[45(·)]說頌
[41(·),34(l)]言[14(·)]

B:爾時[+]金剛幢菩薩[1]承佛[矢]神力[乙,白3]普[リ]觀十方[口]而[ゝ]說頌[乙,3]言[而尸]

C:爾時十金剛幢菩薩1佛矣神力乙承(リ)白3普リ十方觀口而三頌乙說3言而尸

D:그때 金剛幢菩薩은 부처의 神力을 받들어 널리 十方을 보고 頌을 일러 말하기를,

ㄴ. <주본화엄36, 07:24-08:01>

A:何等[41(·)]爲十[11(·),13(/),34(·),31(·),=44(·),15(·)]

B:何等[ッ 1 乙]爲十[ニ, ノ 今, 口, ナ 牙, 尸, 入 1]

C:何 等ッ1乙 十ミノ令口 {爲}(ッ)ナ牙尸入1

D:어떠한 것들을 十이라고 하는가 하면,

ㄷ. <주본화엄06, 18:24>

A:當[24(·)]知[53(ㄱ)]如是[24(ㄹ),24(·),25(·)],경계선]人[24(ㄹ),43(·)]能[24(·)]生了佛[25(ㄹ)]智
[41(·),34(·),31(·),21(·)]

B:當[支]知[乚立]如是[リ,支,乚七]人[リ,シ]能[支]生了佛[ノ今七]智[乙,口,乚牙,ナ丁]

C:當支 知_レ立 {是}ニ 如支(ッ)ニセ 人_レシ 能支 佛了ノ今セ 智乙 生口_レ牙ナ_レ丁

D: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은 사람이라야 능히 佛을 了하는 지혜를 낼 수 있는 줄을.

ㄷ. <주본화엄36, 07:15-16>

A:供養[34(-),34(·),12(-),33(·)]能[24(·)]盡一切苦[41(·),34(l),51(·)]

B:供養[白,口,ナ1,1]能[支]盡一切苦[乙,3,3]

C:供養ノ白口ナリ能支一切苦乙盡ルカ

D:供養하면 能히 一切의 苦를 끝내며,

口. <주본화엄06, 06:03-04>

A: 現是雲[41(·),14(·)]已[43(·),34(·),12(:)]向佛[41(·),43(l)]作禮[23(l)]以[43(l)]爲供養
[14(·),43(·),51(·)]

B:現是雲[乙, 云]已[シ, 口, ヲ, 一]向佛[乙, 佛]作禮[ソ, 一]以[ホ]爲供養[ノ, 尸, シ, 一]

C:是雲乙 現_レ尸 已_レ(ッ)ロッ1 佛乙 向(ッ3)ホ 作禮ッ3 以ホ 供養ノ尸 {爲}シホ

D:이 구름을 나타내기를 이미 마치고는 부처를 향하여 作禮하여 그것으로써 供養 삼으며

- 34(·)는 구결자 ‘ㅁ’와 일대일대응을 보임. (9ㄱ)은 연결어미 ‘-ㅁ’, (9ㄴ)은 의문첨사 ‘-ㅁ’, (9ㄷ)은 선어말어미 ‘-ㅁ-’, (9ㄹ)과 (9ㅁ)은 각각 연결어미 구성 ‘-ㅁ+1’과 ‘-ㅁㅂ1’의 ‘ㅁ’로 해독되는 34(·)[ㅁ]임. 다만 34(·)는 구결자 ‘ㅁ’와 달리 의문형어미를 표기하는 예는 발견되지 않음.

[2] 23(·)[白口]: 연결어미 구성 -白口, 연결어미 구성 -白口ナ1

(10) ㄱ. <주본화엄57, 05:21-22>

A:捨離喜愛[41(·),11(·)]而見一切佛[41(·),23(·)]心[42(·)]大[24(·)]歡喜[52(·)]

B:捨離喜愛[乙,ナ1:]而見一切佛[乙,白口]心[心]大[大]歡喜[ソカ]

C:喜愛乙 捨離(·)ナ1: 而 一切 佛乙 見白口 心心 大 歡喜ソカ

D:喜愛를 捨離하니, 一切 佛을 보고 마음이 크게 歡喜하며

ㄴ. <주본화엄36, 01:04-05>

A:佛子[33(·)]聞此…深妙殊勝[25(·)]地[41(·),23(·),12(·)]心[42(·)]皆[25(·)]踊悅[43(·)]大[24(·)]歡喜[23(·)]普[24(·)]散衆[33(·)]華[41(·),43(·)]供養佛[41(·),52(·)]

B:佛子[1]聞此…深妙殊勝[而1ヒセ]地[乙,白口,ソ1]心[心]皆[ヒ]踊悅[ホ]大[大]歡喜[ソ]普[大]散衆[1]華[乙,ホ]供養佛[乙,ソカ]

C:佛子1 此 … 深妙 殊勝(·)而1ヒセ 地乙 聞白口ソ1 心心 皆ヒ 踊悅(ソ)ホ 大 歡喜(ソ) 普 衆1 華乙 散(·)ホ 佛乙 供養ソカ

D:불자는 이 … 深妙 殊勝한 地를 듣고서는 마음이 모두 踊悅하여서 크게 歡喜하여 널리 많은 꽃을 흠여서 佛을 供養하며,

ㄷ. <주본화엄31, 19:01>

A:十方世界[25(·),33(·),33(·)]悉[34(·)]蒙光[41(·),23(·),12(·)]六趣[25(·)]衆生[33(·)]咸[25(·)]離苦[41(·),24(·),52(·)]

B:十方世界[ソヒ,子,1]悉[悉]蒙光[乙,白口,ナ1]六趣[ヒ]衆生[1]咸[ヒ]離苦[乙,支,ナカ]

C:十方世界[ソヒ子1]悉[悉]光 蒙白口ナ1 六趣[ヒ]衆生[1]咸[ヒ]苦乙 離支ナカ

D:十方世界에 있는 것은 다 빛을 받으니, 六趣의 衆生은 다 고통을 여의며,

- 23(·)은 ‘白口’로 해독되며 (10ㄱ)처럼 연결어미 구성 ‘-白口’를 표기하기도 하고 (10ㄴ)처럼 연결어미 구성 ‘-白口ナ1’을 표기하기도 함.

[3] 32(·)[口1]: 연결어미 -口1, 피부정 서술어 어미 -口1

(11) ㄱ. <주본화엄34, 20:03>

A:如彼[24(·)]無盡[32(·),25(·)]期[23(·),25(·),33(·),24(·),32(·)]我[23(·)]願亦[33(·)]復[42(·)]然[11(·),54(·),51(·)]

B:如彼[大]無盡[人,ソ今ヒ]期[ヲ,ヒ,1,支,口1]我[我]願亦[1]復[力]然[ニ,口乙イ1,ナカ]

C:彼[大]盡人ソ今ヒ 期[ヲ]無[ヒ]如[支(·)口1] 我[我] 願 亦(·)1 復[力] 然[ニ(·)口乙イ1(·)ナカ]

D:‘그것이 다함 기약이 없는 것과 같으니 내 소원 또한 그러하다’ 하며,

ㄴ. <주본화엄57, 01:17-18>

A:略說[32(·)]菩薩取一切法[55(·)]於一切處[53(·)]悉[34(·)]以明智[41(·),34(·)]而[45(·)]現了故

B:略說[口1]菩薩取一切法[ナヒセ1]於一切處[+]悉[悉]以明智[乙,ヒ]而[而]現了故

C:略 說口1 菩薩 一切 法 取(·)ナヒセ1 {於}一切 處+ 悉[悉] 明智乙 以[以] 而[而] 現了 故

D:간략히 말하자면 보살이 一切 法을 취한다. 一切 처소에서 다 明智를 써 現了하기 때문이다.

ㄷ. <주본화엄06, 18:02>

A:如是[24(·)]無所礙[14(·),25(·),32(·),11(·)]周[25(·)]行十方[25(·)]國[53(·),52(·)]

B:如是[支]無所礙[ノ尸,ヒ,口1,ニ]周[ヒ]行十方[ヒ]國[+,ナカ]

C:是 如支 礙ノ尸 所 無[ヒ]口1: 周[ヒ] 十方[ヒ] 國[+] 行(·)ナカ

D:이와 같이 걸릴 바 없으니 두루 十方의 國土에 다니며

ㄹ. <주본화엄57, 03:16-17>

A:忍自[23(-)]善根是出生佛法道知業[23(-)]不失[32(·),35(·),33(·),41(·)]故

B:忍自[彳]善根是出生佛法道知業[彳]不失[口 1, 矢, 1, 入 乙]故

C:自ヲ 善根 忍 是 佛法 出生 道 業ヲ 失口 1 不 失 1 入 乙 知 故

D:자기의 善根을 忍하는 것, 이것이 佛法을 내는 道이다. 業이 失하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
문이다.

- 자토석독구결의 ‘ㅁ 1’은 대부분 32(·)[ㅁ 1]으로 표기되는데, (11ㄱ)처럼 원인, 이유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고 (11ㄴ)처럼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함. 32(·)[ㅁ 1]은 (11ㄷ)처럼 11(·)[:]과 함께 쓰여 ‘-ㅁ 1 :’ 구성을 표기하기도 하며, (11ㄹ)처럼 명사문의 피부정 서술어 어미 ‘-ㅁ 1’을 표기하는 데에도 쓰임.

[4] 34(:)[ㄴ ㄷ ㅁ]: 의문형어미 - ㅁ

(12) <주본화엄34, 04:23-24>

A: 何[25(·), 12(·)] 因[11(·)] 何[25(·), 12(·)] 緣[11(·), 13(/), 45(·)] 金剛藏菩薩[33(·)] 唯[23(·)] 說菩薩
[44(·)] 十地[25(·)] 名[41(·), 34(·)] 而[45(·)] 不解[12(·), 24(l)] 釋[44(·), 42(-), 34(·), 45(-), 55(·), 연결
선]

B:何[セ, ヲ 1]因[ニ]何[セ, ヲ 1]緣[ニ, ノ 今, ム]金剛藏菩薩[1]唯[ハ]說菩薩[尸]十地[セ]名[乙, ロ]而
[ム]不解釋[尸, 而, ト 今 1, 11, ヲ セ ロ, 乙, 而 1]

C:何セツ 因: 何セツ 緣: ノ今… 金剛藏菩薩 唯ハ 菩薩 尸 十地セ 名乙 説口 而… 解
釋尸 不(ッ)而トイ 月 3 セロ(ッ)ヒ(ハ)而 |

D. ‘어떤 因이니 어떤 緣이니 하는 것으로 金剛藏菩薩은 오직 菩薩 十地의 이름을 말하고 解釋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하셨다.

- 의문형어미 ‘-ㅁ’는 (12)처럼 ‘ㅁ ㅅ ㅁ’로 해독되는 34(:)를 통해 표기됨. 의문형어미 ‘-고’가 항상 선어말어미 ‘-앗-’과 함께 쓰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25(·)[ㅁ ㅅ]과 34(·)[ㅁ]의 조합으로 나타내기보다는 하나의 점토로 나타내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듯함.

[5] 23(/)[ㅁ ㅈ]: 연결어미 구성 -ㅁ ㅈ, 선어말어미 구성 -ㅁ ㅈ-

(13) $\neg$. <주본화엄36, 10:02-04>

A: 佛子[34(1)]此菩薩摩訶薩[33(·)]以如是[12(:)]智慧[41(·),34(1)]觀察所修[12(:),25(·)]善根
[41(·),23(∧)]皆[25(·)]爲救護一切衆生[41(·),32(-),13(·)]

B: 佛子[ㄅ]此菩薩摩訶薩[ㄆ]以如是[ㄆ ㄣ]智慧[ㄉ , ㄋ]觀察所修[ㄆ ㄣ , ㄟ]善根[ㄉ , ㄆ ㄣ]皆[ㄟ]爲救護一切衆生[ㄉ , ㄋ , ㄆ ㄣ ㄣ]

C:佛子。此菩薩摩訶薩。一。是如。二。智慧。三。以。修。四。所。五。善根。六。觀察。七。八。皆。九。一切衆生。十。救護。十一。爲。十二。人。ノ。ム。

D:佛子여, 이 菩薩摩訶薩은 이와 같은 智慧를 써 닦은 바의 善根을 觀察하고서 모두 一切 衆生을 救護하고자 하되

ㄴ. <주본화엄36, 03:16-17>

A:煩惱[45(·)]所染[12(·),42(/),41(·),23(/),33(·)]皆悉[34(())]捨離[51(·)]

B:煩惱[ㄇ]所染[ノ 1,リ 1,乙,ロハ,1]皆悉[3]捨離[ナㄋ]

C:煩惱ニ染ノリ所リヲ見コハシ皆悉ク捨離(ッ)ナク

D:煩惱로 물들인 바임을 보고서는 모두 다 捨離하며,

ㄷ. <주본화엄06, 02:05>

A:願[15(·)]示此[24(ㄹ)]法[41(·),24(ㄹ),43(ㄹ)]令清淨[42(·),23(/),53(ㄹ)]

B:願[入 1]示此[ㄹ]法[乙,ㄹ,ㄱ]令清淨[(스)ㄹ,ㄹ,ㄱ,而 立]

C:願入 1 {此}ㄹ 法乙 示ㄹ(ㄱ)ㄱ 清淨 令ㄹㄹㄱ而 立

D:부처님의 加持하신 바 가없는 것이라 합니까 원컨대 이 法을 보여서 清淨하게 해 주소서.

ㄹ. <주본화엄22, 12:07>

A:供養佛[41(·),34(-),23(/),22(·),25(ㄹ)]心[45(·)]之所現[33(·),51(/)]

B:供養佛[乙,白,ㄹ,ㄱ,ㄱ,ノ 今 七]心[ㄴ]之所現[1,ㄹ ㄱ]

C:佛乙 供養(ㄴ)白ㄹㄱㄱノ 今 七 心ㄴ{之} 現 1 所ㄹ ㄱ

D:부처를 供養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타난 바이며,

- 자토석독구결의 ‘ㄹ ㄱ’은 23(/)으로 표기함. 23(/)은 (13ㄱ)처럼 연결어미 구성인 ‘-ㄹ ㄱ’을 표기하기도 하고 (13ㄴ)처럼 ‘-ㄹ ㄱ 1’을 표기하기도 함. 또한 (13ㄷ)처럼 선어말어미 구성 ‘-ㄹ ㄱ-’을 표기하기도 하고 (13ㄹ)처럼 ‘-ㄹ ㄱ ㄱ’의 ‘-ㄹ ㄱ-’을 표기하는 예도 관찰됨.

[6] 23(·)[ㄹ ㄱ]: 어말어미 -ㄹ ㄱ

(14) ㄱ. <주본화엄22, 10:12-15>

A:一切諸[33(·)]天[11(·)]及[25(·)]諸[33(·)]天女[11(·),13(/),33(·)]…同[24(ㄹ)]興念言[41(·),21(ㄹ)]如來[44(·)]出世[14(ㄹ),15(·)]難[43(·)]可值遇[34(-),24(ㄴ),25(·),41(·),11(·)]我[33(·)]今[12(ㄴ),33(·)]得[43(ㄹ)]見具一切智[41(·),24(ㄴ),34(ㄹ)]於法[53(·)]無礙[44(·),25(/)]正等覺者[41(·),53(i),23(·),12(·),24(ㄹ),55(ㄴ),23(ㄹ)]

B:一切諸[1]天[1]及[七]諸[1]天女[1,ノ 今, 1]…同[ㄹ]興念言[ノ ㄹ 入 乙,ㄴ ㄹ ㄱ]如來[ㄹ]出世[ㄴ ㄹ 入 1]難[1]可值遇[白,ㄴ,七,而 1 乙, 1]我[1]今[ㄴ ㄹ 1, 1]得[ㄴ]見具一切智[乙,ㄴ, 1]於法[+]無礙[ㄹ,而 1 七 七]正等覺者[乙,白,ㄴ,ㄹ,七,ノ 1,ㄹ, 1, ㄴ ㄹ ㄱ ㄴ ㄹ ㄱ]

C:一切 諸 1 天 1 及 七 諸 1 天女 1:ノ 今 1 … 同 ㄹ 念言ノ ㄹ 入 乙 興(ㄴ)ㄴ ㄹ ㄱ 如來 ㄹ 出世(ㄴ)ㄴ ㄹ 入 1 難 1 值遇(ㄴ)白 ㄴ(ㄴ){可}七(ㄴ)ㄴ ㄹ ㄱ 1 乙 1 我 1 今(ㄴ)ㄴ ㄹ ㄹ 1 得 ㄴ 一切智 乙 具 ㄴ {於}法 + 礙 ㄹ 無 ㄴ 1 七 七 正等覺者 乙 見 白 ㄴ ㄹ ㄱ ㄴ 1 ㄹ ㄴ ㄹ ㄱ ㄴ ㄹ ㄱ

D:一切 모든 天이니 모든 天女이니 하는 이는 … 함께 念言하는 것을 일으키기를, “如來께서 出世하시는 것은 어렵게야 만날 수 있는 것이시거늘, 우리는 지금 (出世)하시니, 능히一切 지혜를 갖추어 法에 걸림이 없는 正等覺者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여

ㄴ. <주본화엄34, 07:08>

A:我等[45(-)]亦[42(ㄴ)]如是[23(ㄹ)]願[15(·)]聞甘露法[41(·),34(-),33(ㄴ),24(/),23(·),44(ㄹ),55(·)]

B:我等[乙]亦[ㄴ]如是[ㄴ]願[入 1]聞甘露法[乙,白,ㄴ,ㄱ,ㄱ,ㄹ,七,ノ, 1]

C:我 等(ㄴ)乙 亦 ㄴ 是 如(ㄴ)ㄴ 願 入 1 甘露法乙 聞白(七)ㄴ(ㄴ)ㄱㄹㄱㄴ 1

D:우리들 또한 이와 같아 원컨대 甘露法을 들으려고 합니다.

- 자토석독구결의 ‘ㄹ ㄱ’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23(·)임. 이는 모두 (14)처럼 어말어미 ‘-ㄹ ㄱ’을 표기하는 데 쓰임. 23(·)은 동사 ‘ㅎ-’와 1인칭 주어와 호응하는 선어말어미 ‘-오-’의 결합형인 ‘-’로 해독되는 구결점이 반드시 후행함. 그리고 ‘-ㄹ ㄱ’과 마찬가지로 23(·)과 호응하는 서술어의 주어는 반드시 복수라는 특징을 보이며, (14ㄱ)처럼 예정의 의미를 나타내거나 (14ㄴ)처럼 소망의 의미를 나타냄.

[7] 33(-)[ㄹ ㄱ ㄱ 1]: 연결어미 -ㄹ ㄱ ㄱ 1

(15) ㄱ. <주본화엄06, 03:21-22>

A:如來[44(·)]一音[33(·)]無有量[25(·),33(-),경계선]能[24(·)]演契經[25(·)]深大海[41(·),13(·)]

B:如來[尸]一音[1]無有量[七,口ハハ1]能[支]演契經[七]深大海[乙,而ハ尸ム]

C:如來尸 一音1 量 無{有}七口ハハ1 能支 契經七 深大海乙 演而ハ尸ム

D:如來의 一音은 量 없으시니, 능히 契經의 深大海를 演說하시되

ㄴ. <주본화엄22, 14:08-09>

A:於我[11(·)]我所[11(·),13(/),53(·)]俱[25(·)]無所著[14(·),34(·)]-중복선]住出世[25(·)]法[53(·),33(-)]世[25(·)]法[53(·),13(-)]無染[44(·),22(·),31(·),51(·)]

B:於我[:]我所[:,ノ今,ヲ十]俱[七]無所著[ノ尸,3,3]住出世[七]法[十,口ハハ1]世[七]法[十,而ハ1ム]無染[尸,而,而ヲ,3七分]

C:(於)我: 我所:ノ今ヲ十 俱七 著ノ尸 所3 無3 出世七 法十 住(ッ)口ハハ1 世七 法十 染尸 無而(ッ)而ヲ3七分

D:나(我)이니 내 것이니 하는 것에 모두 집착할 바 없어 出世의 법에 머무르시니 세상의 법에 물들이 없고 하실 것이며,

- 자토석독구결의 연결어미 구성 ‘-口ハハ1’은 (15)처럼 단일 구결점인 33(-)으로 표기됨. 이 경우 이유, 원인의 의미로 해석됨.

[8] 12(!)[ハ口1], 45(·-)[口ヒ], 13(·-)[口今], 32(·-)[口乙], 14(·-)[口尸]: 선어말어미 -ㅁ-를 포함하는 구성

(16) ㄱ. <주본화엄22, 19:14-15>

A:善[24(·)]來[12(!),33(·)]世尊[11(·)]善[24(·)]來[12(!),33(·)]善逝[11(·)]善來如來[14(·)]應正等覺[11(·)]唯[24(·)]見哀愍[41(·),34(·),43(·)]處此宮殿[53(·),23(/),53(·),34(·),54(·)]

B:善[支]來[ハ口1,イ]世尊[:]善[支]來[ハ口1,イ]善逝[:]善來如來[ハ尸]應正等覺[:]唯[支]見哀愍[ノ尸入乙,3,3]處此宮殿[十,口ハ,而立,口,ヒ1]

C:善支 來ハ口1イ 世尊: 善支 來ハ口1イ 善逝: 善來如來(リ)ハ尸 應正等覺: 唯支 哀愍ノ尸入乙 見3 此 宮殿十 處(ッ)口ハ而立(ッ)口ヒ1

D:“잘 오셨습니다, 世尊이여. 잘 오셨습니다, 善逝여. 잘 오셨습니다, 如來이신 應正等覺이여. 오직 哀愍함을 보여서 이 궁전에 머무르십시오.” 하였다.

ㄴ. <주본화엄34, 05:11>

A:出生[43(·)]佛[35(·),25(·)]境界[24(·),12(-)]聞[45(·-),15(·-)]者悉[34(·)]迷惑[55(·)]

B:出生[ハ]佛[矢,七]境界[リ,ナ1]聞[口ヒ,火七ハ尸入1]者悉[3]迷惑[ナシ七1]

C:出生(ッ)ハ 佛矢七 境界リナ1 聞口ヒ火七ハ尸入1{者} 悉3 迷惑(ッ)ナシ七1

D:出生하여서 부처의 境界이니, 듣는 이라면 다 迷惑한다.

ㄷ. <주본화엄31, 18:07>

A:功德廣大[23(·)]淨[43(·)]無等[13(·-),41(·-),경계선]如其體相[41(·),24(-)]悉能[24(·)]見[34(-),51(·)]

B:功德廣大[ッ3]淨[ハ]無等[口今,而1乙]如其體相[乙,而]悉能[支]見[白,ナ分]

C:功德 廣大ッ3 淨(ッ)ハ 等口今 無而1乙 其 體相乙 {如}而 悉 能支 見白ナ分

D:功德 廣大하여 깨끗하여서 필적할 이 없으시거늘 그 體相과 같이 다 능히 보며,

ㄹ. <주본화엄22, 20:16-17>

A:昔[44(·)]有如來[55(·),54(·)]無礙月[11(·)]-중복선,32(·-),31(·-)]

B:昔[尸]有如來[ナ1,x而x1]無礙月[:,口乙,而ヲ,:]

C:昔尸 如來 有ナ1x而x1 無礙月:(ッ)口乙而ヲ:

D:예전에 如來가 계셨었다, 無礙月이라 하는 분이.

ㅁ. <주본화엄31, 16:14-15>

A: 佛子[34(1)]是[41(·)]爲[14(·)]菩薩摩訶薩[44(·)]第九[25(·)]無著無縛解脫心迴向[11(·),31(·),55(·)]

B: 佛子[3]是[乙]爲[口尸]菩薩摩訶薩[尸]第九[七]無著無縛解脫心迴向[ミ,ノ,才,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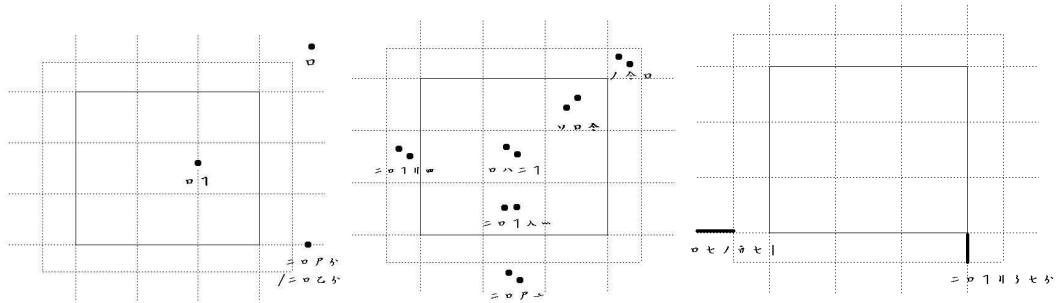
C: 佛子[3]是[乙]爲[口尸]菩薩摩訶薩[尸]九 第七 無著無縛解脫心 迴向[ミ,ノ,才,ナ|]

D: 佛子여 이것을 이릅하기를 菩薩摩訶薩의 아홉째의 無著無縛解脫心迴向이라고 한다.

- 선어말어미 ‘-口-’를 포함하는 구결점으로는 (16ㄱ)의 12(!)[口 1], (16ㄴ)의 45(·-)[口 乙], (16ㄷ)의 13(·-)[口 才], (16ㄹ)의 32(·-)[口 乙], (16ㅁ)의 14(·-)[口 尸] 등이 쓰임.
- 다만 ‘口 乙’과 ‘口 尸’은 32(·-)와 14(·-)로 구분되어 표기되는데, 32(·-)[口 乙]에 포함된 ‘乙’은 특별한 기능을 하지 않는 요소인 것에 비해 14(·-)[口 尸]에 포함된 ‘尸’은 동명사어미 ‘-ㄷ’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임.

3.2 유가사지론 계통의 점토

- 口와 관련된 점토 중 해독 결과가 비교적 확실한 경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1] +15(·)[口]: 연결어미 -口, 의문첨사 -口, 연결어미 구성 -口 1, 선어말어미 -口-

(17) ㄱ. <유가3, 19:01>

A: 復次屢[22~32(·)]觀衆色[34(·),35(·)]觀[+15(·)]而復捨[35(·),21(·)]故[41(·)]名[54(·)]爲眼[53(·),+55(·)]

B: 復次屢[11]觀衆色[乙, 才]觀[口]而復捨[才, X才]故[才]名[下]爲眼[才, 노, 才, 가]

C: 復次屢[11]衆色乙觀[口]觀[口]而復捨[才]X才故[才]名下{爲}眼[才, 노, 才, 가]

D: 또 다음으로 자주 衆色을 보고 보고나서 다시 버리고 하기 때문에 일컬어 眼이라 하며,

ㄴ. <유가3, 04:19>

A: 近攝云何[11~21(-),+15(·)]謂有執受[22~32(·),51(·)]

B: 近攝云何[乙, 口]謂有執受[11, 1]

C: 近攝云何[口]乙口謂(1)有執受[11]

D: 近攝은 무엇인가? 즉 有執受이다.

ㄷ. <금광3, 13:22-13:24>

A: 善男子[22(·)]若[42(·)]得[15(·)]聽聞是金光明經[34(·),11~12(·),+15(·),33(·)]一切菩薩[33(·)]不退阿耨多羅三藐三菩提[44(·),15~25(-),52(·)]

B: 善男子[3]若[七]得[才]聽聞是金光明經[乙, 白, 口, 才, 1]一切菩薩[1]不退阿耨多羅三藐三菩提

[+, 尸, ㄷ ㅅ ㅈ ㅊ]

C:善男子 若 得(ㄴ) 是 金光明經 乙 聽聞(ㅅ) 白 ㅁ ㅈ ㅊ 一切 菩薩 阿耨多羅三藐三菩提
+ 退尸 不(ㅅ) ㄷ ㅅ ㅈ ㅊ

D:善男子야, 만약 능히 이 金光明經을 들으면, 모든 菩薩은 阿耨多羅三藐三菩提에서 물러나
지 않는다.

ㄷ. <금광3, 15:04-05>

자토: 若 有 處處 ㅈ 此 金光明經 乙 講宣 ㅅ 白 ㅁ ㅈ ㅊ ㅈ ㅊ

A: 若有[52(·)]處處[44(·)]講宣此金光明經[34(·), 23~24(·), 11~12(·), +15(·), 25(-), 53(·)]

B: 若有[ㅈ]處處[+]講宣此金光明經[乙, ㅅ ㅈ ㅊ, 白, ㅁ, ㅈ ㅈ ㅊ ㅈ ㅊ]

C: 若 有[ㅈ(ㅈ)]處處+ 此 金光明經 乙 講宣 ㅅ ㅈ ㅈ ㅊ ㅈ ㅊ ㅈ ㅊ

D: “혹 있다, 곳곳에서 이 金光明經을 講宣시키는 것이.

- ㅁ와 일대일대응을 이루는 점토는 +15(·)이다. +15(·)[ㅁ]는 (17ㄱ)처럼 연결어미 ‘-ㅁ’, (17ㄴ)처럼 의문점사 ‘-ㅁ’, (17ㄷ)처럼 연결어미 구성 ‘-ㅁ ㅈ ㅊ’의 ‘ㅁ’, (17ㄷ)처럼 선어말어미 ‘-ㅁ-’의 표기에 이용된다.

[2] 33~34(·)[ㅁ ㅈ]: 연결어미 -ㅁ ㅈ

(18) ㄱ. <유가08 06:15>

A: 當知[51(·)]煩惱[44(·)]略[33~34(·)]有三種[33~43(/), +11(·)]

B: 當知[ㅈ]煩惱[+]略[ㅁ ㅈ]有三種[ㅅ ㅈ ㅈ ㅈ ㅈ]

C: 當(ㅈ) 知(ㅈ) ㅈ 煩惱+ 略 ㅁ ㅈ 三種 有 ㅅ ㅈ ㅈ ㅈ ㅈ

D: 반드시 알아야 한다, 煩惱에 간략히 말하자면 세 가지가 있는 줄을.

ㄴ. <유가05 12:13-15>

A: 所以者何[53(·), 33~34(·)]由[역독선]淨不淨業[23(·)]熏習[33(·)]三界[=42(·)]諸行[33(·)]於愛不愛
趣[=42(·)]中[44(·)]牽引愛不愛自體[34(·), 55(·)]

B: 所以者何[ㅈ, ㅁ ㅈ]由淨不淨業[ㅈ]熏習[ㅈ ㅈ]三界[ㅈ]諸行[ㅈ]於愛不愛趣[ㅈ]中[+]牽引愛不愛
自體[乙, ㅈ]

C: 所以者 何(ㅅ) ㅁ ㅈ 淨不淨 業 ㅈ 熏習 ㅈ ㅈ 三界 ㅈ 諸 行 ㅈ {於}愛不愛 趣 ㅈ 中 ㅈ 愛不愛
自體 乙 牽引(ㅅ) ㅈ

D: 까닭은 무엇이나 하면, 淨·不淨의 業이 熏習한 세 세계의 모든 行은 愛·不愛의 갈래 중에서
서 愛·不愛의 自體를 牽引하며

ㄷ. <금광3, 06:05-06>

Q: 四方 風輪 ㅈ 種種 妙花 乙 悉 ㅈ 散灑 ㅅ ㅁ ㅈ 地上 ㅈ ㅈ 圓滿 ㅅ ㅈ ㅈ ㅈ 菩薩 ㅈ 悉
見 ㅅ ㅈ ㅈ ㅈ ㅈ

A: 四方[42(·)]風輪[22~32(·)]種種妙花[34(·)]悉皆散灑[=33~34(·), 구결자(ㅁ ㅈ)]圓滿地上菩薩
[33(·)]悉見[=42(-), 51(·)]

B: 四方[ㅈ]風輪[ㅈ]種種妙花[乙]悉皆散灑[ㅁ ㅈ]圓滿地上菩薩[ㅈ]悉見[ㅈ ㅈ ㅈ, ㅈ]

C: 四方 ㅈ 風輪 ㅈ 種種 妙花 乙 悉 皆 散灑(ㅅ) ㅁ ㅈ 地上(+) 圓滿 菩薩 ㅈ 悉 見 ㅈ ㅈ ㅈ ㅈ

D: 사방의 風輪이 갖가지 妙花를 다 散灑하니, 地上에 圓滿하게 한 것을 보살은 다 볼 수 있
다.

- 자토석독구결의 ‘ㅁ ㅈ’은 33~34(·)[ㅁ ㅈ]과 일대일대응이 되며, (18ㄱ-ㄴ)처럼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예도 있고, (18ㄷ)처럼 원인, 이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예도 있음. 다만 원인, 이

- 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보다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예가 훨씬 많음.
- 명사문 피부정 서술어에 쓰이는 ‘-ㅁ 1’과 대응되는 33~34(·)[ㅁ 1]는 발견되지 않음.

[3] 15(·)[ㄴㅅㅁ]: 의문첨사 -ㅁ

(19) <유가08 21:14-15>

- A: 何等[34(/)]習氣位業[51(·),15(·)]謂已生已滅[22(·)]不現前[33(/)]業[51(·)]
B: 何等[ㄴ 1 乙]習氣位業[1,ㄴㅅㅁ]謂已生已滅[3]不現前[ㄴ 1]業[1]
C: 何(ㄱ) 等ㄴ 1 乙 習氣位業(ㄱ) 1 ㄴㅅㅁ 謂 已生已滅(ㄴ) 3 不現前ㄴ 1 業(ㄱ) 1
D: 어떠한 것들을 習氣位業이라 하는가? 즉 已生已滅하여 不現前한 業이다.

- 의문첨사 ‘-ㅁ’는 자토석독구결에서 ‘ㄴㅅㅁ’의 형식에서 많이 쓰임.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에서는 ‘ㄴㅅㅁ’와 일대일대응이 되는 15(·)를 통해 의문첨사 ‘-ㅁ’를 표기하기도 함.

[4] 33(·)[ㅁㅁㅁ 1]: 연결어미 구성 -ㅁㅁㅁ 1

(20) <금광3, 14:22-14:23>

- 자토:是 金光明經 乙 說 尸 已 ㄴㅁㅁㅁ 1 三万億 菩薩摩訶薩 1 無生法忍 乙 得 ㅁㅁㅁ ㅁ
A: 說是金光明經[34(·),15~25(-)]已[24(·),33(·)]三万億菩薩摩訶薩[33(·)]得無生法忍[34(·),45~55(·)#45(·)]
B: 說是金光明經[乙,尸]已[ㄴ,ㅁㅁㅁ 1]三万億菩薩摩訶薩[1]得無生法忍[乙,ㅁㅁㅁ ㅁ]
C: 是 金光明經 乙 說 尸 已 ㄴ(ㄴ)ㅁㅁㅁ 1 三万億 菩薩摩訶薩 1 無生法忍 乙 得 ㅁㅁㅁ ㅁ
D: 이 金光明經을 說하고 나시니, 三万億 菩薩摩訶薩은 無生法忍을 얻으셨으며,

- 연결어미 구성 ‘-ㅁㅁㅁ 1’과 일대일대응이 되는 점토로 33(·)이 쓰임. 유일례.
- 참고로 ‘-ㅁㅁㅁ’에 대응되는 점토 구성은 발견되지 않으며, ‘ㅁㅁ’과 일대일대응이 되는 점토도 찾아보기 힘들.

[5] +45~55(·)[ㄴㅁㅁㅁ/ㄴㅁㅁㅁ]: 선어말어미 -ㅁㅁㅁ-, -ㅁㅁㅁ-

(21) ㄱ. <금광3, 13:04-05>

- 자토:敬禮 ㄴㅁㅁㅁㅁㅁㅁ 譬喻 ㄴㅁㅁㅁㅁ 無 ㄴㅁ 深無相義 乙 說 ㄴㅁㅁㅁ 1 乙 衆生 ㄴㅁ {於}見 乙 失 ㄴㅁㅁ 1 乙 世尊 ㄴㅁㅁ 能 ㅁ 濟度 ㄴㅁㅁㅁㅁㅁ
A: 敬禮[11~12(·),41(·)#41~51(·)]無譬喻[22(·),+15~25(-),54(·)-잡+]說深無相[35(/),53(·)]義[34(·),지시선]衆生[22~32(·)]失於見[34(·),34~44(·),22(·),44~45(/),구결자(乙ㅁ)]世尊[22~32(·),빼침선(24)]能[55(·)]濟度[+45~55(·)]
B: 敬禮[乙,ㅁㅁㅁㅁ]無譬喻[ㄴ,ㄴㅁㅁㅁ,ㅁ]說深無相[1 乙,ㅁ]義[乙]衆生[ㄴ]失於見[乙,ㅁㅁ,ㄴ,1 ㅁㅁ]世尊[ㄴ,ㄴㅁ]能[ㅁ]濟度[ㄴㅁㅁㅁ/ㄴㅁㅁㅁ]
C: 敬禮(ㄴ)ㅁㅁㅁㅁㅁ 譬喻(ㄴ)ㅁㅁㅁㅁ 無 ㅁ 深無相義 乙 說 1 乙 衆生 ㄴㅁ {於}見 乙 ㅁㅁ 失 ㄴㅁㅁ 1 乙 世尊 ㄴㅁㅁ 能 ㅁ 濟度 ㄴㅁㅁㅁㅁ/ㄴㅁㅁㅁㅁ
D: “敬禮합니다,譬喻할 바 없으시어 深無相義를 說하신 것을. 衆生이 正見을 잃은 것을 世尊이시라야 능히 濟度하시며,

ㄴ. <금광3, 13:10-11>

자토:世尊ヲ 無邊身₁ 一言字_ㄱ刀 說尸 不冬_ㄴニロ尸_ㄴ 一切 弟子衆ヲ₊ 法雨_乙 飽滿_ㄴㄴ_ㄴセ
イッ尸_ㄴㄴ_ㄴ 故_ノニロ尸_ㄴㄴ_ㄴ

A:世尊[23(·), 구결자(ヲ)]無邊身[33(·)] 不說一言字[+11~12(·), 14(·), 15~25(-), +53(·)] 一切弟子衆
[23(·), 44(·)]飽滿法雨[34(·), 23~24(·), 33~44(/)]故[+35(/), =43(·), 21(·), +45~55(·)]

B:世尊[ヲ]無邊身[1] 不說一言字[ㄱ, 刀, 尸, x_ㄴ]一切弟子衆[ヲ, +]飽滿法雨[乙, ㄴ_ㄴ, 세이]故[ㄴ_ㄴ
乙, ㄴ_ㄴ, ㄴ, ニ로乙_ㄴ/니로尸_ㄴㄴ_ㄴ]

C:世尊ヲ 無邊身₁ 一言字_ㄱ刀 說尸 不x_ㄴ 一切 弟子衆ヲ₊ 法雨_乙 飽滿_ㄴㄴ_ㄴ세이_ㄴㄴ_ㄴ乙_ㄴㄴ_ㄴ
故_ノ니로乙_ㄴㄴ_ㄴ/니로尸_ㄴㄴ_ㄴ

D:世尊의 無邊身은 하나의 言字만큼도 說하지 않으시나, 모든 弟子들에게 法雨를 飽滿하게
하고자 하는 까닭으로 하시며,

- 금광명경은 자토와 점토가 모두 기입되어 있는데, +45~55(·)는 (21ㄱ)처럼 자토의 ‘니로乙_ㄴㄴ_ㄴ’와 대응되기도 하고 (21ㄴ)처럼 자토의 ‘니로尸_ㄴㄴ_ㄴ’와 대응되기도 함. 이러한 대응 관계를 고려하면 ‘니로尸_ㄴㄴ_ㄴ’과 ‘니로乙_ㄴㄴ_ㄴ’은 동일한 형태소를 표기하고자 한 것으로 추정됨.

[6] +41~51(-)[로세노췌ㄴ]: 연결어미 -로세

(22) <금광3, 15:13-14>

자토:其 湏세이_ㄴ尸_ㄴ 所_乙 隨_ノ 意_乙 如_ハ 供給_ㄴㄴ_ㄴホ 悉 具足_ㄴ{令}ㄴ_ㄴ로세노췌ㄴ

A:隨其所湏[33~44(/), +15~25(-), 34(·), 21(·)]如意[34(·), 32~42(·)]供給[15(·)]悉[22(·)]令具足
[23~24(·), +15(·), +41~51(-)]

B:隨其所湏[세이, ㄴ_ㄴ, 乙, ㄴ]如意[乙, ㄴ]供給[ㄴ]悉[호]令具足[ㄴ_ㄴ, 로, 로세노췌ㄴ]

C:其 湏세이_ㄴ尸_ㄴ 所_乙 隨_ノ 意_乙 如_ハ 供給(ㄴ_ㄴ)ホ 悉_ㄴ 具足_ㄴㄴ_ㄴ로세노췌ㄴ

D:그들이 필요로 하는 바에 따라 (그들의) 뜻대로 供給하여서 다 具足하게 하려고 합니다.

- 연결어미 ‘로세’와 일대일대응이 되는 점토는 찾아보기 힘들.
- 연결어미 ‘로세’는 (22)의 +41~51(-)[로세노췌ㄴ]처럼 ‘로세’이 포함된 구성으로 해독되는 점토를 통해 표기되는 특징을 보임.

[7] 24(·)[로로令], 31(·)[니로1ㄴ], +53(·)[니로尸_ㄴ], 43(·)[니로1ㄴ_ㄴ], 54~55(ㄴ)[니로1ㄴ_ㄴ로세_ㄴ]: 선어말어미 -로-를 포함하는 구성

(23) ㄱ. <금광3, 07:02-03>

자토:能_ㄴ 摧伏_ㄴ로令_ㄴ 無₁ 聞持陀羅尼_ㄴㄴ_ㄴ {爲}ㄴ_ㄴ本_ㄴㄴ_ㄴ乙_ㄴ 作_ㄴㄴ_ㄴ1ㄴ_ㄴㄴ_ㄴ

A:無能[25(·)]摧伏[24(·), 33(·)]聞持陀羅尼[31(·), 22~32(·)]爲[21(·)]#11~21(·)]作本
[+45(/)#45(/), 43(ㄴ)]

B:無能[ㄴ]摧伏[로令, 1]聞持陀羅尼[ㄴ, ㄴ]爲[ㄴ_ㄴ]作本[ㄴ_ㄴㄴ_ㄴ, ㄴ_ㄴ1ㄴ_ㄴㄴ_ㄴ]

C:能_ㄴ 摧伏(ㄴ)로令_ㄴ 無₁ 聞持陀羅尼_ㄴㄴ_ㄴ 爲_ㄴㄴ_ㄴ本(ㄴ)ㄴ_ㄴㄴ_ㄴ乙_ㄴ 作_ㄴㄴ_ㄴ1ㄴ_ㄴㄴ_ㄴ

D:능히 摧伏시킬 이 없는 聞持陀羅尼가 위하여 근본이 되는 까닭으로,

ㄴ. <금광3, 13:08-09>

자토:生死_乙 損 不冬_ㄴ니1ㄴ_ㄴ 故_ノ 願_ㄴㄴ_ㄴホ 尊₁ 涅槃_乙 證_ㄴ니로1ㄴ_ㄴ 二法見_乙 過_ㄴㄴ_ㄴ
1ㄴ_ㄴ 故_ノ 是 故_ㄴ 寂靜_乙 證_ㄴ니로1ㄴ_ㄴ로세_ㄴ

A:不損生死[34(·), 15~25(-), 43(·)]故[21(·)]願[15(·)]尊[33(·)]證涅槃[34(·), 31(·)]過二法見

[34(·),43(·)]故[21(·)] 是故[43(·)]證寂靜[34(·),54~55(·)]

B:不損生死[乙,尸,ニ1入ム]故[ノ]願[ホ]尊[1]證涅槃[乙,ニコ1リ4]過二法見[乙,ニ1入ム]故[ノ]是故[ム]證寂靜[乙,ニコ1リ3セカ]

C:生死乙 損尸 不(ッ)ニ1入ム 故ノ 願(ッ3)ホ 尊1 涅槃乙 證(ッ)ニコ1リ4 二 法 見乙 過(ッ)ニ1入ム 故ノ 是 故ム 寂靜乙 證(ッ)ニコ1リ3セカ

D:生死를 덜지 않으신 까닭으로 願하여서 世尊은 涅槃을 證하신 이라, 두 法의 견해를 넘으신 까닭으로 이런 까닭으로 寂靜을 證하신 것이며,

ㄷ. <금광3, 13:12-13>

자토:衆生ヲ 相乙 思惟ッ白ノ尸ム 一切 種 皆セ 無ッ1リ3セ1ッニコ尸ム 困苦ット1 諸 衆生ヲ+ 世尊リニシ 普リ 救濟ッニコ尸ム

A:衆生[23(·)]相[34(·)]思惟[+13(·)]一切種皆[42(·)]無[51(/),+53(·)]困苦[21(/)]諸衆生[23(·),44(·),구결자(otto)]世尊[24(배침선)]普[22~32(·)]救濟[+45~55(·)]

B:衆生[ヲ]相[乙]思惟[白ノ尸ム]一切種皆[セ]無[x1,ニコ尸ム]困苦[X]諸衆生[ヲ,+]世尊[ニシ]普[리]救濟[ニコ尸ム/ニコ乙가]

C:衆生ヲ 相乙 思惟(ッ)白ノ尸ム 一切 種 皆セ 無x1(ッ)ニコ尸ム 困苦X 諸 衆生ヲ+ 世尊(리)ニシ 普리 救濟ニコ尸ム/ニコ乙가

D:衆生の 相을 思惟하시되 一切 種 모두 없는 것이다 하시나, 困苦的 모든 중생에게 世尊이 시라야 널리 救濟하시며

ㄹ. <금광3, 15:11>

자토: 何以故ッ白ノ尸ム入1 說法セ{之} 處リ 卽ノ 是1 其 塔リニコ1入ム

A: 何以故說法[42(·)]之處[22~32(·)]卽[21(·)]是[33(·)]其[=22~32(·),43(·),53(·)]塔[지시선]

B: 何以故說法[セ]之處[리]卽[ノ]是[1]其塔[리,ニコ1入ム,ム]

C: 何以故 說法セ{之} 處리 卽ノ 是1 其 塔리ニコ1入ム

D: 왜냐 하면, 說法하는 곳이 곧 그 塔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선어말어미 ‘-로-’를 포함하는 구결점으로는 (23ㄱ)의 24(·)[ッ로스], (23ㄴ)의 31(·)[ニコ1리4]와 54~55(·)[ニコ1리3세카], (23ㄷ)의 +53(·)[ッニコ尸ム], (23ㄹ)의 43(·)[리ニコ1入ム] 등이 쓰임.

4. 쟁점 사항에 대한 논의

4.1. 연결어미 -로1과 그 관련형 -로나1, -로하하1/로하니1

- 자토석독구결에 쓰인 ‘로1’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석되어 왔음.

(24) ㄱ. 연결어미 ‘-로1’

<구인15:02> 諸1 法1 因緣ム 有ッ가ッ로1 有ム 無ムセ 義リ {是}리 {如}1ッ가1

모든 法은 인연으로 있으며 하니 有와 無의 뜻이 이와 같다.

ㄴ. 명사문 피부정 서술어의 어미 ‘-로1’

<화엄11:16> 若 能 法ヲ 永々 滅ッ로1 不失ヒ1入乙 知モ尸入1

만약 能히 法이 영원히 滅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앎는 것을 보면

ㄷ. 선어말어미 ‘-로-’+동명사어미 ‘-1’

<금광13:09-10> 世尊ヲ 智1 一味リニ下 淨品ム 不淨品ムノ今+ 界乙 分別 不冬ッニコ尸ム 故ノ 無上清淨乙 獲ニコ1리3세1

世尊의 智慧는 한 맛이시어 淨品이니 不淨品이니 하는 것에 대하여 境界를 分別하지 않으시는 까닭으로 無上清淨을 얻으신 것입니다.

- 문제는 (24ㄱ)과 (24ㄴ)의 ‘-ㅁ 1’도 ‘-ㅁ-’와 ‘-1’으로 더 분석이 될 수 있을지 여부임. ‘-ㅁ 1’과 ‘-ㅁㅁㅁ 1/ㅁㅁㅁ 1’도 원인, 이유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ㅁ 1’과의 관련성을 부정하기는 힘들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24ㄱ)의 ‘-ㅁ 1’도 ‘-ㅁ-’와 ‘-1’으로 분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이와 관련하여 황선엽(2004)에서는 ‘-ㅁ 1’과 ‘-ㅁㅁㅁ 1/ㅁㅁㅁ 1’을 선어말어미 ‘-ㅁ-’와 동명사어미 ‘-1’이 통합하여 하나의 연결어미 ‘-ㅁ 1’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기적 현상으로 보았음.
- 한편, 점토석독구결에서는 화엄경, 유가사지론 모두 ‘ㅁ 1’만을 표기하기 위한 독립적인 점토가 존재하며, 이들은 (24ㄴ)과 같은 용법을 보이지 않음.
- 예를 들어, 화엄경에서 ‘ㅁ 1’과 일대일대응이 되는 점토는 32위치의 단점인 32(·)이며, 이들은 모두 연결어미 ‘-ㅁ 1’이나 명사문 피부정 서술어 어미 ‘-ㅁ 1’만을 표기함. 반면에 선어말어미 ‘-ㅁ-’+동명사어미 ‘-1’로 분석되는 ‘-ㅁ 1’의 경우 12(!)[ㅁㅁ 1]처럼 12위치의 점토로 표기됨(단 연결어미 구성을 나타내는 12(!)[ㅁㅁ 1]도 있음). 화엄경에서는 12위치에 동명사어미 ‘-1’을 표기하기 위한 점토가 현토되고 있음.
유가사지론에서도 33~34(·)[ㅁ 1]은 모두 연결어미 용법으로만 쓰임. 선어말어미 ‘-ㅁ-’+동명사어미 ‘-1’로 분석되는 ‘ㅁ 1’은 31(·)[ㅁㅁ 1 ㅁㅁ], 54~55(!)[ㅁㅁ 1 ㅁㅁ ㅁㅁ], 43(·)[ㅁㅁㅁ ㅁㅁㅁ]처럼 다른 점토로 표기됨.
- 또한 화엄경과 유가사지론 모두 ‘ㅁㅁㅁ 1/ㅁㅁㅁ 1’과 일대일대응이 되는 점토가 존재함(화엄경: 33(-)[ㅁㅁㅁ 1] 유가사지론: 33(·)[ㅁㅁㅁ 1]). 이들은 모두 이유, 원인의 연결어미로서 쓰임.
-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ㅁ 1’과 ‘-ㅁㅁㅁ 1/ㅁㅁㅁ 1’은 당시에 하나의 연결어미로서 굳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25) ㄱ. <금광3, 13:22-13:24>

Q:善男子 若 得 卽 是 金光明經 乙 聽聞 ㅁㅁㅁ ㅁㅁㅁ 一切 菩薩 1 阿耨多羅三藐三菩提 ㅁㅁㅁ 1 退 不 ㄱㅁㅁㅁ ㅁㅁㅁ ㅁㅁㅁ

A:善男子[22(·)]若[42(·)]得[15(·)]聽聞是金光明經[34(·),11~12(·),+15(·),33(·)]一切菩薩[33(·)]不退阿耨多羅三藐三菩提[44(·),15~25(-),52(·)]

B:善男子[ㅁ]若[ㅁ]得[ㅁ]聽聞是金光明經[乙, ㅁ, ㅁ, ㅁ, ㅁ]一切菩薩[1]不退阿耨多羅三藐三菩提[ㅁ, ㅁ, ㅁ, ㅁ, ㅁ]

C:善男子 若 ㅁ 得(ㅁ) 卽 是 金光明經 乙 聽聞(ㅁ) ㅁㅁㅁ ㅁㅁㅁ 一切 菩薩 1 阿耨多羅三藐三菩提 ㅁㅁㅁ 退 ㅁㅁ 不(ㅁ) ㅁㅁㅁ ㅁㅁㅁ

D:善男子야, 만약 ㅁㅁ 이 金光明經을 ㅁㅁㅁ, 모든 菩薩은 阿耨多羅三藐三菩提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ㄴ. <주본화엄34, 08:21>

A:佛子[34(!)]若[25(·)]有[55(·)]衆生[24(!)]深[24(!)]種善根[41(·),34(·),12(-),24(!),11(·)]

B:佛子[ㅁ]若[ㅁ]有[ㅁ]衆生[ㅁ]深[ㅁ]種善根[乙, ㅁ, ㅁ, ㅁ, ㅁ]

C:佛子 若 ㅁ 有 ㅁ 衆生 ㅁ 深 ㅁ 善根 乙 種 ㅁㅁ ㅁㅁ ㅁㅁ

D:“불자야, ㅁㅁ 있다, 중생이 ㅁㅁ 선근을 ㅁㅁ 이가.

ㄷ. <금광3, 15:04-05>

자토: 若有處處₃此 金光明經_乙 講宣_ハ白_ロナ₁矢_ハ

A: 若有[52(·)]處處[44(·)]講宣此金光明經[34(·),23~24(·),11~12(·),+15(·),25(-),53(·)]

B: 若有[ナ]處處[+]講宣此金光明經[乙,ハ,リ,白,ロ,ナ₁矢,ハ]

C: 若有[ナ(1)]處處+ 此 金光明經_乙 講宣_ハリ_白ロ_ナ1_矢ハ

D: “혹 있다, 곳곳에서 이 金光明經을 講宣시키는 것이.

- 반면에 화엄경과 유가사지론 모두 ‘-ロナ1’은 (25)처럼 ‘ロ’를 표기하기 위한 점토와 ‘ナ1’을 표기하기 위한 점토의 조합으로 분리되어 표기됨. 또한 ‘-ロナ1’은 관형 구성에도 쓰인 예가 관찰되는 것을 보면(25ㄴ, ㄷ), ‘-로1’이나 ‘-로하_ハ1/로하_ハニ1’과 달리 연결어미로서 완전히 굳어지지 않은 듯함.

- 연결어미 ‘-로1’의 의미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음.

- ① 원인, 이유
- ② 조건

(26) ㄱ. <화소10:18-19> 我₁ 今_ッ1 衰老_ッ身₁ 重疾_ッ 嬰_セッ_ハ 癯獨_ッ 羸頓_ッ 死_ロ1_ハ 死_ノ人₁ 將_ハ今_ハ久_ク尸_ハ 不_ッホロ乙イ

나는 지금은 노쇠하여 몸은 중병에 걸렸으며 외롭고 지치고 하니 죽는 것은 장차 오래지 않습니다.

ㄴ. <금광06:05-06> 四方 風輪_リ 種種_セ 妙花_乙 悉_ッ 皆_セ 散灑_リロ₁ 地上_ッ 圓滿_ハセ_ノ1_ハ 乙 菩薩₁ 悉_見ッ_ナセ

四方의 風輪이 갖가지 妙花를 다 흩뿌리니 地上에 圓滿한 것을菩薩은 다 본다.

ㄷ. <주본화엄57, 01:17-18>

A: 略說[32(·)]菩薩取一切法[55(·)]於一切處[53(·)]悉[34(1)]以明智[41(·),34(1)]而[45(·)]現了故

B: 略說[ロ1]菩薩取一切法[ナセ1]於一切處[+]悉[3]以明智[乙,3]而[3]現了故

C: 略說_ロ1 菩薩 一切 法 取(ッ)ナセ1 {於}一切 處+ 悉₃ 明智_乙 以₃ 而₃ 現了 故

D: 간략히 말하자면 보살이 一切 法을 취한다. 一切 처소에서 다 明智를 써 現了하기 때문이다.

ㄷ. <유가04:08> 又 正說法₃ 略_ロ1 二種 有_セ1

또 바르게 법을 설하는 것에, 간략히 말하자면, 두 가지가 있다.

- (26ㄱ, ㄴ)은 원인, 이유의 용법으로 쓰인 ‘-로1’이고, (26ㄷ, ㄷ)은 조건의 용법으로 쓰인 ‘-로1’의 예임. ‘-로1’이 이처럼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기도 하고 조건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과 관련하여 고전 일본어의 접속조사 ‘-ば’의 용법이 주목됨.

(27) ㄱ. 命長ければ恥多し。(徒然草)

[오래 살다 보면 의례 치욕도 많다]

ㄴ. 目を覺まして聞けば、鹿なむ鳴きける。(大和物語)

[잠을 깨어 들었더니 사슴이 우는구나.]

ㄷ. 今は亡き人なればかばかりのことも忘れがたし。(徒然草)

[이제는 죽은 사람이므로 그 정도의 일도 잊기 어렵다.]

- ‘-ば’는 활용어의 이연형(已然形)에 접속하면 순접의 확정조건을 나타내는데, 구체적으로

(27ㄱ)처럼 항상적 조건을 나타내기도 하고 (27ㄴ)처럼 우연적 조건을 나타내기도 하고 (27ㄷ)처럼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기도 함(한미경 2004: 133).

- (28) ㄱ. <유가30:23-31:02> 若 {於}是 如_ㅁ 十種 過失_ㅁ + 永_ㅁ 不相應_ㅁ 唯_ㅁ 最後身_ㅁ 任持_ㅁ 所_ㅁ {有} 第二餘身_ㅁ 畢竟 不起_ㅁ ㄴ. <금광13:22-24> 善男子_ㅁ 若 得_ㅁ 是 金光明經_ㅁ 聽聞_ㅁ 白_ㅁ 一切 菩薩_ㅁ 阿耨多羅三藐三菩提_ㅁ + 退 不_ㅁ 善男子여, 만약 능히 이 金光明經을 들으면 (반드시), 모든 菩薩은 阿耨多羅三藐三菩提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 조건으로 해석되는 ‘-ㅁㅁ’은 (28ㄱ)처럼 항상적 조건을 나타내는 경우가 발견되며, 이러한 용법은 (28ㄴ)의 ‘-ㅁㅁㅁ’에서도 관찰됨. 이러한 점에서 ‘-ㅁㅁ’은 (27ㄱ)의 ‘-ㅁ’와 통하는 점이 있음.

- (29) ㄱ. <유가03:22> 是 如_ㅁ 聖法_ㅁ + 略_ㅁ 二種 有_ㅁ ㄴ. <유가10:12-13> 是 如_ㅁ 一切 所對治_ㅁ 法_ㅁ 當_ㅁ 知_ㅁ 總_ㅁ 說_ㅁ 一門_ㅁ + 十二_ㅁ 一門_ㅁ + 十四_ㅁ 一門_ㅁ ㄴ. 이와 같은 일체의 소대치의 법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총괄하여 말하자면, 한 문에는 열둘이며 한 문에는 열넷인 것이 있는 것이다.

- 또한 조건으로 해석되는 ‘-ㅁㅁ’은 ‘略_ㅁ’, ‘說_ㅁ’으로 많이 쓰이며 ‘(간략히) 말하자면’ 정도로 해석되는데, 이 경우 귀결절의 사태는 조건절의 조건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일어남. 따라서 여기에 쓰인 ‘-ㅁㅁ’은 ‘그리우면 와서 보아라.’처럼 귀결절의 사태가 조건절의 조건 실현 여부와 관련되는 순수한 가정조건의 ‘-면’과는 분명한 용법상의 차이를 보임. 이러한 점에서 (29)의 ‘-ㅁㅁ’은 전형적인 가정조건의 연결어미로 보기 힘들.

4.2. 선어말어미 -ㅁ-의 의미

- 선어말어미 ‘-ㅁ-’의 의미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견해가 제시된 바 있음.

- ① 상대높임의 선어말어미: 박진호(1998)
- ② 원망(願望)의 선어말어미: 이용(1999)

4.2.1. 상대높임 선어말어미라는 견해의 검토

- (30) ㄱ. <자비19:16-19> 闍羅大王_ㅁ 昔_ㅁ 毘沙國_ㅁ 王_ㅁ {爲} 入_ㅁ 維陀始王_ㅁ 與_ㅁ 共_ㅁ 戰_ㅁ 兵_ㅁ 力_ㅁ 如[及]_ㅁ 不_ㅁ 因_ㅁ 誓願_ㅁ 立_ㅁ 願_ㅁ 我_ㅁ 後生_ㅁ 地獄_ㅁ 主_ㅁ {爲} 入_ㅁ 此 罪人_ㅁ 治_ㅁ 十八 大臣_ㅁ 及_ㅁ 百_ㅁ 萬 衆_ㅁ 皆_ㅁ 悉_ㅁ 同_ㅁ 願_ㅁ ㄴ.

열라대왕은 옛날 비사국(毘沙國)의 왕이 되어 있었는데, 유타시왕(維陀始王)을 더붙어서 함께 싸우되 병사의 힘이 미치지 못하게 된 것을 인하여 서원을 세우기를, 원컨대 ‘나는 후생에 지옥에 있는 주인이 되어서 이 죄인을 다스리겠습니다.’ 하였으며 십팔 대신이니 및 백만 대중이니 하는 이도 모두 다 같이 서원을 하였다.

ㄴ. <화소10:08-13> 菩薩 1 自 1 念 1 我 1 無始 1 已來 1 飢餓 1 以 1 故 1 身 1 喪 1 數 1 無 1 曾 1 得 1 毫末 1 許 1 如 1 衆生 1 饒益 1 而 1 獲 1 善利 1 {有} 1 未 1 今 1 我 1 亦 1 當 1 {於} 1 往 1 昔 1 同 1 而 1 其 1 命 1 捨 1 {是} 1 故 1 衆生 1 饒益 1 {爲} 1 其 1 有 1 所 1 隨 1 一切 1 皆 1 捨 1 乃 1 盡 1 命 1 至 1 亦 1 悵 1 所 1 無 1 應 1

보살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아득한 옛날부터 이제까지 굶주림을 말미암은 까닭으로 몸을 망치되 수없이 하였으나 조금도 능히 털끝만큼 같은 것도 중생을 이롭게 하여 얻은 善利를 가지지 않았다. 지금 나는 또한 반드시 옛날과 같아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것이라서 이 까닭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고자 자신의 있는 바를 따라 모두 다 버리되 그런 것들(에서) 목숨을 다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하여도 또한 아끼는 바 없이 해야 하는 것이다.’ 한다.

- 박진호(1998)의 분석처럼, 석독구결에서 선어말어미 ‘-로-’는 대부분 화자와 청자가 한 곳에 있는 상관적 장면에 사용됨. 이때 대체로 화자보다 청자의 지위가 높음. 다만 구체적인 청자가 없는 화자의 독백에도 간혹 사용되는데, 대부분 (30ㄱ)과 같이 ‘-로 乙 ㄴ ㄷ 1’로 쓰여 1인칭 주어의 다짐·의지를 나타내는 맥락에서 쓰임.

(31) ㄱ. <화엄09:02-03> 善 1 {哉} 1 仁 1 者 1 諦 1 聽 1 應 1 彼 1 諸 1 功 1 德 1 量 1 不 1 我 1 今 1 力 1 隨 1 少 1 分 1 說 1 猶 1 入 1 大 1 海 1 一 1 滴 1 水 1 如 1 乙 1

“훌륭하시군요! 그대여, 자세히 들으시오. 저 모든 功德은 헤아릴 수 없거늘 나는 지금 힘을 좇아 일부분을 이르되, 비유하자면 大海의 한 방울 물 같은 것을 말하겠습니다.”

ㄴ. <화엄09:08-09> {是} 1 如 1 邊 1 無 1 大 1 功 1 德 1 我 1 今 1 {於} 1 中 1 少 1 分 1 說 1 譬 1 鳥 1 足 1 所 1 空 1 如 1 乙 1 亦 1 大 1 地 1 一 1 微 1 塵 1 如 1 乙 1

“이와 같이 가 없는 큰 功德을 나는 지금 일부분을 이르되, 비유하자면 새발로 밟는 하늘과 같으며 또한 大地의 한 微塵과 같은 것을 말하겠습니다.”

ㄷ. <구인03:17-19> 爾 1 時 1 佛 1 大 1 衆 1 告 1 十六 1 大 1 國 1 王 1 意 1 國 1 土 1 護 1 因 1 緣 1 問 1 {欲} 1 知 1 吾 1 今 1 先 1 諸 1 菩 1 薩 1 {爲} 1 佛 1 果 1 護 1 因 1 緣 1 十 1 地 1 行 1 護 1 因 1 緣 1 說 1 白 1

그때에 佛은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十六 大國王이 뜻에 國土를 수호할 인연을 묻고자 하는 것을 알겠구나. 그러나 나는 지금 우선 모든 菩薩을 위하여 佛果를 지킬 因緣이니 十地의 행을 지킬 인연이니 하는 것을 말하겠다.”

- ‘-로 乙 ㄴ ㄷ 1’는 대화문에서도 쓰여 청자에게 화자의 다짐·의지를 나타내기도 함(31ㄱ, ㄴ). 그런데 이러한 의미는 ‘-ㄴ ㄷ 1’가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31ㄷ), 청자가 화자보다 높임의 대상이 아니면 대체로 ‘-로 乙-’이 쓰이지 않는 듯함(31ㄷ).

(32) ㄱ. <화소11:08-09> 時 1 或 1 有 1 人 1 來 1 王 1 白 1 言 1 我 1 今 1 貪 1 饒 1 衆 1 苦 1 逼 1 迫 1

그때에 또 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왕에게 사죄하러 말하기를, “나는 지금 가난하여 많은 괴로움으로 핍박받은 사람입니다.”

ㄷ. <創世11:18-19> 時^ナ 或^カ 有^ナ 人^リ 而^ニ 來^ツ ヲ 白^ク 言^ハ ナ^リ 丁^ニ {此^レ} 轉輪位^ニ ヲ
王^ノ 處^ニ ヲ 訪^フ ヲ 已^ニ 久^ク ハ 而^モ 我^ハ 曾^ニ ハ 而^モ 得^ズ 未^ダ リ ヲ セロ乙 ナ

그때에 또 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사뢰어 말하기를, “이 轉輪位에 왕은 處하시되 이미 오래되셨으나, 나는 조금도 얻지 못했습니다.”

(33) ㄱ. <화엄09:01-07> 爾ッ1 時+ 賢首菩薩1 偈乙 以ッ 答ッ3 曰而尸 善而ロ1{哉}イ 仁者: 諦
 ㄴ 聽而의 應七ッナ | … 十方セ 一切 諸1 如來ㄴ 悉ッ 共セ 偁揚ッニ乃 盡ッ尸 不(ノ)能
 ㄷ 矢ッニロ乙ッセ |

이때 賢首菩薩은 偈로써 答하기를, “훌륭하시군요! 그대여. 자세히 들으시오. … 十方의 一切 모든 如來가 다 함께 稱揚하시나 다할 수 없으실 것입니다.”

ㄴ. <구인11:20-24> 佛1 諸ヲ 道果乙 得ナ1 實天衆ヲ十 告ニ尸 … 唯ハ 佛人 與セ 佛人リニシ
 乃シ {斯} 事乙 知ニテセ1

佛은 道果를 모두 얻은 實天衆에게 告하시기를, “... 오직 부처님과 함께 부처님이시어야 이
에 이 일을 아실 것이다.”

七. <구인11:07-08> 一切 衆生 1 {暫}シ大セ 報ヲ十 住ッロ1乙 金剛原ヲ十 登ッホハニ1リシ
 淨土ヲ十 居ッニウテセ1 如來セ 三業1 徳リ 無極ッロハニ1 我リ尸 今ハ 月光1 三寶乙
 禮ッ白ロトウ1ニ (波斯匿王/月光王→佛)

一切 衆生은 잠시 報에 住하거늘 金剛原에 登하신 이어야 淨土에 居하실 것이다. 如來의 三業은 德이 無極하시니 나인 지금의 月光은 三寶를 禮하옵는 것이다.

- 그런데 ‘-ㅈㅈ-’가 없는 ‘-ㅁㅁㅈㅈ-’에는 다짐의 의미가 없음(32). 그렇다면 다짐의 의미는 ‘-ㅈㅈ-’에 의해 표시되는 듯함. ‘-ㅈㅈ-’는 3인칭 주어인 경우 다짐이 아니라 가능의 의미로도 쓰임(33). 아울러 공교롭게도 ‘-ㅁㅁㅈㅈ-’은 청자가 화자보다 지위가 높을 때 사용됨.

(34) ㄱ. <화엄09:01-02> 爾ッ 1 時+ 賢首菩薩 1 偈乙 以, 答ッ, 曰而尸 善而口 1{哉} 1 仁者:
諦 1 聽 而 1 而 1 應 1 而 1 1

이때 賢首菩薩은 偈로써 答하기를, “홀륭하시군요! 그대여. 자세히 들으시오.”

ㄴ. <구인03:20> 時+ 波斯匿王1 言ニ^ル 善ニキ1イ 大事セ 因緣^ニ 故ノ^ル ソニロト1リ1丁^ツ
 그 때에 波斯匿王은 이르시되 “훌륭하시구나, 큰 일의 인연으로 하신 것이로군요.” 하고

二. <화엄09:05-06> 彼_レ{之} 功德_一 邊際 無_レナ_一 稱量_二ソ_一ヨ_二テ_一可セ_二ソ_一 不_レ矢_レ 與セ_二ソ_一ヨ
等_二ソ_一ヨ_二テ_一今 無セ_二ナ_一 何_レニ 況_レ 量 無_レ 邊_一 無_レ 劫_二ヨ_一十 具_二テ_一 地度_二乙_一 修セ_二ヒ_一 諸_一 功
德 リ ロ ヒ ナ イ

그의 功德은 邊際 없으니 稱量할 수 없으며 함께 하여서 대적할 이 없다. 어찌 하물며 헤아림 없으며 가 없는 劫에 갖추어 십지와 십바라밀을 담은 모든 功德이야(말해 무엇하겠는가)!

卽. <구인11:11-12> 人 中₁ 師子₁ 衆₁ 爲₁ 說₁ 大衆₁ 歡喜₁ 金₁ 散₁
 白₁ 百億萬土₁ 六₁ 動₁ 生₁ 含₁ 生₁ 妙報₁ 受₁
 人中的 師子は 大衆을 爲하여 說하시니, 大衆은 歡喜하여 金花를 뿌리며 百億萬土는 六
 大動하며 生을 含하는 生은 妙報를 받는 것이로구나.

- ‘-ㅁ-’는 화자의 새로운 깨달음을 청자에게 나타내는 맥락에서 사용되기도 함(34). 이때에는 주로 감탄형어미와 함께 쓰이며 현대국어의 ‘-구나’ 정도에 대응됨. 이러한 용법은 특

히 계승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부처님이나 보살의 설법을 들은 후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화자가 부처님이나 보살의 설법을 찬탄하며 발화하는 문장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부분 화자보다 청자가 상위자인 대화문임. 가와사키 케이고(2017)에서는 이와 유사한 용법의 ‘-dot/ot-’에서 관찰되는 청자에 대한 공손성을 ‘정보 강자에 대한 공손성’으로 설명한 바 있음.

- (35) <구인03:17-19> 爾セツト時ト 佛ト 大衆ヲト 告ソニ尸 十六 大國王リ 意トト 國土乙 護ノセセ 因緣乙 問白{欲}ハソントリト入乙[火] 知白ソロウトニット乃 吾ト 今ット 先ト 諸ト 菩薩 {爲}ト
 佛果乙 護ノセセ 因緣ト 十地セ 行乙 護ノセセ 因緣トノ乙 說白リテセト
 그때에 佛은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十六 大國王이 뜻에 國土를 수호할 인연을 묻고자 하시는 것을 알겠구나. 그러나 나는 지금 우선 모든菩薩을 위하여 佛果를 지킬 因緣이니 十地의 행을 지킬 인연이니 하는 것을 말하겠다.”

- 그러나 이처럼 화자의 새로운 깨달음을 청자에게 나타내는 ‘-로-’가 반드시 상위자에 대한 하위자의 발화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님(35).

(36) 가. [1인칭 주어]

<화소10:17-20> 大王下 當ハ 知ロハ而立 我ト 今ット 衰老ット 身ト 重疾トト 嬰セツカ 癯獨ッテ 羸頓ッテソロト 死ノ尸入ト 將ト今ハ 久ッ尸 不ッホロ乙イト 若セ 王ヲ 身セ 手足ト 血肉ト 頭目ト 骨髓トノ今乙 得ッロ乙イ尸入ト 我ヲ{之} 身命ト 必ハ 冀リト入ト 存活ッセ イッホロ乙イト

“대왕이시여, 마땅히 아십시오. 나는 지금은 노쇠하여 몸은 중병에 걸렸으며 외롭고 지치고 하니 (그러므로) 죽는 것은 장차 오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王의 몸의 손·발이니 피·살이니 머리·눈이니 골수·뇌니 하는 것을 얻게 된다면 나의 身命은 반드시 바라건대 살아날 것입니다.

<구인11:13> 天尊ト 快ヲ 十四 王ヲ乙 說ロハニト {是}ト 故ニ 我ト 今ット 略ヲ 佛乙 歎ッ白ロトウトソモハニト

“天尊은 快히 十四王에 대한 것을 說하시니 이 까닭으로 나는 지금 略히 佛을 讚歎드리는 것입니다.” 하셨다.

나. [2인칭 주어]

<유가26:23-27:01> 當ハ 知イト 是乙 名下 奢摩他支トト 不隨順ット 性ニノヲリト丁 (그대는) 반드시 알 것이다/알아야 한다, 이를 일컬어 사마타지에 수순하지 않는 성품이라 하는 것이다.

<제망매가> 阿也 彌陀刹良 逢乎 吾 道 修良 待是古如

아아, 彌陀刹에서 만날 나(를 그대는) 도 닦아 기다릴 것이다/기다리구려.

다. [3인칭 주어]

<구인14:18-19> 爾セツト時ト 波斯匿王ト 言ニ尸 第一義セ 中トト 世諦 有セトッロウ今ト 不矢リトトモ 若セ 言ニ尸 無セトッニヲ尸入ト{者} 智ト 二リト應セツト 不矢リロ乙カ 若セ 言ニ尸 有セトッニヲ尸入ト{者} 智ト 一リト應セツト 不矢리ト

그때에 波斯匿王은 이르시기를, “第一義의 가운데에 世諦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만일 이르시기를 없다고 하신다면 智는 (마땅히) 둘임이 아닐 것이며, 만일 이르시기를 있다고 하신다면 智는 (마땅히) 하나임이 아닐 것입니다.”

<금광13:20> 世尊下 希有難量ノヲニロト 是 金光明經ニ

“세존이시여, 希有하여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시로군요, 이 金光明經은.”

- 한편, ‘-ㅁ-’는 평서형어미 ‘-ㅁ’와 함께 쓰여 사태에 대한 화자의 판단이나 추론의 결과를 새로운 정보로서 청자에게 알려주는 맥락에서 쓰이기도 함(36). 1:2:3인칭 주어 모두 가능하며, 2인칭 주어인 경우 의무 양태로도 해석이 가능한 맥락이 있음(36ㄴ).

(37) ㄱ. <자비19:12-20:02> 今日 道場 同業 大衆下 諸1 餘1 地獄十 雜受ソトイ1 苦報1 復1 記
ソウイキ 可セソ1 不^レ知^ル 是 如ソ1 名號リ 楚毒1 量 無^レ口乙 相セ 與セ 披覽ソウ 具イ
其 事乙 見^ルセノ^レキセ1 經^ル十 云ニ^ル 閻羅王1 一念セ{之} 惡入乙 便 獄事乙 總^ル 自^ラ
身^ヲ十 苦乙 受^クム 亦1 論ソウイキ 可セソ1 不^レ知^ルモ 閻羅大王1 昔^ノ 毘沙國セ 王リ
尸{爲}入ソ1ナ1 維陀始^ニ乙 與セソウホ 共セ 戰^クム 兵セ 力リ 如{及}セ 不モッホソ1
因イ 誓願乙 立リナ^ル 願入1 我1 後生^ル十 地獄^ニセ 主^リ尸{爲}入ソウハ 此 罪人乙 治^ル
口乙イキセ1ソナ 十八 大臣 及セ 百1 萬 衆^ノ今^ノ 皆セ 悉^ク 同^リ 願乙ソナ 毘沙
王^リソ11{者} 今セ 閻羅王^リ 是^リナ1リ 十八 大臣1 今セ 十八 獄セ 主^リ 是^リ口1リ
百 萬^ノ尸{之} 衆1 今セ 牛頭阿旁^リ 是^リ口1 而 此 官屬^リ 悉^ク 北方 毘沙門天王^ヲ
隸^ナリ^リソロハニ

오늘 이 도량의 동업 대중이며, 모든 나머지 지옥에서 잡다히 받는 고통스러운 과보는 또한 기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이와 같은 이름이며 고통은 한량없거늘 서로 함께 (경전을) 펼쳐 읽어 고루 그 일을 보아야 한다. 경에 이르시기를 “염라왕은 일념의 악 때문에 곧 옥사를 맡아 제 몸에 고통을 받되 (그 고통도) 또한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로다. 염라대왕은 옛날 비사국(毘沙國)의 왕이 되어 있었는데, 유타시왕(維陀始王)을 더붙어서 함께 싸우되 병사의 힘이 미치지 못하게 된 것을 인하여 서원을 세우기를, 원컨대 ‘나는 후생에 지옥에 있는 주인이 되어서 이 죄인을 다스리겠습니다.’ 하였으며 십팔 대신이니 및 백만 대중이니 하는 이도 모두 다 같이 서원을 하였다. 비사왕이라 하는 것은 지금의 염라왕이 그이며 십팔 대신은 지금의 십팔 옥의 주인이 그이며 백만 대중은 지금의 우두아방이 그이로다. 이 관속이 다 북방 비사문천왕의 노예인 것이다.” 하셨으며,

1. <구인11:20-24> 佛1 諸ヲ 道果ニ 得ナ1 實天衆ヲ十 告ニテ 善男子ヲ {是}リ 月光王1 已
 シ {於}過去セ 十千劫セ 中ヲセ 龍光王佛法セ 中ヲナツヲ 四住セ 開士リテ{爲}入乙ッ1ナ1
 乙 我1 八住セ 菩薩リテ{爲}入乙ッ1ハ白ウ1入ニ 今ッ1 {於}我ヲ 前ヲナツヲ 大師子吼乙
 ヲナト1 是 {如}1ッカ 是 {如}1ッヲ 汝ヲ 解ッヌ1 所ヲ {如}1ッナ1 眞義ニ 得ヲ 説ト
 1リ四 思議ノ可セッ1 不矢ヲ 度量ノ可セッ1 不矢リロ1 唯ハ 佛人 與セ 佛人リニシ
 乃シ {斯}リ 事ニ 知ニセシ1

佛은 道果를 모두 얻은 實天衆에게 告하시기를, “善男子야, 이 月光王은 이미 過去의 十千劫 가운데 있는 龍光王佛法의 가운데에서 四住의 開士가 되었거늘 나는 八住의 菩薩이 되어 있었사옵기로 지금 내 앞에서 大師子吼를 하였다. 이 같으며 이 같아 너의 解하는 바와 같다. 眞義를 얻어 說하는 것이라 思議함직한 것이 아니며 度量함직한 것이 아니니, 오직 부처님과 함께 부처님이시어야 이에 이 일을 아실 수 있다.”

- (37ㄱ)의 ‘-ㅁㅌㅌ’도 사태에 대한 화자의 판단이나 추론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는 3인칭 주어 계사 구문에서 사용되어 사태에 대한 화자의 판단이나 추론의 결과를 새로운 정보로서 청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공교롭게도 ‘-ㅁㅌㅌ : ’나 ‘-ㅁㅌㅌ’이 쓰이기도 하는데(37ㄱ, ㄴ), ‘-ㅁㅌㅌ’와 큰 의미차이가 느껴지지 않음. 또한 이 경우 청자 높임의 의미가 관찰되지 않음.

(38) ㄱ. <구인02:14-18> 時十 無色界₇子₁ 量 無₇變ノ₁ヒセ 大香花乙 雨₇子₁ム 香₁ 車輪 {如}

トッる 花ヲ 須彌山王 {如}トッナリ 雲 {如}トッる 而ニ 下ッロヒコカ 十八梵天王ヲ 百變異色花乙 雨リる 六欲セ 諸ヲ 天ヲ 量 無セリ 色花乙 雨リるッナカ 其 佛セ 座前ヲ 自然キ 而ニ 九百萬億劫 花ニ 生ノム 上ッリ 非想非非想天ヲ 至ナカ 是セッリ 時ニ 世界セ 其 地ヲ 六種ニ 震動ッロヒ

때에 無色界의 것들은 한이 없는 변화하는 大香花를 뿌리되 (그) 香은 車輪 같고 꽃은 須彌山王 같으니, 구름과 같아 (위에서 아래로) 내렸으며, 十八梵天王은 百變異色花를 뿌리고 六欲의 모든 하늘도 한이 없는 色花를 뿌리고 하며 그 부처의 자리 앞에 자연히 九百萬億劫花가 생기되 위로는 非想非非想天에 이르며 이때에 世界의 그 땅은 六種으로 震動하였다.

ㄴ. <구인03:20-21> 時ニ 波斯匿王ヲ 言ニテ 善ニテ 大事セ 因緣ニ 故ノッニコトヲ 一リ 丁ッる 卽チ 百億種 色セ 花乙 散ッロハニ 變ッる 百億 寶帳ニ 成ナリ 諸ヲ 大衆乙 蓋ッロヒ

때에 波斯匿王은 이르시되 “훌륭하시구나. 큰 일의 인연으로 하신 것이구나.” 하고 곧 百億種 色의 꽃을 뿌리시니 변하여서 百億 寶帳이 되어 모든 大衆을 덮었다.

- 지문에 쓰인 ‘-ロ(ヒ)’의 예는 3인칭 주어를 가진 평서문의 예로, 독자(청자)에게 글쓴이(화자)의 판단이나 추론의 결과를 새로운 정보로서 제시하는 예로 볼 수 있음(38). 이 경우 청자 높임의 의미는 잘 관찰되지 않음.

4.2.2. 원망(願望)의 선어말어미라는 견해의 검토

(39) <화소10:07-08> 時ニ 或カ 有ナリ 人リ 來ッるホ {是}リ 言乙 作ッナリ 汝ヲ 今ッリ {有}キヌ 一 所乙 悉ク 當ハ 我ヲ 與ッロハニ 立ッホ 一

그때에 또 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이 말을 하는 일이. “당신은 지금 가지고 있는 바를 다 마땅히 나에게 주소서.” 했을 때에

- ‘-로-’는 청자에 대한 화자의 청원의 맥락에서도 명령형어미와 함께 사용됨(39). 이는 청자에 대한 화자의 원망(願望)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청자(주어)의 자발적인 의지·의도로 그러한 행동을 해 달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음. 어느 쪽이든 청자에 대한 화자의 공손성을 포함하게 됨. 주로 ‘-로하니호’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때 청자는 높임의 대상임.

(40) <자비18:09-12> 仰願ッ白ロフハ 同リ 慈悲セ 力ニ 安慰衆生力ニ 無量自在力ニ 量 無 一 大神通力ニ 以テ 今 日 道場ニ 同リ 阿鼻大地獄ヲ 苦乙 受ト 一 一切 衆生ヲ 爲テ 懺悔ノ 一 乃ニ 十方セ 不可說セ 一切 地獄セ 衆生ヲ 至 懺悔ノ 一 父母ニ 師長ニ 一切 眷屬ニ 及セリ 今 日 懺悔ノ 一 攝受ッニ 大悲水乙 以テ 今 日 阿鼻地獄 等ッリ 及セ 餘 一 地獄 等ッリ 罪垢乙 洗除ッニ 得 一 清淨 舍リロハニ 今 日 道場ニ 同리 懺悔ット 者ニ 及セ 其 父母ニ 師長ニ 一切 眷屬ニ 及セ 罪垢乙 洗除ッニ 得 一 清淨 舍リロハニ 又 一 六道 一切 衆生ヲ 罪垢乙 洗除ッニ 道場ニ 至リ 畢竟 清淨 舍リロハニ

仰願하옵는 것은, 다같이 慈悲의 力이니 安慰衆生力이니 無量自在力이니 한량없는 大神通力이니 하는 것을 써서, 今日 道場에 있는 다같이 阿鼻大地獄에서 고통을 받는 一切 衆生을 위하여 懺悔하는 것이니, 이로부터 十方의 不可說의 一切 地獄의 衆生에 이르기까지 (이를 위하여) 懺悔하는 것이니, 父母이니 師長이니 一切 眷屬이니 하는 이에게 이르기까지 (이를 위하여) 今日 懺悔하는 것이니 하는 이를 攝受하시어서, 大悲水를 써서 今 日의 阿鼻地獄 같은 것이니 및 다른 地獄 같은 것이니 하는 데에서의 고통을 현재 받는 一切 衆生의 罪垢를 洗除하시어서 능히 清淨하게 하

며 今日 道場에 있는 다같이 懺悔하는 자이니 및 그 父母이니 師長이니 一切 眷屬이니 하는 이의 罪垢를 洗除하시어서 능히 淸淨하게 하시며 또한 六道 一切 衆生の 罪垢를 洗除하시어서 道場에 이르기까지 畢竟 淸淨하게 하소서.

- ‘-口ハ而立’는 독백, 즉 기원의 경우에도 명령형어미와 함께 쓰임(40).

(41) <주본화엄57, 20:04-07>

A: 最後生[25(·)]菩薩[33(·)]震動一切諸[33(·)]佛[35(·)]國土[41(·), 23(ㄱ)]悉[34(ㄹ)]令嚴淨[53(·)]是時[53(·)]一切釋梵[11(·)]四王[11(·), 13(ㄴ), 33(·)]咸[25(·)]來[43(ㄹ)]讚請[23(ㄹ)]唯[23(·)]願[15(·)]菩薩[33(·)]以無生法[41(·), 34(ㄹ)]而[45(·)]現受生[41(·)-중복선, 53(i), 24(ㄴ), 23(ㄴ), 53(ㄷ), 12(ㄷ)]

B:最後生[七]菩薩[一]震動一切諸[一]佛[矣]國土[乙,ソ,ヲ]悉[ヨ]令嚴淨[一+]是時[+]一切釋梵[ミ]四王
[ミ,ノ今,一]咸[セ]來[ホ]讚請[ソ,ヲ]唯[ハ]願[入一]菩薩[一]以無生法[乙,ヲ]而[一]現受生[乙,自,ヲ,
口ハ,ヒ立,ホ一,乙]

C:最後生七 菩薩一 一切 諸一 佛々 國土乙 震動ッ 悉 嚴淨 令(リ) 是 時+ 一切 釋梵
 ； 四王；ノ 今一 咸七 來(ッ)ホ 讚請ッ 唯ハ 願入一 菩薩一 無生法乙 以 而… 生乙 受白
 ； 現イロハモ立(ッ)ホ 一 乙

D:最後生の 보살이 일체 모든 부처의 국토를 진동하여 다 嚴淨하게 한 때에, 이때에 일체 釋梵이니 四王이니 하는 이가 함께 와서 讚請하여 오직 원하건대, “보살은 無生法을 써 生을 받아 나 타내구려.” 하거늘,

- ‘-ㅁㅏㅓㅕ’처럼 청자가 높임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ㅁ-’가 쓰이는 경우가 있음(41). 이것을 보면, 이때의 ‘-ㅁ-’는 청자 높임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것보다는 청자(주어)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기능을 해석하는 것이 맞는 듯함. ‘-ㅁㅏㅓㅕ’와 ‘-ㅁㅏㅓㅕ’가 상대 높임의 등급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시-’의 포함 유무 때문이라고 생각됨.

(42) ㄱ. <화엄02:18-19> 佛子ᆫ 菩薩ᆫ 在家ᆫ ᆞᆯᆡᆫ 當ᆫ 願ᆫ ᆞᆯᆡᆫ 衆生ᆫ 家性ᆫ 空ᆫ ᆞᆯᆡᆫ
知ᆫ ᆞᆯᆡᆫ 其 逼迫ᆫ 免ᆫ ᆞᆯᆡᆫ ᆞᆯᆡᆫ

佛子여 菩薩은 在家할 경우에 반드시 원하기를, “衆生은 家性의 空함을 알아서 그 逼迫을 免하였으면.” 할 것이며

ㄴ. <화엄05:07> 若^セ 叢林^ニ 見^ル 一^ノ 十^ノ 當^ニ 願^ス 衆生^ノ 諸^ノ 天^ノ 及^ニ 人^ノ 今^ニ 敬禮^ス 應^ズ
セ^ル 所^ニ 立^ス

만약 숲을 보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하기를, “衆生은 모든 天이니 및 사람이니 하는 이의 敬禮함 직한 바이었으면.” (할 것이며)

㉔. <화엄05:06> 若_レ 大柱_ニ 見_ル 卽_チ 當_レ 願_フ 衆生 我_レ 諍_ム 心_ニ 離_レ 支_口ハ 忿恨_ノ尸 無_レ 立_ル{有}

만약 큰 기둥을 보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하기를, “衆生은 ‘나’라는 다툼의 마음을 버리고서 성내거나 원망함이 없었으면.” (할 것이며)

- ‘-ㅁㅂㅅㅈㅊ’와 ‘-ㅈㅊ’의 차이는 주어의 의지 개입 유무로 나뉠 수 있는 듯함. ‘-ㅈㅊ’의 경우 주어의 의지가 개입하기 어려운 계사나 형용사와 결합하기도 하나(42), ‘-ㅁㅂㅅㅈㅊ’와 ‘-ㅁㅂㅅㅈ’는 모두 주어의 의지가 개입할 수 있는 타동사와만 결합함.

(43) ㄱ. <화엄14:09> 菩薩 勤^セ 大悲行^乙 修^ルホ 願^入 一切^乙 度^リロハ^ス ノ^ルム 果^直ノ 不^ツル^丁
ノ^ル 無^リッ^ナヲ^四

菩薩은 부지런히 大悲行을 닦아서 願하건대 一切를 건네고자 하되 果 아님 없이 할 것이라
 ㄴ. <주본 화엄22, 12:07>

A: 供養佛[41(·), 34(-), 23(/), 22(·), 25(l)] 心[45(·)] 之所現[33(·), 51(/·)]

B: 供養佛[乙, 白, ロハ, 悉, ノ 今セ] 心[心] 之所現[1, ㄱ가]

C: 佛乙 供養(ッ) 白 ロハ 悉 ノ 今セ 心[心] 之[之] 現1 所ㄱ가

D: 부처를 供養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타난 바이며,

ㄷ. <주본 화엄36, 09:22-23>

A: 此諸[33(·)] 衆生[33(·)] 受如是[12(·)] 苦[41(·), 13(·)] 孤窮[22(·)] 困迫[22(·), 52(·)] 無救
 [23(/), 13(l), 22(·)] 無依[14(·), 22(·), 52(·)] 無洲[22(·)] 無舍[22(·), 52(·)] 無導[22(·)] 無目[22(·), 52(·)]

B: 此諸[1] 衆生[1] 受如是[1] 苦[乙, ㄱ 1 ㄴ] 孤窮[悉] 困迫[悉, ㄱ가] 無救[ロハ, 而 今, 悉] 無依[ノ 尸, 悉,
 ㄱ가] 無洲[悉] 無舍[悉, ㄱ가] 無導[悉] 無目[悉, ㄱ가]

C: 此 諸1 衆生1 是 如1 苦乙 受ㄱ 1 ㄴ 孤窮(ッ) 悉 困迫(ッ) 悉 ㄱ가 救(ッ) 로하 而 今 無 悉 依
 尸 無 悉 ㄱ가 洲 無 悉 舍 無 悉 ㄱ가 導 無 悉 目 無 悉 ㄱ가

D: ‘이 모든 중생은 이와 같은 고통을 받되 孤窮하고 困迫하고 하며, 구하고자 하실 이 없고 의지
 할 것 없고 하며, 섬 없고 집 없고 하며, 이끌 사람 없고 눈 없고 하며,’

- (43)의 ‘-로하’도 모두 주어의 의지·의도를 나타내는 ‘-로-’의 예로 볼 수 있음. 특히 ‘-로하悉’는 중세국어의 ‘-고져’의 직접적인 선대형임. 이 경우 청자 높임은 나타나지 않음.

(44) <주본 화엄36, 01:08-09>

A: 自在天王[33(·)] 大[24(l)] 欣慶[23(l)] 雨摩尼寶[41(·), 24(l), 43(l)] 供養佛[41(·), 23(l)] 讚言[21(l)] 佛[33(·)]
 爲我[23(-), 43(·)] 出興[43(-)] 演說第一功德[25(·)] 行[41(·), 23(/), 12(!), 24(l), 55(\·)]

B: 自在天王[1] 大[ㄱ] 欣慶[ㄱ가] 雨摩尼寶[乙, ㄱ, ㄴ] 供養佛[乙, ㄱ가] 讚言[나 ㄴ] 佛[1] 爲我[ㄱ, ㄱ] 出興
 [ㄴ가] 演說第一功德[ㄱ] 行[乙, 로하, 而 ㄱ, ㄱ, ㄱ가]

C: 自在天王1 大ㄱ 欣慶ㄱ가 摩尼寶乙 雨ㄱ(ㄱ) ㄴ 佛乙 供養ㄱ가 讚言(ッ) 나 ㄴ 佛1 我ㄱ {爲}
 ㄱ 出興(ッ) ㄴ가 第一 功德ㄱ 行乙 演說(ッ) 로하 而 ㄱ ㄱ가

D: 自在天王은 크게 欣慶하여 摩尼寶를 뿌려서 佛을 供養하여 讚言하기를, “佛은 나를 위하여 出
 興하시어 第一 功德의 行을 演說하고자 하셨던 것이로군요.”

- 주어의 의지·의도를 나타내는 ‘-로-’와 그렇지 않은 ‘-로-’가 동시에 존재했다는 것은 (4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선행하는 ‘로하’의 ‘-로-’는 주어의 의지·의도를 나타내는 ‘-로-’이고 후행하는 ‘로하 1’의 ‘-로-’는 화자의 새로운 깨달음을 나타내는 ‘-로-’임.

(45) ㄱ. <구인14:18-19> 爾_ㄱ 時_ㄱ 波斯匿王_ㄱ 言_ㄱ 第一義_ㄱ 中_ㄱ 世諦_ㄱ 有_ㄱ 로하
 不失_ㄱ 若_ㄱ 言_ㄱ 無_ㄱ 로하 智_ㄱ 二_ㄱ 應_ㄱ 不失_ㄱ 若_ㄱ 言_ㄱ 有_ㄱ 로하 智_ㄱ 一_ㄱ 應_ㄱ 不失_ㄱ

그때에 波斯匿王은 (佛께) 이르시기를, ““第一義의 가운데에 世諦가 있다.” (단언·주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만일 이르시기를 “없다.” (단언·주장)하신다면 智는 (마땅히) 둘인 것이 아닐 것이며, 만일 이르시기를 “있다.” (단언·주장)하신다면 智는 (마땅히) 하나임이 아닐 것입니다.”

ㄴ. <구인03:22-23> 世尊_ㄱ 一切 菩薩_ㄱ 云何_ㄱ 佛果_ㄱ 護_ㄱ 云何_ㄱ 十地_ㄱ 行
 乙 護_ㄱ 因緣_ㄱ 로하

“世尊이시여, 一切 菩薩은 어떠한 것을 “佛果를 지키며 十地의 行을 지킬 因緣이다.” (단언·주장)하겠습니까?”

ㄷ. <구인14:07-08> 相續 假法_ㄱ 一 非_ㄱ 異 非_ㄱ 亦_ㄱ 로하 亦_ㄱ 續_ㄱ

不矢_カ異_リ | ッロ尸入1 亦ッ1 續ッ今 不矢1入_三 :

相續 假法은 한 가지[一]도 아니고 다른 것[異]도 아니고 하다. ‘한 가지[一]이다’ (단언·주장)한다면 또한 이어질 것이 아니며 ‘다른 것[異]이다’ (단언·주장)한다면 또한 이어질 것이 아닌 까닭에서이다.

- 한편, (45)의 ‘-ㅁ-’는 모두 주어의 단언·주장을 나타내고 있음. 특히 (45ㄱ)는 ‘-ㅁ-’를 통해 주어가 청자인 ‘佛’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주어의 의지·의도를 나타내는 ‘-ㅁ-’와 마찬가지로 화자가 아니라 주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의미라고 생각됨.

(46) <화소20:03-04> {是}リ乙 {爲}ッロ尸 菩薩摩訶薩尸 七 第七 慧藏：ッロ乙イ牙1：

이를 이름하여 보살마하살의 일곱 번째 慧藏이라 (단언·주장)하는 것이다.

- (46)도 (45)처럼 주어의 단언·주장을 나타내는 ‘-ㅁ-’의 예로 볼 수 있음.

(47) ㄱ, <금광05:18-19> 生死ㄴㄴ 涅槃ㄴㄴ ㄴㄴ入ㄴ 皆 是ㄴ 妄見ㄴㄴ乙 能ㄴ 度ㄴ 尸ム 餘ㄴ 無ㄴㄴ
尸失 是 波羅蜜義ㄴㄴ

‘生死이다 涅槃이다’ 하는 것은 모두 이는 妄見이거늘 능히 濟度하되 남김없이 하는 것, 이것이 波羅蜜의 뜻이며

ㄷ. <구인15:22-25> 大王卞 法輪リ¹ソ¹入¹リ{者} 法本如リカ 重誦如リカ 授記如リカ 不誦偈如
リカ 無問而自說如リカ 戒經如リカ 譬喩如リカ 法界如リカ 本事如リカ 方廣如リカ 未曾有如
リカ 論議如リカソナリ

“大王이시여, ‘法輪이다.’ 하는 것은, 法本如이며, 重誦如이며, 授記如이며, 不誦偈如이며, 無問而自說如이며, 戒經如이며, 譬喻如이며, 法界如이며, 本事如이며, 方廣如이며, 未曾有如이며, 論議如이며 한다.

- (47)과 같이 ‘-ㅁ-’가 없는 환경에서는 주어의 단언·주장의 의미를 확인할 수 없으며, (45)와 비교하여 분명한 의미 차이를 보임.

(48) ㄱ. <자비21:04-12> 獄卒¹ 答³ッ 言¹ナ¹丁 此 如³ッ¹ 罪惡セ 諸¹ 苦乙 受³ト¹モセ 者¹ 父母
乙 孝¹ 尸¹不³ッハ … 懈怠放逸ッ 諸¹ 怨結乙 造³ハ¹ッナ¹入³ハ … 是 如³ッ¹ {等}|ッモセ 人
リ 此ム 來³ッ¹ホ 苦乙 受³ト¹; 免脫ノ今セ{之} 日¹ 至³ト¹ {每}|个¹ 恒¹ 加³ 勸¹ 諭¹ッロ
シ¹丁 此 中³セ 劇¹ 苦¹ 忍¹ 耐¹リッ³ヲ¹ホ 可³セッ¹ 非¹ 矢¹乙 汝¹ 今¹ 得³ホ 出³ッ¹ホナ
リ¹四 復[甲] 更³ 造¹ 尸¹ 勿³セナ¹ッロト³ヲ¹;

獄卒은 답하여 말하기를, “이와 같은 죄악의 모든 괴로움을 받는 자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아니하며 … 게으르고 방일(放逸)하여 모든 원결(怨結)을 지으며 한 까닭으로 이 같은 부류의 사람이 여기에 와서 고통을 받으니, 나는 그가 지옥을 벗어나는 날이 될 때마다 항상 더욱 권유하기를, “이 안에서의 극심한 고통은 참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늘 너는 이제 능히 나가는 것이라서 또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주장)하는데 …”

上. <華嚴02:18-19> 佛子。菩薩¹在家¹。當¹願¹衆生¹家性¹空¹。知¹其¹逼迫¹。免¹支¹立¹牙¹。

佛子여 菩薩은 在家할 경우에 반드시 원하기를, “衆生은 家性的 空함을 알아서 그 逼迫을 免하였으면.” 할 것이며

- (48)도 주어의 단언·주장을 나타내는 ‘-ㅁ-’의 예로 볼 수 있음. 여기에서 청자 높임의 의

미는 파악되지 않음.

- (49) ㄱ. <구인03:17-20> 爾ニ時ニ佛一大衆ヲ告スニテ十六大國王リ意ヲ國土ニ護ルノ
 々セ因緣ニ問フ佛一果ニ護ルノ々セ因緣ニ十地ニ行フ護ルノ々セ因緣ニノ乙 說フリテ諦リ
 聽ク諦リ聽ク善カ之ニ思フ念フ法ニ{如}修ス行ス々ニッハニ一
 그때에 佛은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十六 大國王이 뜻에 國土를 수호할 인연을 묻고자 하
 시는 것을 알겠구나. 그러나 나는 지금 우선 모든 菩薩을 위하여 佛果를 지킬 因緣이니 十
 地の 행을 지킬 인연이니 하는 것을 말하겠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며 잘 이것을 생각
 하고 생각하며 法대로 수행하며 하거라.” (단언·주장)하셨는데,

ㄴ. <자비20:04-21:21> 地獄經ヲ云フニテ地獄ニ間ニ住スノ宮城ニ縱廣一三萬里リ
 一銅鐵ニ成ス所ニ獄卒一答フ言フ此ニ如ク罪惡ニ諸一苦ニ受トスル
 者一父母ニ孝フ不ス何ニ{於}此ニ而テ慈忍ニ生リ容セッハニ一

지옥경에서 이르시기를, “지옥의 사이에 있는 궁성의 세로 가로는 삼만 리인데 구리와 철로
 이룬 바이며, … 獄卒은 답하여 말하기를, “이와 같은 죄악의 모든 괴로움을 받는 자는 부모
 에게 효도하지 아니하며 (하니) … 어찌 이들에게 자비와 인내를 베풀 수 있겠는가?” (獄卒
 이 답하여 말)한다.” (하고 지옥경이 단언)하셨다.

- ‘-ッハニ一’과 ‘-ッハニ一’의 경우 청자 높임의 의미가 관찰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49). 이
 예들도 주어의 단언·주장을 나타내는 ‘-ッ-’의 쓰임으로 보임.

5. 맺음말

- 본고에서 새롭게 주장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연결어미 ‘-ッ一’과 그 불연속 형태 ‘-ッハニ一/ッハニ一’은 하나의 점토로 현토되며 주로
 연결어미로서의 기능만을 나타내는 것을 고려하면, 당시에 하나의 연결어미로서 굳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면에 ‘-ッナ一’은 두 개의 점토로 현토되며 관형 구성도 표기하는
 것을 보면 ‘-ッ一’과 ‘-ッハニ一/ッハニ一’에 비해 하나의 연결어미로서 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 연결어미 ‘-ッ一’은 ① 원인·이유의 의미와 ② 확정 조건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점은
 고전 일본어의 이연형(已然形) 접속조사 ‘-ば’의 용법과 매우 유사하다.
- 선어말어미 ‘-ッ-’는 ① 화자 지향의 선어말어미와 ② 주어 지향의 선어말어미로 나눌 수
 있다. 화자 지향의 선어말어미 ‘-ッ-’는 주로 화자와 청자가 한곳에 있는 상관적 장면에서
 쓰여 사태에 대한 화자의 판단이나 추론의 결과를 새로운 정보로서 청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ッ-’는 화자보다 청자가 지위가 높을 때 주로 쓰이
 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② 주어 지향의 선어말어미 ‘-ッ-’는 주어의 의지·의도나
 단언·주장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ッ-’는 청자 높임의 기능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참고문헌

- 가와사키 케이고(2017), 『중세한국어 감동법이란 무엇인가』, 신구문화사.
- 金星周(2008), 「字吐釋讀口訣 研究의 回顧와 展望」, 『口訣研究』 21, 口訣學會, 39-66.
- 김성주(2013), 「주본화엄경 권제14의 현대역에 대하여」, 『口訣學會 제46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87-139.
- 김영옥(1993), 「鄉歌에 나타난 선어말어미 ‘-古-’의 문법적 기능과 역사적 변화」, 『주시경 학보』 12, 탑출판사, 70-90.
- 김지오(2010), 「『合部金光明經』 字吐口訣의 誤記」, 『口訣研究』 25, 口訣學會, 145-175.
- 김지오(2012), 「釋讀口訣에 나타난 ‘-은여/을여’에 대하여」, 『한국어문학연구』 58, 한국어 문학연구학회, 217-242.
- 남경란(2003), 「《大方廣佛華嚴經疏(卷35)》 입결(口訣) 연구」, 『배달말』 32, 배달말학회, 137-161.
- 남권희·남경란(2016), 「13세기 高麗 釋讀口訣本 『慈悲道場懺法』 卷4 殘片의 구결 소개」, 『국어사연구』 22, 국어사학회, 199-232.
- 南星祐·鄭在永(1998), 「『舊譯仁王經』 釋讀口訣의 表記法과 한글 轉寫」, 『口訣研究』 3, 口訣學會, 195-251.
- 南豐鉉(1998), 「『瑜伽師地論』(卷20) 釋讀口訣의 表記法과 한글 轉寫」, 『口訣研究』 3, 口訣學會, 253-336.
- 南豐鉉(1999), 『國語史를 위한 口訣研究』, 태학사.
- 文玄洙(2017) 『周本『華嚴經』點吐釋讀口訣의 解讀 研究』, 高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문현수(2019), 「“소망”과 “예정”의 어말어미 ‘-긔’와 그 변천 과정에 대하여」, 『국어학』 89, 國語學會, 203-234.
- 문현수(2020), 「《구역인왕경》과 《자비도량참법》의 석독구결 현토 양상에 대하여」, 『국어학』 93, 國語學會, 123-155.
- 박재연(2006),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태학사.
- 박진호(1998), 「고대국어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3』, 국립국어연구원, 121-205.
- 박진호(2003), 「周本 『華嚴經』 卷第36 點吐口訣의 解讀-字吐口訣과의 對應을 中心으로-」, 『口訣研究』 11, 口訣學會, 211-247.
- 박진호(2004), 「周本 《華嚴經》 卷第六의 點吐 重複 表記와 符號」, 『口訣研究』 13, 口訣學會, 129-148.
- 박진호(2011), 「시제, 상, 양태」, 『국어학』 60, 국어학회, 289-322.
- 백두현(1997), 「高麗 時代 釋讀口訣에 나타난 선어말어미의 계열관계와 통합관계」, 『口訣研究』 2, 口訣學會, 27-95.
- 백두현(1999), 「구결 형태 ‘-ㅁㅁㅁ(-고긔)’의 기능에 대한 고찰」, 『형태론』 1권 2호, 형태론, 205-226.
- 백두현(2005), 『석독구결의 문자 체계와 기능』, 한국문화사.
- 서민욱(2005), 「『瑜伽師地論』 卷5·8의 點吐口訣 研究」,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沈在箕·李丞宰(1998), 「『華嚴經』 口訣의 表記法과 한글 轉寫」, 『口訣研究』 3, 口訣學會, 29-112.

- 안대현(2008ㄱ), 「주본『화엄경』점토석독구결의 해독(1)-12와 14위치의 동형성 및 51과 55 위치의 대칭성에 대하여」, 『口訣研究』 20, 口訣學會, 259-286
- 안대현(2008ㄴ), 「주본『화엄경』점토석독구결의 해독(2) -12와 14 위치 및 51 및 55 위치 이외의 점토들에 대하여」, 『國語學』 51, 國語學會, 195-227.
- 안대현(2013), 「『華嚴經疏』 卷35 석독구결의 현대어역」, 『口訣學會 제46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41-85.
- 李丞宰 외(2005), 『角筆口訣의 解讀과 翻譯1』, 태학사.
- 李丞宰 외(2006ㄱ), 『角筆口訣의 解讀과 翻譯2』, 태학사.
- 李丞宰 외(2006ㄴ), 『角筆口訣의 解讀과 翻譯3』, 태학사.
- 李丞宰 외(2009ㄱ), 『角筆口訣의 解讀과 翻譯4』, 태학사.
- 李丞宰 외(2009ㄴ), 『角筆口訣의 解讀과 翻譯5』, 태학사.
- 이승희(1996), 「중세국어 감동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희(2005), 「‘-고라’의 의미 기능에 대한 고찰」, 『형태론』 7권 1호, 형태론, 81-97.
- 이용(1999), 「석독 구결의 선어말 어미 ‘-ㅁ-’에 대하여: 『舊譯仁王經』을 중심으로」, 『형태론』 1권 1호, 형태론, 115-132.
- 이용(2013), 「『합부금광명경』 권3 석독구결의 현대어역」, 『口訣學會 제46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41-225.
- 장경준(2004),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의 해독 방법 연구-권5, 8의 단점(單點)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경준(2007), 『瑜伽師地論』 點吐釋讀口訣의 解讀 方法 研究』, 태학사.
- 장경준(2008), 「點吐口訣 研究의 成果와 當面 課題」, 『口訣研究』 21, 口訣學會, 67-98.
- 장경준(2009), 「湖林本 『瑜伽師地論』 卷3의 點吐에 대한 기초 연구」, 『口訣研究』 23, 口訣學會, 285-304.
- 장경준(2021), 「『합부금광명경』 권3의 점토구결 기초 연구」(『고인쇄문화』 26집 게재 논문의 공동 연구 데이터 반영 수정본), 미간행.
- 장경준(2009), 「湖林本 『瑜伽師地論』 卷3의 點吐에 대한 기초 연구」, 『口訣研究』 23, 口訣學會, 285-304.
- 장경준·오민석·문현수·허인영(2015), 『『유가사지론』 권20의 석독구결 역주』, 박문사.
- 장윤희(1998), 『중세국어 종결어미 연구』, 태학사.
- 鄭在永(1998), 「合部金光明經(卷三)釋讀口訣의 表記法과 한글 轉寫」, 『口訣研究』 3, 口訣學會, 113-194.
- 鄭在永 외(2003), 『韓國 角筆 符號口訣 資料와 日本 訓點 資料 研究』-華嚴經 資料를 중심으로-, 태학사.
- 황선엽(2002), 『국어 연결어미의 통시적 연구 -한글 창제 이전의 차자표기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황선엽(2003), 「구결자 ‘ㅅ’의 해독에 대하여」, 『口訣研究』 10, 口訣學會, 115-142.
- 황선엽(2004), 「석독구결 자료의 불연속 형태소 ‘-ㅁ 1’에 대하여」, 『형태론』 6권 1호, 형태론, 109-127.
- 황선엽(2013), 「『舊譯仁王經(上)』의 역주에 대하여」, 『口訣學會 제46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40.
- 황선엽·이전경·하귀녀 외(2009), 『석독구결사전』, 박문사.

구결자 ‘ㄷ’ 다시 보기: 동명사 어미로서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강혁(서울대)

1. 들어가며

구결자 ‘ㄷ’는 일반적으로 선어말어미와 의존명사로서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발표문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봄과 동시에 종래에 의존명사로 파악했던 ‘ㄷ’에 대하여 점토 석독구결 용례의 검토를 통하여 동명사 어미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아울러 ‘內’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선어말어미로서의 ‘-ㄷ-’와 동명사 어미로서의 ‘-ㄷ’ 사이의 접점을 가정해 보았다.

2. 선행 연구

2.1. 선어말어미 ‘-ㄷ-’¹⁾

이승재(1993): ‘-ㄷ-’를 15세기 확인법 선어말어미 ‘-거/어/나-’의 ‘-나-’에 대응하는 것으로 파악함.

이승재(1998): ‘-ㅁㄷ-’의 ‘-ㄷ-’는 현재시제 선어말어미로 파악하였고 나머지 ‘-ㄷ-’에 대해서는 이승재(1993)과 동일하게 파악함.

정재영(1996): 15세기의 ‘-ㄴ-’와 대응되는 것으로 파악함.

백두현(1997): ‘-ㅁ-’와 같이 ‘현재’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로 분석함.

김영옥(1999): ‘-ㅁ-’를 [+완료]의 기능을 하는 동작상 선어말어미로 분석하고 ‘-ㅁ-’와 ‘-ㄷ-’가 대립을 이룬다는 점을 중시하여 [-완료]의 기능을 하는 동작상 선어말어미로 분석함.

박진호(1998): 서법 범주의 선어말어미로 추정함.

정재영(2000): ‘-ㅁ-’, ‘-ㅁ-’와 대립을 보이므로 회상, 추정 등과 대립되는 의미를 지니는 서법을 나타내는 형태소로 파악함.

박진호(2010): ‘항상성’을 나타내는 서법 형태소로 분석하였고 이것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는 다른 서법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아 ‘-ㄷ-’가 다의 형태소였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함.

문현수(2018): 보편성·필연성(≡항상성), 특수성.

2.2. 그 밖의 ‘ㄷ’

2.2.1. 의존명사 ‘ㄷ’

1) 본 절은 문현수·허인영(2018)의 2.2에 기대어 작성하였다.

박진호(1998): ‘ㄷ’에 대하여 의존명사로 파악하였지만 남풍현(1996)의 견해와 같이 관점에 따라서는 ‘ㄷ’와 ‘ㅅ’를 각각 속격조사 앞에 나타나는 동명사 어미 ‘-ㄴ’과 ‘-ㅈ’의 이형태로 볼 수도 있다고 함.

황선엽 외(2009): 의존명사와 동명사 어미 두 가지 분석 가능성을 제시함.

허인영(2019): ‘ㄷ’의 문법 범주를 명사절을 만들거나 관형 구성에 참여하는 의존명사로 파악함.

장윤희(2021): ‘-ㄴ 所ㄷ NP-’구성과 ‘-(ㄴ)ㄷㄷ NP’의 통사적 유사성에 기대어 ‘ㄷ’를 의존명사로 파악함.

2.2.2. 동명사 어미 ‘-ㄷ’

이승재(1993): ‘-ㄷㄷ’에 대하여 ‘동명사 어미+속격 조사’로 분석함.

심재기·이승재(1998): ‘-ㄷㄷ’에 대하여 ‘낫’으로 독법을 제안하면서 ‘동명사 어미+처격 조사+속격조사’로 분석.

남풍현(1996 ㄱ): ‘-ㄷ’를 동명사 어미로 파악함, ‘ㄷㄷ’의 경우에는 음절말에서 ‘-ㄴ’과 ‘-ㄷ’의 결합 형태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사이에 매개모음이 들어간 연결체로 파악함. ‘*ㄴㄷ’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대신 ‘-ㄷㄷ’만이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면 ‘-ㄷㄷ’은 ‘-ㄴ’ 동명사의 속격형을 보충하는 것으로 파악함.

황국정(2000): 관형사형 어미 ‘-ㄴ’과는 구별하기 위해 속격조사와 결합한 동명사 어미로 ‘-ㄷ’를 표기한 것으로 추정하였음.

이병기(2019): ‘ㅈ, ㄴ’과 ‘ㅅ, ㄷ’가 계열적 관계를 가진다는 점, ‘ㄴ ㄷ’을 의존명사가 아닌 조사의 결합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ㅅ’와 ‘ㄷ’에 대하여 동명사 어미로 설정할 수 있을 가능성을 제시함.

김태우(2020): 관형화 방책의 통시적 변화 과정을 고려하여 ‘ㄷㄷ’을 ‘-ㄴ+ㄷ’의 이표기 또는 이형태로 파악함.²⁾

2) 그러나 ‘ㄷㄷ’에 대하여 의존명사가 결합된 형태라고 보더라도 전체적인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김태우 2020: 230 각주13).

3. 점토석독구결에서의 ‘ㄷ’

본 장에서는 기존에 각각 ‘ノ 1 ㄷ’와 ‘ノ 1 ㅅ’로 해독되는 11(\)과 25(\) 용례의 검토를 통해 ‘ㄷ’ 관련 구결점과 ‘ㅅ’ 관련 구결점이 점도상 대칭 양상을 이루며 좌상단 그리고 우상단 모서리를 기준으로 삼아 방사형으로 구결점이 배치된다는 결론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25위치의 단점은 ‘ㅅ’로 해독되며 역사선은 ‘ノ 1’이라는 형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절에서 검토할 25(\)는 종래에 ‘ノ 1 ㅅ’로 해독되어 왔다.³⁾ 초기 연구의 자료로 활용된 유가03과 유가05에서는 25(\)가 문증되지 않으며 유가08에서야 비로소 2번 문증된다. 아래는 유가08과 남선08의 25(\)용례이다.⁴⁾

(1) <유가08 10:12-15>

A1: 彼[33(\)]作是說[+45(\), 25(\)]{33~43(\),44(\)} …

A2: 彼[33(\)]{25(\)}作是說[+45(\)#45(\),25(\)] …

B: 彼[1]作是說[ノ ㅅ 乙, 노 1 ㅅ] …

C: 彼 1 是 說[ノ ㅅ 乙 作 노 1 ㅅ] …

D: 그는 이러한 말하는 것을 짓되 …



(2) <유가08 10:1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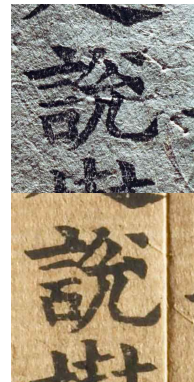
A1: 卽彼外道[33(\)]復作是說[+45(\),25(\)] …

A2: 卽[21(\)]彼外道[33(\)]復作[역독선]是說[+45(\),25(\)] …

B: 卽[ㄷ]彼外道[1]復作是說[ノ ㅅ 乙, 노 1 ㅅ] …

C: 卽 ㄷ 彼 外道 1 復 是 說[ノ ㅅ 乙 作 노 1 ㅅ] …후략

D: 곧 그 外道는 또 이러한 말하는 것을 짓되, …후략



(1)과 (2)는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作 노 1 ㅅ’ 뒤에는 발화 내용이 이어진다. 그러나 일찍이 서민욱(2005: 154-156)에서는 피인용문 앞 상위문의 인용 동사에 현토된다는 점, 아래의 (3)과 같이 자토구결 용례와의 대응 양상을 고려하여 25(\)를 ‘ㅅ ㅅ’로 해독하였다.

3) 서민욱(2005: 126 각주 33)에 따르면 +25(\)이 ‘xㅅ’에 대응함은 점토구결 강독회에서 장경준 선생님께서 처음 제시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노 1 ㅅ’라는 종래의 해독도 이러한 견해에서 출발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4) A1은 유가08, A2는 남선08이며 사진은 위에서부터 유가08, 남선08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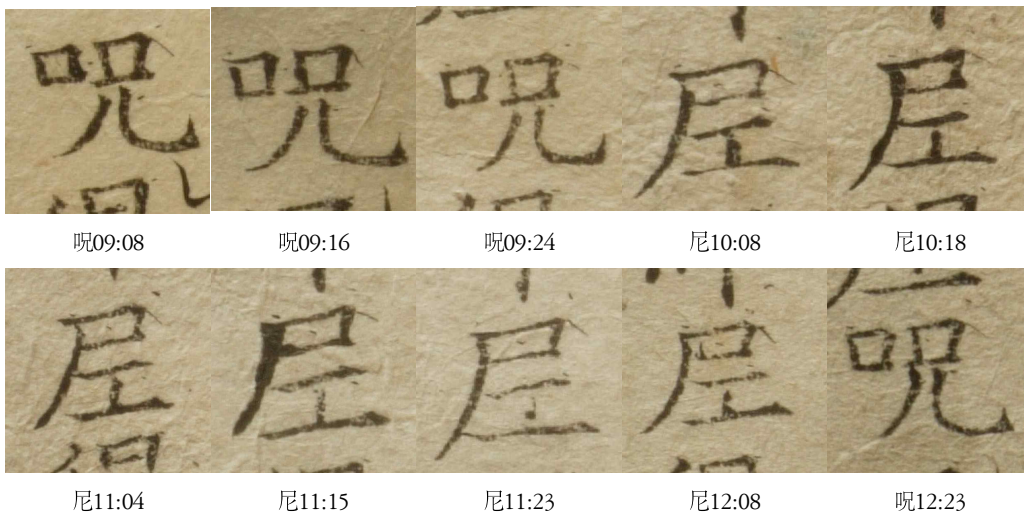
(3) <유가20, 16:14-15>

彼₁ 是 思_ノ尸_ハ乙 作_ツ尸_尸 我₁ 當_ハ 心自在性_ニ 定自在性_ニ尸_尸乙 證_ヲ應_セツ₁尸_リス_セツ₁ス
(그는 이 생각함을 짓기_를, '나는 반드시 심자재성이니 정자재성이니 하는 것을 증득해야 하는 것이 구나 하여)

아울러 유가08 이후 공동연구가 진행된 금광03과 유가66의 25(\) 용례를 살펴본다면 더욱이 서민욱(2005: 154-156)의 해독안에 힘을 실을 수 있게 된다.

먼저 금광03의 용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4) <금광 03 08:25-13:01> 十地 依功德力陀羅尼



(4)는 '十地 依功德力陀羅尼'에 해당하는 25(\) 용례인데, 동일한 구문이 10번 반복되어 나타나며 그 가운데 25(\)은 공교롭게도 모두 자토구결의 '尸'에 대응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유가66의 용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5) <유가66 02:01-02>

- A: 又樂受[42(·)]中[44(·)]多[22~32(·)]生染著[25(\),43(·)]是故說彼貪所隨增[33(\),55(·)]
- B: 又樂受[ㄷ]中[+]多[リ]生染著[尸, ~]是故說彼貪所隨增[ノ 1, x 가]
- C: 又 樂受_セ 中₊ 多_リ 染著 生_(ツ)尸_(尸)~ 是故 彼貪 隨增_{ノ 1} 所 說_{x 가}
- D: 또 樂受 가운데 많이 染著을 生한 때문에, 이런 까닭으로 저 貪이 隨增한 바를 설하시며,



(6) 유가66 25(\) 용례



悲02:01

著02:09

向12:16

生15:11

學21:17

(5)은 유가66의 25(\)를 ‘ㄴ’로 해독한 용례이다. 이때 (6)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유가66의 모든 25(\)는 ‘ㄴ’로 해독되는 43(·)과 항상 함께 현토되는 것을 포착할 수 있다.

왜 25(\)는 43(·)과 항상 함께 나타나는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45(/)와 +45(:)가 43(·)과 함께 나타나는 현상을 통하여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고려시대 석독구결에서 이른바 인과구문에서 나타나는 ‘ㄴ 1 ㄴ ㄴ’는 점토에서 43(/)으로 현토되며 주체높임의 선어말어미 ‘-’가 포함된 ‘1 ㄴ ㄴ’ 역시 43(:)으로 현토된다. 그러나 동명사어미 ‘-ㄴ’이 사용된 계열관계의 ‘ㄴ ㄴ ㄴ’ 혹은 ‘ㄴ ㄴ ㄴ’에 대응하는 구결점은 확인할 수 없는데, 이는 흔히 『유가사지론』 계통 점토석독구결에서 동명사 어미 ‘-1’과 ‘-ㄴ’의 관계는 기준사각형과의 遠近을 통해 변별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43(/)과 43(:)은 기준사각형 내부에 위치하였으므로 이러한 패러다임을 통하여 동명사 어미의 계열관계를 나타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현토자는 ‘ㄴ ㄴ ㄴ’ 혹은 ‘ㄴ ㄴ ㄴ’를 나타내기 위하여 ‘ㄴ ㄴ ㄴ’에 대응하는 +45(/)와 ‘ㄴ ㄴ ㄴ’에 대응하는 +45(:)에 43(·)을 함께 현토하여 ‘ㄴ ㄴ ㄴ ㄴ’ 혹은 ‘ㄴ ㄴ ㄴ ㄴ’과 같은 어미구조체를 만들어 내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다(이강혁 2022: 293-299 참조).

그렇다면 (5)에서 25(\)와 43(·)이 함께 현토되는 양상도 이와 동귀의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석독구결의 ‘ㄴ 1 ㄴ ㄴ’에 대응하는 점토는 43(-)으로서 43(/) 및 43(:)과 마찬가지로 기준사각형 내부에 위치하였으므로 기준사각형과의 원근을 통해 동명사 어미의 계열관계를 나타낼 수 없다. 이에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ㄴ’로 해독되는 25(\)와 43(·)을 함께 현토하여 ‘ㄴ ㄴ(ㄴ) ㄴ’과 같은 어미구조체를 만들어 낸 것이다.⁵⁾ 기존의 해독안을 반영한다면 ‘ㄴ 1 ㄴ ㄴ’과 같이 자토석독구결에서 문증되지 않으며 흔히 인과구문에서 의존명사 ‘ㄴ’가 사

5) 이와 같은 현토 양상은 빼침선(15)의 용례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빼침선(15)은 아래와 같이 유가05에서만 3번 나타나는 것이 전부인데, 모두 본문의 25(\)와 마찬가지로 43(·)과 함께 현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빼침선(15)은, 본문에서 후술하겠지만, 시작점이 기준사각형의 우상단 모서리라는 점, 43(·)과 함께 현토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25(\)와 마찬가지로 ‘ㄴ ㄴ(ㄴ) ㄴ’라는 어미구조체를 의도하기 위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ㄴ ㄴ’ 정도로 해독을 추정할 수 있다. 이는 문현수(2014: 278-279)에서 ‘NP ㄴ’의 NP가 서술어로 쓰여 논항을 지배하는 구문은 석독구결에서 발견되지 않으므로 ‘ㄴ’에 선행되어 해독되어야 하는 빼침선(15)를 ‘ㄴ’과 관련되는 점토로 파악한 견해와 궤를 같이한다고 판단된다.



유가05 化06:10



유가05 穢0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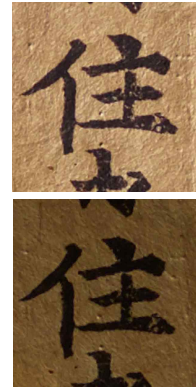
유가05 會06:18

용되는 것과 비교하였을 때 왜 굳이 의존명사 ‘ㄹ’이 사용되었는지 설명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아울러 실제로 자토석독구결에서는 ‘*ㄴ 1 ㄹ’ 역시 마찬가지로 문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까지 고려한다면 지금까지 금광03과 유가66을 통해 검토한 대로 서민옥(2005: 154-156)에서 제시한 ‘ㄴ ㄹ’로의 해독안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⁶⁾

마지막으로 본 절에서는 25(ㄴ)가 ‘ㄴ ㄹ’에 대응하는 점토라는 사실에서 더 나아가 몇 가지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7) <유가66 04:08-09>

- A: 由諸行生[45(ㄹ),33(ㄹ)]方[24(·)]得[15(·)]有住無有[역독선(수평)]無生
[22~32(·),44(·)]而[43(·)]有住[+15~25(·),25(ㄴ),43(·),53(·),끝표시점
(+21,“·”)]者
- B: 由諸行生[ㄴ 1 ㄹ 乙, ㄴ 1]方[得 ㄹ]有住無有無生[ㄹ, x+]而[·]有住[ㄴ
ㄹ, ㄴ ㄹ, ·, ㄴ]者
- C: 諸行 生 ㄴ 1 ㄹ 乙 由 ㄴ 1 方 得 ㄹ 住 有 生 ㄹ 無 x+ 而 · 住 有 ㄴ ㄹ
無有(ㄴ)ㄴ ㄹ(ㄴ)· ㄴ{者}
- D: 諸行이 생하는 것을 말미암음이 비로소 능히 ‘住가 있음’이며, 생이
없는 데에는 住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기준사각형 외부에 위치한 구결점은 기준사각형의 모서리나 변에 인접하여 현토되는 양상이 일반적인 것에 반해 본 절에서 주목하는 25(ㄴ)에서는 사뭇 다른 차이점이 포착된다. 앞서 (1-2), (4-7)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역사선이 기준사각형에 인접하여 현토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선의 시작점 자체가 기준사각형의 우상단 모서리라는 점이다. 이와 유사한 양상은 15~25(-)에서 포착할 수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7)의 수평선 현토 양상을 살펴보면 수평선이 기준사각형 우상단의 모서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으므로 15~25위치가 아닌 +15~25위치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기준사각형 우상단 모서리에서 시작되는 선토는 동명사 어미 ‘-ㄹ’과 선어말어미의 통합관계를 나타내며 방사형으로 선어말어미의 계열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아래는 15위치로 해석되는 사선의 용례이다.

6) 당시에는 오로지 유가05와 유가08만이 활용 가능한 자료였음에도 불구하고 ‘ㄴ ㄹ’이라는 해독안을 도출해낸 서민옥(2005)의 견해는 껴히 후회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선어말어미 ‘-ㄴ’의 문법적 특징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는 선결되어야 한다. 이승재(1996)에서는 ‘주체경어법 선어말어미’로 파악하였으며 백두현(1997: 39, 42)에서는 ‘동작이나 상태의 완료 및 완료된 상태의 지속’으로 파악하였다. 김영옥(1999-1, 1999-2)에서는 대체로 [+완료]의 동작상 범주로 파악하였으며 남풍현(2004)에서는 선어말어미가 아니라 중세한국어의 (-어) 잇에 이어지는 시상의 조동사로 파악하여 ‘지속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박진호(1998: 167)와 정재영(2002: 356-358)에서는 다양한 환경에 출현하므로 하나의 기능으로 파악하기 어렵지만 대체로 서법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이금영(2000)에서는 ‘-ㄴ’을 서법 범주에 속하는 ‘확인법’으로 파악하였다(이상급 2019: 175-176 참조). 비교적 최근 논의인 이상급(2019: 181-187)에서는 명명 구문, ‘-ㄴ 乙 1’, ‘有 ㄴ 1’ 등에 나타나는 선어말어미 ‘-ㄴ’에 대하여 ‘명제의 진실함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일종의 인식양태’로 파악하였다. 이처럼 선어말어미 ‘-ㄴ’의 기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규명된 바가 많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논의는 계열 관계를 이루는 ‘-乙’와 함께 지면을 달리하여 다루고자 한다.

(8) 가. <유가03 07:02-04>

- A: 若異此[23(·),44(·),15(·),23~33(·)]者應於一所緣境[44(·)]唯一
作意[22~32(·)]一切時[53(·),44(·)]生[42(·),51(·)]
B: 若異此者[ㄹ, +, x, ㄹ, ㄴ]應於一所緣境[+]唯一作意[ㄴ]一切
時[ㄹ, +]生[xㄷ, ㄴ]
C: 若 此ㄹ + 異xㄹ ㄴ {者} {於} 一所緣境 + 唯一 作意ㄴ 一
切 時ㄹ + 生{應}xㄷ ㄴ
D: 만약 이와 다르다면 一所緣境에서 오직 하나의 作意가 一切 時에 生하여야 한다.



가. <유가03, 07:12-13>

- A: 在五識[44(·),22(·)]者[22~32(·),15(·),23~33(·)]唯
[32~42(·)]由先[54(·)]所引[33(·),=34(·),24(·),43(·)]故
[21(·),41~42(·),51(·)]
B: 在五識[+, ㄴ]者[ㄴ ㄴ ㄴ, ㄹ, ㄴ ㄴ]唯[+]由先[ㄴ]所引[ㄴ ㄴ,
ㄷ, ㄴ]故[ㄴ, xㄷ, ㄴ]
C: 五識 + 在(ㄴ) {者} ㄴ ㄴ ㄴ ㄴ ㄴ 唯 先 ㄴ 引 ㄴ ㄴ 所 乙 由 (ㄴ ㄴ) ㄴ 故 ㄴ xㄷ ㄴ
D: 五識에 在하여 생기는 것은 오직 먼저 이끌린 바를 말미암아 생긴다.



(8가)는 지금까지 살펴본 25(·)와 동일하게 기준사각형 우상단 모서리에서 시작되는 사선이 현
토되어있다. 동일하게 ‘Pㄹ ㄴ 1 Qㄷ ㄴ 1’구문인 (8가)에서는 15~25(-)가 현토되어 ‘ㄹ’를 나타
낸 것과 비교하였을 때, (8가)의 15(·)는 모종의 선어말어미와 통합한 ‘xㄹ’임을 짐작할 수 있
다. 동명사 어미 ‘-ㄹ’에는 ‘ㄹ’를 비롯하여 ‘ㄷ’, ‘ㅁ’, ‘ㅈ’ 등의 선어말어미와의 통합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의 단서로는 해독에 반영할 수 있는 선어말어미를 특정하기 어려우
므로 15(·)에 대하여 본 절에서는 ‘xㄹ’로 잠정적인 해독안을 추정하고자 한다.⁸⁾

이에 최종적으로 본 절에서 재정비한 위치 해석과 해독안을 기존의 점도에 포함시켜 나타난
다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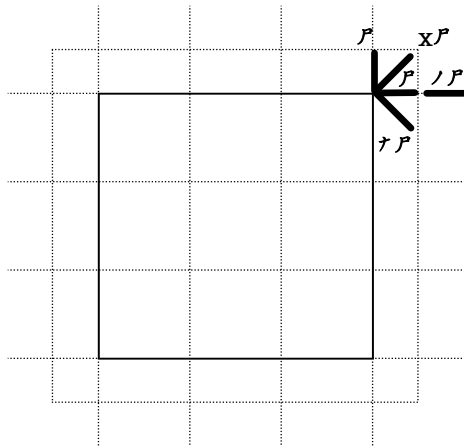
7) 25(·)와 15(·)가 점도에서 상하로 대칭을 이루는 점, 아래의 용례와 같이 자토석독구결에서 유사한 구문이 존재하는 점 등
을 고려하여 본디 15(·)의 해독을 선어말어미 ‘ㄴ’과 계열관계를 이루는 ‘ㄷ’이 포함된 ‘ㄷ’로 가정하였다. 아울러 문
현수하인영(2018: 14-15)에서 아래의 용례에 대하여 일반적·보편적인 상황과 관련되는 ‘조건-귀결’문으로서 이때 선어말
어미 ‘ㄷ’은 대체로 선행절과 후행절에 모두 쓰여 선행절의 사건이 발생하면 후행절의 사건이 보편적·필연적으로 일어
남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파악한 점을 고려한다면 후행절에 현토된 42(·)에 선어말어미 ‘ㄷ’이 포함된 구성임
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ㄷ’을 포함시켜 42(·)를 ‘ㄷㄷ ㄴ ㄴ’에 대응되는 점도로 해독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되나 정작 금광03에서 52(·)와 ‘ㄷㄷ ㄴ ㄴ’이 일목요연하게 대응하는 양상을 고려한다면 쉽게 42(·)의 해독에 선어말어
미 ‘ㄷ’을 포함시키기 어려워 보인다. 만약 선행절의 15(·)를 ‘ㄷ’로 해독한다면 후행절에 선어말어미 ‘ㄷ’이 대체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구조적 특징을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반의 문제로 인하여 해독안에서 선어말어미
를 특정한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예 <화엄14, 02:12-13>

佛子 若 ㄷ 諸 ㄴ 菩薩 善 其 心 乙 用 ㄴ ㄷ ㄹ ㄴ ㄴ 則 ㄷ 一切勝妙功
德 乙 獲 ㄷ ㄹ ㄴ { 於 } 諸 ㄴ 佛法 ㄴ 心 礙 ㄴ 所 ㄴ 無 ㄴ
(佛子여 만약 모든菩薩이 능히 그 마음을 쓰면 곧 一切 勝妙功德을 얻
을 것이라서 모든佛法에 마음이 거리길 바가 없으며)

8) 아래 유가66의 용례는 ‘若 Pㄹ ㄴ Qxㄷ ㄴ 1’의 문장 구조를 가지며 문두의 ‘若’과 Q의 42(·)가 현토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
면 8(가)와 거의 동일한 문장 구조로서 같은 문법형태소를 공유할 것으로 기대되는 용례이다. 그러나 어째서인지 P에서
예상되는 15(·)가 아니라 해독안에 반영하기 어려운 +15(·)만이 확인된다. 사선의 경우 조명에 따라 단점과 같이 나타나
는 경우도 왕왕 있으므로 해당 부분의 실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대목이다.

(9) 동명사 어미 ‘-尸’ 관련 점도(잠정)



‘尸’, ‘尸’, ‘尸尸’에 대응하는 기존 해독안의 점토와 본 절에서 위치의 재해석과 해독을 시도한 25(\)와 15(/)를 점도 상에 함께 나타내면 위와 같이 기준사각형 우상단 모서리를 기준으로 삼아 마치 방사형으로 점토가 배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1~21위치의 ‘ㄷ’와 관련된 점토와의 대칭 양상을 고려한다면⁹⁾ 24~25(1)의 존재도 짐작할 수 있을 듯하나 현재까지는 아직 문증되지 않았으므로 점도에 반영하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기존에 ‘尸尸’로 해독되었던 ‘11(\)’과 ‘ㄷ’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아래의 용례를 살펴보자.

(11) <유가03 04:21>

A: 无執受云何[11~21(-), +15(-)]謂[33(-)]外所攝[22~32(-), 51(-)]

B: 无執受云何[ㄷ, ㅁ]謂[1]外所攝[11, 1]

C: 无執受 云何(ㄷ)ㄷㅁ 謂 1 外所攝 11

D: 無執受는 무엇인가? 즉 外所攝이다.



예 <유가66, 04:19>

A: 若不尔[33~43(-), 23~33(-)]{+15(-)}者便[21(-)]應減壞[42(1), 51(-)]

B: 若 不尔[1]者便[1]應減壞{x ㄷ, 1}

C: 若 尔 11 不(尸)ㅁ 1{者} 便[1] 減壞{應}x ㄷ 1

D: 만약 그렇지 않으면 곧 減壞할 것이다.



9) 장경준(2020: 16-17)에서의 지적한 대로 수평선의 경우 기준 사각형의 윗변에서 바깥쪽으로 대칭을 이루며 나란히 놓이는 11~21(-), +11~21(-)과 15~25(-), +15~25(-)의 쌍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필자 역시 이러한 해독안에 크게 동의하며 해당 대칭 양상을 전제로 11~21위치의 ‘ㄷ’와 관련된 점토에서도 대칭적으로 (9)와 같은 방사형 배치가 확인될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겠다.

(12) <유가08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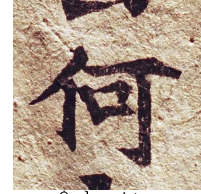
A1: 業位云何[11(\), +15(-)]應知[42(\), 51(-)]略[45(-)]說[33~34(-)]有五種相[33~43(/), +11(-)]

A2: 業位云何[11~21(-), +15(-)]應知[42(\), 51(-)]略[45(-)]說[3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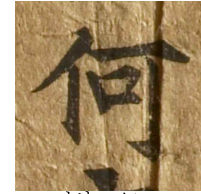
B: 業位云何[ㄷ, ㅁ]應知[ㄱㅅ, ㅣ]略[ㄱ]說[ㅁ 1]有五種相[ㅍ 1 印, 丁]

C: 業位 云何(ㅍ)ㄷㅁ 知 ㄱ{應}ㅅㅣ 略 ㄱ 說 ㅁ 1 五種相 有 ㅍ 1 印(丁)

D: 業位는 무엇인가? 알아야 한다, 간략히 말하면 다섯 가지 相이 있는 줄을



유가08 何21:02



남선08 何21:02

(13) <구인 上, 14:19-20>

一 ㄱ 二 ㄷ ㅅ {之} 義 1 其 事 云何 ㅅ ㅁ ㅁ ㅁ

(하나이며 둘인 뜻은 그 일이 어떠한 것입니까?)

『유가사지론』 계통 점토석독구결에서 ‘ㄷ’는 ‘VPㄷㅅ’ 혹은 ‘VPㄷㅅ’ 이외에도 (11)과 같이 ‘何’에 현토되어 ‘何ㅁㅁ’와 같은 구성으로도 문증된다. 이는 대부분의 『유가사지론』 계통 자료에서 고루 확인되며 (13)과 같이 자토구결에서도 의문첨사 ‘-ㅁ’가 후행하는 동일한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12)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으나 유가08에서는 11(\)가 현토된 반면 남선08에서는 11~21(-)이 현토되어 동일한 구문에 서로 다른 점토가 현토되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유가08과 남선08은 대부분의 점토가 일치하지만 51위치와 55위치의 구결점과 같이 문법적으로 동등한 지위의 형태소가¹⁰⁾ 현토자의 경향성에 따라 종종 다르게 현토되는 양상이 포착된다.¹¹⁾ 이러한 유가08과 남선08의 상관성을 고려한다면 (12)에서 확인할 수 있는 11(\)과 11~21(-)의 관계 역시 서로 대체될 수 있으며 문법적으로 동등한 지위 혹은 계열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ㅍ’와 관련된 구결점들이 계열관계에 따라 기준사각형 우상단 모서리를 기준으로 하여 점도상 방사형으로 구결점들이 배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2)의 11(\)과 11~21(-)이 동일한 구문에서 서로 대치된다는 점, ‘ㄷ’ 관련 구결점은 ‘ㅍ’ 관련 구결점과 점도상 대칭 양상을 보이는데, 11(\)과 11~21(-)를 점도에 배치하였을 때 ‘ㅍ’ 관련 구결점인 15(/) 및 15~25(-)와 좌우대칭 양상을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사각형 좌상단 모서리에서 시작되는 11(\)을 ‘ㄷ’와 관련된 구결점으로 파악하고자 한다.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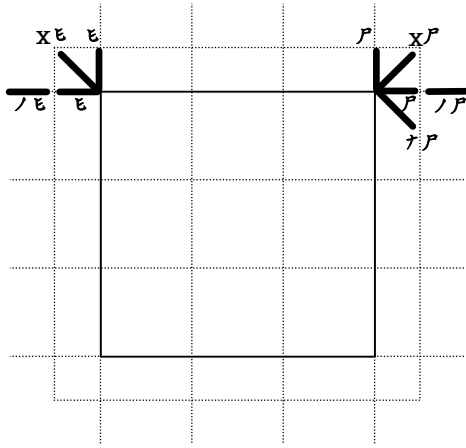
10) 안대현(2008:282, 2020:133-134)에서는 점토구결에서 51과 55 위치 사이의 반사 대칭은 연결어미 ‘-ㅅ’와 종결어미 ‘-ㅁ’의 문법적 대립을 잘 보여주며 ‘-ㅅ’는 현대 국어의 ‘-마’와 달리 시상·서법·높임법 등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와 비교적 제약 없이 통합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ㅅ’는 ‘-ㅁ’나 ‘-ㅅ’ 같은 다른 연결어미와 달리 ‘-ㅁ’와 대립되는 지위에 있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필자 역시 이러한 견해에 크게 동의하는바, “문법적으로 동등한 지위”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11) 이와 관련하여 장경준(2016: 51-52)에서는 동사구와 명사구가 나열되는 동일한 환경에서 남선08은 ‘ㅅ~ㅅ, ㅅ~ㅅ’로 현토된 반면, 유가08은 ‘ㅅ~ㅅ, ㅅ~ㅅ’로 현토된 양상을 통해 연결어미 ‘-ㅅ’와 ‘-ㅅ’, 조사 ‘ㅅ’와 ‘ㅅ’가 각각 서로 대립될 수 있을 만큼 의미기능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문법적으로 동등한 지위뿐만 아니라 통사의미적으로도 어느 정도 대치되어 통용될 수 있는 양상도 포착된다고 할 수 있다.

12) 그렇다면 ‘如’ 구문에 현토되어 ‘ㅁ 1 ㅅ’로 해독되는 11(\)과 동일한 위치로 해석해야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12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ㄷ’와 관련된 구결점인 11(\)은 본문에서 언급한 대로 기준사각형의 좌상단 모서리에서 역사선이

지금까지 논의를 점도상에 반영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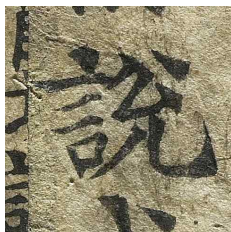
(14) ‘ㄷ’와 ‘ㄹ’ 관련 구결점 점도(잠정)



‘ㄷ’ 관련 구결점과 ‘ㄹ’ 관련 구결점 양측 다 각각 기준사각형의 좌상단 그리고 우상단 모서리에서 시작하여 방사형으로 구결점이 배치되고 이는 서로 점도상에서 대칭을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11(\)은 점도상 대칭을 이루는 15(/)가 ‘xㄹ’로 해독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xㄷ’ 정도로 해독되는 구결점이라고 판단된다.¹³⁾

본 장에서는 기존의 해독안에 11(\)과 15(/) 및 25(\)의 해독을 더하여, 기준사각형의 좌상단모서리와 우상단모서리를 기준으로 삼아 ‘-ㄷ’ 관련 구결점과 ‘-ㄹ’ 관련 구결점이 방사형으로 배치되어 점도에서 대칭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었다. 점도상 대칭성은 안대현(2008: 282, 2020: 134)에서 언급되었듯이 이미 51위치와 55위치에서 확인되었으며 문법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다. 이에 11위치와 15위치에서도 (14)와 같이 ‘ㄷ’관련 구결점들과 ‘ㄹ’관련 구결점들의 대칭성을 고려한다면 ‘ㄷ’가 ‘ㄹ’과 문법적으로 동등한 지위임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¹⁴⁾

시작된다. 반면 ‘ㄹ 1 ㄷ’로 해독되는 11(\)은 아래와 같이 역사선이 21위치에 걸쳐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엄밀하게 두 구결점의 위치를 변별한다면 ‘ㄷ’와 관련된 구결점은 11로, ‘ㄹ 1 ㄷ’로 해독되는 구결점은 11~21로 위치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항에서는 기존에 +11(\)로 판독안을 제시한 용례에 검토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두 구결점이 11과 11~21로 위치가 변별되어 해석된다는 사실만을 언급하고 상세한 논의는 지면을 달리하여 다루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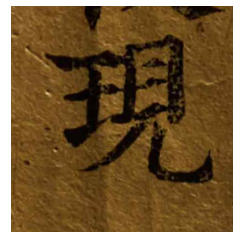
유가03 說13:23



유가05 說16:22



유가08 前16:17



유가66 現23:09

13) 점도상의 대칭 양상을 고려한다면 25(\)와 대칭되는 21(/)의 존재를 짐작케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떠한 자료에서도 기준사각형 좌상단 모서리에서 시작하는 21(/)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점도에 반영하지는 않았다. 아울러 『화엄경』 계통 점토석독구결에서도 25위치에서 사선은 ‘ㄹ 1 ㄷ ㄷ’로, 역사선은 ‘ㄹ ㄷ ㄷ’으로 해독되어 구결점의 형태에서 대칭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文玄洙 2017 참조).

14) 그렇다면 혹자는 ‘ㄹ’이 ‘ㄱ’이 아니라 왜 ‘ㄷ’와 점도상 대칭양상을 보이는지 의문을 가질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고민이 필요하나 문현수(2022)에서 언급한 점도의 발달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조심스레 추측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15) 가. <유가20 15:10>

復次是如來已^ㄷ三摩地^ㄷ得^ㄷ者¹
(또 다음으로 이와 같이 이미 삼마지를 얻은 자는,)

나. <유가20 03:13-14>

謂¹即^ㄷ四種^ㄷ正法受用^ㄷ因緣現前^ㄷ正法受用^ㄷ
(말하자면 곧 네 가지의 정법을 수용할 인연이 현전하여서 정법을 수용하는데,)

이와 같이 동명사 어미 ‘-ㄷ’를 설정한다면 (15)의 ‘-ㄷ’와 ‘-ㅅ’에 대해서도 [현실]과 [비현실]의 대립 양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ㅅ’과 ‘-ㄷ’, ‘-ㅂ’과 ‘-ㅅ’가 어떠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고찰이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생략)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국립한글박물관(2018), 『초조대장경 瑜伽師地論 卷66 각필구결』, 국립한글박물관.
- 권인한·김성주·문현수·안대현·이용·장경준·황선엽(2018), 『瑜伽師地論』 卷66 點吐釋讀口訣 잠정 판독 및 해독안, 공동연구 자료, 미간행.
- 이승재 외(2005), 『각필구결의 해독과 번역 ① 初雕大藏經 『瑜伽師地論』卷第五·卷第八』, 태학사.
- 이승재 외(2006ㄱ), 『각필구결의 해독과 번역 ② 周本『華嚴經』卷第三十六』, 태학사.
- 이승재 외(2006ㄴ), 『각필구결의 해독과 번역 ③ 周本『華嚴經』卷第六·卷第五十七』, 태학사.
- 이승재 외(2009ㄱ), 『각필구결의 해독과 번역 ④ 晉本『華嚴經』卷第二十·周本『華嚴經』卷第二十二』, 태학사.
- 이승재 외(2009ㄴ), 『각필구결의 해독과 번역 ⑤ 周本『華嚴經』卷第三十一·卷第三十四』, 태학사.
- 장경준 외(2021), 역주 원고 초안(한국연구재단 지원 “중층적 구결 자료 『합부금광명경』 卷3의 종합적 연구” 중간 결과물 2021. 6. 13. 최종 작성본), 미간행.
- 장경준 편(2019), 석독구결 자료 6종 전산입력본(sktot_2019_01), 口訣學會/국어사학회 배포, 미간행.
- 점토구결연구모임(2006-2007), 남선사본 『유가사지론』 권8 잠정 판독 및 해독안(미간행).
- 황선엽·이전경·하귀녀 외(2009), 『석독구결사전』, 박문사.

서는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2. 논저류

- 김지오(2010), 『『舍部金光明經』字吐口訣의 誤記』, 『口訣研究』 25, 구결학회, 145~175.
- 김지오(2021ㄱ), 『『舍部金光明經』의 부호 연구』, 『어문연구』 49-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57-281.
- 김지오(2021ㄴ), 『『합부금광명경』자토·점토 구결의 懸吐 양상-오류와 수정 양상을 중심으로-』, 『구결학회 제60회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구결학회, 88-112.
- 김태우(2020), 명사 수식 구문의 통시적 변화, 국어학 96, 국어학회.
- 남풍현(1996),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동명사어미 ‘-ㄴ/ㄷ’에 대한 고찰, 《국어학》 28, 1-48.
- 남풍현(2004), 「시상의 조동사 ‘在/ㄴ/겨-’의 발달」, 『국어국문학』 138, 국어국문학회, 5-34.
- 문현수(2014), 『『瑜伽師地論』系統 點吐釋讀口訣에 사용된 刪침선의 기능』, 『구결연구』 33, 구결학회, 249-283
- 文玄洙(2017), 周本『華嚴經』點吐釋讀口訣의 解讀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현수·허인영(2018), 문법 형태 ‘-ㄴ-’의 통시적 변화, 국어사연구 27, 국어사학회, 7-51.
- 문현수(2019), 『『瑜伽師地論』點吐口訣의 수평쌍점에 대한 연구-선어말어미 ‘-ㅁ(습)-’ 포함 여부를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51, 반교어문학회, 113-146.
- 문현수(2020), 「구결자 ‘ㅁ’와 ‘ㅂ’가 나타내는 형태적 구성에 대하여 - 분포와 기능이 겹치는 ‘ㅁ’와 ‘ㅂ’를 중심으로 -」, 『東洋學』 79,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1-15.
- 문현수(2022), 「ㅁ와 ㅂ의 변별성 -점토석독구결의 현토 양상을 중심으로-」, 『구결연구』 48, 구결학회, 63-92.
- 문현수·허인영(2018), 「문법 형태 ‘-ㄴ-’의 통시적 변화」, 『국어사연구』 27, 국어사학회, 7-52쪽
- 박부자(2019), 「고대국어 경어법 선어말어미의 연구 현황과 과제: ‘-ㅁ-’을 중심으로」, 『제56회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구결학회, 별지.
- 박진호(1998), 「고대국어의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고대국어편』, 국립국어연구원.
- 박진호(2003), 『『瑜伽師地論』點吐口訣에서 11위치의 單點에 대응되는 字吐』, 제28회 口訣學會 전국학술대회 발표 자료.
- 백두현(1997), 「고려 시대 석독구결에 나타난 선어말어미의 계열 관계와 통합 관계」, 『口訣研究』 2, 口訣學會, 27-95.
- 서민욱(2004), 「‘如’에 호응하는 점토에 대하여」, 『口訣研究』 13, 口訣學會, 175-220.
- 서민욱(2005), 『『瑜伽師地論』卷5, 8의 點吐口訣 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심재기·이승재(1998), 《화엄경》 구결의 표기법과 한글 전사, 《구결연구》 3, 29-111.
- 안대현(2008), 「주본『화엄경』점토석독구결의 해독(1)-12와 14위치의 동형성 및 51과55 위치의 대칭성에 대하여」, 『口訣研究』 20, 口訣學會, 259-286
- 안대현(2016), 「가천박물관 소장 각필 점토구결 자료 초조본『유가사지론』권53에 대하여」, 『口訣研究』 36, 口訣學會, 95-120.
- 이강혁(2022), 『『유가사지론』계통 점토석독구결의 수직쌍점 해독에 대한 試論』, 『國語學』 101, 국어학회, 271~318.
- 이금영(2000), 선어말어미 ‘-거/어-’의 통시적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병기(2019), 고대국어 동명사 어미의 문법적 특징과 과제-석독구결 자료를 중심으로-, 구결연구 43, 구결학회.
- 이상금(2019), 「자토석독구결에 나타난 선어말어미 ‘-겨-’의 통합 양상과 의미 기능」, 『구결연구』

- 구』 43, 구결학회, 153-191.
- 이승재(1993), 고려본 화엄경의 구결자에 대하여, 국어학 23, 국어학회.
- 이승재(1996), 「고려중기 구결자료의 주체경어법 선어말어미 ‘-ㅏ(겨)-’」, 『이기문교수 정년퇴임 기념논총』, 신구문화사, 517-556.
- 이전경(2005), 「각필 자료 『瑜伽師地論』 卷5, 卷8의 점토에 대하여」, 『각필구결의 해독과 번역 1』, 태학사, 67-110.
- 장경준(2004), 「『瑜伽師地論』 卷5, 8의 ‘故’자에 懸吐된 구결점에 대하여」, 『제29회 口訣學會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口訣學會, 9-20.
- 장경준(2005), 『瑜伽師地論』 點吐釋讀口訣의 해독 방법 연구-卷5, 8의 단점(單點)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경준(2006), 「『瑜伽師地論』 點吐釋讀口訣에서 ‘故’자에 懸吐된 구결점의 해석」, 『태릉어문연구』 14, 서울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07-129.
- 장경준(2007), 『瑜伽師地論 點吐釋讀口訣의 解讀 方法 研究』, 태학사.
- 장경준(2008), 「高麗初期 點吐口訣 諸符號」, 『한국어학』 40, 한국어학회, 307-339.
- 장경준(2009), 「점토구결 자료의 문법 형태에 대하여」, 『國語學』 56, 국어학회, 249 -279.
- 장경준(2016), 「남선사 소장 고려 초조대장경 『유가사지론』 권8의 점토석독구결에 대하여」, 『구결연구』 36, 구결학회, 39-62.
- 장경준(2020),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유가사지론』 권66의 점토석독구결과 『유가사지론』 권20의 자토석독구결의 관련성」, 『구결연구』 44, 구결학회, 1- 34.
- 張允熙(2021), 「釋讀口訣의 冠形構成 ‘-ㅓㅓ/ㄴ’과 ‘-ㅓㅓ/릿’의 文法史的 解析」, 『어문연구』 49-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3-227.
- 정재영(2002), 「선어말어미 ‘-ㅏ-(-겨-)’에 대하여」, 『문법과 텍스트』, 서울대학교 출판부, 336-361.
- 허인영(2019), ‘內’와 關聯 借字의 通時的 變化, 구결연구 42, 구결학회.

구결자 ‘尸(ㅍ)’ 및 ‘隱(은)’에 대한 고찰

최준호(서울대)

1. 서론

본고의 목적은 ‘일자다의(一字多義)’ 구결자인 ‘1[隱]’과 ‘尸[尸]’이 나타내는 문법적 기능 및 의미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 구결자 ‘1’은 말음첨기, 보조사, 의존명사, 중복표기, 연결어미, 동명사어미 등을 표기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구결자 ‘尸’은 말음첨기, 중복표기, 속격, 연결어미, 동명사어미 등을 표기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러한 개별적인 문법 기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본고는 구결자 ‘1’, ‘尸’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 구결자가 나타내는 다양한 기능을 검토하려는 시도이다.¹⁾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가 ‘일자다의(一字多義)’ 구결자에 대한 검토이므로, 향찰, 이두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독구결 자료에 나타난 구결자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다만, 본고에서는 음독구결에 사용된 구결자의 기능에 대한 검토까지는 다루지 못하였기에, 자토석독구결 자료의 용례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구결자 ‘1’과 ‘尸’이 담당하는 용법 중 가장 중심이 되는 용법은 연결어미와 동명사어미로의 쓰임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연결어미 ‘1’, ‘尸’을 포함하여 고대 한국어의 연결어미 전 반은 김지오(2019)에서, 동명사어미에 대해서는 이병기(2019)에서 상세히 다루어졌다. 본고에서는 이들 선행 연구에서 이미 자세하게 다루어진 사항들을 다시 논의하는 것은 피하고자 한다.

본고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제2장에서는 구결자 ‘1’, 제3장에서는 구결자 ‘尸’이 가진 개별적 용법을 살핀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2장에서는 구결자 ‘1’의 음가와 말음첨기, 보조사 용법을, 제3장에서는 구결자 ‘尸’의 음가, 말음첨기, 동명사어미와 ‘스’와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 1’과 ‘- 尸’의 용법을 살펴봄, 동명사어미 ‘- 1’과 ‘- 尸’의 의미·기능이 더 자세하게 탐구되어야 함을 논의한다.

2. 구결자 ‘1’

2.1. ‘1’의 음가

구결자 ‘尸’의 음가는 자토석독구결 연구의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온 반면, 구결자 ‘1’의 음가 문제는 비교적 간단해 보인다. 그러나 ‘1’이 [은/은]을 나타낸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은/은/는/는]을 나타낸다고 볼 것인지와 관련하여서는 의견이 나뉜다.

1) 그렇다고 하여 자토석독구결에 쓰인 모든 구결자 ‘1’ 혹은 ‘尸’이 단일한 문법형태소를 표기한 것이며, 위에서 언급한 문법적인 의미·기능이 다의성에 의해 실현된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보조사 ‘- 1’과 동명사어미 ‘- 1’을 하나의 문법 요소라고 파악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용법들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을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듯하다. 이는 자토석독구결 자료의 ‘此 1’을 [인]으로 읽을 것인지, [이느]으로 읽을 것인지와 관련된다. 또한, 이 문제는 단순히 구결자 ‘1’의 음가와 관련된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구결자의 문자 체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자토석독구결 자료를 읽을 때 15세기의 문법사 지식을 어느 정도로 동원할 것인지와도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구결자의 문자 체계를 ‘1字 1音’의 체계(이승재 2000)로 파악한다면 ‘1’은 [은/은]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 만일, 구결의 표기법 원리를 형태음소적인 것으로 파악한다면, ‘1’을 [은/은/는/느]으로 읽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전자의 관점을 따르기로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음상을 표기하고자 할 때, 그것이 구결자로 표기될 수 있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는/느]을 표기하려 하였으나, 구결자의 체계상 표기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면 구결자 ‘1’을 [은/은]뿐만이 아니라 [는/느]으로 읽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 [는/느]을 표기하려 했다면, 구결자 ‘ㄷ’를 사용하여 ‘ㄷ 1’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었을 것이다.²⁾ 따라서, 구결자 ‘1’이 [는/느]까지를 나타낸다고 보기보다는 [은/은]만을 나타냈다고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구결자의 문자 체계는 기본적으로는 음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此 1’와 같은 경우도 [이느]보다는 [인]으로 읽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³⁾

이와 관련하여, 동일한 음상을 가진 구결자라고 가정되어 온 ‘ㄹ’과 ‘ㄴ’에 대해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두 구결자는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 그 표기가 정연하게 구분되는데, 그 이유로 이 두 구결자의 음상은 동일하지만, 구결자가 표어성을 띠기 때문이라고 논의된 바 있다(문현수 2020: 85). 그런데 현대의 시선으로 보면 ‘ㄹ’과 ‘ㄴ’의 음상의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으나, 전기 중세 한국어 시기 이 두 구결자가 나타내는 음상이 동일했다고 보지 않을 여지도 있는 듯하다.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는 표시될 수 없는, 성조나 장단 등의 초분절 요소 등의 차이로 인해 이 두 구결자의 음상이 구별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음상의 구별되었기에 정연하게 구분되어 적혔을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기 때문이다.

‘ㄹ’과 ‘ㄴ’ 또한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 정연하게 구분되는 듯하지만, 아래의 예와 같이 혼동되어 적히는 경우가 존재한다.

(1) 量 無^ㄹ 邊 無^ㄴ 1 比丘 1 法眼淨^ㄷ 得^ㄷ ㄹ ㄴ <金光 卷3: 14: 23-24>

(2) ㄱ. 時^ㄴ 無色界^ㄴ 1 量 無^ㄴ 1 變^ㄴ 1 ㄷ 大香花^ㄷ 雨^ㄴ 1 ㄴ 香 1 車輪 {如} ㄴ 花 1
須彌山王 {如} ㄴ 雲 {如} ㄴ 而^ㄴ 下^ㄴ ㄷ ㄴ <舊仁 卷4: 02: 14-15>
ㄴ. 大衆 1 歡喜^ㄴ 金花^ㄷ 散^ㄴ ㄴ ㄴ 百億萬土 1 六大動^ㄴ ㄷ ㄴ <舊仁 卷4: 11: 11-12>

(3) ㄱ. 世尊^ㄴ 無邊身 1 一 言字^ㄴ 說^ㄴ 不^ㄴ ㄴ 一切 弟子衆^ㄴ 法雨^ㄷ 飽滿^ㄴ ㄴ ㄴ
故^ㄴ ㄴ ㄴ <金光 卷3: 13: 10-11>
ㄴ. 衆生^ㄴ 相^ㄴ 思惟^ㄴ ㄴ 一切 種 皆^ㄴ 無^ㄴ 1 ㄴ ㄴ 困苦^ㄴ 1 諸 衆生

2) 이건식(1996: 242)에서는 후기중세국어에서는 주제의 보조사가 형태음소적 교체를 보여주지만 고려시대 석독구결에서는 이러한 형태음소적 교체표기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3) 장윤희(2018: 712-713)에서는 고대 한국어에서 선행 체언 말음이 모음이든 자음이든 대격조사는 ‘ㄷ/ㄷ’ (을), 주제 보조사는 ‘1/隱(은)’만이 통합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고대 한국어에서는 대격조사가 ‘을’, 주제 보조사가 ‘은’ 하나뿐이었다가 고대 한국어에서 중세 한국어에 이르는 사이에 새로운 대격조사 ‘를’, 주제 보조사 ‘는’이 나타났음을 시사한다고 하였다.

- ヲ十 世尊_リ 普_リ 救濟_ッ ロ_フカ <金光 卷3: 13: 12-13>
 ㄷ. 苦_ニ 樂_ニ 常_ニ 無常_ニ 有我_ニ 無我_ニ 等_ッ 一 是 如_ニ 衆多_ッ 一 義_ヲ 十 世尊_ヲ 慧_一 著
 ノ_フ 無_ッ ロ_フカ <金光 卷3: 13: 13-14>
 ㄹ. 世間_一 一_カ 異_ッ 一 不_矢 一 矢 譬_入 一 空谷_ヲ 七 響 如_ニ 一_ヲ 不_度 一_ヲ 亦 不_滅 一_ヲ 一_ト
 ノ_一 入_乙 唯_ハ 佛_リ 能_カ 了知_ッ ロ_フカ <金光 卷3: 13: 14-15>

- (4) ㄱ. 口_ヲ 十 常_リ 說法_ッ 白_ウ 尸_ム 無義_ッ 一 入_乙 一_ヲ 尸 非_冬 一_ヲ 心_智 寂滅_ッ 下 緣 無_セ 一_リ 照_ッ ロ_乙カ <舊仁 卷4: 11: 10>
 ㄴ. 若_セ 言_尸 無_セ 一_ヲ 尸_ヲ 入_一 {者} 智_一 二_ノ 應_セ 一_ヲ 不_矢 一_リ ロ_乙カ <舊仁 卷4: 14: 18-19>
 ㄷ. 衆生_リ {於} 見_乙 失_リ 一_ヲ 乙 世尊_リ 能_カ 濟度_ッ 로_乙카 <金光 卷3: 13: 04-05>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 ‘乙’과 ‘尸’은 대부분 정연하게 구분되어 적히지만, (1)-(4)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乙’이나 ‘尸’뒤에 ‘카’가 오는 경우에는 ‘乙’과 ‘尸’이 혼동되어 적히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를 구결 기입자의 문법 의식이 약화되어 ‘乙’과 ‘尸’을 구분하지 못한 것이라고 파악할 수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카’가 공명음으로 시작하기에 ‘尸’에 의해 경음화되지 않아 ‘乙카’와 ‘尸카’가 음상적으로 구분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하여 표기가 혼동되어 적혔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2.2. 말음첨기

구결자 ‘一’은 다음과 같이 ‘헉든’ 혹은 ‘훈’, ‘운’, ‘즈믄’ 등의 말음첨기에 사용된다.

- (5) ㄱ. 一 佛_ニ 名號_ニ 乃_ッ 至_リ 不可說不可說_セ 佛_ニ 名號_ニ 一_ノ 今_乙 念_ッ 一_ヲ <華疏 卷35: 20:13-14>
 ㄴ. 分別 無_ニ {有} 功用 無_ニ 一_ヲ 一_ヲ {於} 一 念_セ 頃_セ 一_ヲ 十_方 一_ヲ {徧} 一_ノ 尸_ム <華嚴 卷14: 14: 17>
 (6) 過去_セ 一_ヲ 生_ニ 二_ノ 尸_ヲ 生_ニ 乃_ッ 至_リ 十_ノ 尸_ヲ 生_ニ 百 一_ヲ 生_ニ 千 一_ヲ 生_ニ 百 一_ヲ 千 一_ヲ 生_ニ 量_リ
 無_一 百_一 千_一 生_ニ <華疏 卷35: 20:07-09>

2.3. 보조사 ‘一’

자토석독구결 자료의 보조사 ‘一’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이견식(1996), 이승재(1998), 하귀녀(2005), 박진호(2015), 허인영(2017) 등을 참고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보조사 ‘一’의 용법 중, 특히 정보구조와 관련된 측면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현대 한국어에서, 주어에 ‘-은’과 ‘-이’가 붙을 때 이 둘의 차이는 정보구조적인 차이라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다. 보조사 ‘-은’은 구정보(given information)에, 주격조사 ‘-이’는 신정보(new information)에 붙는다. 그렇다면, 전기 중세 한국어는 후기 중세 한국어나 현대 한국어와 비교하였을 때 정보구조의 양상이 동일하였는가, 아니면 차이가 있었는가? 만일 차이가 있었다면 어떠한 차이가 있었고, 또한 언제부터 현대 한국어와 유사하게 변화하였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보조사 ‘一’이 현대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주제]나 [대조]의 기능을 하고 있음은 이견식

(1996), 이승재(1998), 하귀녀(2005)에서 이미 논의되었다.

- (6) ㄱ. 體 是 1 生老病死ヒ 法 1 入 ㄴ 故ノ 内壞苦ヲ{之} 隨逐ノ 尸 所ニ 爲ハク <瑜伽 卷20: 18: 04-05>
 몸[體]이, 이는 생로병사의 법인 까닭으로, 내괴고가 뒤따르는 바를 입으며
 ㄴ. 又 若 先 下 世間道ニ {以} 三摩地ニ 得 亦 得 圓滿 ヽ 亦 自在ニ 得 ヽ 1 1 彼 1
 或 {於}入三摩地相 1 謂 1 此 由 1 入 ㄴ 故ノ 三摩地 ヽ 入 ノ 今 十 <瑜伽 卷20: 23: 23-24: 03>
 또 만약 먼저 세간도로써 삼마지를 얻고, 또 능히 원만하고, 또 자재를 얻고 한 이는(/하면), 그는 혹 입삼마지상인, 이른바 이것을 말미암은 까닭으로 삼마지에 드는 것에 대해,

이건식(1996: 256)에서는 (6ㄱ)에서 주어 표지가 신정보를 주제 표지가 구정보를 표현하고 있다고 하였다. 즉, ‘-ㄱ’와 ‘-ㄴ’을 각각 주어 표지와 주제 표지로 파악한 것이며, 이를 정보구조적인 관점에서 논의한 것이다. 하귀녀(2005: 83-83)에서도 보조사 ‘-ㄴ’은 [주제]의 의미를 나타내고, (6ㄴ)과 같이 보조사 ‘-ㄴ’이 통합한 ‘-ㄴ ㄴ ㄴ’ 등이 [조건]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도 ‘-ㄴ’이 가지는 [주제]의 의미에 기인한 것이라 하였다.

한편, 박진호(2015)에서는 향가와 자토석독구결 자료를 대상으로 ‘-이’와 ‘-은’의 결합 양상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표 1> 향가에서 주어, 목적어에 붙는 표지

	무표지	-이	-여	-을	-은	-의	계
주어	36	12	2	0	17	6	73
목적어	38	0	0	19	0	1	58

박진호(2015: 385)에서는 향가가 시가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무표지의 비율이 눈에 띄게 높은 편이라고 하였다. 또한, 향가에서 ‘-은’과 ‘-이’의 구별 조건은, 중세 및 현대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화제/구정보 대 초점/신정보의 대립을 바탕으로 하나, 담화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존재를 지시할 때 현대 한국어와 달리 ‘-은’을 붙였다는 점에서 현대 한국어와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

- (7) ㄱ. 고대 한국어: 生死路隱 / 此矣 有阿米 次盼伊遣 <祭亡妹歌>
 ㄴ. 현대 한국어: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은) 여기 있음에
 ㄷ. 일본어: 生死の瀬戸際/別れ道はここにあるが (박진호 2015: 386)

한편,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 또한 담화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존재를 지시할 때는 ‘-은’이 아닌 ‘-이’가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 (8) ㄱ. {此}ニ 轉輪位^ㄱ + 王 1 處^ㄴヨ^ㄷカ^ㄹム 已^ㄷ久^ㄹホ^ㄹロ^ㄹ 1 : <華疏 卷35: 11: 18-19>
이 전륜성왕 자리에 왕이/왕께서 처하신 지 이미 오래되었으나
ㄴ. 爾^ㄴニ^ㄷソ^ㄹ 1 時^ㄹ + 智首菩薩 1 文殊師利菩薩^ㄹ + 問^ㄹ 言^ㄹ ^ㄹ <華嚴 卷14: 01: 04>
그 때 지수보살이 문수사리보살께 묻기를 (淨行品の 첫머리)
ㄷ. 佛^ㄹ 菩薩^ㄹ 1 云何^ㄹニ^ㄷ 無過失身語意業^ㄹ 得^ㄹ … 云何^ㄹ {於}一切衆生^ㄹ 中^ㄹ + 第一^ㄹ ^ㄹ

{爲} …… 無等等 {爲} 入乙ッナヲウセロ <華嚴 卷14: 01: 05-02: 09>

불자여 보살이 어떻게 해야 …… 할 수 있습니까?

ㄹ. 他方ヒ 大衆、及ハ 以ホ 化衆、{此}ニ 三界セ 中ウセ 衆、ノ尸 十二大衆1 皆セ 來ッ、
ホ 集會ッ、九劫蓮花座、十 坐ッ、白ウ1ム <舊仁 卷4: 02: 07-08>

타방의 대중, 화중, 이 3계의 중 등의 12 대중이 모두 와서 모여 구집연화좌에 앉았는데

ㄹ. 爾ヒッ1 時十 大王1 復ッ1 起ッ、作禮ッ、白ロ 佛十 白、言尸 <舊仁 卷4: 03: 22>

그 때 대왕이 다시 일어나 인사드리고 부처께 사죄기를

ㄹ. 佛1 言尸 <구인03:23>

부처께서 말씀하시기를

(박진호 2015: 386-387)

(8ㄱ-ㄴ)의 석독구결 원문과 이에 대한 현대어역의 차이에서 알 수 있듯이, 담화에 새로 도입되는 존재, 즉 지시적 신정보, 비인가 화제에 대해 석독구결에서는 현대어와는 달리, 그리고 향가와 마찬가지로 ‘-은’을 사용했다고 정리하였다.

한편, 허인영(2017ㄱ)은 《유가사지론》을 대상으로 하여 고려 시대 한국어의 정보구조를 논의하였는데, 허인영(2017ㄱ: 6)에서는 《유가사지론》의 주제어에는 보조사 ‘-1’이 통합되며, 그 기능은 일반적으로는 화제, 적극적으로는 대조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다만, 《유가사지론》의 경우 담화에 새로 도입되는 요소에 ‘-1’이 아닌 ‘-ㄱ’이 결합한다고 하였다.

(9) ㄱ. 釋提桓因이 부텃긔 請호스보다 “忉利天의 가샤 어마님 위호샤 說法호쇼셔” 世尊이 사름 아니 알외샤 호오샤 忉利天에 가샤 歡喜園이라 홀 東山에 波利質多羅樹ㅣ라 홀 나모 아래 거샤 석 드를 安居호더시니(釋提桓因請佛 至三十三天 爲母說法 一時佛在忉利天 歡喜園中 波利質多羅樹下 三月安居)

석제환인이 부처께 청하옵기를, “도리천에 가시어 어머니를 위하시어 설법하소서.” 세존이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시고 혼자 도리천에 가시어 환희원이라고 하는 동산에서 바리질다라 수라고 하는 나무 아래 계시어 석 달을 안거하고 있으셨는데 <釋詳 卷11: 1ㄱ>

ㄴ. 爾、ヒッ1 時十 智首菩薩1 文殊師利菩薩尸十 問、言、尸 <華嚴 卷14: 01: 04>

그때 지수보살이 문수사리보살께 묻기를

ㄷ. 謂1 如來尸 弟子ニ 生圓滿乙 依、轉ッ、今セ 時、十十 <瑜伽 卷20: 04: 15-16>

말하자면 여래의 제자가 생원만을 의지하여 전할 때에 (허인영 2017ㄱ: 29)

15세기 한국어의 예인 (9ㄱ)은 담화에 새로 도입되는 요소에 ‘-이’가 붙어 있다. 반면, (9ㄴ)은 자토석독구결자료 《화엄경》의 예로 ‘정행품(淨行品)’이 시작되는 부분이다. 여기에는 담화에 새로 도입되는 요소인 ‘智首菩薩’에 ‘-ㄱ’이 아닌 ‘-1’이 결합되어 있다. (9ㄷ)은 《유가사지론》의 예인데, 여기에서는 담화에 새로 도입되는 화제에 ‘-1’이 아닌 ‘-ㄱ’이 통합되어 있어 《화엄경》보다는 15세기 한국어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여준다. 요컨대, 주어에 결합하는 ‘-ㄱ’과 ‘-1’의 양상이 구결자료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허인영(2017ㄱ)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유가사지론》 외의 불교 경전은 등장인물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퇴장하는 대화문 중심의 서사 형식이 많지만, 《유가사지론》은 불교 교리와 관련된 내용이 문답식으로 전개되기에 대화문이 없다는 자료의 특성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추후, 《유가사지론》뿐만이 아니라, 현재까지 발견된 6종의 자토석독구결 자료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구조의 양상이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를 탐구해 본다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된다.

3. 구결자 ‘尸’

3.1. ‘尸’의 음가

이 절의 제목을 “‘尸’의 음가”로 정하기는 하였으나, 구결자 ‘尸’의 음가에 대한 논의는 ‘尸’의 속격 용법에 대한 논의와 따로 생각할 수 없다. 이는 자토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尸’의 속격 용법을 해명하려는 시도가 구결자 ‘尸’의 음가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며, 이 과정에서 구결자 ‘尸’의 음가에 대한 논의가 깊어져 왔기 때문이다.

구결자 ‘1’의 음가와 달리, 구결자 ‘尸’의 음가에 대해서는 자토석독구결 자료가 발견된 초창기부터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자토석독구결 자료 《화엄경》 卷14와 그 이후에 발견된 문헌에서 ‘尸’이 속격의 기능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래의 예들이 나타나면서, 구결자 ‘尸’의 기능과 음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 (10) ㄱ. 佛子ᆞ 何^나 {等} ᆞ ㅅ 乙 [菩薩摩訶薩^ㄹ 聞藏]: 노令口{爲} ᆞ 나야尸入 ㄱ <華疏 卷35: 01: 03>
 불자야, 어떠한 것들을 보살마하살의 聞藏이라 하는가 할 것 같으면
 ㄴ. {是} 리 乙 名 下 [菩薩摩訶薩^ㄹ 五 第 七 多聞藏]: 노야나 ㄱ <華疏 卷35: 09: 03-04>
 이를 일컬어 보살마하살의 다섯 번째의 多聞藏이라 하는 것이다.
- (11) ㄱ. 佛子ᆞ 云何セッ ㄱ 乙 [菩薩^ㄹ 分減施]: 노令口{爲} ᆞ 나야尸入 ㄱ <華疏 卷35: 09: 09>
 불자야, 어떠한 것을 보살의 分減施라 하는가 할 것 같으면
 ㄴ. 善男子ᆞ [菩薩^ㄹ 四地]ᆞ 나 ㄱ 是 相 리 前現ノ ㄴム <金光 卷3: 06: 04-05>
 선남자여,菩薩의 四地에서는 이 相이 前現하되
- (12) 大悲水 乙 以^로 호 今日^ㄹ 阿鼻地獄 等 ᆞ ㄱ 리: 及 七 餘 ㄱ 地獄 等 ᆞ ㄱ 리: 노令 ㄱ 세 苦 乙 現受ト ㄱ 一切 衆生 ㄱ 罪垢 乙 洗除 ᆞ 下ハ 得^히 호 淸淨 令 리 호 ㄴ <慈悲 卷4: 18: 13-15>
 大悲水を 써서 今日의 阿鼻地獄 같은 것이니 및 다른 地獄 같은 것이니 하는 데에서의 꿈을 현재 받는 一切 衆生の 罪垢를 洗除하시어서 능히 淸淨하게 하시며

(10)-(12)는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 속격 용법을 표기하는 데 구결자 ‘尸’이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구결자 ‘尸’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⁴⁾ 첫째, 구결자 ‘尸’이 두 가지 음가를 나타냈다고 보는 방법이다. 이는 고대 한국어도 중세 한국어와 같이 속격조사 ‘-스’이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며, 이 ‘-스’이 구결자 ‘尸’에 의해 표기된다고 파악하는 것이다. 즉, 이 논의에 따르면 구결자 ‘尸’은 [을]과 [스] 두 가지 음가를 나타내게 된다(이장희 1995, 김윤범 1996).

둘째, 고대 한국어에 속격조사 ‘-을’이 존재했다고 상정하는 방식이다(남풍현 1996ㄱ). 남풍현(1996ㄱ)에서는 구결자 ‘尸’이 동명사어미 ‘-을’을 표기했던 것과 동일한 음을 표기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尸’은 고대 한국어에만 존재했던 속격조사 ‘-을’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파악하였다.

첫 번째 관점은 하나의 구결자가 상이한 두 음상을 지닌 문법 형태소를 나타낸다는 점, 그

4) 연구사 정리는 장윤희(2011)을 크게 참고하였다.

로 인해 구결자가 가진 ‘1字 1音’의 원리를 어긴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이승재 2000). 두 번째 관점은 고대 한국어에 ‘-을’이라는 속격조사가 존재했다고 볼 경우, 구결자 ‘ㄷ’과 ‘ㄹ’에 의해 표기되는 속격조사 ‘-스’, ‘-이/의’와의 차이는 무엇인지, 어째서 15세기 문헌에는 속격조사 ‘-을’이 흔적을 보이지 않고 사라졌는지 등이 문제로 남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황선엽(2000), 장윤희(2011)과 같은 논의가 이어지게 되었다. 우선, 황선엽(2000)에서는 15세기 한글 문헌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예에 주목한다.

- (13) ㄱ. 하늘 뜬 <龍歌 제4장>
 ㄴ. 하늘 별 <龍歌 제50장> (황선엽 2000: 262)

황선엽(2001: 261)에서는 15세기가 속격 ‘-스’이 /ʔ/으로 변해가는 과도기라고 파악하였으며, 속격의 ‘-스’이 /ʔ/으로 실현될 경우, 이것이 관형사형 어미에 보이는 ‘ㅎ’과 음성적으로 같은 것임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전기 중세 한국어에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가정한다면, (10-12)의 ‘菩薩’, ‘菩薩摩訶薩’, ‘今日’과 같은 단어는, ‘ㄹ’ 발음 체언 뒤에 속격조사 ‘-스’이 올 때 그 음성실현이 동명사어미 ‘-을’과 유사하였을 것이라 하였다. 그렇기에 구결자 ‘ㄹ’로 표기할 수 있었다고 파악하는 것이다. 이처럼 황선엽(2000)이 ‘을’과 ‘을’의 음가상의 유사점에 주목하고 있기에,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 ‘ㄹ’이 붙은 예들을 음절 말 /ㄹ/과 관련 지어서 설명하려 시도한다.

한편, 장윤희(2011)에서는 황선엽(2000)과 유사하게, 중세 한국어의 ‘-을’이 ‘-을’으로도 표기될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음절말 ‘스’의 불파음화였다는 것에 주목한다. 음절말의 ‘스(s)’이 음절말에서 불파음화하면서 그 음이 [ʔ]으로 조음되었고 이로 인해 ‘-을’의 발음과 동일하게 인식되었다고 파악하는 것이다. 즉, 음절말 ‘스’의 불파음화가 전기 중세 한국어에서부터 시작되어 자토석독구결 자료에 반영되어 있다고 파악하였으며, 속격에 ‘ㄹ’이 사용된 현상이 이와 관련되어 있다고 파악한 것이다(장윤희 2011: 135).

장윤희(2011)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를 음절말 /ㄹ/과 관련이 있는 ‘을’과 ‘을’에 국한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 속격 ‘ㄹ’ 표기가 주로 몇몇 명사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현상은 당시가 음절말 ‘스’의 불파음화가 나타난 초기였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설명한다.

결국 이 두 논의의 차이는 선행명사의 발음이 ‘ㄹ’이 아닌 경우, 즉 ‘菩薩’이나 ‘菩薩摩訶薩’, ‘今日’ 이외의 경우를 어떻게 설명하는가와 관련된다. 자토석독구결 자료에는 체언 뒤에 ‘ㄹ’이 붙는 예로, ‘菩薩’이나 ‘菩薩摩訶薩’ 외에도 ‘如來’, ‘三世’, ‘一切’, ‘梵志’, ‘外’, ‘上’, ‘昔’, ‘大師’ 등이 존재한다.

- (14) ㄱ. 又 1 復 ㄱ 十方 ㄷ 如來 ㄹ 一切 髮塔：一切 齒塔：一切 牙塔：一切 爪塔：一切 頂上骨塔：一切 身中 ㄷ 諸 1 舍利塔：袈裟塔：匙鉢塔：澡瓶塔錫：杖塔：ㄴ 是 如 ㄴ 等 1 ㄴ 佛事 ㄷ 為 ㄴ 歸命 ㄴ 慈悲 卷4: 17: 19-18: 01>
 ㄴ. 信 1 能 ㄷ 智 ㄷ 功德 ㄷ 增長 ㄴ 信 1 能 ㄷ 必 ㄷ 如來 ㄹ 地 ㄴ 到 ㄴ 華嚴 卷14: 10: 01>
 ㄷ. {於}戒：及 ㄷ 學：ㄴ 常 順行 ㄴ 一切 如來 ㄹ 僞美 ㄴ 所 ㄴ 華嚴 卷14: 10: 13>

- (15) 若 ㄷ 水 ㄴ 入 ㄴ 時 ㄴ 當 願 衆生 一切 智 ㄴ 入 ㄴ 三世 ㄹ 等 ㄴ 知 ㄷ

<華嚴 卷14: 07:23>

- (16) {是}리 如^ㄴ ㄷ^ㄴ 一切^ㄴ 皆^ㄴ 自在^ㄴ 佛 華嚴三昧^ㄴ 力^ㄴ {以}^ㄴ <華嚴 卷14: 15:07>
- (17) 或^ㄴ 梵^ㄴ 諸^ㄴ 威儀^ㄴ 現^ㄴ {於}彼 衆^ㄴ 中^ㄴ 上^ㄴ 首^ㄴ {爲} 入^ㄴ <華嚴 卷14: 19: 21>
- (18) 善^ㄴ {於}他^ㄴ 破^ㄴ 四諦 說 外^ㄴ 動^ㄴ 所^ㄴ 非^ㄴ 四諦 說 <華嚴 卷14: 20:11>
- (19) ㄱ. 佛^ㄴ {此}리 菩薩^ㄴ 上^ㄴ 說^ㄴ 所^ㄴ 如^ㄴ 輪王^ㄴ 位^ㄴ 處^ㄴ 七寶 具足^ㄴ 四天下^ㄴ 王^ㄴ <華疏 卷35: 11: 16-18>
 ㄴ. 佛^ㄴ {此}리 菩薩^ㄴ 亦^ㄴ 上^ㄴ 說^ㄴ 如^ㄴ 輪王^ㄴ 位^ㄴ 處^ㄴ 七寶 具足^ㄴ 四天下^ㄴ 王^ㄴ <華疏 卷35: 12: 08-09>
- (20) ㄱ. 出世心^ㄴ 得^ㄴ 昔^ㄴ 得^ㄴ 未^ㄴ 所^ㄴ 而^ㄴ 今^ㄴ 始^ㄴ 得^ㄴ 大事^ㄴ 大用^ㄴ 意^ㄴ 願^ㄴ 所^ㄴ 如^ㄴ 悉^ㄴ 皆^ㄴ 成就^ㄴ <金光 卷3: 06: 23-24>
 ㄴ. 昔^ㄴ 得^ㄴ 未^ㄴ 所^ㄴ 勝^ㄴ 得^ㄴ 故^ㄴ 動^ㄴ 無^ㄴ 因^ㄴ <金光 卷3: 07: 18-19>
 ㄷ. 請問^ㄴ 依^ㄴ 故^ㄴ 昔^ㄴ 聞^ㄴ 未^ㄴ 甚^ㄴ 法^ㄴ 聞^ㄴ <瑜伽 卷20: 07: 03-04>
 ㄹ. 閻羅大王^ㄴ 昔^ㄴ 毘沙國^ㄴ 王^ㄴ {爲} 維陀始王^ㄴ 與^ㄴ 共^ㄴ 戰^ㄴ 兵^ㄴ 力^ㄴ 如^ㄴ 不^ㄴ 因^ㄴ 誓^ㄴ 願^ㄴ 立^ㄴ <慈悲 卷4: 19: 16-18>
- (21) 二 他師教^ㄴ 謂^ㄴ 所^ㄴ 大師^ㄴ 鄔波陀耶^ㄴ 阿遮利耶^ㄴ {於}時時間^ㄴ 教授 教誡^ㄴ 依^ㄴ 攝^ㄴ 依^ㄴ <瑜伽 卷20: 25:08-10>⁵⁾

황선엽(2001: 270)에서는 ‘如來’, ‘一切’, ‘三世’의 예에 대해서는 마지막 음절의 한자음이 /ㅣ/로 끝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한자음에서 /ㅣ/와 /ㄹ/이 교체되는 현상과 관련지은 것이다. 그러나, 그 외의 예들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후고를 기약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한편, 장윤희(2011)에서는 위의 예들 중, ‘*上^ㄴ, *昔^ㄴ, *外^ㄴ’ 등은 정재영(1995)에서 다룬 ‘ㄷ’형 부사가 불파음화된 표기로 파악하며, 그 외에 명사에 결합한 ‘^ㄴ’은 속격조사 ‘-스’이 불파음화해 가는 과정 중에 발생한 표기로 파악하였다. 속격 ‘^ㄴ’ 표기가 이렇게 몇몇 명사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것은, 당시가 음절말 ‘스’의 불파음화가 나타난 초기였기 때문이라 파악한 것이다. 그런데 (14)-(21)의 명사나 부사가, 다른 명사나 부사와는 달리 보다 이른 시기에 음절말 ‘스’의 불파음화를 겪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음절말 ‘스’의 불파음화가 나타난 초기였다는 점에 주목해 보면, ‘菩薩’이나 ‘菩薩摩訶薩’의 경우 속격을 나타낼 때 ‘ㄷ’ 표기와 ‘^ㄴ’ 표기가 혼동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해 보아야 할 텐데, 《구역인왕경》을 제외하고는 ‘^ㄴ’ 표기가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4)-(21)에 나타난 ‘^ㄴ’ 표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5) 이 예는 ‘大師^ㄴ’에서 ‘^ㄴ’이 생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후술한다.

3.2. 말음첨기

구결자 ‘1’과 마찬가지로, 구결자 ‘尸’ 또한 말음첨기에 사용된다.

- (22) 過去セ 一^レ 生^ル 二^ノ 生^ル 乃ッ 至^ル 十^ノ 生^ル 百^ノ 生^ル 千^ノ 生^ル 百^ノ 千^ノ 生^ル 量^ル 無^ク
 一^ノ 百^ノ 千^ノ 生^ル <華疏 卷35: 20: 07-09>
- (23) ㄱ. 過去セ 一^レ 生^ル 二^ノ 生^ル 乃ッ 至^ル 十^ノ 生^ル 百^ノ 生^ル 千^ノ 生^ル 百^ノ 千^ノ 生^ル 量^ル
 無^ク 一^ノ 百^ノ 千^ノ 生^ル <華疏 卷35: 20: 07-09>
 ㄴ. 菩薩^ノ 一^ノ 十^ノ 種^ノ 行^ハ 行ッ^ニ 亦ッ^テ 一切^ノ 大人ヲ 法^ニ 行ッ^ニ ヲツ^テ イ^テ 示^ス リカ <華嚴 卷
 14: 18: 18>
- (24) ㄱ. 百^ノ 一^ノ 萬^ノ 阿僧祇セ 陀羅尼^ニ 以^テ 忉^ニ 眷屬^ノ {爲^ス } 一^ノ 乙ッ^テ <華疏 卷35: 25: 13-14>
 ㄴ. 毘沙王^ノ リ^ノ ヲツ^テ 一^ノ {者^ノ } 今セ 閻羅王^ノ 是^レ リナ^リ 一^ノ 十八^ノ 大臣^ノ 一^ノ 今セ 十八^ノ 獄セ 主^リ 是^レ リロ^ノ 一^ノ
 百^ノ 萬^ノ {之^ノ } 衆^ノ 一^ノ 今セ 牛頭阿旁^ノ 是^レ リロ^ノ 一^ノ 而^テ 此^ノ 官屬^ノ 悉^ク 北方^ノ 毘沙門天王ヲ
 隸^ナ ナ^リ リ^ノ ヲツ^テ ハ^ニ <慈悲 卷4: 19: 20-20: 02>
- (25) ㄱ. 吾^ハ 又^ノ 曹^ノ 一^ノ 今ッ^テ 一^ノ {者^ノ } 各^ノ 忉^ニ 求^メ ノ^ヲ 所^ニ 乙^テ {有^ス } 十^ノ 七^ノ ノ^ヲ リ^ニ 四^ノ <華疏 卷35: 12: 12>
 ㄴ. 惟ハ 願^フ ロ^ク 入^リ 一^ノ 仁慈^ニ 善^ニ 方便^ニ 以^テ ハ 己^ノ ヲ {有^ス } 十^ノ 七^ノ ノ^ヲ 所^ニ 捨ッ^テ 忉^ニ {我^ハ } 又^ノ 乙^テ 具足^ノ 令^ス
 一^ノ ロハ 亦ッ^テ 一^ノ ヲツ^テ <華疏 卷35: 15: 20-16: 01>

(22)는 ‘둘ㅎ’, (23)는 ‘열ㅎ’, (24)는 ‘골’⁶⁾을 표기한 것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25ㄱ)은 말음첨기를 나타낸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황선엽(2001: 268)에서는 15세기의 ‘열’과 ‘둘’이 ㅎ 말음체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十尸’은 ‘열ㅎ’, ‘二尸’은 ‘둘ㅎ’ 혹은 ‘두블ㅎ’를 표기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다만,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만, ‘ㄹㅎ, ㄹ, ㄹㅎ’의 음가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말음첨기에 사용되는 구결자 ‘尸’과 달리 구결자 ‘ㄷ’은 말음첨기에 잘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구결자 ‘ㄷ’이 말음첨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예는 아래의 예가 유일하다.

- (26) 趾乙 發ッッホ 道乙 向ッホ 1 | + 1 當願衆生 佛矣 所行ッ十 趣ッッハ 無依處ッ十
入乙ビ <華嚴 卷14: 04: 19>

즉, 이 예를 제외하고는 말음의 /ㄹ/을 표기할 때 구결자 ‘ㄷ’은 사용되지 않는다. 단순히 /ㄹ/ / 말음으로 끝나는 경우, 굳이 말음첨기를 할 필요성이 없었던 듯하다.

3.3. ‘尸’과 의존명사 ‘스’

구결자 ‘尸’과 관련하여 논의되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는 동명사어미 ‘-음’과 의존명사 ‘스’와의 관계이다. 최성규(2021: 151)에서는 기존에 “원시의존명사”라고 논의되었던 ‘스’의 문법

6) ‘萬尸’을 ‘골’로 읽는 것은 15세기 한국어 자료를 통해 문증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허인영(2017나)에서는 ‘萬’을 ‘골’로 읽는 것에 대해서는 ‘골백번’ 등의 화석형과 “골 만(萬) <新字典 3:53>”을 참고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적 지위를 검토하면서, 의존명사 ‘스’는 별도로 분리되는 존재가 아니라, 동명사어미 ‘-을’의 일부라고 파악하였다.

(27) ㄱ. 저머셔 아비 업슬 시 孤 | 오 艱難 홀 시 貧이니 <圓覺 序: 77ㄱ>

ㄴ. 萬行이 眞實로 불골 씨 明行足이라 <月釋 卷9: 11ㄱ>

(28) ㄱ. 又釋호디 智能究竟窮盡涅槃之際 홀 슬 亦云究竟也 | 라 호시니라 <般若 56ㄴ>

ㄴ. 부테 法 ㄱ르치샤 煩惱 바르래 견내야 내실 쓸 濟渡 | 라 호느니라 <月釋 卷1: 11ㄱ>

(29) ㄱ. 쯔 疑心엿 뜨들 프디 몬홀신 다시 닐오미 므던호니 <牧牛子 24ㄱ>

ㄴ. 반드기 알라 我 | 호홀씨 生死 | 호호고 涅槃이 호홀씨 我所 | 호호니 <永嘉 卷上: 57ㄴ>

(30) 사괴논 뜨든 늘글스록 쯔 親호도다 <杜初 卷21: 15ㄴ>

(31) ㄱ. 越姬 니르샤디 크실셔 君王스 德이여 <內訓 卷2上: 30ㄴ>

ㄴ. 도호시며 도호실씨 大雄世尊이여 <法華 卷5: 94ㄴ>

(32) ㄱ. 點眼은 스스이 弟子이 누늘 뜨긔 홀 시라 <金三 卷2: 59ㄴ>

ㄴ. 自然은 本來 제 天然호야 因緣을 븐디 아니홀 씨라 <楞嚴 卷4: 66ㄴ>

(최성규 2021: 147-148)

(27)은 동명사어미에 주격조사, (28)는 목적격조사, (29)는 처격조사, (30)는 도구격조사가 붙은 뒤 다시 보조사(또는 첨사), (31)는 종결조사 또는 호격조사, (32)는 계사가 붙어 ‘-을 시-, -을 씨-’로 나타난 예이다. 이들은 모두, 동명사어미 뒤에 매개모음이나 모음이 이어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최성규(2021)은 이 점에 착안하여, ‘-을슬, -을시, -을시라’와 같은 구성을 ‘-을+스#-을’, ‘-을+스#-이’, ‘-을+스#-이-+-다’와 같이 의존명사 ‘스’를 포함한 구성이 아닌, 동명사어미 ‘-리’에 ‘-을, -이, -이라’가 붙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즉, 기존에 ‘ㄹ+스+X’로 분석해 왔던 것들을 ‘ㄹ+X’로 바꾸어 분석한 것이다.

이 논의는 의존명사 ‘스’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두 가지 문제를 설명해 준다고 생각된다. 첫째, 15세기에 의존명사 ‘드’ 앞에는 관형형 어미 ‘-을’과 ‘-은’이 모두 올 수 있었는데, 어째서 의존명사 ‘스’ 앞에는 ‘-을’만이 오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 준다. 의존명사 ‘스’ 앞에는 의존명사 ‘드’와 달리, 관형형 어미 ‘-을’만 올 수 있다는 점은 기존 논의에서도 기술되었으나, ‘-은’과 ‘스’가 함께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밝히기 어려웠다. 이 둘이 가진 모종의 문법적 특징이 충돌하기 때문이라거나, 의존명사 ‘스’가 ‘드’에 비해 후대에 발달한 요소라서 다른 문법요소와 결합 제약을 가진다는 등의 설명이 있었으나, 결정적인 설명이 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선어말어미 ‘-오-’와 ‘스’가 결합하지 않는 이유 또한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33) -{ㄴ, ㄹ} 디며: 보논 디며, 아룁 디며, 니줄 띠며

-{ㄴ, ㄹ} 디면: 恭敬흔 디면, 숲 디면

-단 디면: 들즈뵈단 디면, 至極호단 디면

-{ㄴ, ㄹ} 디니: 보논 디니, 홀 디니, 홀 띠니

- {ㄴ, ㄹ} 디어니: ㄹ을 디어니
- ㄹ 디어니와: 둘 디어니와, 홀 디어니와
- ㄹ 디오: ㄴ을 디오
- ㄹ 디온: 마를 디온
- ㄹ 디나: 나갈 디나, 빼힐 디나
- ㄹ 디라도: ㄴ 디라도, 홀 디라도
- ㄹ 디어늘: ㄴ 디어늘
- ㄹ 디언딩: ㄷ외웁 디언딩, 아닐 띠언딩
- ㄹ 띠댄: 홀 띠댄, 나사갈 띠댄
- ㄴ 띠씨: 보는 띠씨 등 (정재영 1996: 274-275)

정재영(1996: 274-275)에서는 의존명사 ‘ㄷ’가 접속어미와 통합한 구성에서는 항상 선어말어미 ‘-오-’가 통합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이는 평서법의 종결어미와 통합한 구성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기존에 의존명사 ‘ㅅ’ 구성으로 다루어진 것에는 선어말어미 ‘-오-’가 통합되지 않는다. 즉, ‘-을 시/씨’, ‘-을 술/쥘’, ‘-을시/을씨’, ‘-을스록’, ‘-을셔/을씨’, ‘-을 시/씨-’ 등의 구성에서는 관형형 어미 ‘-을’에 ‘-오-’가 통합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정재영(1996: 275)에서는 의존명사 ‘ㅅ’ 구성에 선어말어미 ‘-오-’가 통합할 수 없는 것이 ‘ㅅ’가 가지는 의미 기능과 ‘-오-’가 가지는 의미 기능이 서로 배타적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문제는, 이때의 ‘의미 기능’이 뜻하는 바, 즉 ‘ㅅ’와 ‘-오-’가 가진 의미 기능이 무엇인지, 이들이 어떠한 점에서 충돌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최성규(2021)과 같이 ‘ㄹ+ㅅ+X’를 ‘ㄹ+X’로 분석하게 되면, 의존명사 ‘ㄷ’ 구성은 명사구 보절을 이루는 반면, ‘ㄹ+X’는 명사구 보절을 이룬다고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두 구성에서 ‘-오-’의 결합 여부에 왜 차이가 발생하는지 논의하기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력을 고려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서는 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최성규(2021: 151)에서는 석독구결 자료에서 ‘-ㅍ(ㅍ)’이 포함된 구성들을 ‘ㅅ’ 관련 구성의 옛 모습과 관련지을 수도 있다고 파악하였다. 즉, ‘-ㅍ 1(웁은), -ㅍ 乙(웁을), -ㅍ ㅅ(웁여), -ㅍ ㅅ+(웁의기)’는 각각 나중에 나타날 ‘-ㄹ슨, -ㄹ술, -ㄹ셔, -ㄹ시’의 옛 모습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특히 ‘-ㅍ ㅅ’가 15세기의 ‘-을씨’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인지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15세기 한국어의 ‘-을씨’는 ‘-은더’, ‘-게라’와 함께 감탄법 종결어미이다(장윤희 1998). 그런데, 자토석독구결의 ‘-ㅍ ㅅ’와 ‘-ㅍ ㅅ’는 ① 배경 상황 제시, ② 설명·부연, ③ 대립 또는 양보의 다의적 의미를 가진다(김지오 2012). 요컨대, 15세기의 ‘-을씨’는 감탄법 종결어미로 파악이 되는데, 자토석독구결의 ‘-ㅍ ㅅ’는 감탄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 듯하다는 것이다.⁷⁾ 그렇다면 ‘-ㅍ ㅅ’에서 동명사어미의 음가가 변화하여 ‘-을씨’가 되었다고 파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둘째, 15세기 한글 문헌에 나타나는 성조 또한 고려될 필요가 있다. 김성규(1994: 44)에서는 ‘썸 씨라(거#거거)’<訓諺 3>, ‘일 씨라(상#거거)’<訓諺 13>, ‘넌 씨니(상#거거)’<釋詳 卷24: 27>, ‘클 씨니(거#거거)’<釋詳 卷13: 34> 등의 예를 바탕으로 ‘씨’ 앞에 휴지(休止)가 없다면 하나의 기식군 안에 거성이 세 번 연속되는 형태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주지하다시피

7) 자토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감탄법 종결어미로는 ‘-ㅍ ㅅ/ㅅ’, ‘-ㅍ ㅅ’, ‘-ㅍ’가 있다(장윤희 2002: 53).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는 성조 울동 규칙에 의해 하나의 기식군 안에 거성이 세 번 연속되는 것을 피하는 현상이 있다(去聲不連三). 만일, ‘뜰 씨라’를 ‘뜰-+-을#스+-이-+-다’가 아닌, ‘뜰-+-을+-이-+-다’로 분석하게 될 경우, 즉, 의존명사 ‘스’를 상징하지 않을 경우에는 휴지를 상징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4. ‘- ㄱ 1’과 ‘- ㄱ 尸’의 용법에 대하여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법 형태 중에는 ‘1’과 ‘尸’이 대립을 이루지 않는 경우와 대립을 이루는 경우 두 가지가 모두 존재한다. 아래는 남풍현(1996c: 44)에서 ‘1’과 ‘尸’이 대립하는 구성을 가져온 것이다.

<표 2>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 ‘1’과 ‘尸’이 대립하는 문법 형태

1	ㅅ 1 ㄹ	ㅅ 尸 ㄹ
2	ㅅ 1 乙	ㅅ 尸 乙, ㅅ 乙
3	ㅅ 1 ㄹ 十	ㅅ 尸 ㄹ 十
4	ㅅ 1 乙 ㄴ	ㅅ 尸 乙 ㄴ
5	*	ㅅ 尸 人
6	ㅅ 1 1	ㅅ 尸 1
7	ㅅ 1 刀	ㅅ 尸 刀
8	ㅅ 1	ㅅ 尸
9	ㅅ 1 所	ㅅ 尸 所
10	ㅅ 1 矢	ㅅ 尸 矢
11	ㅅ 1 人 乙	ㅅ 尸 人 乙
12	ㅅ 1 人 1	ㅅ 尸 人 1
13	ㅅ 1 人 ㄴ	ㅅ 尸 人 ㄴ
14	ㅅ 1 人	ㅅ 尸 人
15	ㅅ 1 丁	ㅅ 尸 丁
16	ㅅ 1 ㄱ	*
17	*	ㅅ 尸 矢 1
18	ㅅ 1 人(乙)	ㅅ 尸 人(乙)

동명사어미와 관련하여 앞으로 추구되어야 하는 지점 중 하나는 ‘- 1’과 ‘- 尸’의 의미·기능에 대한 보다 정밀한 탐구와 이를 바탕으로 ‘- 1’과 ‘- 尸’이 참여하고 있는 문법 구성의 의미·기능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기술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즉, <표 2>에 보이는 문법 형태의 의미·기능 차이가 나타나는지, 이것과 동명사어미 ‘- 1’, ‘- 尸’의 의미·기능 차이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가 탐구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 중, ‘- ㄱ 1’과 ‘- ㄱ 尸’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계사 ‘-이-’와 관형형 어미 ‘-을’이 잘 결합하지 않는다. 반면, 전기 중세 한국어에서는 ‘- ㄱ 1’과 ‘- ㄱ 尸’이 모두 활발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 두 요소는 현대 한국어로 옮기면 모두 ‘인’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

- (34) ㄱ. 此 陀羅尼呪乙 誦持ㅅ 白ㅅ 尸 人 1 得ㅅ 亦 一切 怖畏ㅅ 1 1 [一切 惡獸ㅅ 一切 惡鬼ㅅ 人非人 等ㅅ 1 1 災橫ㅅ 諸惱ㅅ] ㅅ 尸 乙 度脫ㅅ 五障乙 解脫ㅅ 金 卷3: 09: 08-10>

- ㄴ. 此 陀羅尼呪_乙 誦持_ッ白_ロナ_ル入_リ 得_ルホ 一切 怖畏_リ 1 [一切 惡獸_→ 一切 惡鬼_→ 人非人 等_ッ 1 怨賊_→ 災橫_→ 諸惱_→]ノ_ル乙 度脫_ッ 五障_乙 解脫_ッ <金光 卷3: 09: 16-18>

《합부금광명경》에서는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 여러 번 반복된다. (34)에서는 ‘一切 怖畏’에 ‘一切 惡獸, 一切 惡鬼, 人非人, 災橫, 諸惱’ 등이 속한다는 것을 ‘-리 1’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이제, 아래의 문장을 살펴보자.

- (35) ㄱ. 陀羅尼呪 誦持 得_ルホ 一切 怖畏_リ 1 一切 惡獸_リ 虎狼獅子_→ 一切 惡鬼_→ 人非人 等_ッ 1 怨賊_→ 災橫_→ 諸_ヲ 有_ッ 1 惱害_→ノ_ル乙 度脫_ッ 五障_乙 解脫_ッ <金光 卷3: 09: 24-10: 01>
- ㄴ. 陀羅尼 誦持 得_ルホ 一切 怖畏_リ 1 一切 惡獸_リ 虎狼獅子_→ 一切 惡鬼_→ 人非人 等_ッ 1 怨賊_→ 災橫_→ 及 諸 毒害_→ノ_ル入_リ乙 度_ッ 五障 解脫 <金光 卷3: 10: 08-10>
- ㄷ. 陀羅尼 誦持 得_ルホ 一切 怖畏_リ 1 一切 毒害_リ 虎狼獅子_→ 一切 惡鬼_→ 人非人 等_ッ 1 怨賊_→ 災橫_→ 諸_ヲ 有_ッ 1 惱害_→ノ_ル乙 度_ッ 五障 解脫 <金光 卷3: 10: 18-20>
- ㄹ. 陀羅尼 誦持 得 一切 怖畏_リ 1 一切 毒害_リ 虎狼獅子_→ 一切 惡鬼_→ 人非人 等_ッ 1 怨賊_→ 災橫_→ 諸_ヲ 有_ッ 1 惱害_→ノ_ル乙 度_ッ 五障 解脫 <金光 卷3: 11: 04-06>
- ㅁ. 陀羅尼 誦持 得 一切 怖畏_리 1 一切 惡獸_리 虎狼獅子_→ 一切 惡鬼_→ 人非人 等_ッ 1 怨賊_→ 毒害_→ 災橫_→ノ_ル乙 度_ッ 五障 解脫 <金光 卷3: 11: 15-17>
- ㅂ. 陀羅尼 誦持 得 一切 怖畏_리 1 一切 惡獸_리 虎狼獅子_→ 一切 惡鬼_→ 人非人 等_ッ 1 怨賊_→ 毒害_→ 災橫_→ノ_ル乙 度_ッ 五障 解脫 <金光 卷3: 11: 23-25>
- ㅅ. 陀羅尼 誦持 得 一切 怖畏_리 1 一切 惡獸_리 虎狼獅子_→ 一切 惡鬼_→ 人非人 等_ッ 1 怨賊_→ 毒害_→ 災橫_→ノ_ル乙 度_ッ 五障 解脫 <金光 卷3: 12: 09-10>

(35)는 위의 (34) 이후에 나오는 문장들이다. (34)와 (35)를 비교해 보면, ‘一切 怖畏_리 1’까지는 동일하나, (34)에서는 ‘一切 惡獸_→’로 나타났던 것이 ‘一切 惡獸_리’ 혹은 ‘一切 毒害_리’이 되고, 그 뒤에 (34)에는 없었던 ‘虎狼獅子’가 추가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5ㄱ)은, “一切 怖畏인, 一切 惡獸인 범·이리·사자니 一切 惡鬼니 人非人 등의 怨賊이니 災橫이니 여러 존재하는 惱害니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虎狼獅子’를 수식하는 ‘一切 惡獸_리’ 혹은 ‘一切 毒害_리’에는 ‘-리’이 사용되었는데, 그 앞의 ‘一切 怖畏’에서는 ‘-리’이 아니라 ‘-리 1’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 (36) ㄱ. 一切 諸 1 妓樂_리 1 鐘_ニ 鼓_ニ 琴_ニ 瑟_ニノ_ル 1 <華嚴 卷14: 15: 24>
一切 모든 妓樂인 鐘이니 북이니 가야금이니 거문고이니 하는 것은
- ㄴ. 善男子_ヲ 其 說_白リ 1 所_ニ 十四 般若波羅蜜_리 1 三忍_ニ 地地_ヲ 十 上中下_ホ 1 三十忍_ニノ_ル 一切(行藏 一切佛藏 不可思議) <舊仁 卷4: 11: 24-25>
善男子야 그 이르신 바의 十四般若波羅蜜인 三忍이니 地地에 上中下씩 한 三十忍이니 하는 一切(行藏 一切佛藏 不可思議)

(36ㄱ)을 보면, ‘妓樂’의 구체적인 예가 ‘鐘’, ‘鼓’, ‘琴’, ‘瑟’임을 알 수 있다. 즉, 상의어(hypernym)에 해당하는 ‘妓樂’과 하의어(hyponym)에 해당하는 ‘鐘’, ‘鼓’, ‘琴’, ‘瑟’이 연결될 때는 ‘-리’를 사용하고, 하의어가 나열된 뒤에 이를 아우르는 동사 ‘하-’와 형식명사 ‘이’

사이에는 동명사어미 ‘-尸’를 사용하는 것이다. (36ㄴ)의 경우에도, 상의어는 ‘十四 般若波羅蜜’, 하의어는 ‘三忍’, ‘三十忍’가 될 텐데, 상의어와 하의어를 이어줄 때는 동명사어미 ‘-1’이, 그 뒤에 아우름 동사 ‘ㅎ-’ 뒤에는 동명사어미 ‘-尸’이 사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에 비추어 본다면, (35)에서 “-ㄱ 1과 ‘-ㄱ尸’이 구별되어 사용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즉, “一切 怖畏ㄱ 1 一切 惡獸ㄱ尸 虎狼師子- 一切 惡鬼- 人非人 等ㄱ 1 怨賊- 災橫- 諸- 有ㄱ 1 惱害-ノ尸乙”라는 문장에서, ‘一切 怖畏’에 해당하는 것은 ‘虎狼師子, 一切 惡鬼, 人非人, 怨賊, 災橫, 惱害’가 된다. 즉, ‘一切 怖畏’는 상의어에 해당하고, ‘虎狼師子, 惡鬼, 人非人, 怨賊, 災橫, 惱害’은 하의어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이어줄 때는 ‘-ㄱ 1’이 사용된다.

그런데 ‘一切 怖畏’와 달리, ‘一切 惡獸’나 ‘一切 毒害’는 바로 뒤에 오는 ‘虎狼師子’만을 수식한다. (34)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虎狼師子’가 (35)에서부터 나타난다는 점과 ‘惡鬼, 人非人, 怨賊, 災橫, 惱害’ 등이 ‘怖畏’일 수는 있으나 ‘惡獸’나 ‘毒害’가 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통해서도 이를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ㄱ 1’이 아니라 ‘-ㄱ尸’이 사용되었던 듯하다.

이와 같이 파악해 본다면, 《유가사지론》의 아래 문장에 나타난 ‘大師尸’에 또한 달리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37) 二 他師教ㄱ 1 謂 1 所 1 大師尸 鄔波陀耶- 阿遮利耶-ノ尸ヲ {於}時時間ヲ + 教授 教誡ノ尸入乙 依ヲ 攝受 依止ノ尸入乙 <瑜伽 卷20: 25: 08-10>

둘째는 다른 스승의 가르침인 이른바 대사 오파타야니 아사리아니 하는 이가 때때로 교수 교계하는 것을 의지하여, (그로써) 섭수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37)에서는 ‘大師’ 뒤에 ‘尸’이 왔는데, 이때의 ‘尸’이 어떤 용법으로 사용되었는지는 알기 어렵다. 그런데 여기에서 ‘尸’ 앞에 ‘ㄱ’가 생략된 것으로 본다면, 즉, ‘大師(ㄱ)尸’ 정도로 파악한다면, ‘他師教ㄱ 1 [大師ㄱ尸 鄔波陀耶- 阿遮利耶-]ノ尸ヲ’와 같은 구성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는 (35)에서 살펴본 문장의 구성과도 통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문제는, 동명사어미 ‘-1’과 ‘-尸’의 어떤 특성이 위와 같은 용법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술할 수밖에 없으나, 추후에 동명사어미 ‘-1’과 ‘-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김지오(2012: 239)에서는 ‘-은여’와 ‘-을여’가 가지는 차이는 동명사어미 ‘-1’과 ‘-尸’의 의미적 차이에서 조망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하였다. 동명사어미 ‘-1’과 ‘-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동명사어미를 포함하고 있는 문법 형태들의 세부적인 의미 차이가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더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성규(1994), 중세 국어의 성조 변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유범(1996), ‘尸’의 이중적 음가 문제에 대한 해명을 위하여, 《한국어학》 4, 한국어학회, 207-219.
 김지오(2012), 석독구결에 나타난 ‘-은여/을여’에 대하여, 《동악어문학》 58, 동악어문학회,

217-242

- 김지오(2019), 고대국어 연결어미 연구의 현황과 과제, 《구결연구》 43, 구결학회, 55-87.
- 남풍현(1996ㄱ),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ㄴ/ㄹ’에 대한 고찰, 《구결연구》 1, 구결학회, 11-44.
- 남풍현(1996ㄴ), 《금광명경》 권삼 석독구결에 나타난 ㄴ의 용법에 대하여, 《이기문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신구문화사, 228-251.
- 남풍현(1996ㄷ),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ㄴ/ㄹ’에 대한 고찰, 《국어학》 28, 국어학회, 1-48.
- 문현수(2020), 석독구결에 쓰인 구결자의 특성, 《국어사연구》 30, 국어사학회, 71-98.
- 박진호(2015), 보조사의 역사적 연구, 《국어학》 73, 국어학회, 375-435.
- 이건식(1996),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조사에 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병기(2019), 고대국어 동명사 어미의 문법적 특징과 과제: 석독구결 자료를 중심으로, 《구결연구》 43, 구결학회, 89-125.
- 이승재(1998), 고대 국어 형태,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고대국어》, 국립국어연구원.
- 이승재(2000), 차자표기 자료의 격조사 연구, 『국어국문학』 127, 국어국문학회, 107-132.
- 이장희(1995), 화엄경 구결자 ‘ㄴ’의 기능과 독음, 《어문학》 56, 한국어문학회, 119-140.
- 장윤희(1998), 석독구결 자료의 감탄법 종결어미, 《구결연구》 4, 구결학회, 57-84.
- 장윤희(1997/2002), 중세국어 종결어미 연구(국어학총서 41), 태학사.
- 장윤희(2011), 석독구결의 속격 ‘-ㄴ’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구결연구》 27, 구결학회, 117-144.
- 장윤희(2018), 활용과 곡용에서의 언어 화석 문제, 《송철의선생퇴임기념 국어학논총》, 태학사, 699-722.
- 정재영(1995), ‘ハ’형 부사와 ‘ㄷ’형 부사, 《국어사와 차자표기》, 태학사, 285-316.
- 정재영(1996), 의존명사 ‘ㄷ’의 문법화(국어학총서 23), 태학사.
- 최성규(2021), 의존명사 ‘스’ 다시 보기, 《구결연구》 46, 구결학회, 139-164.
- 하귀녀(2005), 국어 보조사의 역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허인영(2017ㄱ), 고려시대 한국어의 정보구조에 관한 일고찰: 『유가사지론』 권20의 자토석독 구결을 대상으로, 『어문논총』 30,
- 허인영(2017ㄴ), 『慈悲道場懺法』講讀 資料集, 구결학회 월례강독회.
- 황선엽(2000), 석독구결의 ‘ㄴ’의 해독에 대하여, 《한국문학논총》 26, 한국문학회, 255-280.

<초청 발표>

근세 류큐(琉球)의 한문훈독

나카노 나오키(中野直樹)

(도코하(常葉)대학 단기대학부(일본·시즈오카(静岡)))

u196537e@tokoha-jc.ac.jp

1. 머리말

동아시아에서 한자·한문 문화가 어디까지 퍼졌고, 그것에 수반되는 한문훈독 현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는 아시아의 언어문화사적 관점에서 흥미로운 문제이다. 근년에는 활발하게 한문훈독 현상에 대한 검토가 각국에서 거듭되고 있어, 앞으로도 긴밀하게 연계를 취하여 고찰을 쌓아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주지하는 대로 한문을 어떻게 독해하는지는 각국마다 서로 다르고 독해에 쓰이는 기호나 독해의 방법(음독·훈독·번역)도 여러 가지이다. 현재 한문훈독 현상에 대하여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로서는 베트남·류큐·위구르·일본·한국이 있다(가나다순).

본 발표에서 다루는 근세 류큐에서의 한문훈독은 이제까지 일본의 한문훈독 안에서 다루어져 왔으나, 류큐에 독자성이 있는 훈법(訓法: 훈독방식-번역자)이 존재했다는 것이 근년에 밝혀지고 있다. 이번에는 근세 류큐에서 한문이 어떻게 훈독되었는지, 또한 류큐의 한문 학습의 존재방식이 한문훈독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하는 점에 대하여, 일본에서의 최신 연구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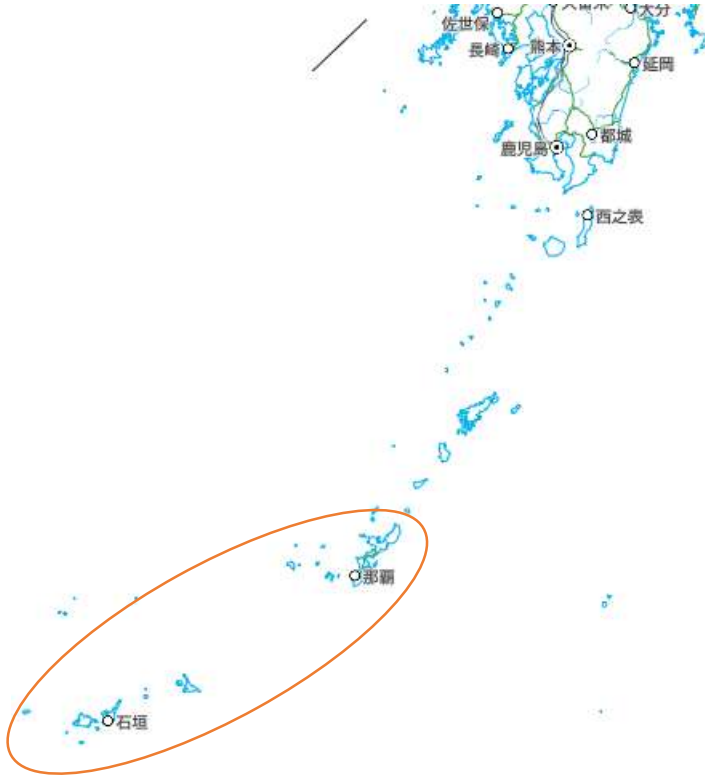
2. 근세 류큐에 대하여

류큐는 메이지(明治) 정부에 의하여 일본에 편입되어 류큐번(琉球藩)이 된 뒤, 류큐 처분(1879년)을 받아 소멸하였다.^① 현재 일본의 오키나와현(沖縄縣)이 되어 있으나, 오랫동안 이 땅은 류큐라는 다른 나라로 존재하였다. 류큐는 일본과 명·청의 양쪽과 외교·무역상 관계를 지니고, 독자적인 문화를 보전하면서도 양국의 문화를 받아들였다. 류큐는 중계무역으로 번영하였는데, 정치적으로 오묘한 밸런스 위에 성립한 나라였다.

류큐의 세력 범위는 1500년대에 아마미(奄美)(현 가고시마현(鹿兒島縣)) 아마미제도(奄美諸島)·사키시마(先島)(현 오키나와현 야에야마제도(八重山諸島))를 제압한 것에 의하여 최대가 되었으나, 1609년에 사쓰마번(薩摩藩)의 침략을 받아 아마미를 빼앗긴 것에 더해 사쓰마번의 관리가 감시 및 통제를 위해 류큐에 주재(駐在)하는 것을 용인하게 되는 등 사쓰마번 측으로부터 일방적인 요구를 수없이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류큐의 역사에 대해서는 宮城(1968)·外間(1986)·渡辺(2012) 등을 참조).

‘근세 류큐’란 일본의 체제에 편입된 이후의 류큐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 발표에서도 거기에 따라 1609년 사쓰마 침략 이후의 류큐를 근세 류큐로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류큐의 위치에 대하여 확인해 두자(【그림 1】).

【그림 1】 근세 류큐의 세력 범위(붉은 원)¹⁾



3. 류큐의 훈점자료

류큐에 잔존하는 훈점자료는 현존하는 것이 적는데 여기에는 오키나와 전쟁에 의한 피해가 크다고 생각되고 있다(水上 2017 참조). 그러나 당시의 소유자와 그 유족이 대단한 수고를 거듭하여 현대까지 전해진 자료군 가운데 훈점자료가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자료를 검토하는 것으로 근세 류큐의 한문훈독의 실태를 고찰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본 발표에서 사용하는 자료를 개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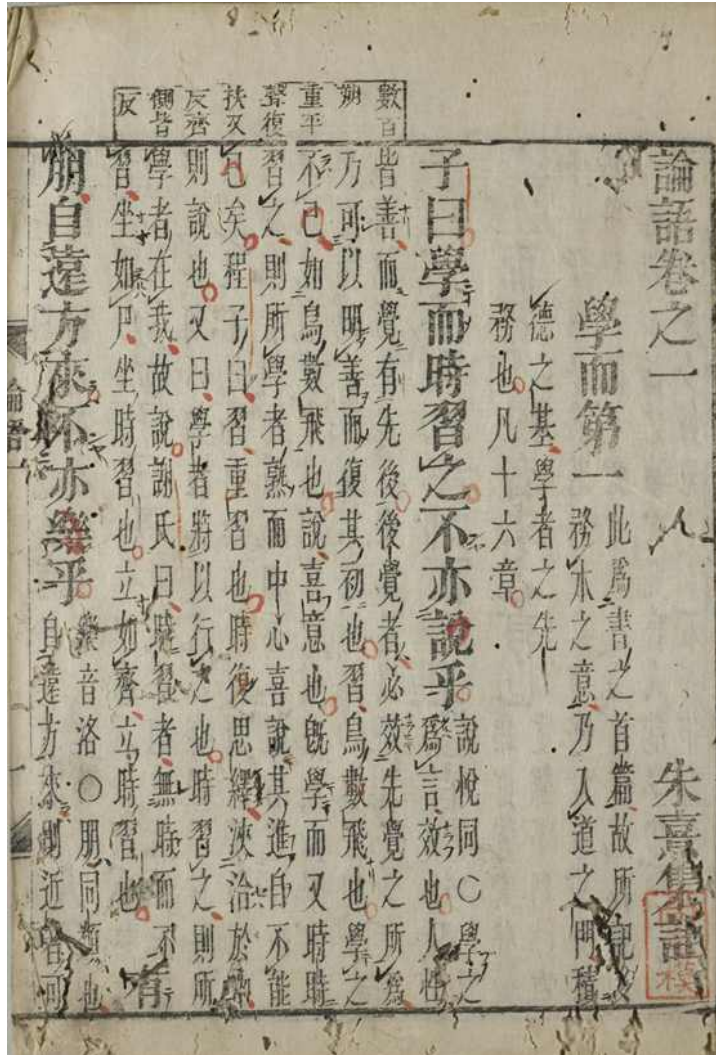
3.1. 류큐대학 부속도서관 소장 『논어집주(論語集註)』

류큐대학 부속도서관 소장 『論語集註』(이하, ‘疏大本’)의 훈점에는 구두점(句讀點)·파음점(破音點)·인명 슈비키(朱引)·국명 朱引·가에리텐(返點)·가나텐(假名點)·음훈합부(音訓合符)가 있다(【그림 2】).²⁾ 훈점이 가점된 곳의 분포에는 편향이 있는데, 이 책에는 일부러 훈점을 지운 곳이 있는 외에 훈점의 교정 등도 이루어져 있어, 이 편향이 대충 학습한 결과라든가 도중에 가점을 그만두었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 책의 표지 뒤에는 학습의 흔적이 있어 학습용 텍스트였을 가능성도 있다.

1) 일본 국토지리원 홈페이지.

2) 이 책의 영인은 현재 ‘류큐대학 부속도서관·류큐 오키나와 관계 중요자료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열람 가능하게 되어 있다(<https://shimuchi.lib.u-ryukyu.ac.jp/collection/other/>).

【그림 2】 류큐대학 부속도서관 소장 『論語集註』 「學而」 冒頭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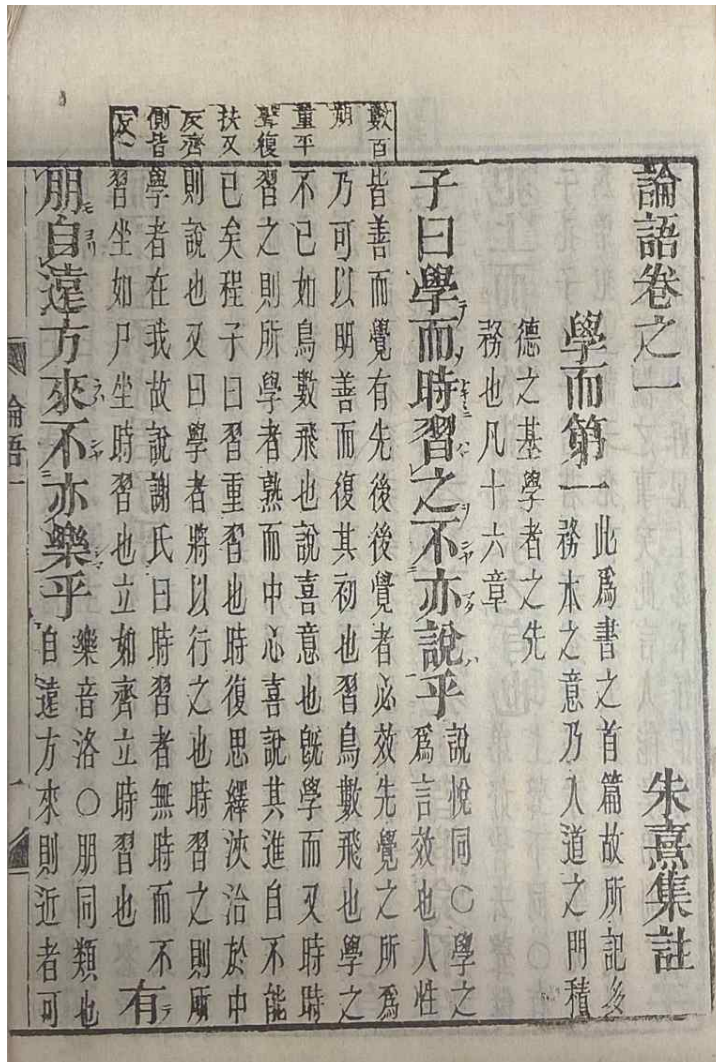
이 책에는 지어(識語) 등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가점자의 이름을 알기는 어렵다. 眞境名(1917, 1923, 1931)는 고쿠가쿠(國學, 류큐에서의 최고학부)에서는 四書五經이 학습되었고, 四書에 훈점을 가점하는 시험도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이 책의 원래 소장자였던 이제나(伊是名) 가문은 사족(士族) 계급이고, 이제나 가문의 자체도 아마도 고쿠가쿠에서 한적의 학습을 했다고 생각하면 ‘琉大本’의 훈점은 이제나 가문의 누군가에 의한 가점이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

3.2. 도요(東洋)문고 내 이와사키(岩崎)문고 소장 『사서집주(四書集註)』

이 책은 榮野川·高津(1996)에서 ‘琉大本’과 동판(同版)인 자료로 소개되었다(이하, ‘東洋文庫本’). 훈점의 가점은 上冊의 전반부에 국한되어 있고, 返點·假名點·音訓合符의 가점이 있다(【그림 3】). 또한 下冊 표지 뒷면(見返し)에는 “寅二月朔日御讀取”이라고 적혀 있다(【그림 4】). 이 책의 장서인 중에 쇼 인(尙寅, 류큐왕 쇼 타이(尙泰)의 둘째 아들)의 “宜野灣御殿”가 있는 것이 주목된다.

【그림 3】 동양문고 내 이와사키문고 소장 『論語集註』 「學而」 冒頭 부분



【그림 4】 下冊 표지 뒤의 기입 부분

이 책의 훈점의 가점자는 지어 등이 없어 명확히 할 수 없다. 그러나 “宜野灣御殿”이라는 장서인이 찍혀 있는 점, 下冊 표지 뒤에 “寅二月朔日御讀取”라는 기입이 있는 점을 보면 쇼인이 가점한 자료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어쨌든 사족 계급 이상의 인물의 손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좋다.

3.3. 호세이(法政)대학 오키나와문화연구소 소장 『사서체주(四書體註)』

자탄초(北谷町) 교육위원회 소장 『四書體註』

류큐에는 청대에 만들어진 과거 참고서인 『四書體註』가 유통되었는데, 현존하는 『四書體註』 중에 훈점이 붙어 있는 것이 있다. 발표자가 이제까지 확인한 『四書體註』 가운데 假名點이 가점된 것은 호세이대학 오키나와문화연구소 소장본(2점)과 자탄초 교육위원회 사회교육과 소장

본(1점)이다(이하, 호세이대학 오키나와문화연구소 소장 소남가(楚南家) 문서 副本 번호 128인 책을 ‘楚南甲本’, 139인 책을 ‘楚南乙本’, 자탄초 교육위원회 사회교육과 소장본을 ‘北谷本’이라고 한다). 지면 사정상, 위 세 점의 자료를 이하에서 묶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세 점의 자료 모두 훈점에는 구두점·返點·假名點·音訓合符가 보인다. ‘楚南甲本’은 구메무라(久米村)의 사족인 기 쇼세이(魏掌政)에 의한 가점으로 여겨지며, 가점 시기는 道光 23년(1843) 무렵으로 보인다(水上 2015). ‘楚南乙本’은 刊年·가점자·가점시기 모두 불명이다. ‘北谷本’은 오키나와현 자탄초에서 점쟁이를 하던 긴라 소호(金良宗邦, 1898-1987)의 舊藏으로, 가점자·가점시기는 불명이지만 여백에 소호 씨의 것으로 보이는 기입이 있으므로 훈점도 그가 기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北谷本’은 道光 11년(1831) 간본이므로 가점시기는 그 이후이다.

【그림 5】 소남가(楚南家) 舊藏『四書體註』(楚南甲本) 「學而」 冒頭 부분



4. 류큐에서의 한문훈독에 관한 연구

여기에서는 류큐에서의 한문훈독에 관한 연구를 소개하고, 대략 어떠한 것이 밝혀졌는지 확인해 둔다.

류큐의 한문훈독에 대해서는 西村(1909), 真境名(1931), 真栄田(1973), 浅野(1991), 高津(1993, 2000, 2004, 2010, 2014, 2016, 2021), 榮野川·高津(1996), 上里(1998, 2006, 2007a, b), 中村(2010, 2012, 2014a, b, 2017, 2020), 水上(2013, 2014, 2015), 石崎(2015)가 언급하였다.

근세 류큐에서는 『오시마히키(大島筆記)』 등의 기술에 의해 일본 승려인 분시 겐쇼(文之玄昌)가^③ 완성시킨 훈법인 분시텐(文之點)으로 한적이 훈독되었다고 선행연구에서는 생각되어 왔다. 분시의 제자가^④ 류큐에 가서 그것을 전했다는 사실도 있어, 이 견해가 지지받아 왔다(즉, 류큐의 훈독은 일본의 훈독을 추종했다는 것).

文之點으로 간행된 『四書集註』는 오키나와현의 야에야마박물관·구메지마(久米島)박물관 등에 몇 부가 현존하고 있어(高津 1993, 2000; 榮野川·高津 1996; 高津·榮野川 2005), 류큐에 文之點에 의한 點本이 유통되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된다.

앞에서 서술한 대로, 거의 모든 선행연구는 근세 류큐에서 文之點이 쓰였다고 지적하였으나, 이 가운데 미즈카미(水上) 씨는 실제로 류큐의 훈점자료(야에야마박물관 소장 『四書體註』·『대학장구(大學章句)』) 및 호세이대학 오키나와문화연구소 소장 『四書體註』·『역경대전회해(易經大全會解)』 등을 조사한 다음, 훈법이 文之點과는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이 미즈카미 씨의 지적은 현존하는 典籍에서 귀납한 결론이어서 특히 중요하다.

선행연구가 류큐에서는 文之點이 통행되었다고 한 근거는 주로 『大島筆記』·『간가쿠기젠(漢學紀源)』·『산고쿠메이쇼즈에(三國名勝圖繪)』의 기술이다. 다음에 그것들의 해당 부분을 제시한다(밑줄은 발표자에 의함. 한자의 자형은 통행되는 것으로 하였다. [] 안은 협주. 이하 인용문도 같다).

○도베 요시히로(戸部良熙) 『大島筆記』(寶曆 12년(1762) 경, 권3 ‘雜話’ 上)

桑村ノ學官ハ本唐ノ通りニ直讀ニ教ル也夫ヲ講官ヨリ國讀ヘ通スル様ニモ教ル也點本ハ薩摩ノ僧文之ガ點ヲ用ユ傍ヨリ琉球朱子學ナリヤト問ヘルニ甚怪メタル様子也

(구메무라의 學官은 본래 중국에서 하는 대로 直讀으로 가르쳤다. 그것을 講官에 의해 國讀 [일본어 어순으로 훈독하는 것]으로 통하게도 가르치게 되었다. 點本은 사쓰마의 승려 文之의 점을 사용한다. 주위 사람[일본 본토 사람]이 류큐(의 학문)은 주자학이냐고 물었는데, (류큐인은 질문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 모습이었다.)

○이지치 스에야스(伊地知季安) 『漢學紀源』(文化 9년(1812)~天保 12년(1841) 경, 권4 ‘如竹翁傳’)

又寛永九年年六十矣、聞明人秀才来于中山、浮海適琉球国、乃師秀才講究四書・詩書、理學精熟、國王師事之、先是夷俗未知禮義、及如竹至、教以人倫、時西土人梁沢民流寓中山、甚敬如竹、

(또한 寛永 9년(1632), (泊如竹 翁이) 60세 때에, 명나라의 秀才[科擧 수험생]가 中山[류큐]에 왔다고 듣고, (그는) 바다를 표류하여 류큐국에 닿았다. (如竹는) 그 秀才를 스승으로 삼아 四書・詩書를 講究하고 학문을 닦는 것을 열심히 하여, 국왕도 그에게 사사하였다. (如竹가 류큐에 가기) 이전에는 夷俗[류큐인]이 예의를 알지 못하였는데, 조치쿠가 오고 나서 인

문으로써 교화하였다. 그때, 중국인 梁澤民이 中山에 와 있었는데, (그는) 조치쿠를 심히 존경하였다.)

○고다이 히데타카(五代秀堯)·하시구치 가네헤이(橋口兼柄) 등 『三國名勝圖繪』(天保 14년(1843), 권50 ‘如竹翁傳’)

先是琉球經書を読む、皆漢音を用て、和読を知らず、翁授くるに文之点の四書を以てす、是より琉球始めて和読を知り、今に至て國中十分の八は文之点の四書を用ゆといふ、(중략) [大坂に於て琉球人、文之点の四書を買ひ帰ること、数十百部に至る、当時文之点の板行四書小き故、買ひ尽せしかば、新に板に搦らしめて買ひしなり、是琉球は、文之点を貴ぶ故なりとぞ。翁の文之点を琉球に弘めし証を見るべし、]

(이전에는 류큐에서 경서를 읽을 때에 모두 漢音을 사용하고[音讀하고] 和讀[訓讀]을 몰랐는데, 翁[조치쿠]이 文之點으로 된 四書を 가지고 (류큐인을) 가르쳐 이로부터 비로소 류큐인이 和讀을 알게 되었고, 지금에 이르러 나라 안에서 10분의 8은 文之點으로 된 四書を 쓴다고 한다. (중략) [오사카(大坂)에서 류큐인이 구입해서 돌아간 文之點으로 된 四書가 수십·수백 부에 달한다. 당시에는 文之點으로 인쇄된 四書가 적었기 때문에 (류큐인이) 모조리 샀으므로 새롭게 인쇄하여서 팔 정도였다. 이는 류큐인이 文之點을 공경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로써 翁이 文之點을 류큐에 퍼뜨린 증거를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文之點에 대해 각 자료에 언급이 있고, 이것들에 의하면 확실히 선행연구에서 말하는 대로 근세 류큐에서는 文之點이 통행되었다고 생각된다. 이것이 정말로 옳은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하에서는 류큐의 훈점자료에 보이는 훈법을 검토한다.

5. 근세기 일본의 훈법과의 비교

먼저 류큐의 훈점자료의 본문을 일부 예시하여 둔다(合字는 나누고, 返點·假名點·구두점 이외의 훈점은 생략하였다. ()는 補讀, []는 左訓, < >는 복수 右訓임을 나타낸다. 또한, 본문에 숫자를 달아 분할하였다((1) 등으로 나타냄). 협주는 생략한다).

『琉大本』

- | |
|--|
| <p>(1) 子曰。學^テ、而^{シテ}時習^レ之。不^{シヤ}亦^ニ說^ハ乎^ニ。</p> <p>(2) 有^テ朋、自^ニ遠方^ニ來^{ラハ}。不^{シヤ}亦^ニ樂^ハ乎^ニ。</p> <p>(3) 人^ニ不^{トモ}知^ラ、而^{シテ}不^{シヤ}愠^ハ。不^{シヤ}亦^ニ君子^乎。</p> <p>(4) 有子曰。其^ノ爲^タルヤ^レ人也孝弟^{ナレハ}而^{シテ}好^レ犯^シ上^者^(ト)者^ハ鮮^シ矣。不^ニシテ^(ス)好^レ犯^{コトヲ}^(スヲ)上、而^(ルヲ)好^レ作^ナ亂^{スコトヲ}、者未之有也。</p> |
|--|

‘東洋文庫本’

- (1) 子曰學^テ、而^{シテ}時^{トキイ}ニ習^ハレ、之^{マタ}ヲ不^ンヤ^ニ亦說^ハ一乎
- (2) 有^テレ朋自^{トモヨ}リ、遠方來^ラハ不^ンヤ^ニ亦樂^{シマ}一乎
- (3) 人^ニ不^{レト}モ^レ知^ラレ而^モ不^ルハ^レ慍^{イカ}ラ不^ンヤ^ニ亦君子ナラ一乎
- (4) 有子カ曰其^タ爲^ルヤ^レ人^ト也孝弟ナラハ^{スナハ}而^チ好^ムレ犯^ンコトヲ^レ上^ヲ者^モハ^スクナ^シ鮮^ス矣不好^レ犯^スコトヲ^レ上^ヲ而^レ好^ムレ作^ル亂者^モ未^タニ^レ有^一也

‘楚南甲本’(■는 蟲損. 이하 같음)

- (1) 子曰。學而時習^{ハレ}之^ヲ。不亦說^{クハシカラ}乎。
- (2) ■^レ朋自遠方來^{ラハ}。不亦樂^{シカラ}乎。
- (3) ■■■而^モ不^{ルハ}慍^一。不亦君子乎^一。
- (4) 有子曰。其^{レクノ}為^{タルヤ}人也孝悌^{ナレハ}。而^チ好犯上者^{ノハ}鮮矣。不^ス_(サルニ)好^レ犯^スコトヲ^レ上而^{ルヲ}_(モ)好作乱者^{ノハ}未之有也。

‘楚南乙本’

- (1) 子ノ曰。学而時々^ヨ習ハレ之ヲ。不^シカ^ニ〔シヤ〕ニ亦説^{コハセ}カラ^ル乎。
- (2) 有^テレ朋自^ヨリ^ニ遠方^ニ来^ラハ。不^シヤ^ニ亦タ楽マ^ル乎。
- (3) 人ノ不^レトモ^レ知^ラ而^{シテ}不^シハ^レ愠。不^レ亦君子ナ^ラ乎。
- (4) 有^リ子カ曰。其^レ〔ノ〕為^{タル}ヤ^レ人也孝悌^ナラハ。而^{シテ}好^レ犯^レ上者^ノハ鮮^シ矣。不^ルニシテ〔ス〕^レ好^レ犯^スコト^ヲレ上^ヲ而^{シテ}好^レ作^ナスコト^ヲレ乱者^ノハ未^レ之有也。

‘北谷本’

- (1) 子曰学^テ而シ^テ時^ハ、一^ニ習^ハレ之。不^シカ^ニ亦説^ス一^ニ乎。
- (2) 有^テ朋自^ニ遠方^ニ来^ラハ。不^シカ^ニ亦樂^ス一^ニ乎。
- (3) 人^ノ不^レモ^レ知^ラ而不^ルハ^レ愠。不^シカ^ニ亦君子^ニ一^ニ乎。
- (4) 有子曰。其^レ為^{タル}人^也也孝悌。而^ハ好^レ犯^レ上^者者^ノ鮮^シ矣。不^シテ^レ好^レ犯^スコトヲ^レ上^ヲ而シ^テ好^レ作^スコトヲ^レ乱^者者未^ニ之^ニ有^一也。

본문의 훈점을 보면, 류큐 각 자료의 훈점은 小異가 있지만 읽기로서는 거의 같으며, 어느 정도 고정된 훈법의 존재를 엿보게 한다(훈점이 왜 완전히 같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본고 6장에서 고찰한다). 다음으로, 오른쪽에 나타낸 각 本의 훈법이 근세기에 일본에서 통행된 훈법과 합치하는지 비교를 행하였다. 비교 대상으로 삼은 일본의 훈법(모두 23종)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비교 자료는 齋藤 2011; 石川 2015를 참고로 하였다. 또한 이번 에 사용한 구체적인 자료명은 본고 마지막에 일괄하여 제시하였다).

비교 대상 훈법

분시텐(文之點), 도춘텐(道春點)(ABCD³⁾), 세키사이텐(石齋點), 가텐(嘉點), 진사이텐(仁齋點), 데키사이텐(惕齋點), 순다이텐(春台點), 고토텐(後藤點), 에이지쓰도텐(永日堂點), 산시텐(山子點), 쓰카다텐(冢田點), 잇사이텐(一齋點), 메이린도텐(明倫堂點), 슈요텐(秋陽點), 고마쓰반쇼사이텐(小松版所載點)(初刻本·再刻本⁴⁾), 스즈키텐(鈴木點), 히오텐(日尾點), 시쇼리겐쇼쇼사이텐(四書俚言鈔所載點)

(‘琉大本’ (2))	有 ^テ レ朋、自 ^ヨ 遠方來 ^{ラハ} 。不 ^{シヤ} 亦樂 ^マ 乎。
(‘東洋文庫本’ (2))	有 ^テ レ朋自 ^{トモヨ} リ遠方來 ^{ラハ} 不 ^{シヤ} 亦樂 ^{シマ} 乎。
(‘楚南甲本’ (2))	有 ^レ 朋、自遠方來 ^{ラハ} 。不亦樂 ^{シカラ} 乎。
(‘楚南乙本’ (2))	有 ^テ レ朋自 ^ヨ リ遠方來 ^{ラハ} 。不 ^{シヤ} 亦樂 ^マ 乎。
(‘北谷本’ (2))	有 ^テ レ朋自遠方來 ^{ラハ} 。不 ^{シカ} 亦樂 ^マ 乎。
(文之點)	有 ^リ 朋自 ^モ リ遠方來 ^{ルコト} 不 ^ヤ 亦樂 ^{シマ} 乎。
(道春點A)	有 ^リ 下朋自 ^{トモ} リ遠方來 ^{レルコト} 上、不 ^{タノ} 亦樂 ^{シカラ} 乎。
(道春點B)	有 ^リ 下朋自 ^リ 遠方來 ^{ルコト} 上。不 ^シ 亦樂 ^{シカラ} 乎。
(石齋點)	有 ^下 朋自 ^リ 遠方來 ^{レルコト} 上不 ^ヤ 亦樂 ^{カラ} 乎。
(嘉點)	有 ^リ 下朋自遠方來 ^{ルコト} 上、不 ^シ 亦樂 ^{シカラ} 乎。
(仁齋點)	有 ^リ 朋自遠方來 ^ル 不 ^シ 亦樂 ^{カラ} 乎。
(惕齋點)	有 ^リ レ朋自 ^{トモ} リ遠方來 ^ル 。不 ^{シヤ} 亦樂 ^{カラ} 乎。
(春台點)	有 ^リ 朋自遠方來 ^ル 。不 ^シ 亦樂 ^マ 乎。
(後藤點)	有 ^リ 下朋自 ^{トモ} リ遠方來 ^ル 上。不 ^{タノ} 亦樂 ^{シカラ} 乎。
(永日堂點)	有 ^下 朋自遠方來 ^上 。不 ^シ 亦樂 ^{カラ} 乎。
(道春點C)	有 ^下 朋自 ^リ 遠方來 ^{ルコト} 上。不 ^シ 亦樂 ^{カラ} 乎。
(山子點)	有 ^レ 朋自遠方來 ^ル 。不 ^シ 亦樂 ^{シカラ} 乎。
(冢田點)	有 ^レ 朋自遠方來 ^ル 。不 ^シ 亦樂 ^{カラ} 乎。
(一齋點)	有 ^レ 朋自遠方來 ^ル 。不 ^シ 亦樂 ^マ 乎。
(明倫堂點)	有 ^リ 下朋自 ^リ 遠方來 ^{ルコト} 上。不 ^シ 亦樂 ^{シカラ} 乎。
(秋陽點)	有 ^レ 朋自遠方來不 ^シ 亦樂 ^マ 乎。
(小松版初刻本所載點)	有 ^リ 下朋自 ^リ 遠方來 ^{ルコト} 上。不 ^シ 亦樂 ^マ 乎。
(小松版再刻本所載點)	有 ^レ 朋自遠方來 ^ル 。不 ^シ 亦樂 ^マ 乎。
(道春點D)	有 ^リ 下朋自 ^モ リ遠方來 ^{ルコト} 上。不 ^ス 亦樂 ^{カラ} 乎。

3) 齋藤(1987, 1993a, 2006, 2011)에 의해 道春點에는 그 훈법의 특징으로부터 전기(AB)·후기(C)·복고(D)로 나뉜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본고는 거기에 따라 道春點을 나누었다.

4) 小松版은 初刻과 再刻의 훈점이 다르기 때문에 둘 다 이용하였다. 初刻本은 嘉點에 가깝고(近藤 1986), 再刻本은 一齋點에 가까운 훈점을 지닌다고 한다(近藤 1986; 齋藤 1993b, 1997).

- (鈴木點) 有_レ朋自_二遠方_一來。不_二亦樂_一乎。
- (日尾點) 有_リ^{トモ}下朋自_二遠方_一來_ル^{コト}上。不_ラ^ン亦_二樂_一^{シカラ}乎^ヤ
- (四書俚言鈔所載點) 有_リ^{トモ}下朋自_二遠方_一來_ル^{コト}上_二不_二亦樂_一^{シカラ}乎^ヤ。

예컨대, ‘來^{ラハ}’ 형태는 근세기 일본의 여러 훈법에는 보이지 않았으나 류큐의 훈법에만 이 독법이 보인다.

단, ‘疏大本’, ‘東洋文庫本’, ‘楚南甲本’, ‘楚南乙本’, ‘北谷本’은 훈점이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점에서, 직접적인 移點 작업이 있었다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그러나 각 本의 가점 상황에서 보면, 앞서 서술하였듯이 당시 류큐국 내에서 어느 정도 고정된 훈법이 공유되고 있었고, 그것이 ‘疏大本’, ‘東洋文庫本’을 비롯하여 ‘楚南甲本’ 등에 가점, 혹은 참조되었다고 생각된다. 水上(2015)에서는 소난가 舊藏 『四書體註』에는 다른 本과의 대교가 이루어져 본문의 誤脫이 정정되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한 작업이 있다면 別本으로부터 훈점의 참조가 이루어졌어도 이상하지 않다.

6. 류큐에서의 훈법의 실태

앞에서 류큐의 훈점자료에 보이는 훈법은 文之點에 충실하다고는 하기 어렵고, 그 밖의 일본 근세기의 훈법과도 맞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류큐에는 어느 정도 정해진 훈법이 존재했다는 것도 지적하였다. 水上(2015)는 현존하는 류큐 훈점자료의 가점 상황으로부터, 류큐에서 文之點에 의한 훈독이 이어지지 않았던 이유로 다음의 두 가지 가능성을 들고 있다.

- 류큐에서는 일본처럼 선행하는 권위 있는 點本의 훈점을 移點하는 것과 같은 학습 방법이 기본적으로 취해지지 않았다.
- 류큐에서 이루어진 과거에서 文之點은 표준 독법이 되지 않았다.

근세 류큐에서 권위 있는 點本을 移點하는 학습 형태가 취해지고 있었다면 文之點을 移點하게 되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현재까지 류큐에서 文之點이 移點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류큐에서 사용된 科擧 참고서(『四書體註』)의 훈점은 文之點과 맞지 않는 것이 있어, 科擧의 표준적 훈점이 文之點이 아니었을 가능성은 높다. 류큐에서는 科擧에 합격하는 것에 의해 입신출세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일본의 귀족처럼 移點을 반복하는 것과 학문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랐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류큐에는 완전히 일치하는 點本이 없고, 느슨한 일치에 머물렀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언제쯤까지 文之點이 류큐에서 권위를 지니고 있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18세기 중엽의 『大島筆記』 이전에 류큐에서 가점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현 상황에서는 『大島筆記』의 기술을 그대로 믿고 적어도 그때까지는 류큐에서 文之點이 통행되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⁵⁾

이번에 검토한 ‘疏大本’·‘東洋文庫本’·‘楚南甲本’·‘楚南乙本’·‘北谷本’ 사이에 훈점이 가까운

5) 『三國名勝圖繪』에서 天保 13년(1842)에 오사카에서 류큐인이 文之點으로 된 한적을 입수한 일이 지적되어 있으므로(高津 1993 참조), 文之點의 點本이 18세기 이후 완전히 사용되지 않게 된 것은 아닌 듯하다. 水上(2013, 2014)에서도 1762년 이후에 기입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는 文之點 『四書集註』의 존재가 지적되어 있다.

것으로부터, 이들 자료 간에 직접적인 移點 관계는 없더라도 류큐에서는 훈점의 참조 작업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내용을 앞에 서술하였다. 18세기 중엽부터 서서히 文之點이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고 하면, 본고에서 지적한 류큐의 독자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훈법의 유통은 빠르면 이 무렵부터 시작되어 훈점의 참조 작업도 시작되었다는 것이 된다.

또한, 이번에 고찰한 류큐의 훈법에는, 예컨대 文之點이나 楊齋點 등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곳도 있어서(아래 예의 밑줄 친 부분), 류큐에서 유통되었던 훈법이 완전히 오리지널인지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 다음에 예를 제시한다.

(‘琉大本’ (5)) 君子^{ツト}ハ^(モ)務^ムレ^本本^立テ而^{シテ}道^(ミ)生^ズ孝^{ト云ハ}弟^{ヲコナ}也者其^(モ)爲^フノ^レ仁^ノ之本^カ與
 (‘東洋文庫本’ (5)) 君子^{ツト}ハ^(モ)務^ムレ^本本^立テ而^{シテ}道^(ミ)生^ズ孝^{ト云ハ}弟^{ヲコナ}也者其^(モ)爲^フノ^レ仁^ノ之本^カ與

(文之點) 君子^(モ)ハ^本務^ムレ^本本^立テ而^{シテ}道^{生ル}。孝^{弟ナリト云ハ}弟^也者、其^爲爲^フノ^レ仁^ノ之本^カ與。

(‘琉大本’ (3)) 人^ニ不^トモ^レ知^ラ、而^{シテ}不^シハ^レ愠^ム。不^{シヤ}ニ亦君子乎。
 (‘東洋文庫本’ (3)) 人^ニ不^レト^モ知^ラレ而^モ不^ルハ^レ愠^ム不^{シヤ}ニ亦君子ナラ乎

(楊齋點) 人^ニ不^レト^モ知^ラ、而^モ不^レ愠^ム。不^{シヤ}ニ亦君子ナラ乎。

같은 문장에 훈점을 달면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비슷해지는 점도 있다고 여겨지나, 여기에 대해서는 返點 등도 포함하여 앞으로 더 조사하고자 한다.

7. 정리

본 발표에서 서술한 것은 다음과 같다.

- ① 근세 류큐에서는 文之點만이 유통되었던 것이 아니라, 일본의 훈법과는 다른 독자적인 훈법이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당시 류큐의 훈점자료에 보이는 훈법이 일본 근세기의 훈법과는 합치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 ② 18세기 중기 이후, 류큐에서 독자적인 훈법이 유통되고 훈점의 참조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琉大本’·‘東洋文庫本’·‘楚南甲本’·‘楚南乙本’·‘北谷本’의 훈점이 대단히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 ③ 류큐의 독자적인 훈법은 일본의 훈법을 개변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근세기 일본에서는 다양한 인물이 스스로의 주장과 함께 훈법을 발전시키고, 그 다양함이라는 점에서 중세(무로마치(室町) 시대) 이전의 훈독의 존재방식과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인다. 같은 시기 류큐에서는 한문훈독에서 사용되는 훈법이 당초의 文之點에서 다른 훈법으로 교체되고 있다. 거기에는 일본과는 다른 학습 시스템의 존재나 科擧의 영향이 있었던 것은 선행연구의 지적에 있었던 대로이다.

류큐에서 당초 권위를 지녔던 文之點이 왜 사용되지 않게 된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부분이 남아 있다. 그러나 근세 후반기에는 류큐에 독자적인 훈법이 존재했다고 생각되는 점은 근세기의 일본 및 류큐의 한문훈독을 고찰하는 데 있어, 또한 동아시아의 훈독 현상을 논하는 데 있어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한다.⁶⁾ 류큐도 한문훈독권에 더하는 것은 물론, 일본의 훈법을 계속 추종한 것이 아니라 류큐의 훈독에는 독자성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은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浅野誠(1991), 『沖縄県教育史』, 思文閣出版.

池宮正治(1976), 「那覇士族の教養」, 『琉球文学論』, 沖縄タイムス(본래 『琉球新報』(夕刊) 1971.1.25.-1971.28에 게재)

石川洋子(2015), 『近世における論語の訓読に関する研究』, 新典社.

石崎博志(2015), 「琉球における文体の変遷」, 『琉球語史研究』, 好文出版.

上里賢一(1998), 「琉球の漢学」, 『新しい漢字漢文教育』 26, 全国漢文教育学会.

_____(2006), 「琉球対儒学的受容」, 『台湾東亜文明研究学刊』 3 第一期.

_____(2007a), 「琉球への漢籍の伝播と受容」, 『東アジア漢字文化圏の中における琉球漢詩文の位置』(平成16年度~18年度科学研究費(基盤研究(C))成果報告書).

_____(2007b), 「琉球における儒学の受容」, 『東アジア漢字文化圏の中における琉球漢詩文の位置』(平成16年度~18年度科学研究費(基盤研究(C))成果報告書).

榮野川敦・高津孝(1996), 「琉球版『論語集註』について」, 『汲古』 30, 汲古書院.

国書刊行会編(1969), 「漢学紀源」, 『続々群書類従』 10, 続群書類従完成会.

近藤啓吾(1986), 「嘉点『論語集註』の研究」, 『山崎闇齋の研究』, 神道史学会.

齋藤文俊(1987), 「近世における『論語』訓読法の展開—条件表現による分類—」, 『訓点語と訓点資料』 77, 訓点語学会(『漢文訓読と近代日本語の形成』所収).

_____(1993a), 「近世における漢文の訓読と音読」, 『名古屋大学教養部紀要A(人文学・社会科学)』 37, 名古屋大学教養部(『漢文訓読と近代日本語の形成』所収).

_____(1993b), 「江戸・明治期の漢文訓読と一齋点」, 『近代語研究』 9, 武蔵野書院(『漢文訓読と近代日本語の形成』所収).

_____(1997), 「江戸・明治期における漢文訓読と敬語法」, 『日本語論究 5 敬語』, 和泉書院(『漢文訓読と近代日本語の形成』所収).

_____(2006), 「江戸・明治期における漢文訓読の展開—訓読から音読へ—」, 『近代語研究』 13, 武蔵野書院(『漢文訓読と近代日本語の形成』所収).

_____(2011), 『漢文訓読と近代日本語の形成』, 勉誠出版.

島村幸一編(2020), 『琉球船漂着者の「聞書」世界 『大島筆記』翻刻と研究』, 勉誠社.

神繁司(1995), 「戸川残花」(国立国会図書館所蔵本蔵書印—その236—), 『国立国会図書館月報』 408, 国立国会図書館.

高津孝(1993), 「石垣市立八重山博物館所蔵漢籍について」, 『鹿大史学』 41, 鹿児島大学文理学部史学地理学教室.

_____(2000), 「琉球漢籍の収集與現状」, 『鹿大史学』 47, 鹿児島大学文理学部史学地理学教室.

6) 예컨대, 일본 훈법의 변화가 류큐의 훈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혹은 그 역은 아닌지(사쓰마번 등 한정적인 지역과의 교류도 포함하여), 한국·베트남·류큐와 같은 과거제도를 채용한 나라가 어떻게四書を 읽었는지 하는 비교의 관점 등.

- _____(2004), 「近世琉球における漢籍受容」, 『奄美ニューズレター』, 鹿児島大学.
- _____(2010), 『博物学と書物の東アジア—薩摩・琉球と海域交流—』, 榕樹書林.
- _____(2014), 「琉球における書物受容と教養」, 島村幸一編, 『琉球: 交叉する歴史と文化』, 勉誠出版.
- _____(2016), 「琉球における漢籍受容と漢文の学習」, 福島金治編, 『生活と文化の歴史学 9 学芸と文芸』, 竹林舎.
- _____(2021), 「琉球の漢文」, 金文京編, 『漢字を使った文化はどう広がっていたのか 東アジアの漢字漢文文化圏』, 文学通信.
- 高津孝・榮野川敦(2005), 『増補琉球関係漢籍目録』(近世琉球における漢籍の収集・流通・出版についての総合的研究 研究成果報告書別冊), 斯文堂.
- 田名真之(1983), 「伊是名朝睦」, 『沖縄大百科事典』上, 沖縄タイムス社.
- _____(1996), 「平等学校と科試」, 高良倉吉・豊見山和行・真栄平房昭編, 『新しい琉球史像—安良城盛昭先生追悼論集—』(琉球弧叢書 3), 榕樹社.
- 中野直樹(2021), 「琉球における漢文訓読について—琉球大学附属図書館蔵『論語集註』訓点の検討—」, 第125回訓点語学会発表資料.
- 中村春作(2010), 「琉球における「漢文」読み—思想的読解の試み—」, 『続「訓読」論—東アジア漢文世界の形成—』, 勉誠出版.
- _____(2012), 「近世琉球と朱子学」, 市來津由彦・田尻祐一郎・前田勉・中村春作編, 『江戸儒学の中庸注釈』, 汲古書院.
- _____(2014a), 「琉球における五山、訓読文化」, 『東アジアのなかの五山文化』, 東京大学出版会.
- _____(2014b), 「琉球の漢文」, 『訓読から見なおす東アジア』, 東京大学出版会.
- _____(2017), 『思想史のなかの日本語』, 勉誠出版.
- _____(2020), 「近世琉球と儒教」, 『日本儒教会会報』4, 日本儒教会.
- 西村天四(1909), 『日本宋学史』, 朝日新聞社.
- 日本歴史学会編(1999), 『日本史研究者辞典』, 吉川弘文館.
- 比嘉春潮(1968), 「沖縄 特集・漢文 = この複雑なもの」, 『中国』53, 徳間書店(『比嘉華潮全集』(3)所収).
- _____(1971), 「沖縄の漢文」, 『比嘉春潮全集』3, 沖縄タイムス社.
- 外間守善(1986), 『沖縄の歴史と文化』, 中央公論新社(中公新書799).
- 真栄田義見(1973; 第二版), 『沖縄・世がわりの思想—人と学問の系譜—』, 第一教育図書.
- 真境名安興(1916), 「教育界の偉人程順則」, 伊波普猷・真境名安興著, 『琉球之五偉人』, 小沢書店(『真境名安興全集』(四)琉球新報社(1993)에 의함).
- _____(1917), 「沖縄に於ける孔子教の沿革」, 『琉球新報』(1917.6.12.-1917.6.21.)(『真境名安興全集』(三)琉球新報社(1993)에 의함).
- _____(1923), 『沖縄一千年史』, 日本大学(『真境名安興全集』(一)琉球新報社(1993)에 의함).
- _____(1931), 「沖縄教育史要」, 『沖縄県師範学校創立五十周年記念誌』, 沖縄県師範学校校友会(『真境名安興全集』(二)琉球新報社(1993)에 의함).
- 水上雅晴(2013), 「琉球士人漢籍学習挙隅—以漢籍中写入的訓点和注記為考察中心—」, 『復旦學報』6, 復旦學報編輯部.
- _____(2014), 「琉球地方士人漢籍学習の実態 : 書き入れに着目した考察」, 『琉球大学教育学

- 部研究紀要』84, 琉球大学教育学部.
- _____(2015), 「琉球中央士族の漢籍學習について : 楚南家本を中心とする初步的考察」, 『沖縄文化研究』41, 法政大学沖縄文化研究所.
- _____(2016a), 「再論琉球的「科」: 以現存琉球漢籍為線索」, 『厦門大学学报』236, 厦門大学学報(哲社版)編輯委員會.
- _____(2016b), 「琉球「科試」制度淺論」, 『教育与考試』2016-5, 福建省高等教育自学考试委員會.
- _____(2017), 「琉球「科試」の実施状況について」, 『沖縄文化研究』44, 法政大学沖縄文化研究所.
- 宮城栄昌(1968), 『沖縄の歴史』, 日本放送出版協会(NHKブックス80).
- 武藤長平(1917), 「琉球訪書志」, 『歴史地理』29-1・2・3, 日本歴史地理学会(武藤長平(1926), 『西南文運史』, 岡書院에 의함).
- _____(1926), 『西南文運史』, 岡書院.
- 山本盛秀編(1905), 『三國名勝圖會』, 山本盛秀.
- 渡辺美季(2012), 『近世琉球と中日関係』, 吉川弘文館.

[사용문헌] (류큐의 『論語集註』와 架藏本을 제외하고 모두 영인에 의함)

류큐자료

- 琉大本 『論語集註』刊年不明 (류큐대학 부속도서관)
- 東洋文庫本 『論語集註』刊年不明 (도요문고 내 이와사키문고)
- 楚南甲本 『四書體註』道光 17年刊 (호세이대학 오키나와문화연구소)
- 楚南乙本 『四書體註』刊年不明 (호세이대학 오키나와문화연구소)
- 北谷本 『四書體註』道光 11年刊 (자탄초 교육위원회 사회교육과)

일본자료

- 文之點 『大魁四書集註』寛永 2年刊
(가가와(香川)대학 도서관 간바라(神原)문고)
- 道春點A 『四書集註』寛文 4年刊 (도쿄도립도서관 세이엔(青淵)문고)
- 道春點B 『寛政改正四書集註』寛政 元年刊
(짓센(實踐)여자대학 도서관 야마기시(山岸)문고)
- 道春點C 『文化改正四書集註』文化 7年刊 (도쿄도립도서관 세이엔문고)
- 道春點D 『天保校正四書集註』文政 13年刊 (도쿄도립도서관 세이엔문고)
- 石齋點 『四書集註大全』慶安 4年刊 (국립공문서관 나이카쿠문고)
- 嘉點 『四書集註』明和 5年刊 (도쿄도립도서관 세이엔문고)
- 仁齋點 『論語古義』正徳 2年刊 (와세다(早稲田)대학 도서관)
- 惕齋點 『四書示蒙句解』元祿 14年刊 (국립공문서관 나이카쿠문고)
- 春台點 『論語古訓正文』寶曆 4年刊 (도쿄도립도서관 세이엔문고)
- 後藤點 『新刻改正四書集註』寛政 6年刊 (도쿄도립도서관 세이엔문고)
- 永日堂點 『監本四書』享和 3年刊 (오사카대학 문학부 가이토쿠도(懷徳堂)문고)
- 山子點 『論語正文』天明 元年刊 (도쿄도립도서관 세이엔문고)
- 冢田點 『冢註論語』天明 4年刊 (도쿄도립도서관 세이엔문고)

· 一齋點	『四書集註』 文政 8年刊 (와세다대학 도서관)
· 明倫堂點	『四書集註』 天保 15年刊 (국립공문서관 나िका쿠문고)
· 秋陽點	『汪份增訂四書集註大全』 嘉永 7年刊 (와세다대학 도서관)
· 小松版初刻本所載點	『四書集註』 寛文 11年刊 (쓰쿠바(筑波)대학 중앙도서관)
· 小松版再刻本所載點	『四書集註』 天保 8年刊 (架蔵)
· 鈴木點	『論語參解』 文政 3年刊 (와세다대학 도서관)
· 日尾點	『新刻改正四書集註』 慶應 3年刊 (국립공문서관 나िका쿠문고)
· 四書俚言鈔所載點	『正文大綱四書俚言鈔』 元祿 12年刊 (架蔵)

[付記]

자료 이용에 있어서 가가와대학 도서관·국문학연구자료관·국립공문서관 나िका쿠문고·짓센여자대학 도서관·자탄초 교육위원회 사회교육과·쓰쿠바대학 부속중앙도서관·도쿄도립도서관·도요문고·호세이대학 오키나와문화연구소·류큐대학 부속도서관·와세다대학 도서관으로부터 후의를 입었습니다.

또한 본 발표는 나카노(2021)에 가필한 것입니다. 연구 수행에 있어 JSPS 과학연구비 「류큐에서의 한문훈독에 관한 연구」(과제번호: 20K13058)의 조성을 받고 있습니다.

번역: 許仁寧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 ① 류큐 처분이란, 메이지 정부가 류큐에 대하여 청나라와의 조공관계 등을 단절시킨 통합 조치이다. 1872년 류큐를 번으로 강등하고 류큐왕을 류큐번왕으로 책봉한 것(제1차 류큐 처분)으로부터 1879년 오키나와 현 설치(제2차 류큐 처분)까지 이어진 일련의 시책을 말한다.
 - ② 1) 구두점: 내용상의 분절을 나타내는 구점(句點)과 두점(讀點).
2) 파음점: 한자의 派生義를 나타내기 위해 한자의 네 귀퉁이에 다는 작은 圈點.
3) 슈비키: 훈점에서 주로 고유명사에 朱書로 여러 선을 그어 나타내는 부호.
4) 가에리텐: 훈점에서 한문을 읽는 순서를 지시하기 위해 한자의 왼쪽 아래에 붙이는 부호. 석독구결의 역독점에 해당한다.
5) 가나텐: 훈점에서 한문의 구절에 가점하는 카타가나. 석독구결의 구결자에 해당한다.
6) 음훈합부: 훈점에서 2자 이상의 한자를 음으로 읽거나 훈으로 읽어야 함을 지시하는 부호. 음으로 읽을 것을 지시하는 부호는 음합부, 훈으로 읽을 것을 지시하는 부호는 훈합부이다.
 - ③ 분시 겐쇼(1555~1620)은 에도 초기 임제종 東福寺派의 승려. 휴가국(日向國, 현재의 미야자키현)에서 태어났다. 호는 난포(南浦). 6세 때 출가한 이후로 儒學도 공부하면서 詩文으로 이름을 날렸다. 이후에는 四書의 新註에 훈점을 달아 강의하였는데 이것이 후에 文之點으로 알려졌다. 휴가국뿐만 아니라 사쓰마국(薩摩國, 현 가고시마현 서부)·오스미국(大隅國, 현 가고시마현 동부)의 文教에 큰 영향을 끼쳤다.
 - ④ 분시의 제자는 닛쇼(日章, 1570~1655)를 가리킨다. 닛쇼는 에도 전기의 승려·유학자로 자(字)가 조치쿠(如竹)이다. 오스미 출신으로 교토(京都) 혼노지(本能寺)에서 불교를 배운 뒤, 분시의 문하에서 유학을 배웠다. 이후 환속하여 쓰번(津藩)과 사쓰마번(薩摩藩)에서 종사하였다.

일본어 음운연구와 기리시탄 문헌

야마다 쇼헤이(山田昇平)

나라 대학(奈良大学)

1. 음운사 연구의 방법

언어사 연구의 방법론 상의 난점은 인간의 언어가 음성언어인 점이다. 언어를 형성하는 음성은 대기 중의 진동으로 전달되고, 시간의 경과와 함께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녹음기술을 발명하기 이전의 언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야기하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어사 연구에서는 문헌상의 문자언어를 자료로 사용해왔다. 문자 언어는 엄밀히 음성을 반영하지는 않으나, 현 상황에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이다. 물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여러 언어에서 과거의 언어를 재구성하는 비교언어학의 방법도 있으나, 문헌을 이용한 언어사 연구가 중심이다. 환언하자면 언어사 연구의 진전은 그 언어로 쓰여진 문헌자료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헌자료에 대한 의존은 특히 음운사 연구분야에서는 두드러진 일로, 어휘 및 문법에 대해서는 문헌상 문자의 배열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밝힐 수 있다. 그러나 그 문자의 구체적인 음성과 음소의 대응관계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렵다. 각 언어의 음운사 연구는 이와 같은 난제를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극복해 왔다.

본발표에서는 이와 같은 음운사 연구상의 문제를 배경으로 삼아서, 일본어 음운사 연구 방법을 소개한다. 특히 특징적인 사례로 ‘기리시탄 문헌(キリシタン文獻, Japanese Early Christian materials)’이라고 불리는 문헌군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의 현상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논하기로 한다.

2. 일본어 음운사 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져 왔나?

음운사 연구의 주요한 과제로는 과거의 음소체계의 재건, 각 음소의 음가추정 및 통시적 변화의 기술 등이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여러 자료를 구사할 필요가 있다.

일본어 음운사 연구의 선구자의 한 명인 하시모토 신키치(橋本進吉 1966, 1927년 강의를)는 일본어 음운사 연구 자료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A. 현대 언어의 음성

1. 현대 구어의 음성 및 여러 방언과 같은 계통 언어의 음성
2. 가타리모노(語り物), 우타이모노(謡い物), 도나에모노(唱え物)의 발음¹⁾

1) 역주: 가타리모노는 시가나 문학작품과 같이 이야기가 있는 작품을 토대로, 비파나 샤미센을 연주하면서 곡조를 넣는 예능의 장르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헤이케 이야기』에 비파 연주를 하는 헤이쿄쿠(平

B. 과거의 문헌

1. 국내의 자료

- a. 일본어를 표음자 내지 표음적으로 사용한 문자로 적은 자료
- b. 일본인의 음성에 관련된 관찰 연구

2. 외국과 관련된 자료

- a. 외국인이 쓴 자료
 - α. 일본어를 외국의 문자로 음사한 자료
 - β. 외국인이 일본어를 관찰 연구한 자료
- b. 외국어를 일본의 문자로 음사한 자료

이 중에서는 현대의 연구수준 상으로 봤을 때 의문이 남는 것들도 있다(A-2와 같은 부류 등). 또한 훈점자료와 같이 이후에 연구가 비약적으로 발달한 것도 있다. 그러나 이 분류는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근대의 일본어 음운사 연구는 이와 같은 자료를 사용하여 일본어 연구 중에서도 가장 진전된 분야로 발달하였다.

본발표에서는 특히 2로 분류되어 있는 ‘외국과 관련된 자료’에 주목하도록 한다. 이것은 일본의 역사 안에서 여러가지 다른 언어의 화자와 접촉을 통해서 쓰여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상대 일본어(역주: 약 7세기초부터 8세기 말까지의 기간)의 표기로는 음역한자인 만요가나(萬葉假名)가 사용되었다. 또한 조선에서 발행된 『이로파(伊路波)』(1492년 판)나 강우성(康遇聖)의 『첩해신어(捷解新語)』(원간본 1676년)는 한글로 일본을 표기한 것이다. 이러한 자료는 모두 외국어의 음에 대응하는 문자를 사용하여 일본어를 표기한 것이다. 이와 같이 문자로 쓰인 문헌은 당시 일본어의 음성 및 음소를 알기 위한 유력한 자료이다.

3. 기리시탄 문헌을 사용한 일본어 음운사 연구의 성과

3.1. 기리시탄 문헌

일본어사 연구에 사용되는 외국 자료로 가장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은 기리시탄 문헌이라고 불리는 문헌군이다. 기리시탄 자료란 16~17세기에 가톨릭의 선교사들이 남긴 것으로, 포교와 관련된 문헌군을 말한다. 그들은 포교를 목적으로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초반에 걸쳐서 일본으로 들어왔다²⁾. 기리시탄 문헌 중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특히 포르투갈 왕국을 배경으로 하는 예수회 선교사가 작성한 것이다. 또한 이 중에는 유럽에서 수입한 활자 인쇄기로 출판된 독자적인 인쇄물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기리시탄 판(キリシタン版)이라고 한다. 현단계에서 현존이 확인된 기리시탄 판은 41점이 있다.³⁾

曲)가 있다. 우타이모노는 일본의 성악곡의 한 계통으로 요곡(謠曲)의 곡절에 중점을 둔 것이다. 신도(神道)에서 사용되는 가구라우타(神樂歌)나 가면극인 노(能) 등이 있다. 도나에모노는 불교 의식에서 경문을 낭독할 때 사용되는 성악인 쇼묘(聲明)와 같은 독송 방법 등을 가리킨다.

2) 일본에서 초기 기독교 포교가 행해진 것은 1549년 프란치스코 하비에르(Francisco de Xavier)가 일본으로 들어온 이후부터 1612~1614년에 행해진 선교사 추방 및 기독교 금교까지의 기간이다.

3) 다만 이는 기리시탄 판의 정의를 비교적 광의적으로 잡았을 경우의 수이다. 협의적으로 파악한 기리

(자료①). 이 자료군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어학서와 종교서로 분류할 수 있다. 어학서로는 외국인 선교사가 일본어를 학습하기 위한 텍스트(교과서, 문법서, 사전)가 있고, 그 외에도 라틴어 학습용 텍스트도 있다. 종교서의 대부분은 당시 유럽에서 자주 사용되던 기독교 교의서를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다.

또한 기리시탄 판에는 선교사들의 사용언어(포르투갈어 혹은 라틴어)로 쓰여진 것도 있으나, 종래의 일본어사 연구에서는 일본어로 쓰인 자료가 주목되어왔다. 더욱이 일본어로 쓴 문헌의 사용문자로는 한자와 히라가나와 같이 일본에서 사용된 글자 뿐만이 아니라 로마자도 있는데, 일본어 음운사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로마자를 사용한 문헌에 주목해왔다. 이하에서는 기리시탄 문헌을 사용한 음운사 연구의 성과를 소개한다.

3.2. 로마자를 사용한 기리시탄 자료를 통해 얻은 성과

우선 대영도서관 소장 아마쿠사판 헤이케 이야기(天草版『平家物語』)를 예로 들겠다(자료②). 본서는 대표적인 기리시탄 판의 하나로 1592년 아마쿠사(현재의 구마모토현 아마쿠사시)에서 출판되었다. 내용은 당시 고전의 하나인 『平家物語』를 16세기 구어로 번역한 초보자를 위한 일본어 학습 교과서이다. 또한 본서는 로마자로 쓰여진 일본어 표기를 사용한다.

자료②의 속 표지에는, “NIFON NO COTOBA TO Hiftoria uo narai xiran to FOSSVRV FITO NO TAMENI XEVA NI YAVARAGETARV FEIQE NO MONOGATARI” (日本の言葉とHistoriaを習い知らんと欲する人のために世話に和らげたる平家の物語: 일본의 말과 역사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 일상에서 사용되는 말로 바꿔 쓴 헤이케의 이야기) 라고 쓰여져 있다. 본서에 사용된 로마자를 보면, 현대일본어의 /h/ 자음에 대응하는 곳에 모두 ‘f’를 사용하고 있다. 이하의 표를 참조하길 바란다.

기리시탄 로마자 표기	현대어음소 및 음가	단어와 의미
NIFON	/nihoN/ [nihon]	일본 ‘Japan’
FOSSVRV	/hoQsuru/ [hossuru]	원하다 ‘want’
FITO	/hito/ [çito]	사람 ‘person’

기리시탄 문헌에 사용된 로마자에는 현대어의 /h/에 대응하는 자음으로 모두 ‘f’를 사용한다. 이를 통해서 16세기 이전의 일본어에 [ϕ]의 음가를 갖는 음소 /f/를 추정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음의 변화를 알 수 있다.

$$/f/ > /h/$$

이와 같이 로마자로 쓰여진 일본어 표기는 중세 일본어(역주: 12세기 말부터 17세기 초까지의 기간) 음성의 여러 부분을 밝힐 수 있다. 이하에는 그 외의 몇 가지 예시를 들도록 한다. 이 예들은 한자 및 가나 만으로는 쉽게 밝혀낼 수 없는 것들이다.

시탄 판의 정의는 일본국내에서 출판된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富永牧太1973). 이 경우에는 32점이다.

기리시탄 로마자 표기	현대어음소 및 음가	단어와 의미	중세말의 추정음가
xecai	/sekai/[sekai]	세계 'world'	[eekai]
bat	/batsu/ [batʃu]	벌 'punishment'	[bat]
cauo	/kao/ [kao]	얼굴 'face'	[kao]
yeda	/eda/ [eda]	가지 'twig'	[jeda]

3.3. 가나 표기와 로마자 표기의 차이

이와 같이 기리시탄 자료의 로마자 표기는 중세 일본어의 구체적인 음가를 밝히는 재료가 되어왔다. 또한 이러한 성과 중에는 해당 시기의 가나 문자로는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일본어의 청탁에 관련된 것도 있다. 일본어의 '청탁(清濁)'은 무성음(청)과 유성음(탁)의 대립을 가리킨다. 현대 일본어에서는 청탁의 차를 보조부호인 탁점(濁點) '・'의 유무로 가리킨다.

か /ka/ - が /ga/ さ /sa/ - ざ /za/ た /ta/ - だ /da/ は /ha/ - ば /ba/

그러나 이와 같은 표기법은 근대에 정착된 것이다. 근대 이전에는 탁점이 사용된 것도 있었으나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탁점이 없는 가나표기여도 실제로는 탁음을 의도하는 경우가 있어 독해를 어떻게 하는지 판단이 어렵다.

현대의 표기법 かき → /kaki/ (감) 'persimmon'

かぎ → /kagi/ (열쇠) 'key'

전근대의 표기법 かき → /kaki/ (감) or /kagi/ (열쇠)

청탁의 차는 일본어의 여러가지 현상(음상징이나 형태 음운 현상)과 관련되어있는 일본어 연구의 중요한 테마이다. 그러나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일본어 표기의 특징으로 청탁을 역사적인 입장에서 다루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역시 기리시탄 문헌은 유효하다. 이하에 기리시탄판 『日葡辭書』를 예로 들기로 한다.

『日葡辭書』⁴⁾는 선교사들이 일본어 학습을 위해서 편집된 일본어-포르투갈어의 대역 사전이다. 본편과 보유편 두 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편은 1603년, 보유편은 1604년 나가사키에서 출판되었다. 표제어로는 로마자로 표기된 일본어를 들고, 포르투갈어 어석을 달았다. 총 항목수는 33,000 단어이다. 일본어를 표제어로 삼은 외국어 사전으로는 세계최초이다. 또한 당시 일본어 혹은 포르투갈어와 관련된 사전으로도 최대급이다.

본서는 구어, 문어, 방언, 시가어(詩歌語) 등 여러가지 일본어를 수록하고 있으며, 본서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단어도 다수 실려있는 일본어사 연구상 중요한 자료이다.

그리고 본서는 모두 로마자 표기가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수록되어 있는 모든 어휘의 청탁을 쉽게 알 수 있다. 이하 예를 들겠다.

Funjin. Miuo vaquru. *Corpo, ou sustancia do Fotoque que varias partes s o mesmo se manifesta de diuersas maneiras.* 『日葡辭書』 109장 앞

4) 정식명칭은 Vocabulario da Lingoa de Iapam com a declaração em Portugues, feito por alguns padres, e irmãos da companhia de Iesu.(예수회의 신부들과 조수사(助修士) 들을 위해서 편찬된 포르투갈어 설명을 붙인 일본어 사전)이라고 한다.

【번역】Funjin. (分身, 분신) Miuo vaquru(身を分くる, 몸을 나누다). 본체는 같으나 여러가지 형태로 다양한 곳에 나타나는 부처(Fotoque)의 몸 혹은 힘.

여기에서 「分身」이란 단어의 「分」을 청음인 ‘fun’으로, 「身」을 탁음인 ‘jin’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에 비해서 현대 일본어의 「分身」은 /buNsiN/으로, 「分」은 탁음인 /buN/, 「身」은 청음인 /siN/이다. 즉 중세 일본어와 현대 일본어는 청음과 탁음이 서로 뒤바뀐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가나 표기로는 통상 “ふんしん”이라고 쓰기 때문에 이를 알 수 없다. 즉 이와 같은 청탁과 관련된 변화는 『日葡辭書』의 로마자 표기의 존재로 인해서 비로소 명확해진 현상이다.

3.4. 선교사의 일본어 관찰

위와 같은 예시 외에도, 하시모토 신키치의 분류에는B-2-a-β 「외국인이 일본어를 관찰 연구한 자료」가 있다. 이 대표적인 예로는 예수회 선교사인 주앙 로드리게스 쓰즈(1561?-1633, João Rodriguez Tçûzu)⁵⁾의 저작인 『日本大文典(Arte da língua de Japam, 1604-1608, 나가사키 출판)』이 있다. 본서는 당시 라틴어 문법의 틀에 따르는 동시에, 독자적인 관점을 가미하여 일본어 문법을 기술한 것이다. 또한 이외에도 선교사가 신경써야 할 사항으로 개별적인 일본어 현상에 관해서 여러 사정을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 중에는 당시의 일본어 발음에 관련된 기사가 있다. 여기에서는 당시 탁음에 대한 기사를 신기로 한다(내용의 해석은 山田昇平2014에 의거한다).

Toda a vogal, antes de, D, Dz, G, sempre se pronuncia como com hum meyo til, ou sonsonete que se forma dentro dos narizes o qual toca algum tanto no til. (177장 뒤-178장 앞)

【번역】D,Dz,G앞의 모든 모음은 항상 반정도 되는 틸(til, 발표자 역주: 비음표시를 위한 부호 ‘~’)을 동반하는 것과 같다. 즉 콧속에서 만들어지는 틸과 일정 정도 가까운 울림으로 발음된다.

“D, Dz, G”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d/ /g/의 음소에 사용되었던 문자이다⁶⁾. 본서에서는 이와 같은 자음 앞의 모음은 가벼운 비음을 동반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즉, /d/ /g/의 앞에 접하고 있는 모음은 규칙적으로 비모음화(鼻母音化)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모음화가 이루어지는 비음은 /d/ /g/가 가지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또한 같은 탁음이라도 /z/에는 이와 같은 정보가 없다. 이를 토대로 중세 일본어의 탁음의 음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추정이 성립된다.

5) 포르투갈 세르난셀레에서 태어나 마카오에서 사망한 예수회 선교사. 10대 중반에 일본에 들어와 일본어를 배우고 문법서를 출판했을 뿐만 아니라, 프로쿠라도(procurador, 재무담당자)로써 생사(生絲) 무역을 관리하였다. 또한 통역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와의 교섭을 담당하는 등의 활약을 하였으나, 반대세력의 반격에 의해서 실각하고 마카오로 추방되었다.『日葡辭書』의 편찬자로 여겨지는 일도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그 증거가 없다. 같은 예수회의 조앙 로드리게스 지랑(João Rodriguez Girão, 1559-1629)과 구별하여 관용적으로 ‘쓰즈(通事, 통역사)’라고 불린다. 岸本恵実・白井純 편(2022 : 56)에 의거하였다.

6) 엄밀하게는 다음과 같은 대응관계가 있다(음소 해석은 발표자에 의한 것이다).

D(d) : 자음 /d/ [d]에 대응된다.

Dz(dz) : ‘dzu’로만 사용되고, 당시의 /du/ [dzu]의 자음음성에 대응된다.

G(g) : 자음 /g/ [g]에 대응된다. 단지 ‘gi’의 경우는 당시 /di/의 음성 [dzi] 자음음성에 대응된다.

/d/ [ʰd] /g/ [ʰg] /z/ [z] /b/ [b~ᵐb]⁷)

4. 기리시탄 문헌의 문제점

종래의 일본어 음운사 연구로 기리시탄 문헌을 자료로 삼은 위와 같은 성과를 들어왔다. 그러나 근년의 연구로는 기리시탄 문헌의 자료성에 대해서 여러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그에 대한 검토가 행해져 왔다. 본발표에서는 음운사 연구에 관련한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4.1. 로마자 표기에 대한 문제

우선 기리시탄 문헌의 로마자에 대한 문제가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기리시탄 자료의 로마자 표기는 16-17세기의 일본어 음성을 알기 위한 귀중한 자료이다. 그러나 종래의 연구로는 이 로마자 표기를 안이하게 과신했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3.2에서는 기리시탄 문헌의 ‘f’를 근거로 삼아 중세 일본어의 양순마찰음 [ɸ]의 존재를 추정하였다. 그러나 기리시탄 문헌의 로마자는 기본적으로 포르투갈어식 로마 표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당시 포르투갈어 표기의 ‘f’는 순치마찰음 [f]을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f’에 대해서 검토하지도 않고 [ɸ]로 추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마루야마 도오루(丸山徹2020 : 183-188, 初出1989)는 동시대 스페인인 도미니코회 선교사의 기술에 주목하여, 당시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의 음운체계의 차이로부터 ‘f’에 대한 해석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ɸ]로 삼는 해석이 타당한 것이 증명되었다.

이 외에도 기리시탄 자료의 로마자 표기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는 여러한 논의가 있다. 특히 로마자로 문자를 가려서 사용하는 것이 음성의 반영이라고 하는 해석과 정서법상의 사정이라고 하는 해석이 문제가 된다⁸). 이와 같은 논의의 배경에는 표기론 상의 문제 의식이 있다. 단음문자인 로마자를 사용했더라도, 문자인 이상 표기를 반영하는 언어 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7) /b/ 에 대해서는『日本大文典』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Esta mesma regra goarda algũas vezes, A, vogal antes de, B, mormente quando se duplica, & se muda o, F, em, B, mas isto nam he geral. Vt, Mairi sorofaba.

(발표자 번역: 이 법칙은 어떤 경우에는 B 앞에 있는 모음 A에도 적용된다. 이는 주로 중복에 의한 것으로, F가 B로 바뀌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예: Mairi sorofaba(参りそろはば).)

즉, /b/의 음성에 비음성(鼻音性)을 동반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기사의 내용은 해석이 쉽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

8) 예를 들어, 기리시탄 로마자 표기중의 모음연속 표기인 ‘-iö’와 ‘-eö’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것이 음성의 실태로 해석하는가 혹은 표기상의 문제로 해석하는가에 대해서는 근년 다음과 같은 논의가 있다.

자유 변이하는 구개화의 정도차를 반영한다는 논의(竹村明日香2011)

정서법상의 통일되지 않은 표기이다라는 논의(豊島正之2015)

그 외에도 도미니코회에서 출판된 기리시탄 판의 로마자 표기에 관한 것 중, 단음절모음 /o/의 음가의 해석을 둘러싼 논의(岩澤克2017, 山田昇平2018) 등이 있다.

4.2. 기술 내용의 정확한 이해

또한 3.4에서 언급했던 로드리게스의 『日本大文典』은 당시의 문법 뿐만이 아니라 음소 및 음운을 아는 데에도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나 이 자료에도 문제가 있다.

본서는 16세기 포르투갈어로 쓰여져 있다. 많은 일본어학 연구자는 본서를 1955년 출판된 도이 타다오(土井忠生)씨의 일본어역을 이용하고 있다. 도이의 번역은 매우 뛰어나고 현대에에도 높게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개별 사항을 보면 많은 문제가 남아있다.

예를 들어 3.4에서 인용한 기사에는 ‘sonsonete’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있다. ‘sonsonete’에 대해서 도이의 번역에서는 「비꼬는 말투에 쓰이는 콧소리를 섞은 것 같은 억양의 발음(皮肉な言い方などに於ける鼻にかかるような抑揚のある発音)」이라고 되어있다. 「비꼬는(皮肉)」이나 「콧소리를 섞은 것 같은(鼻にかかるような)」이란 해석은 이 단어를 표현하는 일본어의 발음의 해석에도 영향을 준다.

그러나 실제로 기리시탄 판과 포르투갈어 문헌 등에서 ‘sonsonete’의 용례를 수집하여 검토하면, 이 해석은 성립되지 않는다(山田昇平2014). 이하 『日葡辭書』의 용례를 들겠다.

Couasaqi. som, ou sonsonete da palaura.

『日葡辭書』 60장 뒤

【번역】Couasaqi. (声先) 울림, 혹은 말의 sonsonete.

일본어 표제어 「Couasaqi」는 다른 문헌의 용례를 토대로 보면 「억양을 붙이는 방법」과 같은 의미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단어는 「비꼬는 것」이나 「비음」과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단어의 해석에 사용된 ‘sonsonete’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즉, ‘sonsonete’는 단순히 억양(intonation)과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할 단어이다.

이와 같은 검토를 통해서 비로소 『日本大文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자료로써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포르투갈어로 표현된 일본어의 사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 연구의 현상

5.1. 일본어 음운사 연구의 현상

지금까지 일본어 음운사 연구에서는 기리시탄 문헌을 유력한 자료로써 사용해왔다. 그러나 이 이용 방법에는 안이한 것들도 많아서 문제가 되었다. 근년에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4장에서 본 것과 같은 문헌학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기리시탄 문헌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문헌자료에 대해서도 같다. 일본어 음운사 연구는 종래의 연구성과에 대한 재검토의 단계에 있다.

5.2. 기리시탄 문헌에 대한 연구의 현상황

본발표에서는 특히 일본어 음운사 연구에 관한 부분을 중심으로 논했다. 이는 기리시탄 문헌이 음운사 연구자료로써 이용되어왔다는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리시탄 문헌이 더 넓은 시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본발표에서 소개한 기독교 선교사들의 활동은 일본 이외에서도 이루어졌다. 선교사에 의해 작성된 포교를 위한 어학 연구는, 15세기에서 17세기에 걸쳐 아시아, 아프리카 및 남미와 같이 넓은 지역에서 행해졌다. 이에 대해서 본발표에서는 모두 다룰 수 없었으나, 근년에는 이와 같이 각 언어로 행해진 어학연구의 대조를 통해서, 각 자료에 대한 자리매김이 이루어지면서, 각국에서 여러가지 성과를 내고 있다(선교를 동반하는 언어학 Missonary Linguistic, 豊島正之編2015・丸山徹2020 등).

위와 같이, 본발표에서는 일본어 음운사 연구 및 기리시탄 문헌 연구의 현상황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이는 문헌학연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수순이다. 어떠한 문헌 자료가 있더라도, 그 문헌 전체와 그 문헌의 문화적 배경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본발표에서는 일본어사 연구의 반성으로 이러한 당연한 사실을 다시 확인해 두도록 하겠다.

(번역: 北海道大學 文學研究院 學術研究員 鄭門鎬)

■ 참고 및 인용 문헌

- 岩澤克 (2017) 「ドミニコ会文献のアクセント注記と母音単独音節“o”の存在について」『日本近代語研究』6
- 岸本恵実・白井純 (2022) 『キリシタン語学入門』八木書店
- 竹村明日香 (2011) 「『日葡辞書』の開拗音」『国語国文』81-3
- 富永牧太 (1973) 「きりしたん版について」『キリシタン版の研究』天理図書館
- 豊島正之 (2013) 『キリシタンと出版』八木書店
- 豊島正之 (2015) 「キリシタン版の辞書」『文学』16-5
- 中野遙 (2021) 『キリシタン版 日葡辞書の解明』八木書店
- 橋本進吉 (1961) 『橋本進吉著作集 キリシタン教義の研究』岩波書店 (初出1928「東洋文庫論叢9」)
- 橋本進吉 (1966) 『橋本進吉著作集 国語音韻史』岩波書店
- 土井忠生 翻訳 (1955) 『ロドリゲス日本大文典』三省堂
- 丸山徹 (1989) 「キリシタン資料におけるf表記をめぐって」『南山国文論集』13
- 丸山徹 (2018) 「キリシタン資料」の項目『日本国語大辞典』東京堂
- 丸山徹 (2020) 『キリシタン世紀の言語学—大航海時代の語学書—』
- 山田昇平 (2014) 「ロドリゲス『日本大文典』における“sonsonete”—濁音前鼻音記述をめぐって—」『四天王寺大学紀要』58
- 山田昇平 (2018) 「キュリヤードが用いる子音字 ‘v’ のない ‘o’ ‘ö’ は何をあらわすか—キリシタンのローマ字表記に対する解釈をめぐって—」『語文』101

■ 참고 및 인용자료

天草版平家物語：国立国語研究所「大英博物館所蔵 天草版『平家物語』『伊曾保物語』『金句集』画像」https://dglb01.ninjal.ac.jp/BL_amakusa/

日葡辞書

Oxford大学Bodleian Library蔵本：『日葡辞書』（勉誠社 1973）、『邦訳日葡辞書』（岩波書店 森田武訳1980）、土井忠生・森田武・長南実訳（1980）『邦訳日葡辞書』岩波書店

Rio de Janeiro国立図書館蔵本：エリザ・タシロ、白井純編「リオ・デ・ジャネイロ国立図書館蔵 日葡辞書」（八木書店 2020）

※なお、日葡辞書にはこの他Èvora公立図書館蔵本、France国立図書館蔵本が現存している。他にManila, Santo Domingo修道院旧蔵本があるが、所在不明。原本を撮影した写真が上智大学キリシタン文庫に残されている。

J.ロドリゲス『日本大文典』：『ロドリゲス日本大文典』（三省堂 土井忠生訳1955）、『日本文典』（勉誠社 土井忠生解題・三橋健解説 1976）

■ 付記

本 발표는 이하의 조성금에 의한 성과의 일부이다.

・JSPS科研費「中世後期・近世前期日本語の清濁に対する共時的研究」（若手研究21K13021 研究代表者）

자료① : 기리시탄 판 일람(번호는 본 표에서 사용된 임시번호)
※丸山徹(2018) 및 岸本恵美・白井純(2022)을 참고로 작성하였다.

번호	통칭	서명 (표제지에 의거)	출판지	출판년 도	사용언어	사용문자
1	日本のカテキズモ	Catechismus Christianae Fidei	리스본	1586	라틴어	로마자
2	原マルチノの演説	Oratio Habita A Fara D. Martio	고아	1588	라틴어	로마자
3	キリスト教子弟の教育	Christiani Pueri Institutio	마카오	1588	라틴어	로마자
4	遣欧使節対話録	De Missione Legatorum Iaponensium	마카오	1590	라틴어	로마자
5	どちりいなきりしたん (前期日本字本)	(どちりいな)	(가즈사?)	(1591?)	일본어	가나·한자
6	サントスの御作業	Sanctos no Gosagueono Vchi Nuqigaqi	가즈사	1591	일본어	로마자
7	ドチリナキリシタン (前期ローマ字本)	Doctrina	아마쿠사	1592	일본어	로마자
8	ヒイデスの導師	Fides no Dóxi	아마쿠사	1592	일본어	로마자
9	ばうちずもの授けやう	(ばうちずもの授けやう)	(아마쿠사?)	(1592?)	일본어	가나·한자
10	天草版平家物語	Feiqe no Monogatari	아마쿠사	1592	일본어	로마자
11	天草版伊曾保物語 (エソボのハプラス)	Esopo no Fabulas	아마쿠사	1593	일본어	로마자
12	金句集	Oineuxũ	아마쿠사	1593	일본어	로마자
13	天草版ラテン文典	De Institutione Grannatica Libri Tres	아마쿠사	1594	일본어, 라틴어, 포르투갈어	로마자
14	羅葡日対訳辞書	Dictionarium Latino Lusitanum, ac Iaponicum	아마쿠사	1595	일본어, 라틴어, 포르투갈어	로마자
15	コンテムツスムンヂ (ローマ字本)	Contemptus Mundi	(아마쿠사?)	1596	일본어	로마자
16	心霊修行	Exercitia Spirtualia	아마쿠사	1596	라틴어	로마자
17	精神修養の提要	Compendium Spiritualis Doctrinae	(아마쿠사?)	1596	라틴어	로마자
18	ナルバスの告解提要	Compendium Manualis Nauarri	(아마쿠사?)	1597	라틴어	로마자
19	さるばとるむんち	Confessionarium	(나가사키?)	1598	일본어	가나·한자
20	落葉集	Racuyoxu	(나가사키?)	1598	일본어	가나·한자
21	ぎやどべかどる	Guia do Pecador	(나가사키?)	1599	일본어	가나·한자
22	ドチリナキリシタン (後期ローマ字本)	Doctrina Christan	(나가사키?)	1600	일본어	로마자
23	どちりなきりしたん (後期日本字本)	Doctrina Christam	나가사키	1600	일본어	가나·한자
24	おらしよの翻訳	Doctrinae Christianae rudimenta	長崎	1600	일본어	가나·한자
25	朗詠雑筆 (和漢朗詠)	Royei Zafit	(나가사키?)	1600	일본어	가나·한

제62회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

	集)		)			자
26	金言集	Aphorismi Confessoriorum	(나가사키?)	1603	라틴어	로마자
27	日葡辞書	Vocabulario de Lingoa de Iapam	나가사키	1603-4	일본어, 포르투갈어	로마자
28	日本大文典	Arte de Lingoa de Iapam	나가사키	1604-08	일본어, 포르투갈어	로마자
29	サカラメント提要	Manuale ad Sacramenta Ecclesiae Ministranda	나가사키	1605	라틴어	로마자
30	スピリツアル修行	Spiritual Xuguio	나가사키	1607	일본어	로마자
31	フロスクリ (聖教精華)	Floscli	나가사키	1610	라틴어	로마자
32	こんでむつすむんち (日本字本)	Contemptus Mundi	교토	1610	일본어	가나·한자
33	ひですの経	Fidesno Quio	長崎	1611	일본어	가나·한자
34	太平記抜書	(太平記抜書)	?	1611/12?	일본어	가나·한자
35	日本小文典	Arte de Breve Lingoa de Iapam	마카오	1620	일본어, 포르투갈어	로마자
36	ロザリヨ記録	Rosario Qirocu	마닐라	1622	일본어	로마자
37	ロザリヨの経	Rosario no Qio	마닐라	1623	일본어	로마자
38	日西辞書	Vocabulario de Iapan	마닐라	1630	일본어, 스페인어	로마자
39	日本文典	Ars Grammaticae Iaponicae Linguae	로마	1632	일본어, 라틴어, 포르투갈어	로마자
40	懺悔録	Niffon no Cotoba ni yô Confesion	로마	1632	일본어, 라틴어	로마자
41	羅西日辞書	Dictionarium sive Thesauri Linguae Iaponicae Compendium	로마	1632	일본어, 라틴어, 스페인어	로마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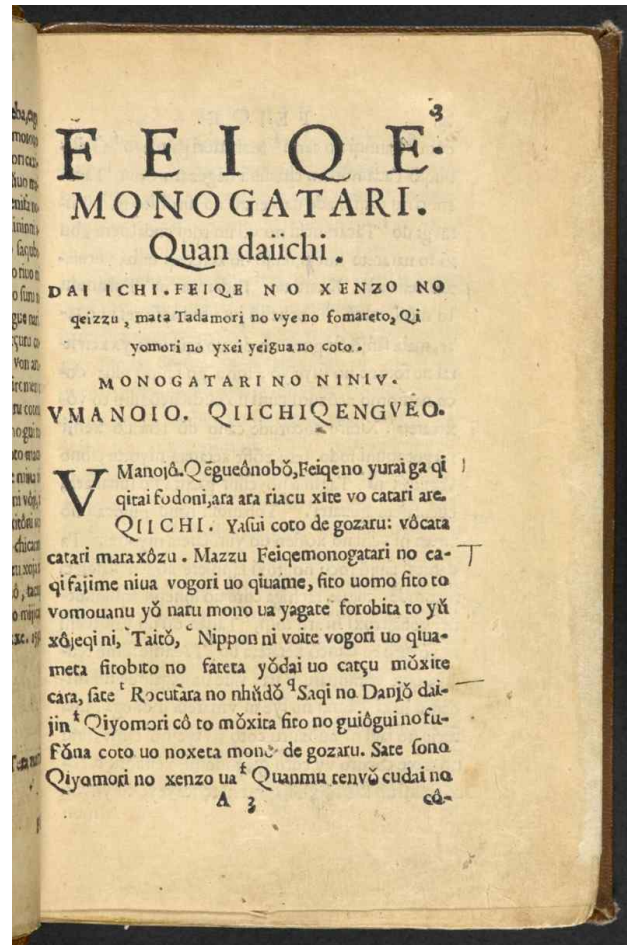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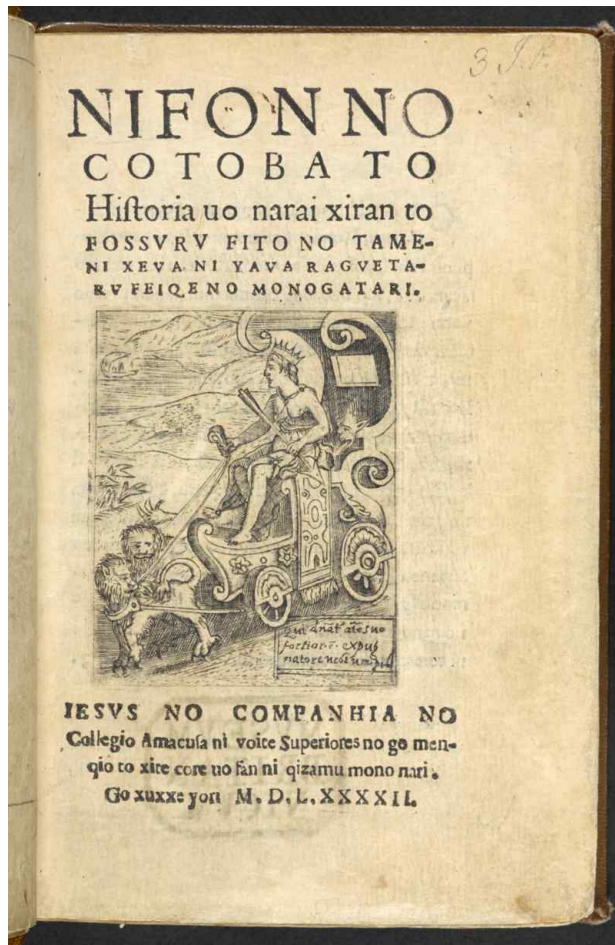
※36~41는 도미니코 회에서 출판되었다

자료②

왼쪽 : 아마쿠사판 헤이케 이야기의 표지 ,

오른쪽 同 본문 . 국립국어연구소에 의한 공개 이미지

(https://dglb01.ninjal.ac.jp/BL_amakusa/)



자료②

왼쪽 : 리우데자네이루 국립도서관 소장본 『日葡辭書』 속 표지

오른쪽 : 同 본문 리자·타시ロ、白井純編「リオ・デ・ジャネイロ国立図書館蔵 日葡辞書」 (八木書店 2020)에 의거



<개인 연구 발표>

완판본 판소리계 소설 <심청전(沈淸傳)>의 언어적 양상

런멍지에(任夢婕)(전남대)

<차 례>

1. 들어가며
2. 문체적 양상
3. 표기와 음운 관련 양상
4. 완판본에서만 나오는 지역적인 어휘
5. 나오며

1. 들어가며

이 글은 완판본 <심청전(沈淸傳)>(1905)을 대상으로 하여, 여기서 언어적 양상이라는 것은 문체, 표기, 음운, 형태, 어휘 등을 중심으로 하여 포괄적으로 살피고 경판본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시도해 보려고 한다. 또한, 이 글을 통해서 근대 국어시기 널리 알려진 문헌 자료로서 <심청전(沈淸傳)>에서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 또는 경판본 자료와 비교하면서 대표적인 지방 자료로서 어떤 방언에 대한 언어학적인 가치가 가지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어서 완판본에서 보이는 공시적인 언어 특징들뿐 아니라, 중앙어를 반영한 경판본에서 보이는 공시적인 양상과 비교하여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면서도 살핀 것은 목표로 삼는다.

<심청전>은 낭독, 묵독, 구연, 연행과 같은 방식으로 향유되면서, 필사본, 방각본, 구활자본 등의 매체를 통해 전승되었다. 현재까지 그 이본의 수도 200여 종을 상회하며, 다른 고소설 및 판소리 작품들과는 다르게 문장체 소설과 판소리계 소설이 병존해 왔다는 특징이 있다.¹⁾ 한글소설 방각본(坊刻本)은 조선 후기에 크게 두 지역에서 간행되었다. 하나는 서울출판 벨트에 속하는 서울·안성이고, 다른 하나는 전주 출판 벨트에 속하는 전주·태인·나주 등지이다. 이 두 지역의 소설을 각각 경판본²⁾과 완판본³⁾이라고 하는데, 경판본은 거의 서울 부근의 독자들

1) 성현경(1995)은 ‘판소리계’라는 표현보다 ‘판소리체’라는 용어를 선호했는데, 이는 심청전의 이본군이 ‘문장체’와 ‘판소리체’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문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판소리체’라는 용어가 더 어울리지만, 본고에서는 특정 문체를 표현할 때를 제외하면 현재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판소리계’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2) 경판본은 서울에서 방각한 책이다. 최영희(2019:306)를 참고해 보면 경판 한글소설 방각본은 1840년부터 1860년대까지 약 20~30년 동안 활발히 간행되었고, 그 뒤 1880년대에 수입된 연활자 인쇄에 밀려 사양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현존하는 경판소설은 54종이며 유동, 송동, 홍수동 등지에서 8종으로 가장 많이 출판하였다. 여러 서점 가운데 끝까지 한글 방각소설을 인쇄 판매한 서점은 翰南書林으로, 由洞이나 宋洞 그리고 紅樹洞에서 판각한 책판들이 전매되다가 翰南書林에 收斂되어 1930년대까지 인쇄 발매되었다.

3) 최영희(2019:307)에서 ‘완판본’은 서울에서 발간된 ‘경판본’ 고전소설을 상대적으로 이르는 말로 전주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목판으로 발간한 고전소설을 일컫는다. 서울은 책이 출판된 지명을 간기에 사용하는데 비하여, 전주에서는 책이 출판된 지명도 쓰이지만 주로 방위를 나타내는 ‘完西, 完西溪, 完南, 完龜洞, 完南 龜石里’ 등이 사용되면서 ‘완판본’이라는 용어가 탄생하였다. 완판본의 ‘完’은 ‘完山’을 뜻하는데, 백제시대에 사용하였던 ‘完山’이 그 후대에 ‘전주’로 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

을 대상으로 제작하였고, 완판본은 전주 부근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삼았다⁴⁾.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은 京城翰南書林에서 발행한 경판24장본과 全州多佳書舖에서 발행한 완판 71장본이다. 경판 24장본은 1921년 10월 30일 京城翰南書林에서 白斗鏞의 명의로 발행했다는 판권지가 붙어 있으나 이것은 1909년 일제강제기 때 출판물을 규제하기 위하여 만든 출판물이 시행됨에 따라 붙여진 것이고 실체는 그 이전부터 간행되던 판본일 것이다. 완판 71장본은 상권 30장, 하권 41장의 도합으로 71장 1책으로 되어 있는데 상권 30장 후면에 乙巳未月完山開刊, 하권 41장 전면에 乙巳仲秋完山開刊으로 되어 있어서 1905년에 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제 경판본 간행 일시가 적혀 있지 않아 정확한 방각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이옥성(2020:113)에 따르면 1892년(고종 29)에 필사된 12장본 <심청전>(국립한글박물관 소장)과 1898년에 파곡에서 필사된 30장본 <심청록>(서울대 규장각 소장)는 경판 20장본과 24장본을 모본으로 하여 개작한 판본이다. 이 점을 고려하여 경판24장본 <심청전>은 대략 19세기 말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여 근대 국어시기 자료로 검토함으로써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심청전>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근대 국어시기 중요한 문학 작품으로서 학계에서 포괄적인 연구를 해 왔다. 인권한(1977:12)에 따르면 알 수 있듯이 1940~50년대의 심청전 연구는 주로 문헌 해설의 단계에 머문 것이었고 1960년대의 연구는 근원설화 고찰과 이본고(異本考)가 중심을 이룬다. 또는 1970년대에 와서는 60년대의 중심 과제가 계속 추구되는 한편, 좀 더 다양한 방법론이 시도되어 심청전 연구의 본격적인 단계에 이른다⁵⁾. 더구나 최근에 국어학적인 접근은 신은수(2004)가 있는데 두 가지 완판본 <심청전>의 표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에 경판본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고 완판본 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어학 대표적인 연구는 최전승(1985, 1986, 2000), 이태영(1999, 2010, 2013) 등이 있다. 최전승(1985, 1986, 2000)은 완판본 판소리계 소설에 반영된 표기, 음운 체계를 포괄적인 연구를 하였고 이태영(1999, 2010, 2013)은 완판 방각본 자료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여러 소개들이 하였으니, 지역에 관련 연구를 대상으로 매우 전면적인 소개와 연구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준환(2021)에서는 완판본 한글 고소설 <구운몽(九雲夢)>(1862)를 대상으로, 경판본 자료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표기, 음운, 형태, 어휘 등을 살펴 두 판본의 언어 양상에 나타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여주었다. 이어서 이 글은 이준환(2021)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참고하여, 경판 24장본 <심청전>과 완판 71장본 <심청전>을 대상으로 언어적 양상을 제시하는 동시에 두 판본 간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연구 텍스트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경판 24장본 <심청전>과 세종대 학술정보원 소장의 완판 71장본 <심청전>을 활용하였다.

역민들은 백제시대의 백성이라는 뜻에서 ‘完山’을 즐겨 사용하였다. 1909년 출판법의 시행으로 기존의 방각소들은 방각본 책의 판권지를 붙인 형태의 책을 출판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모두 ‘전주’로 기록하고 ‘완산’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았다. 완판 방각본 소설은 ‘西溪書舖’와 ‘多佳書舖’, ‘七書房(昌南書館)’, ‘完興社書舖’, ‘梁冊房’ 등 다섯 개의 서포가 있어서 간행과 유통을 담당해왔다. 전주에서 발행한 완판본 한글소설은 1823년 발간한 「별월봉기하」를 시작으로 약 24종이 현재까지 전해진다.

- 4) 정병설(2010), 「조선후기 한글 방각소설의 전국적 유통 가능성에 대한 시론, 다산과 현대」 제3호, 2010, p.117. 최영희(2019), 「한글소설 방각본 서체의 조형적 특징 연구 - 경판본과 완판본을 중심으로 -」, 동양예술, 42(0), 299-331. 재인용

2. 문체적 양상

우선 완판본과 경판본을 비교하여 보면 분량의 차이가 매우 크다. 경판본은 24장본인데 완판본은 상권 30장, 하권 41장의 도합으로 71장본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 물론 완판 41장본⁶⁾도 있긴 하지만 그만큼 완판본이 경판본보다 내용이 풍부하고 상세하게 전시되어 있어 다양한 언어의 형태를 살펴볼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경판본은 압축적인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판본은 문체에 적지 않은 차이가 나타난다. 그렇다면 완판본은 경판본에 비해 문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몇 가지 예를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1 문장 길이

(1) <경판본: 1ㄱ-ㄴ>

- ㄱ. 화설 디명 성화년간의 남군썻히 일위명시 이스되 성은 심이오 명은 현이니 본디 명문거족으로 공의게 이르러는 공명의 유의치 아니하여 일디명위 되엿고 부인 정시는 성문지녀로 품질이 유한하고 용피 작약흔지라
- ㄴ. 공으로 더부러 동류 십여 년의 일즉 미혹히 업스되 다만 슬하의 일점혈육이 업스므로 부뷔 미양 상디하여 슬허히더니
- ㄷ. 그후의 부인이 신물을 엿고 인하여 그달부터 잉터하여 십 삭 만의 일기 녀으를 칭히니 부뷔 그 남이 아니를 익달아흐나 녀으의 식티 비범히믈 보고 스랑하여 일흠을 청이라 하고 즈를 몽선이라 하여 장둥보옥으로 아더라
- ㄹ. 청이 점점 즈라 삼 세 되미 용피 선연하고 지질이 괴이흔 등 출턴지회 지극히니 닌니와 친척이 칭탄<1ㄱ>히더니
- ㅁ. 흥진비리는 고급상식라 정시 홀연 득병하여 맞춘 세상을 브리니 공이 크게 비도하여 네를 잣초와 안장하고 녀으를 품고 듀야 슬허하여 청이 쏘흔 모친을 부르지져 호읍히니 그 부녀 정경을 참으 보지 못할너라
- ㅂ. 공의 가세 점〃 탕진하며 질병이 침면하여 상석을 썩어느지 못흔는 등 쏘 안질물 어더 슈월이 못하여 지척을 분변치 못히믈 싱게 더욱 망측하여 약간 가산을 진미하여 조석을 이으니 괴식이 엄엄한지라
- ㅅ. 청이 점〃 즈라미 부친의 듀리를 슬허하여 동니로 다니면서 비러다가 조석을 공양히니 그 잔잉히믈 겨믈다 가련히 녀겨 듀기를 앓기지 아니히더라
- ㅇ. 일일은 청이 나가 닛도록 도라오지 아니히거늘 공이 비도 골프고 슈한이 첩첩하여 막디를 집고 초리를 끌어 식비를 의지하여 기다리다가 길틀 촌즈

(2) <완판본: 상1ㄱ-ㄴ>

- ㄱ. 송나라 말년의 황주 도화동의 혼 사람이 잇스되 성은 심이요 명은 학규라 b. 누세잡영지 족으로 문명이 자〃 터니 가운이 영체하야 이십 안 〃 밍히니 낙슈청운의 벼살이 끈어지고

6) <심청전> 완판본은 71장본 외에도 41장본도 존재한다. 이옥성(2020: 132)에 따르면 완판 71장본 <심청전>은 완판 41장본을 모본으로 하여 간행된 것으로, 결말과 후일담의 내용만 일부 개작되었다. 본문은 2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권 본문(1~30장)은 완판 41장본의 1~19장과 동일하고, 하권 본문(31~71장)은 완판 41장본의 20~41장과 동일하다. 결말 부분은 완판 41장본과 달리 명창들을 언급하지 않고 연회를 즐기는 모습을 서술한 내용으로 바뀌었다. 이어 심봉사의 부인 안씨와 황후 심청이 아들을 낳고, 심봉사와 심청의 아들이 혼례를 치르게 되었다는 내용, 심봉사의 아들이 이부상서에 제수되는 내용, 심봉사가 80세에 별세하는 내용 등 후일담이 장황하게 이어진다..

- 금장자슈의 공명이 무어스니 향곡의 곤한 신세 원근 친척 업고 겹혀 안망하니 뒤라서
 접티혀라마는 양반으 후에 형실이 청염하고 지조가 강기하니 사름마닥 군자라 충하더라
- ㄴ. 그 처 꺾씨부인 현철하야 임사의 덕행이며 장강의 고음과 목난의 절기와 예기 가례 넉넉
 편이며 주남 소남 관저시를 물을 거시 업스니 일이의 화목하고 노복의 은인하며 가산 범
 절하미 빅집사가관이라 이제의 청염이며 안연의 간난이라 청전구업 바<1> 이 업서 혼
 간 집 단포자의 조불여석하난구나
- ㄷ. 야외의 전토 업고 낭서의 노복 업서 가련한 어진 꺾씨부인 몸을 바려 품을 팔러 싹반어질
 관디 도포 형의 창외 징념이며 셉슈 쾌자 중추막과 남녀 의복 잔누비질 상침질 외울쓰기
 쉼쌈 고두 누비 속올이기 세담 빨니 푸시 마전 하절 의복 한삼 고의 마건 꾸미기 갓끈 접
 기 비자 단초 토슈 보선 형전 줍치 삼지 단임 허릿기 양낭 불지 휘양 복건 풍치 천의 가
 진 금침 베기모의 쌍원앙 슈넷키며 오사 모사 각디 흥비의 학 넷키와 초상난 집 원삼 제
 복 질삼 선주 궁초 공단 수주 남능 갑사 운문 토주 분주 명주 싱초 통경이며 복포 황저포
 춘포 문포 제주리며 삼베 빅저 극상 세목 짜기와 혼장디사 음식 숙정 가진 중계하미 빅산
 과절

위와 제시한 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완판본은 경판본보다 문장이 긴 경향이 있다. 따라서 완판본은 이야기 서술할 때 부가적인 내용을 담은 문장 성분들이 많아지고 문장이 길어지는 면이 있다. 하지만 자세히 분석해보면 경판본 “(1人): 청이 점점 즈라미 부친의 듀리를 슬허하여 동니로 다니면서 비러다가 조석을 공양하니 그 잔잉하를 저마다 가련히 녀겨 듀기를 찾지 아니하더라”에서 ‘-면서’, ‘-다가’ 등과 같은 다양한 연결 어미를 쓰고 문장 성분이 풍부하지만 완판본은 (2)에서 볼 수 있듯이 이야기의 문장이 긴 것에 비해 구조가 간단한 편이다. 완판본 이야기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문장 성분은 오히려 경판본이 더 복잡한 면을 보인다.

2.2 한자어 사용

(3) <경판본: 1ㄱ-ㄴ> 한자어 표기

화설(話說) 덕명(大明) 성화년간(成化年間)의 남군썻히 일위명식(一位名士) 이스되 성(姓)은 심(沈)이오 명(名)은 현이니 본디 명문거족(名門巨族)으로 공의게 이르러는 공명(功名)의 유의치 아니하여 일디명위(一代名儒) 되였고 부인(夫人) 정시는 성문지녀(盛門之女)로 품질(品質)이 유한하고 용피(容貌) 작약하더라 공으로 더부러 동류 십여 년의 일즉 미흡하미 업스되 다만 슬하(膝下)의 일점혈육(一點血肉)이 업스므로 부뷔 미양 상대하여 슬허하더니 그 후의 부인이 신몽(神夢)을 엿고 인하여 그달부터 잉태(孕胎)하여 십 삭 만의 일기(一個) 녀으(女兒)를 싱(生)하니 부뷔 그 남익(男兒) 아니물 이달아하나 녀으의 식티 비범하를 보고 사랑하여 일흠을 청(淸)이라 하고 즈(字)를 몽선(夢仙)이라 하여 장등보옥(掌中寶玉)으로 아더라 청이 점점 즈라 삼 세 되미 용피 선연(鮮妍)하고 지질이 괴이한 듯 출턴지회(出天至孝) 지극(至極)하니 닌니(鄰里)와 친척(親戚)이 칭탄(稱歎)<1>하더니 흥진비락(興盡悲來)는 고금상식(古今常事)라 정시 홀연 득병(得病)하여 맞춘니 세상을 브리니 공이 크게 비도(悲悼)하여 네를 갖초와 안장(安葬)하고 녀으를 품고 듀야 슬허하여 청이 쏘흔 모친(母親)을 부르지져 호읍(號泣)하니 그 부녀(父女) 정경(情景)을 참으 보지 못할너라 공의 가세 점〃탕진(蕩盡)하며 질병(疾病)이 침면하여 상석(上席)을 썩여놓지 못하는 등 쏘 안질(眼疾)을 어더 슈월이 못하여 지척을 분변치 못하미 싱계(生計) 더욱 망측(罔測)하여 약간 가산(家產)을 진믹(盡賣)하여 조석을 이으니 괴식이 엄엄한지라 청이 점점 즈라미 부친의 듀리를 슬허하여 동니로 다니면서 비러다가 조석을 공양(供養)하니 그 잔잉하를 저마다 가련히 녀겨 듀기를

앗기지 아니허더라 일일은 청이 나가 늦도록 도라오지 아니허거늘 공이 비도 골프고 슈한이
 첩첩하여 막되를 집고 초리(草履)를 끌어 식비를 의지(依持)하여 기다리다가 길로 좃조 <1
 ㄴ>

(4) <완판본: 상1ㄱ-ㄴ> 한자어 표기

송(宋)나라 말년(末年)의 황주(黃州) 도화동의 한 사람이 잇스되 성(姓)은 심이요 명(名)은
 학규라 b. 누세잡영지족(累代簪纓之族)으로 문명이 자 〮 터니 가운데 영채(零替)하여 이십 안
 밍(眼盲)하니 낙슈청운(洛水靑雲)의 벼살이 쓴어지고 금장자슈(金章紫綬)의 공명(功名)이 무
 어스니 향곡(鄕谷)의 곤한 신세 원근(遠近) 친척(親戚)업고 겸(兼)하여 안밍하니 뒤라져 접
 되허라마는 양반의 후예 형실(行實)이 청염(淸廉)하고 지조(志操)가 강기(慷慨)하니 사람마
 닥 군자(君子)라 칭허더라 그 처(妻) 광씨부인 현철(賢哲)하여 임사(任姒)의 덕형이며 장강
 (莊姜)의 고음과 목란(木蘭)의 절기와 예기 가례 내칙편(內則篇)이며 주남(周南) 소남(召南)
 관저시(關雎詩)를 물을 거시 업스니 일이(鄰里)의 화목(和睦)하고 노복(奴僕)의 은익하며 가
 산(家事) 범절(凡節)하미 백집사가관(百執事可觀)이라 이제(夷齊)의 청염이며 안연(顔淵)의
 간난이라 청전구업 바<1ㄱ> 이 업서 한 간 집 단포자의 조불여석(朝不慮夕)한구나 야외
 (野外)의 전토(田土) 업고 낭서의 노복 업서 가련(可憐)한 어진 광씨부인 몸을 바려 품을 팔
 러 싹반어질 관디 도포 형의 창 의 징념이며 섭슈 쾌자 중추막과 남녀 의복 잔누비질 상침(上
 針)질 외올쓰기 췌쌈 고두 누비 속올이기 세답 빨니 푸시 마전 하절(夏節) 의복(衣服) 한삼
 (汗衫) 고의(估衣) 망건(網巾) 꾸미기 갓끈 접기 비자 단초 토슈 보선(補繕) 형전(行纏) 줌
 치 싹지 단임 허릿기 양낭(藥囊) 불지 휘양 복건 풍치 천의 가진 금침 베기모의 쌍원앙 슈눛
 키며 오사 모사 각디 흥비의 학 늦키와 초상난 집 원삼 제복(祭服) 질삼 선주 궁초 공단 수
 주 남능 갑사 운문 토주 분주 명주 싱초 통경이며 북포 황저포 춘포 문포 제추리며 삼베 빅
 저 극상 세목 싸기와 혼장디사(婚葬大事) 음식 숙정 가진 중계하기 빅산 과절<상1ㄴ>

한자어 역주한 내용을 비교하면 한자어를 상당한 수로 사용한 것은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완판
 본에서는 “야외의 전토 업고 낭서의 노복 업서 가련한 어진 광씨부인 몸을 바려 품을 팔러 싹
 반어질 관디 도포 형의 창 의 징념이며 섭슈 쾌자 중추막과 남녀 의복 잔누비질 상침질 외올쓰
 기 췌쌈 고두 누비 속올이기 세답 빨니 푸시 마전 하절 의복 한삼 고의 망건 꾸미기 갓끈 접
 기 비자 단초 토슈 보선 형전 줌치 싹지 단임 허릿기 양낭 불지 휘양 복건 풍치 천의 가진 금
 침 베기모의 쌍원앙 슈눛키며 오사 모사 각디 흥비의 학 늦키와 초상난 집 원삼 제복 질삼 선
 주 궁초 공단 수주 남능 갑사 운문 토주 분주 명주 싱초 통경이며 북포 황저포 춘포 문포 제
 추리며”처럼 한문 투의 식으로 서술한 경향이 있다. 국어의 통사 구조에 따른 문장 표현은 경
 판본보다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은 면을 보인다.

2.3 대화 문체의 차이

(5) <경판본: 7ㄱ-ㄴ>

(ㄱ) 저즈음기 빅미 삼빅 석이 동니 장즈의 거시 아니라 여쭙여쭙 상고의게 몸을 팔녀이러더
 니 이제 다리라 왔는지라 당초 쇼네 브로 고치 못허든 그 스이 부친 심스를 스로실가
 녀며허미러니 금일은 하직을 당허와 천고영결이오미 진정을 고허옵느니 슬프다 우리 부
 녀의 정니는 남의게서 십 비느 더오미 잇는지라 부친이 어미 업는 쇼녀를 양육허심과
 쇼네 겨우 세상을 알미 부친이 안페허시고 가게 영낙허여 능히 구복을 치오지 못허오니
 우리 부녀 갓튼 인성이 업는지라<7ㄱ>

(ㄴ) 가련홀스 닌 쫓이여 삼 세의 어미를 일코 혈혈한 강보치익 어미를 부르지저 울 제 이

병인의 목숨이 엇더히리오므는 목숨이 지완하여 독지 아니하는 등 더욱 안페흐 병신이
 되여 지척을 불분하고 가산이 탕진하여 하로 한 석을 어더먹지 못히며 녀의 한서를 헤
 지 아니하고 비러다가 날노 하여곰 잠시도 비골프지 아니케 하더니 이제 아버를 위하여
 이럿듯 되여스니 네 정성은 지극하느 닌 엇지 슬기를 보라리오 유 〃 창탄아 가정이 빈곤
 커든 눈이느 성하거느 눈을 보지 못하거든 가산이 유여하거느 제 엇지 익을 그되도록
 슬오며 독을 곳의 노갓스리오 슬푸다 죽식이 병드러 독어도 참혹하거든 나는 장병의
 성흔 죽식을 목전의 비명원스케 하니 가스 턴디신기 외오녀기지 아니하스 눈이 썩인들
 엇지 홀노 스라 이 설움을 참고 견디리오<14>

(6) <완판본>

- (ㄱ) 꺾각질 두세 번의 숨이 덜겨 지니 심봉사 그제야 죽은 줄 알고 익고 익고 마누릭 춤으
 로 죽언난가 이게 웬일이고 〓삼을 쌍쌍 두다리며 머리 탕탕 부드치며 너리 궁글 치궁
 글며 엇디지며 잡바지며 발구르며 고통하며 여보 마누릭 그딴 살고 너가 죽으면 저 죽
 식을 키울 거슬 너가 살고 그딴 죽어 저 자식 엇지 키잔 말고 익고 익고 모진 목숨 사
 죽 하니 무엇 먹고 살며 흠과 죽자 흔들 어린 자식 엇지 홀 〓 익고 동지 섯달 찬 바람
 의 무엇 입퍼 키여 닌며 달은 지고 침 〓 혼 빈 방 안의서 젓 먹자 우난 소리 뉘 젓 먹여
 살여닐가 마오 〓오 제발 덕분에 죽지 마오 평심 정흔 뜻시 시직동혈하자더니<상8>
- (ㄴ) 우리 마누릭 예 왓소 무려도 보고 어린아히 품의 품고 너의 어만이 무상하다 너를 두고
 죽엇제 오날은 것슬 어더먹어쁘나 닌일은 뉘 집의 가 젓슬 어더먹여 올가 익고 익고 야
 속하고 무상한 귀신 우리 마누릭를 잡아갓구나 이러 처로 익통하다가 풀쳐 심각하되 사
 자는 불가부성이라 하릴업건이와 이 자식이나 잘 키여너리라 하고 어린아히 잇난 집을
 차례로 무려 동영것슬 어더먹일 제기 눈어두어 보든 못하고 귀는 발가 눈치로 간음하고
 안자다가 마참 날도들 적의 우물가의 들닌난 소리 얼는 듯고 나서면서 여보시요 마누릭
 님<상10>

위 예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완판본은 경판본보다 대화의 비중이 높다. 완판본은 인
 물들의 대화가 길고 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사건을 진술하고 있다. 등장인물들의 대화를
 보면 감정이 풍부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경판본 자료에서는 등장인물 간에
 대화는 주로 핵심내용만 밝히고 구어체 표현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완판본 자료 대화에서는 감탄 표현을 다수 확인 할 수 있다. 완판본 텍스트에서 ‘이고’라는 감
 탄 표현은 41회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텍스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경판본에 비하면
 완판본 등장인물 사이의 감정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어 독자로 하여금 이야기에 더욱 몰입할
 수 있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표기와 음운 관련 양상

3.1 분철, 중철, 연철의 양상

이광호(1987:96)에 따르면,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래, 국어 표기법의 역사는 다음과 같다.

- (7) a. 음소적 표기법: 15세기 중엽~15세기 말
 b. 혼란된 표기법(국어표기법의 표류): 16세기~19세기

c. 형태음소적 표기법: 20세기-현재⁷⁾

국어 표기법의 역사를 살펴보면 15세기부터 연철 표기가 빈번히 나타났고 16세기 이후부터 분철 표기와 중철 표기가 자주 등장하였다. 또한, 17세기 이후는 분철 표기 범위 안에서 ‘ㄷ’ 종성이 ‘ㅅ’으로 표기한 것으로 확산되었다(지춘수 1983:364). 이런 상황에서 이 두 판본에 나타난 분철, 중철, 연철의 양상이 어떠한지 확인해 보자.

(8) 분철

(ㄱ) 경판본: 현이니<1ㄱ>, 슝으로<2ㄴ>, , 말숨으로<3ㄱ>, 슝이<3ㄴ>, 가슴이<5ㄴ>, 속이지<5ㄴ>, 쌀이로다<4ㄱ> 등

(ㄴ) 완판본: 들인다<상3ㄱ>, 털이나고<상5ㄱ> 등

(9) 연철

(ㄱ) 경판본: 이스되<1ㄱ>, 비러다가<1ㄴ>, 어더<1ㄴ>, 도라오지<1ㄴ>, 도라가니라<2ㄴ>, 비러<2ㄴ>, 느저거니와<2ㄴ>, 더드며<3ㄱ>, 되여스니<3ㄱ>, 이슬지라<3ㄱ>, 이스리니<3ㄱ>, 죠으더니<3ㄴ>, 썩다르니<4ㄱ>, 이스니<4ㄱ>, 드러보니<4ㄱ>, 보으스리오<4ㄴ>, 파라<5ㄱ>, 무어시<5ㄱ>, 드러가<5ㄱ>, 흐여스니<5ㄴ>, 스라<5ㄴ> 등

(ㄴ) 완판본: 자자터니<상1ㄱ>, 무어스니<상1ㄱ>, 노지안코<상2ㄱ>, 만드러<상2ㄱ>, 나어<상2ㄴ>, 거스니<상2ㄴ>, 너부신<상2ㄴ>, 두고시푼<상3ㄱ>, 어드니<상3ㄱ>, 썩다르니<상3ㄴ>, 밧쳐노코<상4ㄱ>, 뉘여노코<상4ㄱ>, 무어시요<상4ㄱ>, 만쳐보니<상4ㄱ>, 밧쳐<상4ㄴ> 등

(3) 중철

(ㄱ) 경판본: 갓튼<4ㄱ>, 묵근<4ㄱ>, 술톨<4ㄴ>, 헛튼<4ㄴ>, 없스밋<5ㄱ>, 잇스리오<5ㄴ> 등

7) 한자음 표기법을 제외하고 음소적 표기법은 음소를 충실히 반영하려는 제1차적 원리에 의하여 ‘없-’ (無)의 활용형은 ‘업스며·업스니·업거늘·업거니’ 등으로, ‘무릎’(膝)의 국용형은 ‘무루페·무루피· 무릅꾸러·무릅과’ 등으로 표기되었다. 제이차적 원리는 ‘음절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바를’(海)의 경우, ‘바르리·바르톨·바르래’, ‘받-’(奉)의 경우, ‘바드며·바돌씨라·바도니’ 등으로 표기하여 각 음절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표기된 것이었다. 이와 같은 15세기의 표기법은 음소적 표기와 음절중심의 표기를 큰 원칙으로 삼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음소적 표기법에 반하여 현대국어의 표기법은 형태음소적 원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곧 15세기의 ‘없-무릎·바를·받-’ 등은 현대국어에서 어떤 경우이든지 항상 기저형(underlying form)을 밝혀 표기하는 정서법을 택하였다. (a), (c)와 같은 서로 내조적인 표기법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일률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는 없을지 모르나 보다 ‘과학적’이라는 점에 서는 (a)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a)가 물리적으로 실현되는 음성현상(언어현상)을 비교적 충실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표기법은 (a)가 연철(連綴) 표기임에 반하여 (2b)는 분철(分綴)표기의 양상을 보여 서로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 (ㄴ) 완판본: 잇스되<상1ㄱ>, 팔러<상1ㄴ>, 빗슬<상2ㄱ>, 바다들러<상2ㄱ>, 밧든다시<상2ㄱ>, 비곱풀가<상2ㄱ>, 일리<상2ㄴ>, 젓틱<상3ㄴ>, 갓타지라<상3ㄴ>, 쫓밧기<상4ㄱ>, 언의<상4ㄴ> 등

이상으로 <심청전> 경판 24장본과 완판 71장본의 앞 5장에 나타난 연철, 중철, 분철 양상이 각각 정리하였다. 위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세 가지 양상이 두루 나타나고 경판본뿐 만 아니라 완판본까지 연철, 분철, 중철 양상이 일반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개별적으로 표기 방법의 차이가 종종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경판본과 완판본은 크게 차이가 없다. 하지만 하나 더 언급해야 할 점은, 전체적인 텍스트를 비교하여 보면, 완판본 자료는 연철 표기가 더 보편적으로 퍼져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특징이 보인다. 이를 통해 지방에서 간행된 판본이 서울에서 간행된 판본에 비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추측 할 수 있다.

3.2 합용 병서(경음화)

중세 국어의 어두 자음군의 완전히 자취를 감춘 18세기에는 경음을 표기하기 위해 ‘ㅅ’계 합용 병서와 ‘ㄴ’계 합용 병서가 자의적으로 선택되었지만 19세기부터는 ‘ㄴ’계 합용 병서가 거의 출현하지 않고 ‘ㅅ’계 합용 병서로 통일되는 경향이 강해졌다(정승철 1997:14). 이처럼 경음 표기를 ‘ㅅ’계 합용 병서로 통일시켜 표기하는 경향은 이 두 문헌에 어떤 양상이 반영하는지 살펴보겠다.

(11)

- (ㄱ) 경판본: 쏘흔<1ㄴ>, 쏘<1ㄴ>, 섹저<2ㄱ>, 쏘<2ㄱ>, 쓰이리이다<2ㄱ>, 한씩<2ㄴ>, 씨다르니<4ㄱ>, 이씩<4ㄱ>, 썬려<4ㄴ>, 씨드틸<6ㄱ>, 쏘흔여스리오<7ㄴ>, 쏘치지<8ㄴ>, 이씩<9ㄴ>, 쏘<9ㄴ>, 썬여드니<10ㄱ>, 씨러지며<10ㄱ>, 씨보니<10ㄱ>, 씨를<11ㄱ>, 씨고<11ㄴ>, 쏘칠지라<13ㄱ>, 씨를<15ㄱ>, 씨의도<15ㄱ> 등

- (ㄴ) 완판본: 쏘쌈<상 1ㄴ>, 쏘늑<상 1ㄴ>, 꾸미<상 1ㄴ>, 쏘맛추워<상 2ㄴ>, 쏘케<상 2ㄴ>, 쏘를<상 3ㄱ>, 쏘거질가<상 3ㄱ>, 쏘이웁더니<상 3ㄴ>, 씨다르니<상 3ㄴ>, 씨여<상 3ㄴ>, 쏘이<상 3ㄴ>, 섹지듯<상 4ㄱ>, 쏘어안저<상 4ㄱ>, 쏘밧기<상 4ㄱ>, 쏘흔<상 5ㄴ>, 노음씨기<상 6ㄱ>, 쏘쳐진지<상 6ㄱ>, 쏘저<상 6ㄱ>, 너어쓰스니<상 6ㄴ>, 단여쓰니<상 6ㄴ>, 씨던<상 7ㄱ>, 어쓰니<상 7ㄴ>, 잡어편<상 7ㄴ>, 쏘<상 8ㄱ>, 쏘려<상 8ㄴ>, 쏘도<상 8ㄴ>, 쏘이<상 8ㄴ> 등

위와 제시한 (11)의 예는 어두 합용 병서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이 문헌에서는 국어사 자료들을 보면, 물론 ‘ㅅ’계 합용 병서가 더 보편적이지만 ‘ㄴ’계 합용 병서도 나타난 것으로 확인된다. 근대 국어에서 ‘ㅅ’계 합용 병서는 각자 병서와 혼용되는 경향도 종종 있지만 이 두 텍스트에서는 각자 병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리고 어두 경음화 현상뿐 아니라 여기서 아중 경음화에 해당하는 예가 적지 않다. 이 들은 근대 국어 표기법에 부합한 어간 말음 ‘ㄴ, ㄹ’에 의한 경음화 현상이나 관형형 어미 뒤에서 평음의 경음화 현상에 부합한 경우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판본과 완판본에서 관찰된 합용 병서 현상들은 대체로 일반적인 근대 국어 표기법과 크게 차이가 없다. 또는 두 자료 간에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3 조사 관련 양상

3.3.1. 주격 조사

(12)

(ㄱ) 경판본:

ㄱ. 은(은×): 해당 예 미제시.

ㄴ. 는(는×): 해당 예 미제시.

(ㄴ) 완판본

ㄱ. 은(은×): (모음 뒤)진시유람거휴직은<하16ㄱ>

ㄴ. 는, 난(는×): 나는<상2ㄴ>, 형세는<상3ㄱ>, 첫치는<상4ㄱ>, 식는<상7ㄴ>, 머리는<상11ㄴ>, 심청이는<11ㄴ>, 아버지는<12ㄱ>, 비는<15ㄱ> 등/ 몸의난<상3ㄱ>, 이난<상13ㄱ>, 우리난<상21ㄱ>, 이제난<22ㄱ>, 아버지난<26ㄴ>, 너히난<상29ㄱ> 등

ㄷ. 언: 음운언<상7ㄴ>, 글언<상28ㄴ>, 양언<하6ㄴ> (해당할 예가 3개임)

ㄹ. 년: 해당 예가 없음.

(1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경판본에서는 주격 조사가 ‘은’, ‘는’의 쓰임만 보이고 완판본에 비해 용법이 간단하다. 최전승(1985:15)에 따르면 알 수 있듯이 19세기 전라 방언 자료에서 절대적 ‘은, 는’의 변이형인 ‘언, 년’과 대비된 현상이 있다. 더불어 이 ‘년’ 형은 개음절 체언이 선행되는 경우에는 수의적으로 ‘난’으로 교체될 수 있다. 따라서, 완판 71장본 <심청전>에서는 ‘은’, ‘는’, ‘난’, ‘언’의 네 가지 형태가 쓰인 사실을 관찰된다. ‘는’과 ‘난’ 형은 교체되는 형태로서 혼용되고 있으며 이 문헌에서는 ‘년’형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3.3.2. 대격 조사

(13)

(ㄱ) 경판본:

ㄱ. 을(을×): 해당 예 미제시.

ㄴ. 를/를: 교비를<24ㄴ>(해당할 예가 1개임)/녀옴를<1ㄱ>, 즈를<1ㄱ>, 안질를<1ㄴ>, 막되를<1ㄴ>, 석비를<1ㄴ>, 길를<1ㄴ>, 시뉘를<2ㄱ>, 노야를<2ㄱ>, 되시뉘를<2ㄱ>, 부처를<2ㄴ> 등

ㄷ. 물: 아니물<1ㄱ>, 두리물<1ㄴ>, 뵈오물<5ㄱ>, 슬프물<9ㄱ>, 반기물<13ㄴ> 등

(ㄴ) 완판본:

ㄱ. 을(을×): (자음 뒤)해당 예 미제시/(모음 뒤)녀을<상20ㄱ>, 비을<하12ㄴ>, 존망여부를<하15ㄱ>, 꽃봉이를<하17ㄴ>, 도선주을<하18ㄱ> 등

ㄴ. 를(를×): (모음 뒤)해당 예 미제시/(자음 뒤)눈를<상26ㄱ> (해당하는 예가 1개임)

ㄷ. 일: 해당 예가 없음.

ㄹ. 렇: 해당 예가 없음.

또한, (1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경판본에서 대격 조사는 ‘을’, ‘를’, ‘를’, ‘물’의 네 가지 형태가 쓰이며 ‘을’만 쓰이지 않는다. 이곳에서는 ‘교비를’ 하나만 ‘를’으로 쓰인 예가 보인다.

그리고 ‘믈’ 같은 경우는 예시들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것은 ‘ㅁ’ 발음 어간에 평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결합할 때 ‘ㅁ’과 평음이 ‘믈’으로 축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완판본에서는 ‘을’, ‘를’ 두 가지 형태만 쓰인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서 눈에 띄는 만한 것은 ‘너을’, ‘비을’과 같이 모음 뒤에서 ‘을’이 쓰인 것이 나타나며, ‘눈를’처럼 자음 뒤에서 ‘를’이 쓰인 예가 있는 것이다.

최전승(1985:14)에 따르면, 19세기 전라방언 자료에서 ‘을, 를’과 그 변이형 ‘얼, 려’이 쓰이고 있으나, ‘을’이 개음절어간에 체언에도 연결되는 예들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이 문헌에서는 의외로 이런 전라 방언에 드러난 특성을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위에 (13)에서 제시한 ‘언, 년’ 현상과 비교하면, 이런 전라 방언에 나타난 특기한 표기한 방식은 이준환(2021:71)에서는 설명하였다. ‘얼/려’, ‘언/년’의 관계는 음운론적 문제로 모음 체계상 인접해 있는 /ㅡ/와 /ㅣ/의 조음상의 유사성으로 인한 음성적 실현 양상을 표기에 반영한 결과로 해석한다.

3.3.3. 처격 조사

(14)

(ㄱ) 경판본:

ㄱ. 예: 황금교의예<11ㄴ>, 교의예<20ㄱ> (해당하는 예가 2개임)

ㄴ. 예: 해당 예가 없음.

ㄷ. 의: 굴형의<2ㄱ>, 촌가의<2ㄱ>, 권선의<2ㄴ>, 집의<2ㄴ>, 곳의<3ㄴ>, 디방의<4ㄱ>, 일세의<4ㄴ>, 스디의<5ㄱ>, 썩의<5ㄴ> 등

(ㄴ) 완판본:

ㄱ. 예: 금세예<하18ㄱ> (해당하는 예가 1개임)

ㄴ. 예: 빅이예<상12ㄴ>, 오기예<상20ㄱ>, 빅머리예<상30ㄱ>, 세예<하5ㄴ> (해당하는 예가 4개임)

ㄷ. 의: 야외의<상1ㄴ>, 세상의<상2ㄱ>, 이상의<상2ㄱ>, 실하의<상2ㄴ>, 지하의<상2ㄴ>, 집의<상3ㄱ>, 손의<상3ㄴ>, 회중의<상3ㄴ> 등

(14)에서 볼 수 있듯이 경판본에서 처격 조사는 ‘예’와 ‘의’의 두 가지 형태가 쓰이며 ‘예’가 안 보인다. 반면에 완판본에서는 ‘예’, ‘예’, ‘의’의 세 가지 형태가 쓰인다. 두 문헌에서 모두 처격 조사 ‘의’로 다수 일반적으로 쓰이지만 세밀한 차이는 완판본에서는 특기하게 ‘예’로 쓰인 예가 몇 개 보인다. 최전승(2000: 20)에 따르면 19세기 후기 전라방언 자료에서 ‘이’와 이중모음의 부름 -y의 부분적인 흔적을 유지하고 있는 체언 어간 말음에 연결되는 처소격 조사는 ‘예’로 사용되었다. ‘예’의 음운론적인 변이형으로서 ‘예’의 출현 조건은 15세기 국어의 단계로 소급되는 것인데, 19세기 후기의 이전 단계의 전라방언에서도 역시 그러한 음성 조건은 동일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예’는 경판본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최전승(2000: 23)에서는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에서 대표적인 처소격 형태 ‘의’는 ‘의/으/이’와 같은 표기상의 교체 또는 혼란이 있다고 한다. 이 시기에 ‘의’가 음소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실제의 음가는 ‘으’ 또는 ‘이’의 단모음화를 수행하였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의’는 보수적인 것이고, ‘으’와 ‘이’는 현실의 발음이 우연히 등장하게 되었다고 점을 밝힌다. 이런 상황에서 <심청전>에서는 처격형 ‘으’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현대 국어에서 ‘으’로 쓰인 지향점

처소격 조사는 이 문헌에서 ‘으로’로 쓰인 것은 일반적이고 ‘이로’로 쓰인 예가 몇 개 관찰된다. 이와 관련하여 완판본 <구운몽>에서는 처격 조사와 속격 조사는 <심청전>과 동일하게 ‘의’가 절대 다수를 보인다. 하지만 <구운몽>에서는 ‘으’가 유독 대화체에서 많이 등장한다(이준환2021:72). 따라서 비슷한 시기의 완판본 자료로서도 불구하고 각각 나름대로 특기한 표기 방법이 있다는 점을 존재하다.

3.3.4. 속격 조사

(15)

(ㄱ) 경판본:

ㄱ. 의: 그딴의<2ㄱ>, 부친의<2ㄴ>, 장군의<2ㄴ>, 청파의<3ㄱ>, 낭군의<5ㄱ>, 조모의<6ㄱ> 등

ㄴ. 의: 해당 예가 없음.

(ㄴ) 완판본:

ㄱ. 의: 임사의<상1ㄱ>, 일이의<상1ㄱ>, 단포자의<상1ㄴ>, 군자의<2ㄴ>, 가군의<3ㄱ>, 동방삭의<5ㄱ> 등

ㄴ. 으: 양반으<1ㄱ> (해당하는 예가 1개임)

ㄴ. 의: 해당 예가 없음

(1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경판본에서 속격 조사는 ‘의’만 하나로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완판본에서는 ‘양반으’ 하나 제외하여 마찬가지로 ‘의’ 하나로 일반적인 현상이 관찰된다. 물론 위에 언급했듯이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에서 ‘의’는 ‘의/으/이’와 같은 표기상의 교체 또는 혼란이 있지만 예시 하나로 이것은 표기상의 교체인지 또는 문헌 필사의 오기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면이 있다.

3.3.5. 여격 조사

(16)

(ㄱ) 경판본:

ㄱ. 의계: 공의계<1ㄱ>, 장군의계<5ㄱ>, 남의계<5ㄴ>, 상고의계<6ㄱ>, 남녀의계<7ㄴ>, 부인의계<19ㄴ>, 공경의계<24ㄱ> (해당하는 예가 7개임)

ㄴ. 기: 부처기<3ㄴ>, 룡신기<4ㄴ>, 부친기<6ㄴ>, 옥데기<12ㄱ>, 텃디기<18ㄴ> (해당하는 예가 5개임)

(ㄴ) 완판본

ㄱ. 의계/의계: 해당 예 미제시/천자의계<하36ㄱ>(해당하는 예가 1개임)

ㄴ. 계: 부인계<상3ㄴ>, 상제계<상3ㄴ>, 부친계<상21ㄴ>, 노부인계<상22ㄱ>, 천자계<하16ㄴ> 등

ㄴ. 계읍서: 승상부인계읍서<상15ㄴ>, 옥황상제계읍서<하14ㄱ>, 상제계읍서<하17ㄴ>, 관사주계읍서<하24ㄴ> (해당하는 예가 4개임)

또한, (16)에서 볼 수 있듯이 경판본에서는 여격 조사로 쓰인 것은 ‘의계’, ‘의’의 두 형태가 보인다. 반면에 완판본에서는 ‘의계/의계’, ‘계’, ‘게읍서’의 세 가지 형태가 확인된다. 이 중에 ‘의계’는 하나만 보인다. 특히 완판본에서는 경판본에 전혀 없는 ‘게읍서’가 4번이 관찰되지만 이것은 다른 국어사 자료에서도 ‘이 엇더흔고 비장 왈 그 말이 요망흔니 스또게읍서 갓치 슈작히시면 청문에 의심을 흘 계교려라<정진사전96>’, ‘불헝흔와 부친을 조별 후에 모친게읍서 즈녀를 다리시고 사읍더니 종놈들에게 불의지<김학공전51>’, ‘원수 말게 내려 룡안을 뵈온디 항상게읍서 원수의 손을 잡으시고<1932신유복전_구활자본70>’ 등과 같은 사용 양상이 보여서 <심청전>에서만 특기한 쓰임으로 보기 어렵다.

3.4 ‘ㄹㄹ’ 관련 표기

이 절에서는 위에 언급한 내용이 이외에 완판본71장본<심청전> 텍스트에서 어떤 지역적인 특징이 반영하고 있는 표기가 있는지와 이 텍스트에서만 확인 가능한 표기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7)

(ㄱ) ‘ㄹㄹ’표기: 말리[말이]<상4ㄴ>, 달리[달이]<상15ㄱ>, 얼골리[얼골이]<상24ㄱ> 등

(ㄴ) ‘ㄹㄴ’표기: 흘너가니[흘러가기]<상7ㄴ>, 빨너흔는[빨래하는]<상10ㄴ>, 둘너쓰고[둘러쓰고]<상12ㄱ>, 밥달나는[밥달라는]<상6ㄱ>, 등

(ㄷ) ‘ㄹㅇ’표기: 일이[인리]<상1ㄱ> 살여닐기[살려낼기]<상8ㄱ>, 팔여[팔려]<상27ㄴ>, 몸이썰여[몸이떨려]<상25ㄱ> 등

(17)에서 볼 수 있듯이 ‘ㄹㅇ’ 표기를 ‘ㄹㄹ’으로 표기한 예가 있다. 이것은 어간말 자음을 어간에 고정시켜 놓고 뒤에 모음이 올 때 그 자음을 모음에 한번 더 적는 중철 표기로 해석할 수 있다. 이기문(1972:22)에 따르면 이런 현상은 15세기부터 나오는 현상인데 15세기 문헌에서는 ‘놀애, 물애, 놀애, 술위’와 같이 ‘ㄹㅇ’로 표기되었으며, 이것들은 17세기에 와서는 ‘ㄹㅇ>ㄹㄹ’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전승(1986:51)에서는 (21)에 제시한 바와 같이 17세기 국어의 반사형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최전승(1986:52~54)에서 상세히 기록한 바와 같이 20세기 초엽의 발음습관이 ‘ㄹㄹ’은 16세기 국어 이후 20세기에까지 지속되어 있는 셈인데,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에서 이와 같은 발음상의 특징은 위에 예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다른 중부 방언에 비해서 두드러졌던 것 같다.

‘ㄹㄴ’ 표기는 18세기 국어 표기법의 특징인데,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에서는 형태소의 내부와 곡용할 때보다 활용시의 경우에 더욱 보편화되어 있다. 그리고 ‘ㄹㅇ’은 여기서 등장하는 ‘ㄹㅇ’ 표기는 전부 다 비어두음절의 두음 ‘ㄹ’을 선행음절의 말음으로 올리어 표기된 방식인 것으로 관찰된다. 이와 관련해서 최전승(1986:55)에서는 이것은 전라방언 자료에서만 존재하는 표기 방식이 아니라 근대국어 초기부터 등장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3.5 특이한 음운적인 현상

(18) t-구개음화 관련 현상:

(ㄱ) 유천지(別有天地)<상8ㄴ>, 천지미물(天地美物)<상10ㄴ>, 김척<상13ㄱ>, 모친갓치<상10ㄴ>, 질게 쉬고[길게 쉬고]<상5ㄴ>, 황천질의[황천길에]<상6ㄴ>

(ㄴ) 과도교정: 길기더니[즐기더니]<상5ㄱ>, 뭇게 두고[맡겨 두고]<상6ㄴ>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에서 t-구개음화 현상의 양상은 고유어의 비어두음절과 어두음절 또는 한자어를 구별 없이 보편적으로 균질화 되어 있는 현상이다(최전승1986:288 참고). (18)에서 볼 수 있듯이 고유어와 한자어와 상관없이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난 것을 확인된다. 하지만 경판본에서는 ‘천(天)’과 ‘지(地)’는 모두 구개음화 거치지 않으며 ‘턴’과 ‘디’로 적혀 있다.

‘짐치’는 현대 국어 ‘김치’의 옛말인 ‘딴치’인데 16세기 문헌에서부터 나타난다. 한자어 ‘침채(沈菜)’에서 온 것으로 16세기 이전의 한자음을 반영한 것이다. 근대 국어 시기에 ‘ㄷ’이 /i/나 /y/반모음 앞에서 ‘ㅈ’으로 변하는 ‘ㄷ’ 구개음화로 ‘짐치’가 되었다. 그런데, 현대 국어까지 우리말샘에서 기록한 것처럼 전라 방언형 ‘김채’와 ‘짐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방언형인지 아닌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갓치’는 ‘갈’의 어간말음은 부사형 어미 ‘이’와 결합하여 구개음화된 ‘ㅈ’로 나타난 중철 표기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판본에서도 적지 않게 같은 방식으로 표기된 것이 보여서 이것은 방언형 표기인지 다른 완판본 자료도 정밀하게 분석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18ㄴ)에서 특기한 예시로 ‘뭇게 두고’가 있는데 이것은 ‘맡기다’의 옛말인 ‘맛디다’가 근대국어 시기에 ‘ㄷ, ㅌ’이 /i/나 /y/반모음 앞에서 ‘ㅈ, ㅊ’으로 변하는 구개음화로 ‘맛지다’ 형태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최전승(1986:293)에 따르면, 19세기 후기 전라방언형 ‘맛기다’가 i-umlaut를 거친 ‘뭇기다’형이 보편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이것은 과도교정이 실현된 이후의 현상일 것으로 보인다.

(19) 마찰음화 현상:

(ㄱ) ‘ㄷ, ㅌ’→‘ㅈ’: 받든다시[받들듯이]<상2ㄱ>, 뚫고[뜯고]<상6ㄱ>, 뚫건마는 [뜯건마는]<상7ㄴ>, 갓친[갈힌]<상12ㄱ>, 밋기[땃기]<상15ㄱ>, 못난[묻는]<상17ㄴ>, 어미갓치[어미갈이]<상27ㄴ> 등

(ㄴ) ‘ㅈ, ㅊ’→‘ㅅ’: 젓[쫓]<상6ㄱ>, 식벽빔[식벽뵈]<상15ㄱ>, 좇자[쫓자]<상16ㄱ> 등

위에 (2)에서 제시한 것처럼 완판본에서는 어간말음 자음 ‘ㄷ, ㅌ, ㅈ, ㅊ’이 마찰음 /ㅅ/으로 변화하는 예시가 종종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곽충구(1984)에서는 상세히 설명하였다. 이런 현상은 각 지역 방언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후기 중세국어부터 이미 멀리 퍼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⁸⁾. 그리고 경판본에서도 빈번히 등장하였음을 확인된다.

8) 국어음운사에서 이미 일반화된 사실이지만 ‘ㅈ’은 15세기 국어에서 齒槽破擦音 [ts]이었다. 이 자음과 같은 위치의 자음 이 점차 ‘이’ 모음 앞에서 구개자음을 變異音으로 갖게 되면서 문제는 발단 된 것이다. ‘ㅈ’이 [ts]가 아닌 [tʃ]로 資質變更이 이루어지면서 口蓋音化라는 개신규칙이 國語文法에 새로이 添加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폐쇄음 [t]가 [tʃ]가 되면서 [마찰성]을 얻게 된 것이고 이어서 ‘ㅈ’이 이 위치에서 간극동화에 의하여 마찰음화를 겪게 된다. 한편, /ㄷ/과 /ㅈ/, /ㅅ/이 대립적 균형을 잃게 되면서 /ㅈ/이 硬口蓋音化하면서 /ㄷ/은 비로소, /ㅅ/과 [폐쇄]와 [마찰]이라는 대립쌍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에 /ㄷ/이 역시 간극도가 큰 모음을 만나게 되면 磨擦音化가 이루어져 /ㅅ/으로 되는데 이러한 결과로, 체언어간말의 /ㄷ/은 /ㅅ/으로 변화하여 /낫/과 같은 어사들은 /낫/으로 어간의 재구조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다만, /곧/, /뵈/, /곧/ 만큼은 19세기 중엽이후에야 /뚫/, /뵈/, /긔/으로 變化하여 여타의 어사들과 그 변화시기가 달랐음이 드러났다. 변화시기가 다른 이유는

- (20) /ㅈ/→/ㅊ/ : 침형[침향]<상2ㄱ>, 춘추시형[춘추시향(春秋時享)]<상2ㄱ>, 숙형이가[숙향이가]<상5ㄱ>, 형햏야[향햏야]<상10ㄴ>

(20)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후음 ‘ㅎ’과 /ㅈ/의 연결은 모두 /ya/→/ε/로 변화를 거쳐서 이 자료에서 생산적으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 최전승(1986:173~175)에서 정밀하게 제시된 바가 있다. /ya/→/ye/→/ε/를 가정하고 이 시기의 전라 방언에서 /ye/와 /ε/는 자음 뒤에서 중화되어 /ε/로 통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⁹⁾. 그리고 이 문헌뿐만 아니라 <구운몽>, <유충열전>, <이대봉전> 등 다른 완판본 자료에서도 이 현상이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경판본<심청전>에서는 이 현상이 전혀 관찰되지 않는다.

- (21) /ㅎ/첨가 혹은 탈락: 고히<5ㄱ>, 고힌<6ㄱ>, 구차이<13ㄴ>, 낙노와셔<19ㄱ>, 전이<16ㄱ>

(21)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문헌에서는 ‘ㅎ’ 첨가 혹은 탈락한 현상이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최전승(1986:55~57)에서 상세히 논한 바가 있다. ‘ㅎ’중성체언과 어간에 ‘ㅎ’을 갖고 이는 체언과 용언들의 경우에 보편적인 음운론적 과정에 의하여 이 ‘ㅎ’은 점진적으로 탈락되어 있거나 ‘ㅎ’탈락이 수행되는 동일한 음성환경에서 어원적으로 ‘ㅎ’이 없는 어휘에 이 자음이 첨가된 현상이다. 실제로 전라 방언에서 ‘ㅎ’은 발음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런 현상은 전라 방언만 나타난 현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¹⁰⁾. 또한, 위에 (21)에서 제시한 예 중에 특이한 예

단순한 자료상의 제약이나 개인차, 방언 차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有氣子音 /ㅈ, ㅊ/의 變化는 19세기 中葉 이후에 목격된다. /ㅈ/이 파찰음이기 때문에 /ㅊ/보다 먼저 마찰음화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ㅊ/의 경우는 구개음화 규칙에 의하여 주격어미 앞에서 ‘ㅈ’으로 교체되고 또 paradigmatic leveling에 의하여 對格에까지 擴大된 다음, 주격과 대격앞에서 다시금 마찰음화 규칙에 의거 /ㅈ/으로 교체되기에 이른 것이다. 中部方言은 이러한 마찰음화 현상에 대하여 示唆하는 바가 크다. 요컨대, 方言的 差異가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中部方言圈에서는 체언어간말자음 /ㄷ, ㅈ, ㅊ/은 이미 마찰음화가 완성되어 재구조화의 단계에 놓여있고, /ㅊ/의 경우는 아직까지도 재구조화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곽충구1984:20~21).

- 9) ‘여’의 단모음화가 ya>ye>e의 과정을 거치는 것과 같이, ‘야’의 경우에 있어서도 ya>ye>e를 가정할 수 있다. 여기서 ya>e의 과정은 중간 단계로서 ‘예’[ye]를 확인할 수 있으나 ya>ε서 추정된 중간 단계로서 ‘애’[yε]는 표기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ε]로 직접 반영되는 사실이 주목된다. 이 시기의 방언에서 /ye/와 /ε/는 자음 뒤에서 中和되어 일찌기 /ε/로 통합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ya>e와 ya>ε의 단모음화에서 추정된 이중모음 /ye/와 /ye/는 어디에서 유래하는 것인가. 이들은 삼중모음이 이 방언사의 어느 시기에 존립되었을 때 각각 ‘예’[yay], ‘애’[yay]로 소급되어진다. ‘예, 애’의 단모음화와 더불어 이 삼중모음 ‘예, 애’는 각각 yay→ye, yay→ye의 과정을 수행하여 이중모음으로 전환되었다(최전승1986:174~175).
- 10) 19세기 후기 중앙어에 바탕을 둔 Gale(1897:380)에서도 역사적으로 ‘ㅈ’을 갖고 있던 ‘碎’의 어휘를 ‘바흐다: 바하, 바흔’과 같은 표제어로 등록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ㅎ’의 첨가형은 20세기 초반의 사전에도 확인된다. 바다(바하, 바흔), 「부수다」와 같다(朝, 348). 그리고 평북 방언에는 일정한 어휘에 따라서 어두음절에 ‘ㅎ’이 첨가된 예들이 보인다. 즉, 「한글」제 5 권 7호(1940:29)에 田蒙秀氏가 소개한 ‘平北俚諺’ 가운데, ‘큰 소 힘구 씩애지 텅갠테’라는 예문에 나오는 ‘허구’와 같은 표기는 ‘잃다’(失)의 어두에 ‘ㅎ’이 첨가된 발음으로 보인다. 1896년부터 간행된 「독립신문」에는 지역 지방의 색채를 띤 방언형들이 간혹 발견되는데, 그 가운데, ‘ㅎ’의 첨가와 관련하여 ‘교육’(敎育)과 같은 표기가 주목된다. 인문교육(同, 1권 11호), 교육을 잘한야, 교육을 근실히(1권 12호), 우리나라 교육이, 교육상에(1권 14호), 교육을 식히랴고(同, 1권 16호), 등등. 이 형태는 咸南 定平의 방언(「한글」제 5권 1호, p. 18)에서 확인된다. 아울러 이 방언에서 ‘교육’形뿐 아니라 ‘너히, 너이, 녀(四), 두흘, 두울(二)(「한글」 5. 1, p. 22), 서히, 서이(三)(「한글」 5.2, p.26) 등과 같은 ‘ㅎ’첨가형을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의 예들은 실제 발음을 반영하는 표기들이며, 이러한 ‘ㅎ’첨가 현상은 이 방언만이 갖고 있는 특징은 아니었다(최전승1986:58~59).

가 하나 있는데 ‘전혀→전이’로 쓰인 것이 보인다. 현대국어 ‘전혀’는 <우리말샘>에서 ‘전히’로 적힌 방언형이 기록한 바가 있다. 그렇다면 방언형인 ‘전히’가 토대로 어간에 ‘ㅎ’을 탈락하여 ‘전이’로 적힌 것으로 해석 가능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4. 완판본에서만 나오는 지역적인 어휘

(22)

(ㄱ) 문저 말삼ㅎ옵시니<상3ㄱ> → 문저: <우리말샘>에 ‘먼저’의 방언(경기, 전남, 제주)로 기록되어 있다.

(ㄴ) 일리 도로여 불평ㅎ니<상2ㄴ> → 도로여: <우리말샘>에 ‘도리어’의 전남 방언형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같은 어휘가 경판본에서는 ‘도로혀’로 적는다. 17세기와 18세기 문헌에서 일시적으로 ‘도르혀’에서 변한 ‘도로혀’가 ‘도로켜’ 형이 많이 등장하며 이것도 위에 언급했듯이 방언형 ‘ㅎ’ 탈락한 현상으로 해석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ㄷ) 야답 달의 찬집 바다<상5ㄱ> → 야답: <우리말샘>에 ‘여덟’의 방언(전라, 제주)으로 기록되어 있다.

(ㄹ) 인자 막 우리 아기<상11ㄱ>: → 인자: <우리말샘>에 ‘이제’의 방언(경상, 전라)으로 기록되어 있다. <전라북도 방언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다¹¹⁾.

(ㄴ) 진희슈를 건네갈 제 상녀은 부지망국ㅎㅎ고<하1ㄴ> → 건네가다: <우리말샘>에 ‘건너가다’의 방언(강원, 경상, 전라, 평북, 함경)으로 등재되어 있다. <전라북도 방언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다¹²⁾.

(ㄷ) 형뎡글러진 빈 방 안의 티빅산 갈가무기<상10ㄱ> → 형뎡그러하다: <우리말샘>에 ‘형뎡하다’가 ‘형뎡그러하다’의 강원 방언형으로 등재되어 있다.

(ㄷ) 들니난 소리 얼는 듯고 나셔면서 여보시오<상10ㄴ> → 얼는: 현대국어 표준어 ‘얼른’과 관련해서 <우리말샘>에 등재된 생각해 볼 만한 방언형

11) 인자 ㅁ [대응어] 이제.

바로 이때. ㅁ[인자] 고만 뽀짝꺼리고 찌만치 가다가 허고, 안 갈려면 치나야 치나! ㅁ[인자] 비아나서 야구 보능 것도 작파히야(때려치우다) 쓸랑게비요. ㅁ이트까, 참을 만큼 지두리다 참엿응게로 {인자} 고만 찌룩찌룩 건드시오 이~. ㅁ[인자] 제목도 쪼까 바까 갖고 신갱 쓰께라우~. ㅁ[인자] 대그빡이 커졌응게 내싸두기라우~ 꼬치장을 꿰이등가, 맹태국을 지지등가. ㅁ[인자] 속 좀 채리제 낮바닥이 성헌 디가 항개도 없꾸만 이~. ㅁ[인자] 나도 간댕

지역 고창.

12) 건네가다 ㅁ [대응어] 건너가다.

무엇을 사이에 둔 두 쪽 사이를 이동하여 옮겨가다. ㅁ아, 그런게서나 인자 그렇게 알고서는 인자 전송차로 나오닌게 한강을 그냥 {건네가더라네}.<구비문학대계 전북 군산시 옥구군편> ㅁ“우리 어머니가 병환이 나서서 내가 오는 길인디 {건네가야겠다}.”고 그러니께 물이 짝 갈라지더라는군.<구비문학대계 전북 전주시 완주군편> ㅁ산골 동네에서 학교를 가는디는 꼭 {건네가야} 하는 널븐 냇갈이 있느디 문제는 공부를 허다가 큰비로 물이 불어버리면 애덜 집이서는 소동이 난다. ㅁ그리고 저녁에 잘라면, 어머니 방으다가 꼭 손수 군불을 따땃히게 너 디리고는, 기양 형 제 방으로 가 부리는 거이 아니라, 방이 따순가 어쩐가 손바닥으로 온 방을 이리저리 짚어 보고야 안심을 허고는 {건네갔단} 말이여.<최명희, 혼불> ㅁ그 여학생한티 형의 편지가 {건네간} 것은 분명헌디 답이 없다고 심부름 탓만 허는 거여.

지역 전북.

은 ‘어녕(전남), 언녕(전남), 언늬(전남, 충남), 언능(전남), 열근(전남), 열럼(전남), 열름(전남), 열릉(전남, 충남), 울(전남), 열찐(전라), 열룸(전북)’ 등이 있다. 이 중에 가장 가까운 형태는 전남 지역에 쓰인 ‘열름, 열릉’이 있지만 위에 3.4에서 제시한 것처럼 이 문헌의 표기 특징에 따라 ‘ㄹㄴ’ 표기 방식이 거쳐서 변화된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 (ㅇ) 아히 맘죽차로 깁엿푼엇치<상11ㄴ> → 맘죽: <우리말샘>에 ‘암죽’의 전남 방언형으로 등재되어 있다. <전라북도 방언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다¹³⁾.
- (ㅈ) 저고리를 이령저령 열메고 청목 휘양 둘러쓰고 → 알메다: <우리말샘>에 ‘메다’의 전남 방언형으로 등재되어 있다.
- (ㅊ) 가라치 흥훈손야 녀중의 군자요<상14ㄱ>: → 가라치다: <우리말샘>에 ‘가르치다’의 방언(경상, 전남, 평남)형으로 등재되어 있다. <전라북도 방언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다¹⁴⁾.
- (ㅋ) 어룬이 부르신직<상14ㄱ>: → 어룬: <우리말샘>에 ‘어른’의 방언(경남, 제주, 평안)형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현대 국어 ‘어른’은 19세기까지 ‘얼운’과 ‘어룬’이 공존하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반드시 지역적인 형태라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 (ㅌ) 하로밤 빛 기운의 피고져<상15ㄱ> → 하로: <우리말샘>에 ‘하루’의 방언(경남, 전남)으로 등재되어 있다. 그렇지만 현대 국어 ‘하루’는 17세기부터 ‘호로’, ‘하로’로 나타난 형태가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 (ㅍ) 그 시를 지달이더니<하8ㄱ> → 지달이다: <우리말샘>에 ‘기다리다’의 방언(강원, 경북, 전라, 충청, 함남, 중국 흑룡강성)형으로 등재되어 있다. <전라북도 방언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다¹⁵⁾.
- (ㅎ) 안진박 솟사등이 셔릅다 흔들 부모 처자 바로 보고<상19ㄱ> → 셔릅다: <우리말샘>에 ‘셔렵다’의 방언형으로 등재되어 있다. 이에 바탕으로 ‘셔릅다’가 ‘ㅈ, ㅊ, ㅅ’ 아래서 이중모음화 현상이 거쳐 ‘셔릅다’로 적힌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3) 맘죽 𐄂 [대응어] 미음.

입쌀이나 좁쌀에 물을 충분히 붓고 푹 끓여 체에 걸러 낸 걸쭉한 음식. 15개월이 된 아기에게 맘죽을 끓여 먹였다. 16개월이 이유식으로 {맘죽을} 맥이지만 소화가 잘돼서 환자식으로도 적당하다네.

지역 전북.

14) 가라치다 𐄂 [대응어] 가르치다.

가라치다

지역 완주, 익산.

15) 지달리다 𐄂 [대응어] 기다리다.

어떤 사람이나 때가 오기를 바라다. 1여기서 지달리고 있어라. 1성적표가 올 그날을 {지달리고} 있어. 1엄마가 곧 오시니 조금만 {지달려} 보자.

지역 전북.

해설 ‘지달리다’는 ‘기다리다’에 /ㄱ/ 구개음화가 적용된 ‘지다리다’에 다시 /ㄹ/이 덧붙여 생긴 단어이다.

이상으로 완판71장본에 나타난 지역적인 특징을 가진 어휘를 정리하고 접근해보았다. 제시한 바와 같이 이 문헌에 실린 말 가운데에는 전라 방언이나 전북 방언 혹은 전라 방언으로 추정할 수 있는 예가 상당히 보인 것으로 확인된다.

5. 나오며

(생략)

참고문헌

- 김진영 외(1998), 『심청전 전집3』 (고전명작이본총서), 박이정.
- 곽충구.(1984). 「체언어간말(體言語幹末) 설단자음(舌端子音)의 마찰음화(摩擦音化)에 대(對)하여」, 『국어국문학』 91, 국어국문학회, 1-22.
- 성현경(1995), 「심청전론(3) -문장체 소설 판각본 <심청전> 고증-」, 『한국옛소설론』, 새문사.
- 신은수(2004). 「戊戌本(1898) 완판 심청전의 표기 특징 - 丙午(1906) 심청전에 대조하여 -」, 『국어사연구』, 315-347.
- 이광호(1987). 「근대국어 표기법에 나타난 분절표기(分綴表記)의 연구」, 『語文學論叢』, 95-113.
- 이옥성(2019). 「판소리계 소설의 사본과 간행본에 대한 서지적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대학원, 서울
- 이준환(2021). 「완판본 한글 고소설 구운몽의 언어적 양상」, 『어문론총』, 57-87.
- 이태영(1999), 「完板(全州板) 坊刻本 한글 古小說의 논문집」, 구결학회, 181-196.
- 이태영(2010), 「완판 방각본 출판의 문화사」, 『열상고전연구』, 열상고전연구회, 91-115.
- 이태영(2013), 「완판본(完板本)의 개념과 범위」, 『열상고전연구』, 열상고전연구회, 9-36.

- 印權煥(1977). 「沈淸傳 研究史와 그 問題點」, 韓國學報, 189-207.
- 임용기 외(2006). 『국어사 연구 어디까지 와 있는가』, 태학사
- 전광현(1997). 「근대 국어 음운」,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2』 7-54.
- 정승철(1999). 「개화기 국어 음운」,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4』 7-59.
- 鄭然榮(1993). 「近代國語 表記法에 대한 音韻論的 解釋」. 한국학 16.1 : 19-34.
- 池春洙(1983). 「近代國語表記의 樣相과 傾向」, 『國語國文學』, 107-126.
- 최동현(1999). 『심청전 연구』. 서울: 태학사.
- 최영희(2017). 「한글소설 방각본 서체의 조형적 특징 연구 - 경판본과 완판본을 중심으로 -」. NRF KRM(Korean Research Memory)
- 崔雲植(1982). 「沈淸傳異本考 (一)-坊刻本 「沈淸傳」의 書誌 및 特色과 系列.」. 陶南學報 5.-: 7-26.
- 최전승(1985). 「19세기 후기 전라방언 자료의 表記法에 대하여-完板本 古小說과 申在孝의 「관소리 사설을 중심으로」, 『어학』, 전북대 어학연구소, 47-88.
- 최전승(1986).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의 음운현상과 그 역사성』, 한신문화사.
- 최전승(1990). 「관소리 사설에 반영된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의 특질-경어법 체계를 중심으로-」, 『한글』 210. 한글학회, 190-242.
- 최전승(1994). 「전라방언의 통시적 연구 성과와 그 전망.」, 『人文 科學』: 233-262.
- 최전승.(2000).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의 처소격 조사 부류의 특질과 변화의 방향」. 『우리말 글』, 101-152.

<우리말샘> <https://opendict.korean.go.kr/main>

<전라북도 방언사전> <http://ebook.jb.go.kr/Viewer/ZPIB29K77MS9>

韓國 眞言集 《佛頂尊勝陀羅尼》 梵字 텍스트의 板本 比較 考察

안영희 (운남민족대)

1. 序言

훈민정음 창제 후 불경 번역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범자, 한자, 한글 세 가지 문자가 병기된 眞言集 자료들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불경에서 특히 진언 번역은 흔히 의역인 아닌 음역으로 진행되며 또한 엄격한 음역을 요구하므로 범, 중, 한 음운 대응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헌 자료가 된다. 하지만 음운 대응 연구에 앞서 먼저 텍스트를 읽고 그 기원을 찾아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보는 것도 한 가지 중요한 작업이다. 본고는 잠시 음운 분석을 뒤로 하고 眞言集 자료에 기재된 <불정존승다라니>의 범자 텍스트를 중심으로 기타 판본과의 비교 고찰을 통하여 그 기원을 찾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본고의 제2장에서는 한국 眞言集 자료의 서지학적 기본 정보를 소개할 것이고, 제3장에서는 먼저 한국 眞言集 범자의 자형에 대한 소개와 함께 한국 眞言集 <불정존승다라니>의 범자 텍스트를 확보하고 『大正藏』의 기타 판본 텍스트도 참고할 것이다. 다음 제4장에서는 먼저 한국 내 진언집 판본을 비교하고 다음 『大正藏』의 판본 사이를 비교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진언집과 대정장의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부록에 한국 眞言集 자료의 범자와 로마자 전환 자료도 제시하겠다.

2. 한국 眞言集 자료에 대한 기본 정보

眞言集은 당시 유행하던 진언들을 모아서 집성한다는 의미가 있다. 眞言集은 대개 비교적 큰 사찰에서 만들고 간행되는데 사회적으로 영향력도 있고 오랜 기간 유통되어 왔으며 중간본도 나온다. 흔히 볼 수 있는 眞言集 자료에는 대개 두 종류가 있다.

우선 첫 번째 종류로는 『五大眞言』(1485)이 대표적이다. 발문은 당대 고승인 學祖가 썼으며 그의 발문에 의하면 仁粹大妃의 명에 따라 간행하였다. 수록된 진언은 모두 다섯 종류로 “四十二手眞言”, “神妙章句大陀羅尼”, “隨求卽得陀羅尼”, “大佛頂陀羅尼”, “佛頂尊勝陀羅尼”가 있다. 『五大眞言』의 현존 이본과 각 소장처는 아래와 같다.

[표1] 『五大眞言』 계열의 이본 및 소장처 (출처: 디지털한글박물관)

이본종류	연도	소장처
원간본	1485년(성종16)	월정사 정보박물관; 성암문고
중간본(지리산 철굴판)	1531년(중종26)	국립중앙도서관
중간본(묘향산 도솔암판)	1534년(중종29)	소장처미상
중간본(황해도 심원사판)	1535년(중종30)	소장처미상
중간본(풍기 철암판)	1550년(명종5)	서울대 규장각 가람문고

중간본(은진 쌍계사판)	1635년(인조13)	서울대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중간본(간기미상판)	16세기경	일본 동경대 소장문고 ¹⁾

월정사 정보박물관에 소장된 원간본은 ‘보물 793-5’로 지정되어 있고, 성암문고의 원간본은 1-23장의 낙장본만 있다. 서울대 규장각 소장에서 <奎 6749>은 간기가 없으나 난외의 시주·각수명 등으로 보아 쌍계사판으로 추정되고 1550년판은 ‘靈驗略抄’가 연해되어 있다.(유평재 규장각어문학자료해제) 본고에서 고찰한 자료 역시 ‘영험약초’가 연해 되어 있어 1550년 판으로 보인다. 『五大眞言』에 비록 범자가 실려져 있지만 서문부분에 범자 소개 관련 내용 없이 직접 다라니의 啓請文부터 시작한다.

또 다른 한 종류는 서명이 직접 『眞言集』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열의 眞言集에는 범자 소개의 실답장이 실려 있음이 특징적이다. 이 계열의 眞言集 이본과 소장처들을 본다면 아래와 같다.

[표2] 『眞言集』 계열의 이본과 소장처 (출처: 디지털한글박물관)

이본종류 ²⁾	연도	소장처
원간본	15세기말	서울대 규장각;전주 김해정(낙장)
중간본(안심사판)	1569년(선조2)	국립중앙도서관;서울대 규장각;동국대 도서관;영남대 도서관
중간본(신흥사판)	1658년(효종9)	국립중앙도서관,동국대도서관,계명대동산도서관
중간본(월영대판)	1688년(숙종14)	서울대 규장각;고려대도서관;동국대도서관
중간본(금산사판)	1694(숙종20)	서울대규장각
중간본(간행지미상)	17세기경	서울대규장각
중간본(만연사판)	1777년(정조1)	국립중앙도서관,고려대도서관(‘중간眞言集’)
중간본(간행지미상)	1780년(정조4)	국립중앙도서관(‘중간眞言集’)
중간본(망월사판)	1800년(정조24)	국립중앙도서관;서울대규장각;계명대동산도서관;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성균관대존경각;동국대도서관;전남대도서관;망월사(판목소장,‘중간眞言集’)
필사본	1884년(고종21)	프랑스동양언어문화학교;국립중앙도서관(영인본)

원간본으로 추정되는 자료가 15세기말로 추정되는데 1485년의 『오대진언』과 시기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위 도표로부터 眞言集의 이본이 다양하고 여러 곳에서 많이 발굴되어 나온다는 것은 그동안 조선시대에서 이 계열의 眞言集이 민간에도 매우 널리 퍼져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의 도표로부터 15세기부터 19세기 후반까지 특히 빈 기간 없이 꾸준히 간행되어 왔음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조선시대 이 계열의 眞言集의 수요가 있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디지털한글박물관에서 영인되어 이미지가 공개된 자료로 1569년의 安心寺本, 1658년의 新興寺本, 1777년의 萬淵寺本, 1800년의 望月寺本이 있다.

사실 안심사본(1569)과 신흥사본(1658)을 비교하여 보면 비록 거의 90년이란 시간 차이가 있지만 진언 내용 및 글자체등이 완전 일치하여 같은 판으로 복각하여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신흥사본(1658)이 안심사본(1569)보다 마모가 심하여 특히 방점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같은 목판을 상당히 오랜 세월 여러 번 인쇄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으

1) 일본 동경대 소장문고 소장 자료의 서명은 『密敎集』이라 되어 있는데, ‘밀교집’이라고 하면 흔히 1784년 승려 몽은(蒙隱)이 만든 밀교의식집 성격의 책으로 ‘密敎, 行文, 觀文’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십여종의 진언들이 수집되어 있다. 이를 또 달리 ‘비밀교’라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동경대 소장문고 소장 자료에서 수집된 진언의 내용은 『오대진언』과 같다.

2) 19세기이후 ‘비밀교집’의 수록 진언들이 앞서 眞言集 수록 진언과 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도표에서 제외시켰다.

로 보인다. 하지만 영인본 안심사본(1569)에는 실담장이 실려 있지 않고 신흥사본(1658)에는 실담장이 있는데 보이는데 이 계열의 眞言集에서 실담장이 처음에 없었다가 나중에 추가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있었는데 위 영인본의 안심사본(1569)에서만 낙장이 되었을 수도 있다. 학계에서는 대개 안심사본(1569)에 실담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연구를 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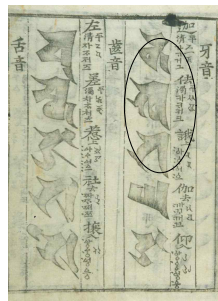
만연사본(1777)과 망월사본(1800)은 중간본이다. 만연사본(1777)에서 “근세 선종에서 범자를 이해한 자가 많이 있지만, 모두 모양의 호로에 의거 하였을 뿐이다. 단지 나, 용암화상이 그 현묘함을 꿰뚫어 잘못됨을 알아 그 이전 사람들이 드러내지 못했던 점을 드러내었다. (중략) 眞言集, 오대집, 조상경 등을 세심히 증명하여 그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았다. [近世禪宗解梵字者多類, 皆依樣畫胡蘆, 獨五龍岩和尚虛其妙, 發前人之所未發. (略) 既巧證己就眞言集, 五大集, 造像經等, 正其訛錯. 안주호 2002:115 참고] 즉, ‘중간眞言集’은 기존 眞言集에서 잘못된 점을 바로 잡기 위해 만들었음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만연사본(1777)의 범자 수정의 예로 본다면 신흥사본의 실담장에서 잘못 된 범자를 교정한 부분이 보인다.

신흥사본에서 한자 ‘佉’와 대응하는 범자와 ‘誡’ 대응 범자가 뒤바뀌었는데 만연사본에서 되돌려 놓았다. 흔히 알려진 실담형 범자를 참고하면 하나는 ‘佉’ 대응 범자가 ‘kh’으로 ‘𑖦’이고, ‘誡’와 대응하는 범자는 ‘g’으로 범자 모양은 ‘𑖦’으로 만연사본이 정확하게 교정한 것이다.

신흥사본(1658))



만연사본(1777)



[그림1] 만연사본(1777)의 신흥사본(1658) 실담장 오류의 교정

그리고 ‘중간眞言集’은 기존의 眞言集 수록 진언내용에 있어 ‘오대집, 조상경’등의 진언도 추가되었다고 하였다. 기존 전통 眞言集에 수록된 진언은 대개 불교 의식에 사용되는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진언, 다라니 100여개들을 묶어서 만든 것이다. 여기에 수록된 진언들은 대부분 짧고 종류가 다양하다. 이들을 크게 ‘結手文, 志磐文, 仔夔文, 點眼文’으로 묶어서 정리되어 있다. ‘중간眞言集’ 만연사본(1777)과 망월사본(1800) 모두 목록에서 ‘新增’으로 기존의 진언에 추가된 진언을 밝히고 있다. 만연사본(1777)과 망월사본(1800)의 서문 목록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표3] 만연사본(1777)과 망월사본(1800)의 목록 비교

분류	만연사본(1777년)	망월사본(1800년)
卷頭	重刊眞言集序, 凡例, 洪武韻字母之圖, 諺本十六字母, 梵本五十字母悉曇章	重刊眞言集序, [眞言集總論], 阿字論, 唵啊吽字論, 悉曇章解義總論, 眞言集凡例, 洪武韻字母之圖, 諺本十六字母, 梵本五十字母悉曇
跋文	阿字論, 唵啊吽字論, 悉曇章解義總論 即跋	

卷上	重刊眞言集卷之上 目錄 (結手文, 志磐文, 仔夔文, 點眼文)	眞言集目錄 卷上 總一百六十二則 (結手文四十九則, 志磐文三十五則, 仔夔文四十六則, 點眼文三十一則)
卷下	重刊眞言集卷之下 目錄 (正本楞嚴呪, 佛頂心觀世音菩薩姥陀羅尼, 佛頂尊勝陀羅尼, 藥王菩薩陀羅尼, 勇施菩薩陀羅尼, 諸經眞言)	卷下 總一百二十八則 (無量壽決定光明王如來陀羅尼, 佛頂心觀世音菩薩姥陀羅尼, 佛頂尊勝陀羅尼, 藥王菩薩陀羅尼, 勇施菩薩陀羅尼, 諸經眞言)
新增	新增 (千手陀羅尼, 正本楞嚴呪, 寶篋陀羅尼, 造像經眞言, 諸經字母, 金翅鳥王眞言)	千手陀羅尼以下 新增二十二則 (大隨求陀羅尼, 正本楞嚴呪, 諸經字母, 金翅鳥王眞言, 諸經眞言四十六則)

위의 비교도를 보면 만연사본(1777)에서 “阿字論”, “唵啊吽字論”, “悉曇章解義總論即跋”등 내용이 책 마지막 부분 跋文으로 되어 있는데 망월사본(1800)에서는 모두 권두로 옮겨왔다. 전반적으로 망월사본(1800)은 만연사본(1777)을 저본으로 체계를 갖추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新增 다라니 부분에서 ‘造像經’ 진언이 밝혀져 있고 ‘五大眞言’라 밝혀지지 않지만 앞서 『五大眞言』(1485)에 실린 진언이 실려있다.

다음 좀 더 세부적으로 각 판본별 진언 수록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표4] 『眞言集』 수록진언 내용 비교

망월(1800)		만연(1777)	안심(1569)	오대(1485)
목록	진언번호			
結手文 四十九則	01번-49번	○	○	×
志磐文 三十五則	50번-84번	○	○	×
仔夔文 四十六則	85번-130번	○	○	×
點眼文 三十一則	131번-162번	○	○	×
	135,148,149번	○	×	×
無量壽決定光明王如來陀羅尼 以下六十則	164번-223번	○	○	×
	180,195,196,198,199,207,208,221번	○	×	×
	206번 (불정존승다라니)	○	×	○ ³⁾
新增	224번 (신묘장구대다라니)	○	×	○
	225번 (대수구다라니)	×	×	○
	226번-291번	○	×	×

안심사본(1569)과 신흥사본(1658)의 수록 진언 내용이 같으므로 위 통계에서 안심사본(1569)만 제시하였다. 위 진언에서 ‘結手文, 志磐文, 仔夔文, 點眼文, 無量壽決定光明王如來陀羅尼’의 진언은 안심사본(1569), 만연사본(1777), 망월사본(1800) 일부 몇 개의 진언을 제외하고 모두 수록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기타 진언을 新增이라고 하였다. 대개 이른 시기의 안심사본(1569)을 기준으로 이에 실리지 않은 진언을 新增으로 처리한 듯하다. 비록 같은 시기의 중간본이지만 만연사본(1777)과 망월사본(1800)의 신증 진언에 대해 대해서도 일부 차이가 보인다.

3) 안심사본에도 ‘佛頂尊勝陀羅尼’가 수록되어 있긴 하나 범자가 없다. 안심사본에서 범자가 없는 진언을 망월사본에서 수록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망월사본의 한자 수록등을 보면 《오대진언》을 참조하였을 것이다.

특히 206번 진언의 ‘불정존승다라니’는 기존 진언 목록에 들어가는 것으로 안심사본(1569)에도 수록되어 있지만 유독 이 다라니만은 기타 다라니처럼 범자-한자-한글 모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자 텍스트만 있다. 원간본에서부터 이런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중간본을 내면서 만연사본(1777)과 망월사본(1800)에서 해당 다라니를 다시 범자-한자-한글 모두 있는 텍스트로 교체함을 볼 수 있었다. 여기서 교체된 한자텍스트를 보면 『오대진언』(1485)의 한자텍스트와 완전 일치하다. 즉 전반적으로 만연사본(1777)과 망월사본(1800) 모두 안심사본(1569) 계열수록 진언 목록을 기초로 하고 이외 기타 진언들을 신증하여 추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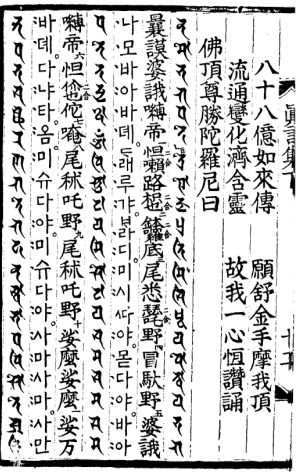
그리고 추가된 진언 목록 중 224번과 225번을 보면 『오대진언』(1485)에도 수록된 ‘신묘장구대라니(神妙章句大陀羅尼)’와 ‘대수구대명왕다라니(大隨求大明王大陀羅尼)’이 있다. 하지만 이 중 225번의 ‘대수구대명왕대다라니’는 또 만연사본(1777)에 수록되어 있지 않고 망월사본(1800)에만 있는데 만연사본(1777)과 망월사본(1800) 비록 같은 중간본이라 하고 망월사본(1800)이 만연사본(1777)을 저본으로 진언을 선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역시 일부 차이는 존재함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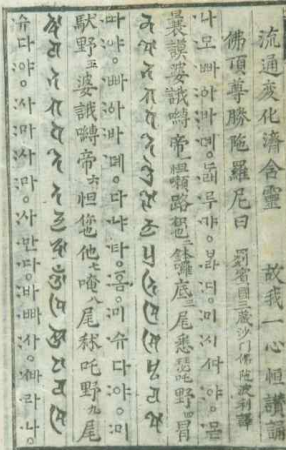
3. 한국 眞言集 및 기타 판본의 <불정존승다라니> 범자 텍스트

3.1. 한국 眞言集의 범자 자형 및 로마자 전환

먼저 오대진언(1485), 만연사본(1777), 망월사본(1800) 세 판본의 <불정존승다라니> 이미지를 본다면 아래와 같다.

[그림2] <불정존승다라니> 세 판본의 이미지

망월사본(1800) 下12b										
	10	9	8	7	6	5	4	3	2	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만연사본(1777) 下16b									
	9	8	7	6	5	4	3	2	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오대진언(1485) 93a									
	9	8	7	6	5	4	3	2	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위와 같이 오대진언(1485)의 진언 기록 문자가 梵字→한글→漢字의 순서로 되어 있으며 가로 9행으로 되어 있고 세로 대개 14자 혹은 15자로 되어 있다. 만연사본(1777)은 위와 달리 한글-漢字-梵字의 순서로 되어 있고 가로 9행, 세로 15자 혹은 16자로 되어 있다. 망월사본

(1800)의 글자 순서는 梵字-漢字-한글의 순서로 되어 있고 가로 10행, 세로 20-22자로 되어 있다. 부록에서는 각 판본의 梵字를 기준으로 번호를 달았는데, 예를 들어 오대진언(1485) '24b:1:1'은 24b장에서 범자 기준의 1행, 1자를 말한다.

실담장이란 비록 범자 및 한자와 한글 번역 규칙을 제시하기 위한 기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범자의 자형에 있어서 일부 서예적인 성격이 있는데 특히 大字로 제시한 자형이 그러하다. 실담장에 한자, 한글 번역과 함께 小字로 제시한 범자가 있는데 실제 진언 기록에 사용한 범자 자형이다 (일부 이체자 혹은 문자의 일부분을 제시하고 있다). 아래는 각 판본에서 실제로 사용한 범자와 흔히 알려진 실담범자와 비교하여 보겠다.

[그림3] 범자의 모음 표기 예의 비교 고찰

순서	전자	실담	망월	만연	오대
1)	kā				
3)	ke				

순서	전자	실담	망월	만연	오대
2)	mu				
4)	kai				

범자는 음절문자이며 기본 문자 자체가 a모음을 갖는다. 다른 모음 범자는 a모음 범자를 기초로 하고 모음을 표기하는 기호를 덧붙이는 형식으로 표현된다. 위의 도표에서 1)번 범자를 보면 오른쪽 귀퉁이에 빗금 표기를 하여 장모음 ā를 나타내는데 한국 범자의 빗금이 전통 실담에 비해 덜 휘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2)번 범자 예를 보면 문자 아래 끝부분에서 왼쪽으로 길게 굽어 올라가는 획이 있는데 한국 眞言集 범자는 오른쪽 방향으로 짧은 선을 찍어주는 방법으로 되어 있다. (일부 범자는 앞서 일반 실담범자와 같이 길게 그어주기도 한다)

3)번 범자 예에서 기본 글자 왼쪽 귀퉁이에 앞머리 한 획을 추가한다. 한국의 범자를 보면 겹모양은 비슷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앞머리와 기본 글자가 한 획으로 이어져 있다. 이어서 4)번 범자를 보면 ai모음을 나타내는데 산스크리트에서 ai는 e와 짝을 이루는 장모음으로 e모음 글자의 앞머리에 그 위로 한 가닥 더 추가한다. 한국 범자를 보면 더 추가된 한 획이 앞서 실담 범자에 비해 좀 더 길게 위로 뻗치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은 자음 글자

다음은 자음 표기의 모양에 대해 보겠다.

[그림4] 범자 자음 표기 예의 비교 고찰

순서	전자	실담	망월	만연	오대
1)	ya				
3)	sa				
5)	ga				
7)	ca				

순서	전자	실담	망월	만연	오대
2)	ma				
4)	bh a				
6)	ra				
8)	va				

위의 예 1)번 ya와 2)번 ma 일반 실담자와 한국 범자와 비교하여 보면 한국 범자는 일반 범자의 오른쪽 위에 끝이 열려져 있지만 한국 범자는 모두 닫혀져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예 3)번 ta와 4)번 na를 보면 왼쪽 아래 부분에 서로 등진 두 곡선이 맞물리면서 ‘ㅅ’자

모양을 보여주지만 한국 범자는 한 획을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어서 예 5)번 ga와 8)번 ra를 보면 일반 실담에서 왼쪽 아래로 굽는 획에서 매듭모양이 보이지만 한국 범자는 ‘ㄱ’모양으로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예 7)번과 8)번을 보면 일반 실담자의 맨 위에 한 획이 독립되어 있지만 한국 범자는 위의 가로 획과 아래 세로 획이 이어지면 대개 ‘ㄱ’자 모양으로 되어 있다.

다음 자음연쇄 범자 표기의 일부 예를 보겠다.

[그림5] 범자의 자음연쇄 표기 비교 예1과 예2

순서	전자	실담	망월	만연	오대	순서	전자	실담	망월	만연	오대
1)	dya					2)	dhya				
3)	kra					4)	ghra				
5)	rga					6)	rte				

위의 예 1)번 dya와 2)번 dhya는 자음연쇄 Cy- 유형에 속한다. C은 기본자음을 뜻하고 자음 y-는 기본 자음에 추가되는 음으로 실담 범자 역시 기본 음절 범자에 y-자음 표기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예 1)번 dya와 2)번 dhya에서 먼저 일반 실담 범자를 보면 기본 문자 아래 부분에서 오른쪽방향으로 긴 꼬리를 그어주는 방식으로 y-자음을 나타낸다. 한국 범자를 보면 이와 비슷하면서 획 방향에 좀 차이를 보여준다. 그리고 2)번의 한국 범자와 같이 y-자음 표기가 세로 되어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예 3)번 kra와 4)번 ghra 역시 자음연쇄 Cy- 유형에 속하며 r-자음을 추가로 표기하기 위한 표기가 있다. 일반 실담 범자를 보면 아래 끝 부분에서 왼쪽으로 윗 방향으로 획이 올라간다. 한국 범자 역시 대개 이와 비슷하지만 획 끝이 뾰족하며 좀 짧다.

예 5)번 rga와 6)번 rte는 자음연쇄 rC- 유형에 속한다. 이는 앞서 자음연쇄와 달리 기본 자음 앞에 r자음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5)번과 6)번의 일반 실담자형을 보면 기본 문자의 맨 위에 작은 ‘ㄱ’이 추가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한국 범자를 보면 ‘ㄱ’보다 ‘ㄱ’ 모양에 좀 더 가깝다.

위는 극히 일부의 예만 제시하여 일반 실담범자와 한국 범자를 비교하여 한국 범자의 자형 특징에 대해 알아 보았다. 총적으로 한국 眞言集 범자는 비록 흔히 알려져 있는 일반 실담범자와 일부 모양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가독성은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眞言集 오대진언(1485), 만연사본(1777), 망월(1800)의 범자를 읽고 로마자로 전환하여 범자 텍스트를 얻었는데 부록을 참고할 수 있다.

3.2. 眞言集과 『大正藏』의 <불정존승다라니> 범자 텍스트

앞서 3.1절의 眞言集 범자를 읽고 로마자로 전환하여 아래의 [표] 같이 범자 텍스트를 확보할 수 있다. 한국 眞言集 범자 텍스트의 정확성 및 그 기원 찾아 보는 목적으로 기타 다른 판본의 텍스트를 비교하여 보고자 일본의 『大正藏』에 수록된 <불정존승다라니>의 범자 텍스트도 함께 제시하여 살펴보고자한다. 『大正藏』의 범자 텍스트는李建强(2017)에서 로마자로

전환한 2차자료를 참고하였으며 아래의 관련 정보 또한 이 참고문헌을 위주로 정리하였다.

『大正藏』에는 세 가지 판본의 <불정존승다라니> 梵本이 수록 되어 있다. NO.973 善無畏 역의 <尊勝佛頂修瑜伽法軌儀> 上卷 제6품 "本尊眞言品"에 실담형 범자와 한문 번역이 대조되어 있는 다라니가 실려져 있다. 이를 "善無畏本"이라 하겠다. 그리고 上卷末의 "靈雲寺版普通眞言藏"이라 되어 있는 또 다른 판본의 실담형 범자로 된 다라니가 있는데 이를 "靈雲寺藏本"이라 부르겠다. 다음 『大正藏』 NO.974B는 弘法大師梵本와 金剛智 역 漢本이 대조되어 있는 다라니이다. 이를 "弘法大師本"이라 부르겠다.

한국 眞言集 세 판본과 『大正藏』 세 판본의 <불정존승다라니>의 범자 텍스트를 대비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5] 한국 眞言集 세 판본과 『大正藏』 세 판본의 <불정존승다라니>의 범자 텍스트

번호	망월(1800)	만연(1777)	오대(1485)	弘法大師本	善無畏梵本	靈雲寺藏本
01	namo	namo	namo	namo	namo	namo
02	bhagavate	bhagavate	bhagavate	bhagavate	bhagavate	bhagavate
03	trailokya	trailokya	trailokya	trailokyā	trailokya	trailokya
04	prati	prati	prati	prati	prati	prati
05	misiṣṭaya	misiṣṭaya	viṣiṣṭaya	viṣiṣṭaya	viṣiṣṭaya	viṣiṣṭhiya
06	moddhāya	moddhāya	muddhāya	buddhāya	buddhāya	buddhāya
07	bhagavate	bhagavate	bhagavate	bhagavate	bhagavate	bhagavate
08	tadyathā	tadyathā	tadyathā	tadyathā	tadyathā	tadyathā
09	om̐	om̐	om̐	om̐	om̐	om̐
10	miśuṭaya	miśuṭaya	viśudhaya	viśodhaya	viśudhaya	viśudhaya
11	miśoṭaya	miśoṭaya	viśodhaya	viśodhaya		重字 기호
12	sama sama samanta vabhasa	sama sama samanta vabhasa	sama sama samanta vabhasa	sama sama samantā vabhasa	sama samanta vabhāsa	sama sama samanta vabhāsa ⁴⁾
13	spharaṇa	spharaṇa	spharaṇa	spharaṇa	spharaṇa	spharaṇa
14	gategahana	gategahana	gategahana	gatigahāna	gatigahana	gatigahana
15	svābhā vamiśote	svābhā vamiśote	svābhā vaviśote	svābhā vaviśuddhe	svabha vaviśuddhe	svabhā vaviśuddhe
16	abhiṣimcatu mām̐	abhiṣimcatu mām̐	abhiṣimcatu mām̐	abhiṣimcatu mam̐	abhiṣimcatu ⁵⁾ mam̐	abhiṣimcatu mam̐
17	sugata	sugata	sugata	sugata	sugata	sugata
18	varavacana amṛtabhi -ṣaikai	varavacana amṛtabhi -ṣaikai	varavacana amṛtabhi -ṣaikai	varavacana amṛtābhi -ṣaikai mahāman -trapadai	varavacanā amṛtābhi -ṣaikai	varavacana amṛtābhi -ṣaikai mahāban -ttrapaddhai
19	ahara ahara	ahara ahara	ahara ahara	āhara āhara	āhara āhara	āhara āhara
20	ayu sandharaṇi	ayu sandharaṇi	ayu sandharaṇi	āyuh sandhāraṇi	āyu sandhāraṇi	āyu sandhāraṇi
21	śudhaya śudhaya	śudhaya śudhaya	śudhaya śudhaya	śodhaya śodhaya	śodhaya śodhaya	śodhaya
22	gaganaviśu -ddhe	gaganaviśu -ddhe	gaganaviśo -ddhe	gaganaviśu -ddhe	gaganaviśu -ddhe	gaganaviśu -ddhe
23	uṣṇiṣa	uṣṇiṣa	uṣṇiṣa	uṣṇiṣa	uṣṇiṣa	uṣṇiṣa
24	vijayavi -śuddhe	vijayami -śuddhe	vijayavi -śuddhe	vijayavi -śuddhe	vijayavi -śuddhe	vijayavi -śuddhe
25	sahasrara -śmaṁ	sahasrara -śmaṁ	sahasrara -śmaṁ	sahasrara -śmi	sahāsrara -śmi	sahāsrara -śmi

26	saṃcodite	saṃcodite	saṃcodite	saṃcodite	saṃsu ⁶ dite	saṃsu ⁷ dite
27	sarvāta -thāgatā	sarvāta -thāgatā	sarvāta -thāgatā	sarvata -thāgata	sarvata -thāgata	sarvata -thāgata
28	valokaṇisa tpāramitā	valokaṇisa tpāramitā	valokaṇisa tpāramitā	avalākaṇisa ddhāramitā	avalūkaṇisa tpāramita	avalūkaṇisa tpāramita
29	paripuraṇi sarvāta -thāgatā	paripuraṇi sarvāta -thāgatā	paripuraṇi sarvāta -thāgatā	paripuraṇi sarvata -thāgata	paripuraṇi sarvata -thāgata	paripuraṇi sarvata -thāgata
30	hṛdayadhiṣṭa -nadhiṣṭhita	hṛdayadhiṣṭa -nadhiṣṭhita	hṛdayadhiṣṭa -nadhiṣṭhita	hṛdayādiṣṭa -nadhiṣṭata	hṛdayādiṣṭa -nādhiṣṭita	hṛdayādiṣṭa -nādhiṣṭita
31	mahāmudra	mahāmudra	mahāmudra	mahāmudri	mahāmudre	mahāmudre
32	vajrakaya -simhātana	vajrakaya -simhātana	vajrakaya -simhātana	vajrakāya -saṃhātana	vajrakāya -saṃhātana	vajrakāya -sum ⁸ hātana
33	viśuddhe	viśuddhe	viśoddhe	viśuddhe	viśuddhe	viśuddhe
34	sarvāvarana	sarvāvarana	sarvāvarana	sarvavaraṇi	sarvavaraṇi	sarvavaraṇa
35	payadurgati -pariśuddhe	payadurgati -pariśuddhe	payadurgati -pariśuddhe	payadrargati -pariśuddhe	bhayadurgati -pariśuddhe	bhayadurgati -pariśuddhe
36	pratidima -rtaya	pratidima -rtaya	pratidima -rtaya	pratiniva -rttaya	pratiniva -rttaya	pratiniva -rttaya
37	ayūśuddhe	ayūśuddhe	ayūśuddhe	āyuhśuddhe	āyuhśuddhe	ayuhśuddhe
38	samayadhi -ṣṭhite	samayadhi -ṣṭhite	samayadhi -ṣṭhite	samayadhi -ṣṭate	samayadhi -ṣṭate	samāyādhi -ṣṭite
39	maṇimaṇi	maṇimaṇi	maṇimaṇi	maṇimaṇi	maṇimaṇi	maṇimaṇi
40	mamaṇi	mamaṇi	mamaṇi	mahāmaṇi	mahāmaṇi	mahāmaṇi
41	tathādābhū -takodhi	tathādābhū -takodhi	tathādābhū -takodhi	tathātābhū -takoṭi	tathātābhū -takoṭi	tathātābhū -takoṭi
42	pariśūddhe	pariśūddhe	pariśūddhe	pariśuddhe	pariśuddhe	pariśuddhe
43	miṣphoṭa modhiśūddhe	miṣphoṭa modhiśūddhe	visphoṭa modhiśūddhe	viṣphuṭa buddhiśūddhe	viṣphoṭa bodhiśūddhe	visphoṭa bodhiśūddhe
44	jāyā jāyā mijayā mijayā	jāyā jāyā mijaya mijaya	jāyā jāyā vijaya vijaya	jaya jaya vijaya vijaya	jaya jaya vijaya vijaya	jaya jaya vijaya vijaya
45	smara smara	smara smara	smara smara	smara smara	smara smara	smara smara
46	sarvāmu -ddhā	sarvāmu -ddhā	sarvāmu -ddhā	sarvabu -ddhā	sarvabu -ddhā	sarvabu -ddhā
47	dhiṣṭhitaśu -ddhe	dhiṣṭhitaśu -ddhe	dhiṣṭhitaśu -ddhe	dhiṣṭitaśu -ddhe	dhiṣṭitaśu -ddhe	dhiṣṭitaśu -ddhe
48	vajre	vajre	vajre	vajri	vajri	vajri
49	vajra garbhe	vajra garbhe	vajra garbhe	vajra garbhe	vajra garbhe	vajra garbhe
50	vajraṃ	vajraṃ	vajraṃ	vajrām ⁹	vajrām	vajrām
51	bhavatu	bhavatu	bhavatu	bhāvatu	bhāvatu	bhavatu
52	mamasya	mamasya	mamasya	mama	mamasya	mama
53	śariraṃ	śariraṃ	śariraṃ	śariraṃ	śariraṃ	śariraṃ
54	sarvāsatvā -nāmcakāya	sarvāsatvā -nāmcakāya	sarvāsatvā -nāmcakāya	sarvasatva -nāmcakaya	sarvasatvā -nāmcakāya	sarvasatvā -nāmcakāya
55	pariśoddhe	pariśoddhe	pariśuddhe	pariśuddhe	pariśuddhe	pariśuddhe
56	sarvāgati -pariśoddhe	sarvāgati -pariśoddhe	sarvāgati -pariśuddhe	sarvatathāga -tipariśuddhe	sarvagati -pariśuddhe	sarvagati -pariśuddhe
57	sarvātathā -gatāścamerṃ savasvā -sayamtu	sarvātathā -gatāścamerṃ samasvā -sayamtu	sarvātathā -gatāścamerṃ savasvā -sayamtu	sarvatathā -ścame samaśva -sayamtu	sarvatathā -gatāśca me samaśva -sayamto	sarvatathā -gataśca me samaśva -sayamto

58	sarvātathā -gatā samasvāsa	sarvātathā -gatā samasvāsa	sarvātathā -gatā samasvāsa	sarvatathā -gata samāśvasa	sarvatathā -gata samaśvasa	sarvatathā -gata samāśvasa
59	dhiṣṭhite	dhiṣṭhite	dhiṣṭhite	adhiṣṭate	adhiṣṭate	adhiṣṭate
60	muddhya muddhya	muddhya muddhya	muddhya muddhya	buddhya buddhya	buddhya buddhya	muddhya muddhya
61	mimudhaya	mimudhaya	vimudhaya	vibudya	vibudhya	vibudhya
62	mimudhaya	mimudhaya	vimudhaya	vibudya	vibudhya	vibudhya
				boddhya		boddhya
				boddhya		boddhya
				viboddhya		viboddhya
				viboddhya		viboddhya
63	saṁmanta pariśoddhe	saṁmanta pariśoddhe	saṁmanta pariśuddhe	samanta pariśuddhe	samanta pariśuddhe	samanta pariśuddhe
64	sarvātathā -gata hṛdaya	sarvātathā -gata hṛdaya	sarvātathā -gatā hṛdaya	sarvatathā -gata hṛdayā	sarvatathā -gatā hṛdayā	sarvatathā -gata hṛdayā
65	dhiṣṭhana -dhiṣṭhita	dhiṣṭhana -dhiṣṭhita	dhiṣṭhana -dhiṣṭhita	dhiṣṭana -dhiṣṭhata	dhiṣṭanā -dhiṣṭata	dhiṣṭanā -dhiṣṭita
66	vahāmudre	mahāmudre	mahāmudre	mahāmudri	mahāmudri	mahāmudre
67	svāhā	svāhā	svāhā	svāhā	svāhā	svāhā

아래의 제4장에서는 위의 여러 판본 텍스트를 비교 고찰할 것이다. 먼저 한국 眞言集 텍스트를 비교하고 다음은 『大正藏』 세 판본의 텍스트를 비교하여 본 다음 최종적으로 한국 眞言集과 『大正藏』을 비교 고찰하여 그 차이를 찾아 볼 것이다.

4. 眞言集과 『大正藏』 여러 판본 <불정존승다라니>의 비교 고찰

4.1. 한국 眞言集 세 판본의 비교

본 절에서는 먼저 표5에 제시 된 한국 眞言集 세 판본의 범자 텍스트를 비교하여 보겠다. 세 판본 텍스트는 대체적으로 일치하며 극히 일부 차이가 있는데 대개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유형이다.

우선 眞言集 세 판본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차이가 비자음 m과 v의 차이이다. 출현하는 예들을 모아 보면 아래와 같다.

[표6] 眞言集 세 판본 m/v 자음의 차이

순서	번호	망월(1800)	만연(1777)	오대(1485)
1)	05	misiṣṭaya	misiṣṭaya	visiṣṭaya
2)	10	miśuṭaya	miśuṭaya	viśudhaya

- 4) "vahāsa"으로 되어 있는데 "vabhāsa"의 오타일 것 같다.
- 5) "abhiṣimcatvu"으로 되어 있는데 "abhiṣimcatu"의 오타일 것 같다.
- 6) 李建强(2017) 부록 주석에 'su'가 오류라고 밝혔다.
- 7) 李建强(2017) 부록 주석에 'su'가 오류라고 밝혔다.
- 8) 李建强(2017) 부록 주석에 'sām'의 오류라고 하였다.
- 9) 李建强(2017) 부록 주석에 범자의 m표기인 큰 원점이 빠져있다고 하였다.

3)	11	miśoṭaya	miśoṭaya	viśodhaya
4)	15	svābhā vamiśote	svābhā vamiśote	svābhā vaviśote
5)	24	vijayaviśuddhe	vijayamiśuddhe	vijayaviśuddhe
6)	44	miṣphoṭa modhiśuddhe	miṣphoṭa modhiśuddhe	viṣphoṭa modhiśuddhe
7)	61	mimudhaya	mimudhaya	vimudhaya
8)	62	mimudhaya	mimudhaya	vimudhaya

위와 같이 세 판본사이 m과 v의 차이가 총 8개 예가 나온다. 대개 망월사본(1800)과 만연사본(1777)에서 m으로 되어 있고 오대진언(1485)에서는 v로 되어 있다. 오직 5)번 24호 예에서만 망월사본(1800)에서 오대진언과 같이 v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위의 m과 v의 차이가 나타나는 환경을 보면 모두 l모음과 결합하는 경우임을 볼 수 있다.

[표7] 眞言集 세 판본 o/u 모음의 차이

순서	번호	망월(1800)	만연(1777)	오대(1485)
1)	06	moddhāya	moddhāya	muddhāya
2)	22	gaganaviśuddhe	gaganaviśuddhe	gaganaviśoddhe
3)	33	viśuddhe	viśuddhe	viśoddhe
4)	55	pariśoddhe	pariśoddhe	pariśuddhe
5)	56	sarvāgatipariśoddhe	sarvāgatipariśoddhe	sarvāgatipariśuddhe

그다음으로 보다 많은 차이는 u와 o의 차이로 모두 5회 나타난다. 1)번 06호 예에서만 m 뒤에 모음의 차이를 보일뿐 기타 예는 모두 ś자음 뒤에서 차이를 보여준다. 1)번의 m자음 뒤 차이에서도 망월사본(1800)과 만연사본(1777) 모두 mo으로 되어 있지만 오대진언(1485)에는 mu로 되어 있다. 아래 ś자음 뒤의 예 역시 망월사본(1800)과 만연사본(1777)가 śu이면 오대진언(1485)는 śo이고 반대로 망월사본(1800)과 만연사본(1777)가 śo이면 오대진언(1485)가 śu이다.

[표8] 眞言集 세 판본 ā/a 모음의 차이

순서	번호	망월(1800)	만연(1777)	오대(1485)
1)	45	jāyā jāyā mijayā mijayā	jāyā jāya mijaya mijaya	jāya jāya vijaya vijaya
2)	64	sarvātathāgata hṛdaya	sarvātathāgata hṛdaya	sarvātathāgatā hṛdaya

마지막으로 모음 a의 장단음 차이 예가 2회 있는데 규칙성이 보이지 않는다. 단순한 오류인 듯한다.

총적으로 한국 眞言集 세 판본의 범자 텍스트를 비교하여 본 결과, 비록 15세기와 18세기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세 판본의 범자 텍스트는 여전히 대부분 일치하여 매우 엄격한 전사 과정을 거쳐 전승되어 왔음을 볼 수 있겠다. 하지만 m/v, o/u, ā/a에서 일부 차이가 보이는데 대체적으로 망월사본(1800)과 만연사본(1777)이 일치하고 오대진언(1485)와 다르다. 이는 오랜 기간 전승되어 오면서 생긴 차이로 보이며 동시에 망월사본(1800)의 범자 텍스트는 만연사본(1777)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편찬되어 시기적인 원인으로 일치성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 편찬과정에서 망월사본(1800)이 만연사본(1777) 범자 텍스트를 참조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다.

4.2. 『大正藏』세 판본의 비교

본 절에서는 이어서 표5에 제시 된 대정장 세 판본의 범자 텍스트를 비교하여 보겠다. 이 세 판본 텍스트 역시 대체적으로 일치한 편이지만 여전히 일부 차이가 보인다.

우선 대정장 세 판본에서 범자 텍스트에 일부 문장에 차이가 보이는데 아래와 같다.

[표12] 『大正藏』 세 판본 문장의 차이

순서	번호	弘法大師本	善無畏梵本	靈雲寺藏本
1)	10	viśodhaya	viśudhaya	viśudhaya
	11	viśodhaya	☒	重字 기호
2)	12	sama sama samantā vabhasa	sama ☒ samanta vabhāsa	sama sama samanta vabhāsa
3)	18	varavacana amṛtābhiṣaikai mahāmantrapadai	varavacanā amṛtābhiṣaikai ☒	varavacana amṛtābhiṣaikai mahābantrapaddhai
4)	21	śodhaya śodhaya	śodhaya śodhaya	śodhaya ☒
5)	62	vibudya	vibudhya	vibudhya
		boddhya boddhya		boddhya boddhya
		viboddhya viboddhya		viboddhya viboddhya
6)	52	mama	mamasya	mama
7)	56	sarvatathāgatipariśuddhe	sarvagatipariśuddhe	sarvagatipariśuddhe
8)	57	sarvatathāścame	sarvatathāgatāśca me	sarvatathāgataśca me

위의 표12에서 1)번 예를 보면 弘法大師本에서 10구와 11구는 반복되어 나타나는 대신 靈雲寺本에서는 重字 표기로 대신한다. 하지만 善無畏本에서는 중복이 없다. 다음 2)번 예에서 "sama sama" 반복되어야 하는데 善無畏本에서는 "sama"으로 되어 있다. 3)번 예에서도 弘法大師本의 "mahāmantrapadai", 靈雲寺本의 "mahābantrapaddhai"와 대응하는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5)번 예에서 62구 다음에 弘法大師本에 "boddhya boddhya viboddhya viboddhya"가 있고, 靈雲寺本에 "boddhya boddhya viboddhya viboddhya"이 있는데 善無畏本에는 이와 해당되는 문구가 없다. 다음은 일부 몇 글자차이가 있는 것으로 6)번에는 善無畏本에 "sya"가 추가되어 있고 7)번 예에서는 弘法大師本에 "tathā"가 추가되어 있고 8)번 예를 보면 弘法大師本이 다른 판본에 비해 "gatā"가 없다. 전반적으로 대개 善無畏本이 기타 弘法大師本과 靈雲寺本과의 차이가 크며 弘法大師本과 靈雲寺本이 상대적으로 가까움을 볼 수 있다.

다음은 세부적인 차이에 대해 보겠다. 먼저 모음의 차이를 보면 아래와 같이 몇가지가 있다.

[표9] 『大正藏』 세 판본 ā/a 모음의 차이

순서	번호	弘法大師本	善無畏梵本	靈雲寺藏本
1)	03	trailokyā	trailokya	trailokya
2)	12	sama sama samantā	sama samanta	sama sama samanta
3)	14	gatihāna	gatihahana	gatihahana
4)	15	svābhā vaviśuddhe	svabha vaviśuddhe	svabhā vaviśuddhe
5)	18	vabhasa	vabhāsa	vabhāsa

6)	30	hṛdayādiṣṭanadhiṣṭata	hṛdayādiṣṭanādhiṣṭita	hṛdayādiṣṭanādhiṣṭita
7)	37	āyuhśuddhe	āyuhśuddhe	āyuhśuddhe
8)	38	samayadhiṣṭate	samayadhiṣṭate	samāyādhiṣṭite
9)	54	sarvasatvanām̐cakaya	sarvasatvānām̐cakāya	sarvasatvānām̐cakāya
10)	58	sarvatathāgata samāśvasa	sarvatathāgata samaśvasa	sarvatathāgata samāśvasa
11)	65	dhiṣṭanadhiṣṭhata	dhiṣṭanādhiṣṭata	dhiṣṭanādhiṣṭita

『大正藏』 세 판본에서 장단음의 차이가 다른 차이에 비하여 좀 많은 편이다. 장음의 분포와 단음의 분포가 불규칙적이다. 다음의 모음의 차이를 보면 a/e/i, o/u가 있다.

[표10] 『大正藏』 세 판본 a/e/i 모음의 차이

순서	번호	弘法大師本	善無畏梵本	靈雲寺藏本
1)	05	viśiṣṭaya	viśiṣṭaya	viśiṣṭhiya
2)	31	mahāmudri	mahāmudre	mahāmudre
3)	65	dhiṣṭanadhiṣṭhata	dhiṣṭanādhiṣṭata	dhiṣṭanādhiṣṭita

[표11] 『大正藏』 세 판본 o/u 모음의 차이

순서	번호	弘法大師本	善無畏梵本	靈雲寺藏本
1)	10	viśodhaya	viśudhaya	viśudhaya
2)	43	viṣphuṭa buddhiśuddhe	viṣphoṭa bodhiśuddhe	visphoṭa bodhiśuddhe
3)	57	sarvatathāscame samaśvasayaṃtu	sarvatathāgataśca me samaśvasayaṃto	sarvatathāgataśca me samāśvasayaṃto

먼저 위의 표10을 보면 세 판본을 보면 모음 a/i/e의 차이가 보인다. 사실 산스크리트의 음운변화에 모음의 강약처리가 있는데 진언 독송과정에서 강모음과 약모음의 혼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다음의 표11을 보면 일부 모음 o/u의 차이가 있는데 규칙성을 찾아 보기 힘들다.

다음의 자음의 차이에 대해 보겠다. 자음의 차이는 모음의 차이보다 더 적다.

[표12] 『大正藏』 세 판본 자음의 차이

순서	번호	弘法大師本	善無畏梵本	靈雲寺藏本
1)	05	viśiṣṭaya	viśiṣṭaya	viśiṣṭhiya
2)	28	avalākaniṣa ddhāramitā	avalūkaniṣa ṭpāramita	avalūkaniṣa ṭpāramita
3)	20	āyuh sandhāraṇi	āyu sandhāraṇi	āyu sandhāraṇi
4)	35	payadrargatipariśuddhe	bhayadurgatipariśuddhe	bhayadurgatipariśuddhe
5)	60	buddhya buddhya	buddhya buddhya	muddhya muddhya

위의 표12에서 1)번 05구 예를 보면 弘法大師本과 善無畏梵本 모두 "ṣṭa"인 글자가 靈雲寺藏本에서 "ṣṭhi"으로 되어 차이를 보여준다. 다음 2)번 예를 보면 여전히 설음의 차이로 善無畏梵本과 靈雲寺藏本에서 모두 "ṭpā"로 되어 있는데 弘法大師本에서 "ddhā"으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 3)번 예를 보면 20구에서 善無畏梵本과 靈雲寺藏本 모두 "āyu"으로 되어 있지만 弘法大師本에는 "āyuh" 으로 되어 있어 끝자음 "-h"이 더해 있다. 다음 4)번과 5)번 예는 모두 순음의 차이로 4)번에서 善無畏梵本과 靈雲寺藏本은 "bha" 유성유기음으로 되어 있지만 弘法大師本에는 "pa" 무기음으로 되어 있다. 마지막 5)번 예는 弘法大師本과 善無畏梵本이 모두 유성음 "bu"으로 되어 있지만 靈雲寺藏本은 비음의 "mu"으로 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大正藏』의 범자 텍스트 역시 대체적으로 일치하지만 일부 문장의 차이가 있

고 모음과 자음의 차이도 한국 眞言集에 비하여 좀 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3. 眞言集과 『大正藏』 각 판본의 비교

앞서 4.1절과 4.2절에서는 각각 眞言集 세 판본 사이와 『大正藏』 세 판본 사이의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주로 眞言集과 『大正藏』을 비교 고찰하여 보겠다.

먼저 텍스트의 구성에 있어서 앞서 『大正藏』에서 일부 문장의 차이가 있음을 보았다. 이를 한국 眞言集과 결합하여 같이 보면 아래와 같다.

[표13] 眞言集과 『大正藏』 각 판본 문장 차이

순서	번호	망월(1800)	만연(1777)	오대(1485)	弘法大師本	善無畏梵本	靈雲寺藏本
1)	18	varavacana amṛtabhi -ṣaikai ☒ ☒	varavacana amṛtabhi -ṣaikai ☒ ☒	varavacana amṛtabhi -ṣaikai ☒ ☒	varavacana amṛtābhi -ṣaikai mahāman -trapadai	varavacanā amṛtābhi -ṣaikai ☒ ☒	varavacana amṛtābhi -ṣaikai mahāban -ttrapaddhai
2)	62	mimudhaya	mimudhaya	vimudhaya	vibudya	vibudhya	vibudhya
		☒	☒	☒	boddhya	☒	boddhya
		☒	☒	☒	boddhya	☒	boddhya
		☒	☒	☒	viboddhya	☒	viboddhya
		☒	☒	☒	viboddhya	☒	viboddhya
3)	52	mamasya	mamasya	mamasya	mama	mamasya	mama
4)	10	miśuṭaya	miśuṭaya	viśudhaya	viśodhaya	viśudhaya	viśudhaya
	11	miśuṭaya	miśuṭaya	viśodhaya	viśodhaya	☒	重字 기호
5)	40	mamaṇi	mamaṇi	mamaṇi	mahāmaṇi	mahāmaṇi	mahāmaṇi
6)	56	sarvāgati -pariśoddhe	sarvāgati -pariśoddhe	sarvāgati -pariśuddhe	sarvatathāga -tipariśuddhe	sarvagati -pariśuddhe	sarvagati -pariśuddhe

위의 순서 1)번 18구와 2)번 62구 다음을 보면 대정장 弘法大師本과 靈雲寺藏本 모두 각각 추가된 몇 단어가 있지만 善無畏梵本에는 없다. 眞言集 세 판본 모두 善無畏梵本과 같이 추가된 단어가 없다. 그리고 3)번 52구에서 弘法大師本과 靈雲寺藏本은 “mama”로 되어 있고 善無畏梵本은 “mamasya”로 “sya”가 추가되어 있는데 眞言集 세 판본 모두 역시 善無畏梵本과 같이 “mamasya”로 되어 있다.

이어서 4)번 11구는 마땅히 10구 내용이 한번 더 반복되어 나타나야 하는데 유독 善無畏梵本만 없어 대개 오류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 5)번 40구는 『大正藏』 세 판본 모두 “mahāmaṇi”로 되어 있지만 眞言集 세 판본 모두 “mamaṇi”로 hā가 빠져 있다. 마지막으로 6)번 56구에서 유독 弘法大師本만이 “sarvatathāgatipariśuddhe”로 기타 판본의 “sarvagatipariśuddhe”로, 기타 판본에 비하여 “tathā”가 더 있다.

전반적으로 위의 범자 텍스트 구성을 보면 한국 眞言集이 대체적으로 『大正藏』의 세 판본 중에서 善無畏梵本과 제일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표14] 『大正藏』에서의 범자 오류 현상

순서	번호	망월(1800)	만연(1777)	오대(1485)	弘法大師本	善無畏梵本	靈雲寺藏本
1)	26	saṃcodite	saṃcodite	saṃcodite	saṃcodite	saṃsudite	saṃsudite

2)	32	vajrakaya -simhātana	vajrakaya -simhātana	vajrakaya -simhātana	vajrakāya -samhātana	vajrakāya -samhātana	vajrakāya -sumhātana
3)	28	valokaṇiṣa	valokaṇiṣa	valokaṇiṣa	avalākaṇiṣa	avalūkaṇiṣa	avalūkaṇiṣa

위의 [표14] 1)번 26구 예를 보면 『大正藏』 善無畏梵本과 靈雲寺藏本 모두 "saṃsudite" 으로 되어 있고 기타 모두 "saṃcodite"으로 되어 있어 "su"와 "co"의 차이가 보인다. 이에 대해 李建强(2017) 부록1 제2장 주석4와 5에서 善無畏梵本과 靈雲寺藏本の "su"은 오류라고 밝혔다. 기타 문헌과 비교하여 보면 "co"를 잘못 기록한 것이며 한국 眞言集 세 판본 모두 정확히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 2)번 32구에서 靈雲寺藏本 "vajrakāyasumhātana"에서 李建强(2017) 부록1 제3장 주석1에서 "sum"은 "saṃ"의 오류일 것이라 하였다. 弘法大師本과 善無畏梵本은 정확히 "saṃ"으로 되어 있다. 한국 眞言集을 보면 해당 범자가 "sim"으로 되어 있는데 산스크리트 산디현상(즉 음운변화)에 의한 것으로 여전히 정확한 것이다.

다음 3)번 28구를 보면 『大正藏』 弘法大師本에서 "avalākaṇiṣa"가 있는데 기타 판본과 비교하여 보면 여기서 "lā"는 "lū"의 오류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 眞言集에서 이와 대응하는 범자는 "lo"으로 "lū"와 가깝다.

위의 고찰로부터 한국 眞言集 범자 텍스트의 정확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a모음의 장단음 차이에 대해 보겠다.

[표15] 眞言集과 『大正藏』 각 판본 a모음의 장단 차이

(1) ā-a 유형

순서	번호	망월(1800)	만연(1777)	오대(1485)	弘法大師本	善無畏梵本	靈雲寺藏本
1)	15	mām	mām	mām	maṃ	maṃ	maṃ
2)	27	sarvāta -thāgātā	sarvāta -thāgātā	sarvāta -thāgātā	sarvata -thāgata	sarvata -thāgata	sarvata -thāgata
3)	29	sarvāta -thāgātā	sarvāta -thāgātā	sarvāta -thāgātā	sarvata -thāgata	sarvata -thāgata	sarvata -thāgata
4)	34	sarvāvarana	sarvāvarana	sarvāvarana	sarvavaraṇi	sarvavaraṇi	sarvavaraṇa
5)	44	jāyā jāyā	jāyā jāyā	jāyā jāyā	jaya jaya	jaya jaya	jaya jaya
6)	46	sarvāmuddh ā	sarvāmuddh ā	sarvāmuddh ā	sarvabuddh ā	sarvabuddh ā	sarvabuddh ā
7)	54	sarvasatvā -nāmcakāya	sarvasatvā -nāmcakāya	sarvasatvā -nāmcakāya	sarvasatva -nāmcakaya	sarvasatvā -nāmcakāya	sarvasatvā -nāmcakāya
8)	56	sarvāgati	sarvāgati	sarvāgati	sarvatathāg a	sarvagati	sarvagati
9)	57	sarvātathā -gatāścameri	sarvātathā -gatāścameri	sarvātathā -gatāścameri	sarvatathā -ścame	sarvatathā -gatāśca me	sarvatathā -gataśca me
10)	58	sarvātathā -gatā	sarvātathā -gatā	sarvātathā -gatā	sarvatathā -gata	sarvatathā -gata	sarvatathā -gata
11)	64	sarvātathā -gata	sarvātathā -gata	sarvātathā -gatā	sarvatathā -gata	sarvatathā -gatā	sarvatathā -gata

(2) a-ā 유형

순서	번호	망월(1800)	만연(1777)	오대(1485)	弘法大師本	善無畏梵本	靈雲寺藏本
1)	18	amṛtabhi -ṣaikai	amṛtabhi -ṣaikai	amṛtabhi -ṣaikai	amṛtābhi -ṣaikai	amṛtābhi -ṣaikai	amṛtābhi -ṣaikai

2)	19	ahara ahara	ahara ahara	ahara ahara	āhara āhara	āhara āhara	āhara āhara
3)	20	ayu sandharaṇi	ayu sandharaṇi	ayu sandharaṇi	āyuh sandhāraṇi	āyu sandhāraṇi	āyu sandhāraṇi
4)	30	hṛdayadhiṣṭa -nadhiṣṭhita	hṛdayadhiṣṭa -nadhiṣṭhita	hṛdayadhiṣṭa -nadhiṣṭhita	hṛdayādiṣṭa -nadhiṣṭata	hṛdayādiṣṭa -nādhiṣṭita	hṛdayādiṣṭa -nādhiṣṭita
5)	32	vajrakaya	vajrakaya	vajrakaya	vajrakāya	vajrakāya	vajrakāya
6)	50	vajraṁ	vajraṁ	vajraṁ	vajrāṁ	vajrāṁ	vajrāṁ
7)	51	bhavatu	bhavatu	bhavatu	bhāvatu	bhāvatu	bhavatu
8)	64	hṛdaya	hṛdaya	hṛdaya	hṛdayā	hṛdayā	hṛdayā

(3) a/ā 유형

순서	번호	망월(1800)	만연(1777)	오대(1485)	弘法大師本	善無畏梵本	靈雲寺藏本
1)	12	samanta vabhasa	samanta vabhasa	samanta vabhasa	samantā vabhasa	samanta vabhāsa	samanta vabhāsa
2)	15	svābhā mām	svābhā mām	svābhā mām	svābhā mam	svabha mam	svabhā mam
3)	18	varavacana	varavacana	varavacana	varavacana	varavacanā	varavacana
4)	25 28	sahasrara tpāramitā	sahasrara tpāramitā	sahasrara tpāramitā	sahasrara ddhāramitā	sahāsrara tpāramita	sahāsrara tpāramita
5)	30	hṛdayadhiṣṭa -nadhiṣṭhita	hṛdayadhiṣṭa -nadhiṣṭhita	hṛdayadhiṣṭa -nadhiṣṭhita	hṛdayādiṣṭa -nadhiṣṭata	hṛdayādiṣṭa -nādhiṣṭita	hṛdayādiṣṭa -nādhiṣṭita
6)	37	ayūśuddhe	ayūśuddhe	ayūśuddhe	āyuhśuddhe	āyuhśuddhe	ayuhśuddhe
7)	38	samayadhi	samayadhi	samayadhi	samayadhi	samayadhi	samāyādhi
8)	57 58	sarvātathā -gatāścameṁ samasvāsa	sarvātathā -gatāścameṁ samasvāsa	sarvātathā -gatāścameṁ samasvāsa	sarvatathā -ścame samāśvasa	sarvatathā -gatāśca me samaśvasa	sarvatathā -gataśca me samāśvasa
9)	64	sarvātathā -gata	sarvātathā -gata	sarvātathā -gatā	sarvatathā -gata	sarvatathā -gatā	sarvatathā -gata

a모음의 장단 차이는 좀 많이 나타나는 편이다. 이들을 위와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첫 번째 ā-a유형은 眞言集 세 판본 모두 장음 ā이지만 『大正藏』 세 판본 모두 단음 a인 경우이고, 두 번째 a-ā유형은 眞言集 세 판본 모두 단음 a이지만 『大正藏』 세 판본 모두 장음 ā인 경우이다.

세 번째 a/ā유형은 眞言集과 大正藏 분별 없이 일부 판본이 기타 판본과 a의 장단음 차이가 보이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1)번 12구를 보면 대정장 弘法大師本 "samantā" 에서 마지막 모음이 장음 ā이지만 기타 판본 모두 단음 a이다. 이는 弘法大師本 장음의 오류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같은 구 善無畏本 "vabhāsa"에서 두 번째 모음이 장음 ā인데 기타 판본은 모두 a모음으로 되어 있어 여기서는 善無畏本의 오류로 보인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살펴보면 이런 오류들이 진언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정장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16] 眞言集과 『大正藏』 각 판본 장단음 차이의 기타 유형

(1) a추가

순서	번호	망월(1800)	만연(1777)	오대(1485)	弘法大師本	善無畏梵本	靈雲寺藏本
1)	27	sarvāta -thāgatā	sarvāta -thāgatā	sarvāta -thāgatā	sarvata -thāgata	sarvata -thāgata	sarvata -thāgata

	28	valokaṇiṣa tpāramitā	valokaṇiṣa tpāramitā	valokaṇiṣa tpāramitā	avalākaṇiṣa ddhāramitā	avalūkaṇiṣa tpāramitā	avalūkaṇiṣa tpāramitā
2)	58	samasvāsa	samasvāsa	samasvāsa	samāśvasa	samaśvasa	samāśvasa
	59	dhiṣṭhite	dhiṣṭhite	dhiṣṭhite	adhiṣṭate	adhiṣṭate	adhiṣṭate

(2) 기타 모음

순서	번호	망월(1800)	만연(1777)	오대(1485)	弘法大師本	善無畏梵本	靈雲寺藏本
1)	23	uṣṇiṣa	uṣṇiṣa	uṣṇiṣa	uṣṇiṣa	uṣṇiṣa	uṣṇiṣa
2)	42	pariśuddhe	pariśuddhe	pariśuddhe	pariśuddhe	pariśuddhe	pariśuddhe

위의 도표에서 첫 번째 유형 1)번 28구 시작 부분을 보면 진언집 세 판본 모두 "valākaṇiṣa" 되어 있지만 대정장 세 판본 모두 "avalākaṇiṣa"으로 맨 앞에 "a"모음 음절이 더 있다. 반대로 앞의 27구의 끝을 보면 진언집 세 판본은 "thāgata"으로 맨 끝의 모음이 장음의 ā으로 되어 있지만 대정장의 세 판본은 "thāgata" 단음의 a로 되어 있다. 산스크리트 산디 음운현상에 의하면 a-a가 연이어 출현할 때 장음의 ā로 변할 수 있다는 규칙이 있어서 진언집의 처리도 정확함을 볼 수 있다. 다만 2)번 에서 진언집은 같은 환경이지만 두 번째 구 a 음절을 인지 못하고 단음 a로 처리되어 있다.

두 번째 유형은 a모음을 제외한 기타 모음의 장단음 차이를 보여주는 것인데 1)번은 진언집에서 모두 단음의 I모음이지만 대정장에서는 모두 장음의 i인 경우이고 2)번은 진언집에서 자음의 ū이지만 대정장에서는 단음의 u모음인 경우이다.

[표17] 眞言集과 『大正藏』 각 판본 기타 모음의 차이

1) o/u 모음

순서	번호	망월(1800)	만연(1777)	오대(1485)	弘法大師本	善無畏梵本	靈雲寺藏本
1)	33	viśuddhe	viśuddhe	viśoddhe	viśuddhe	viśuddhe	viśuddhe
2)	55	pariśoddhe	pariśoddhe	pariśuddhe	pariśuddhe	pariśuddhe	pariśuddhe
3)	56	sarvāgati -pariśoddhe	sarvāgati -pariśoddhe	sarvāgati -pariśuddhe	sarvatathāga -tipariśuddhe	sarvagati -pariśuddhe	sarvagati -pariśuddhe
4)	63	pariśoddhe	pariśoddhe	pariśuddhe	pariśuddhe	pariśuddhe	pariśuddhe
5)	10	miśuṭaya	miśuṭaya	viśudhaya	viśodhaya	viśudhaya	viśudhaya
6)	57	savasvā -sayamtu	samasvā -sayamtu	savasvā -sayamtu	samaśva -sayamtu	samaśva -sayamto	samāśva -sayamto
7)	21	śudhaya	śudhaya	śudhaya	śodhaya	śodhaya	śodhaya

2) a/e/i 모음

순서	번호	망월(1800)	만연(1777)	오대(1485)	弘法大師本	善無畏梵本	靈雲寺藏本
1)	14	gategahana	gategahana	gategahana	gatihahāna	gatihahana	gatihahana
2)	31	mahāmudra	mahāmudra	mahāmudra	mahāmudri	mahāmudre	mahāmudre
3)	34	sarvāvarana	sarvāvarana	sarvāvarana	sarvavarāṇi	sarvavarāṇi	sarvavarāṇa
4)	66	vahāmudre	mahāmudre	mahāmudre	mahāmudri	mahāmudri	mahāmudre
5)	48	vajre	vajre	vajre	vajri	vajri	vajri

위의 첫 번째 경우는 o모음과 u모음의 차이를 반영한다. 순서 1)번 33구 예를 보면 진언집 오대진언(1485)에서만 "viśoddhe"의 "o"모음으로 되어 있지만 기타 판본 해당 모음 모두 "u"이다. 이는 오대진언(1485)의 오류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번, 3)번, 4)번의 예를 보면 모두 진언집 만연사본(1777)과 망월사본(1800)이 기타 판본과 차이를 보여주며 오대진언(1485)는 대정장 세 판본과 일치한다. 대체적으로 u/o의 혼용은 한국 진언집에서 많이 나타남을 볼

수 있으며 중간본에서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는데 아마 한국 내 전승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런 오류들이 생겼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대정장에서도 일부 차이가 보이는데 5번과 6)번이 그러하다. 그리고 7)번과 같이 진언집 내와 대정장 내가 각각 일치한 경우도 있다.

다음 두 번째 경우는 a, e, i 모음의 차이를 반영한다. 1)번 14구 예는 한국 진언집에서 모두 e모음이지만 대정장에서 모두 i모음인 경우이다. 2)번과 같이 진언집은 모두 a모음이지만 대정장에서 일부가 i모음, 일부가 e모음인 경우도 있다. 아래의 예들도 비슷한 경우이다. 사실 산스크리트 산디 음운현상에서 a, e, i는 강약 3단계 모음으로 음변화가 가능하다. 즉 여기서는 솔직히 어디가 오류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지금까지 모음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아래는 자음의 차이에 대해 보겠다.

[표18] 眞言集과 『大正藏』 각 판본 m/v/b 자음의 차이

1) m/v

순서	번호	망월(1800)	만연(1777)	오대(1485)	弘法大師本	善無畏梵本	靈雲寺藏本
	05	misiṣṭaya	misiṣṭaya	visiṣṭaya	viṣiṣṭaya	viṣiṣṭhiya	visiṣṭaya
	10	miṣuṭaya	miṣuṭaya	viṣudhaya	viṣodhaya	viṣudhaya	viṣudhaya
	15	vamiṣote	vamiṣote	vaviṣote	vaviṣuddhe	vaviṣuddhe	vaviṣuddhe
	36	pratidima -rtaya	pratidima -rtaya	pratidima -rtaya	pratiniva -rttaya	pratiniva -rttaya	pratiniva -rttaya
	43	miṣphoṭa mijayā mijayā	miṣphoṭa mijaya mijaya	visphoṭa vijaya vijaya	viṣphuṭa vijaya vijaya	viṣphoṭa vijaya vijaya	visphoṭa vijaya vijaya
	61	mimudhaya	mimudhaya	vimudhaya	vibudya	vibudhya	vibudhya

2) m/b

순서	번호	망월(1800)	만연(1777)	오대(1485)	弘法大師本	善無畏梵本	靈雲寺藏本
	06	moddhāya	moddhāya	muddhāya	buddhāya	buddhāya	buddhāya
	43	modhiṣuddhe	modhiṣuddhe	modhiṣuddhe	buddhiṣuddhe	bodhiṣuddhe	bodhiṣuddhe
	46	sarvāmu -ddhā	sarvāmu -ddhā	sarvāmu -ddhā	sarvabu -ddhā	sarvabu -ddhā	sarvabu -ddhā
	60	muddhya muddhya	muddhya muddhya	muddhya muddhya	buddhya buddhya	buddhya buddhya	muddhya muddhya

위 첫 번째 유형은 자음 m과 v의 차이를 보여주는 예들이다. 대정장에서는 m과 v의 혼용이 없이 모두 v로 되어 있다. 진언집에서만 차이를 보여주는데 오대진언(1485)에서는 대부분 v인 반면에 망월사본(1800)과 만연사본(1777)에서 모두 m으로 나타난다. 즉 오대진언(1485)가 대정장과 일치하며 정확한 것으로 추정되면 망월사본(1800)과 만연사본(1777)에서 오류인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두 번째 유형 m과 b차이 예들을 보면, 대정장 세 판본에서 대부분 b인데 반면 진언집 세 판본 모두 m으로 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진언집에서 v과 b 대신 m을 사용하는 경향이 보인다. 이에 대해 혹시 한국어 비음의 유성성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표19] 眞言集과 『大正藏』 각 판본 s계열 자음의 차이

1) 단자음

순서	번호	망월(1800)	만연(1777)	오대(1485)	弘法大師本	善無畏梵本	靈雲寺藏本
1)	28	valokaṇisa	valokaṇisa	valokaṇisa	avalākaṇisa	avalūkaṇisa	avalūkaṇisa
2)	57	savasvā -sayarṃtu	samasvā -sayarṃtu	savasvā -sayarṃtu	samaśva -sayarṃtu	samaśva -sayarṃto	samāśva -sayarṃto
3)	58	samasvāsa	samasvāsa	samasvāsa	samāśvasa	samaśvasa	samāśvasa

2) 복자음

순서	번호	망월(1800)	만연(1777)	오대(1485)	弘法大師本	善無畏梵本	靈雲寺藏本
1)	05	misiṣṭaya	misiṣṭaya	visiṣṭaya	visiṣṭaya	viśiṣṭhiya	visiṣṭaya
2)	38	samayadhi -ṣṭhite	samayadhi -ṣṭhite	samayadhi -ṣṭhite	samayadhi -ṣṭate	samayadhi -ṣṭate	samāyādhi -ṣṭite
3)	47	dhiṣṭhitaśu -ddhe	dhiṣṭhitaśu -ddhe	dhiṣṭhitaśu -ddhe	dhiṣṭhitaśu -ddhe	dhiṣṭhitaśu -ddhe	dhiṣṭhitaśu -ddhe
4)	65	dhiṣṭhana -dhiṣṭhita	dhiṣṭhana -dhiṣṭhita	dhiṣṭhana -dhiṣṭhita	dhiṣṭhana -dhiṣṭhata	dhiṣṭanā -dhiṣṭata	dhiṣṭanā -dhiṣṭita

위에서 첫 번째 s 단자음인 경우를 보면 대정장 ṣ와 ś의 예들이 대정장 세 판본에서 일치하지만 진언집에서는 모두 권설성과 구개성이 사라진 s로 되어 있다. 이는 한국에 범자 텍스트가 건너 올 때부터 s로 되었는지 아니면 오래전 한국 내에서 전승되었을 때 권설성과 구개성을 잘 분별하지 못하여 사라진 것인지 모르겠다.

두 번째 경우는 복자음 예들인데 주로 권설음의 ṣṭ와 ṣṭh이다. 대체적으로 한국 진언집에서는 유기는 ṣṭh이 사용되고 대정장에서는 무기음 ṣṭ를 사용하고 있다. 어느 쪽이 정확히 산스크리트 언어를 정확히 반영하는지는 산스크리트 언어분석을 통하여야 할 것이다.

[표20] 眞言集과 『大正藏』 각 판본 t/d 계열의 자음 차이

순서	번호	망월(1800)	만연(1777)	오대(1485)	弘法大師本	善無畏梵本	靈雲寺藏本
1)	15	vamiśote	vamiśote	vaviśote	vaviśuddhe	vaviśuddhe	vaviśuddhe
2)	28	tpāramitā	tpāramitā	tpāramitā	ddhāramitā	tpāramitā	tpāramitā
3)	41	tathādābhū -takodhi	tathādābhū -takodhi	tathādābhū -takodhi	tathātābhū -takoṭi	tathātābhū -takoṭi	tathātābhū -takoṭi
4)	30	hṛdayadhiṣṭa -nadhiṣṭhita	hṛdayadhiṣṭa -nadhiṣṭhita	hṛdayadhiṣṭa -nadhiṣṭhita	hṛdayādiṣṭa -nadhiṣṭata	hṛdayādiṣṭa -nādhīṣṭita	hṛdayādiṣṭa -nādhīṣṭita
5)	36	pratidima -rtaya	pratidima -rtaya	pratidima -rtaya	pratiniva -rttaya	pratiniva -rttaya	pratiniva -rttaya
6)	61	mimudhaya	mimudhaya	vimudhaya	vibudya	vibudhya	vibudhya

위의 1)번 예를 보면 진언집 세 판본에서 모두 "te"인 부분이 대정장 세 판본에서 모두 "ddh"으로 반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2)번 예에서는 진언집 세 판본에서의 "tp-" 복자음이 대정장에서 대개 "tp-"으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도 진언집에서 "t"권설성이 반영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와 대응하는 부분에 弘法大師本은 좀 특이하게 "ddh-"으로 반영하고 있다. 위의 1)번의 대응 예와 비슷한 경향이 보는 것이다.

이어서 3)번 예를 보면 진언집 세 판본에서 "d"인 부분에 대정장 세 판본에서 "t"로, 진언집 세 판본에서 "dh"인 부분에 대정장 세 판본에서 "t"으로 대응되어 있다. 즉 유성성과 무성성의 차이가 확실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4)번 예는 진언집 세 판본에서 "dh"이고 대정장 세 판본에서 "d"이며, 5)번 예는 진언집에서 복자음 "rt-"가 대정장 세 판본에서 "rtt-"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6)번 예에서는 대부분 판본에서 모두 "dh"이지만 弘法大師本에서만 "d"으로 되어 있어 오류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위의 차이 현상은 규칙성을 찾기 어려우며 단지 산스크리트 설음의 권설음, 유성음, 유성유기음 등이 발음이 비슷하여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표21] 眞言集과 『大正藏』 각 판본 자음운미 -ḥ, -m의 차이

순서	번호	망월(1800)	만연(1777)	오대(1485)	弘法大師本	善無畏梵本	靈雲寺藏本
1)	37	ayuśuddhe	ayuśuddhe	ayuśuddhe	āyuhśuddhe	āyuhśuddhe	ayuḥśuddhe
2)	20	ayu sandharaṇi	ayu sandharaṇi	ayu sandharaṇi	āyuh sandhāraṇi	āyu sandhāraṇi	āyu sandhāraṇi
3)	25	sahasrara -śmaṁ	sahasrara -śmaṁ	sahasrara -śmaṁ	sahasrara -śmi	sahāsrara -śmi	sahāsrara -śmi
4)	63	saṁmanta pariśuddhe	saṁmanta pariśuddhe	saṁmanta pariśuddhe	samanta pariśuddhe	samanta pariśuddhe	samanta pariśuddhe

위의 1)번 37구를 보면 진언집 세 판본에서 "ayu"로 되어 있지만 대정장 세 판본에서는 모두 "āyuh"으로 ḥ가 더하여 있다. 다음 2)번 20구를 보면 진언집 세 판본은 여전히 "ayu"로 되어 있지만 대정장에서는 대부분 진언집과 같이 ḥ없이 "āyu"으로 되어 있다. 다만 弘法大師本에서만 앞서 1)번과 같이 "āyuh"으로 되어 있다.

다음 3)번 25구에서는 마지막 음절 진언집 세 판본에서 "śmaṁ"으로 되어 있지만 대정장 세 판본에서는 "śmi"으로 되어 있다. 이는 -m의 산디 음운현상에 대한 인식 차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 4)번을 보면 진언집에서 "saṁ"으로 된 부분이 대정장에서는 모두 m이 빠진채 "sa"으로 되어 있다. 이는 후행하는 "manta"에서 첫 번째 자음 'm'의 영향을 받은 인식 차이인 것으로 보인다.

[표22] 眞言集과 『大正藏』 각 판본 기타 자음의 차이

순서	번호	망월(1800)	만연(1777)	오대(1485)	弘法大師本	善無畏梵本	靈雲寺藏本
1)	28	valokaṇiṣa	valokaṇiṣa	valokaṇiṣa	avalākaniṣa	avalūkaniṣa	avalūkaniṣa
2)	35	payadurgati -pariśuddhe	payadurgati -pariśuddhe	payadurgati -pariśuddhe	payadrargati -pariśuddhe	bhayadurgati -pariśuddhe	bhayadurgati -pariśuddhe

마지막으로 또한 기타 자음의 차이가 있는데 위의 표22에서 1)번 예를 보면 진언집 세 판본에서 "ṇ" 권설성 비음으로 되어 있지만 대정장 세 판본에서는 일반 비음의 'n'으로 되어 있다. 2)번 예에서는 진언집 세 판본에서 'p'자음이 대정장 세 판본에서 일부는 여전히 'p'자음, 일부는 'bh'자음으로 반영하고 있다.

5. 결론

본고는 한국 조선시대에 유통되었던 眞言集 여러 판본에 수록된 <불정존승다라니>의 범자 텍스트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한국 진언집 여러 판본에 대한 기본 정보를 소개하고 다음 진언집 범자의 자형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오대진언(1485), 만연사본(1777), 망월사본(1800)를 중심으로 <불정존승다라니>의 범자를 로마자로 전환하여 텍스트를 확보하였다. 다음 이어서 『大正藏』에 수록된 세 가지 梵本 弘法大師本, 善無畏梵本, 靈雲寺藏本の 텍스트를 구하여 총 6개 판본을 중심으로 차이점을 찾아 살펴보았다. 이 여섯 판본을 비교 고찰한 결과 아래와 같이 몇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우선 한국 진언집 세 판본의 범자 텍스트는 모두 가독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 판본의 텍스트는 매우 높은 일치성을 지니고 있다. 오대진언(1485)과 『眞言集』만연사본(1777), 망월사본(1800)은 시기적으로 300여년이란 시간 차이가 있음에도 높은 일치성을 보여준다는 것은 한국에서 범자 텍스트의 전승은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18세기 만연사본(1777), 망월사본(1800)에서 오대진언(1485)에 비해 보다 많은 모음의 장단, 자음 m과 v의 혼용 등 전승과정의 오류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상대적으로 오대진언(1485)의 범자 텍스트가 더욱 정확함을 볼 수 있다.

다음 대정장의 세 판본 사이의 범자 텍스트를 비교하여 보면 한국의 진언집 텍스트처럼 일치성이 떨어진다. 문장의 구성에 있어 일부 자료는 더 추가된 단어가 있는가 하면 어떤 판본은 없다. 그리고 모음의 장단을 차이등 세부적인 차이도 적지 않게 반영되고 있다. 아마 대정장의 범자 텍스트는 한국의 진언집처럼 세 판본의 긴밀성이 떨어지며 각자 별도의 발전을 가졌을 것이라 보인다.

마지막으로 진언집 판본과 대정장 판본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범자 텍스트의 구성으로부터 한국 진언집 판본은 대정장 세 판본 중 善無畏梵本과 제일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정장에서의 일부 범자 오류가 진언집에서는 정확히 반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진언집 범자 텍스트의 정확성을 볼 수 있다. 이어서 좀더 세부적으로 보면 제일 많은 차이가 a모음의 장단을 차이인데 특히 일부 대정장 세 판본 내부에서 나타나는 모음의 차이를 진언집 모음의 장단을 참고로 하여 그 오류를 찾을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아쉬운 점으로 『大正藏』의 2차 자료를 사용하였다는 점과 산스크리트 언어의 음운 현상, 형태 분석과의 결합이 부족한 점이다. 향후 관련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보다 더욱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원전류>

- 『五大眞言』(1485), 원간본, 국가기록유산 보물 793-5 [영인].
- 『眞言集』(1569), 安心寺本, 디지털한글박물관 [영인].
- 『眞言集』(1777), 萬淵寺本, 디지털한글박물관 [영인].
- 『眞言集』(1800), 望月寺本, 디지털한글박물관 [영인].

<논저류>

- 강대현(2014), 『安然의 悉曇藏에 나타난 東아시아 佛教家の 悉曇에 관한 연구』, 위덕대학교 불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 이태승, 최성규(2008), 『실담범자입문』, 정우서적.
- 이태승·안주호(2003), 망월사본 <眞言集凡例>에 대한 연구, 『한국어학』 제19집, 207-227.
- 전순환(2012), 『불경으로 이해하는 산스크리트-반야바라밀다심경 편』, 지식과 교양.
- 馬淵和夫(2006), 『悉曇章の研究』, 勉誠出版.
- 田久保周譽(1944[1978]), 『批判悉曇學』, 第一篇, 第二篇, 平文社.
- 안영희(2018), 『진언의 한글 표기법 연구, -오대진언(1485)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李建强(2017), 『敦煌•對音•初探, -基于敦煌梵、藏漢對音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기림사 소장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권7의 각필 부호 연구*

김형진(대구가톨릭대)

1. 머리말

본 연구는 기림사 소장 『묘법연화경』(이하 기림사본 『법화경』) 권7에 나타나는 각필 부호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¹⁾ 기림사 소장 『법화경』은 고려시대 절첩본으로 현재 권1과 권7이 존재하며 본 연구는 이 가운데 권7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기림사본 『법화경』 권7에서 각필 부호가 기입된 한자의 원문 부분을 모두 이미지화 하여 연구의 기본 자료를 마련할 것이다. 비교 검토를 위해 동일한 원문을 언해한 『법화경언해』 권7의 원문도 모두 입력하여 각필 구결이 기입된 문장과 언해본의 해당 부분에 대해 1:1 대응자료를 구축하며, 이를 바탕으로 언해본과의 대응관계를 통해 기림사본 『법화경』 권7에 기입된 각필 구결의 형태와 위치에 따른 의미 기능을 분석할 것이다.

기림사본 『법화경』은 고려시대에 간행된 문헌으로 현재 권1과 권4, 권7이 전하고 있다. 이들 문헌에는 자토 구결과 각필 부호가 기입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권1에 기입된 부호에 대해서는 남경란(2020)에서 연구된 바 있다. 권4는 책의 일부인 5면만 남아 있기 때문에 각필 부호를 연구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권7은 원문 전체가 존재하며 다양한 형태의 각필 부호가 기입되어 있으나 이 문헌에 나타나는 각필 부호에 대한 연구는 김형진(2022)에서만 이루어졌다.

기림사본 『법화경』은 자토 구결²⁾과 각필 부호가 함께 달려 있다. 이 중에서 각필 부호는 한쪽 끝을 뾰족하게 만든 모양의 옛날 필기구를 사용하여 한자의 상하좌우 혹은 중앙에 기입한 부호를 말한다. 각필 부호는 도구를 사용하여 책을 눌러서 흔적을 남기는 방식으로 기입하기 때문에 보통 육안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림사본 『법화경』의 경우 세필(細筆)과 먹을 이용하여 부호를 기입하였기 때문에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³⁾ 문헌에 기입된 각필 부호를 식별하기 위해 별도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 :, ··’ 등과 같은 점 부호와, ‘1, -, \, /’으로 나타나는 선 부호, ‘‘, ’, “, ”, ,,

* 이 논문은 김형진(2022) 석사 학위 논문에서 발췌하였다.

- 1) 기림사는 삼국시대 천축국의 승려 광유가 창건한 사찰로 현재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함월산에 있다. 기림사의 의미는 부처님이 생존하실 때 세워졌던 인도의 기원정사(祇園精舍)를 뜻한다. 이 절은 1986년 9월에 주존불의 복장에서 『대반야경』 등 복장 문헌들이 발견되어 1988년에 보물 959호로 지정되었다. 다만 이 기림사본 『법화경』은 보물로 지정되지 않았다.
- 2) ‘자토 구결’이란 한문의 학습이나 독해의 수단으로 한문에 우리말의 조사나 어미 또는 독법을 토(吐)로 표시해 놓은 것을 말한다.
- 3) ‘각필 부호’는 부호를 기입하는 도구가 ‘각필’이기 때문에 생겨난 용어이다. 하지만 기림사본 『법화경』은 각필이 아닌 세필(細筆)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남경란(2020)에서는 기림사본 『법화경』 권1에 기입된 부호에 대해 ‘묵서 부호’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 ㄴ' 형태의 빠침 부호는 물론, 'V, ^' 형태의 체크 부호와 'ㄱ, ㄷ, ㄹ, ㅁ, ㅂ, ㅅ' 형태의 반각 부호⁴⁾ 등 다양한 형태의 부호들이 각필로 새겨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기림사본 『법화경』 권7은 전체에 걸쳐서 훼손된 부분이 있으며 연구를 위해 확보한 이미지 자료가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각필 부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비교 검토 자료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비교 검토 자료로써 『법화경언해』 권7(이하 『법언』)과 교차검증한 후 현대국어 번역본인 이운허(2002) 『법화경』(이하 이운허 『법화경』) 권7의 내용을 아울러 참조하여 기림사본 『법화경』 권7에 나타난 각필 부호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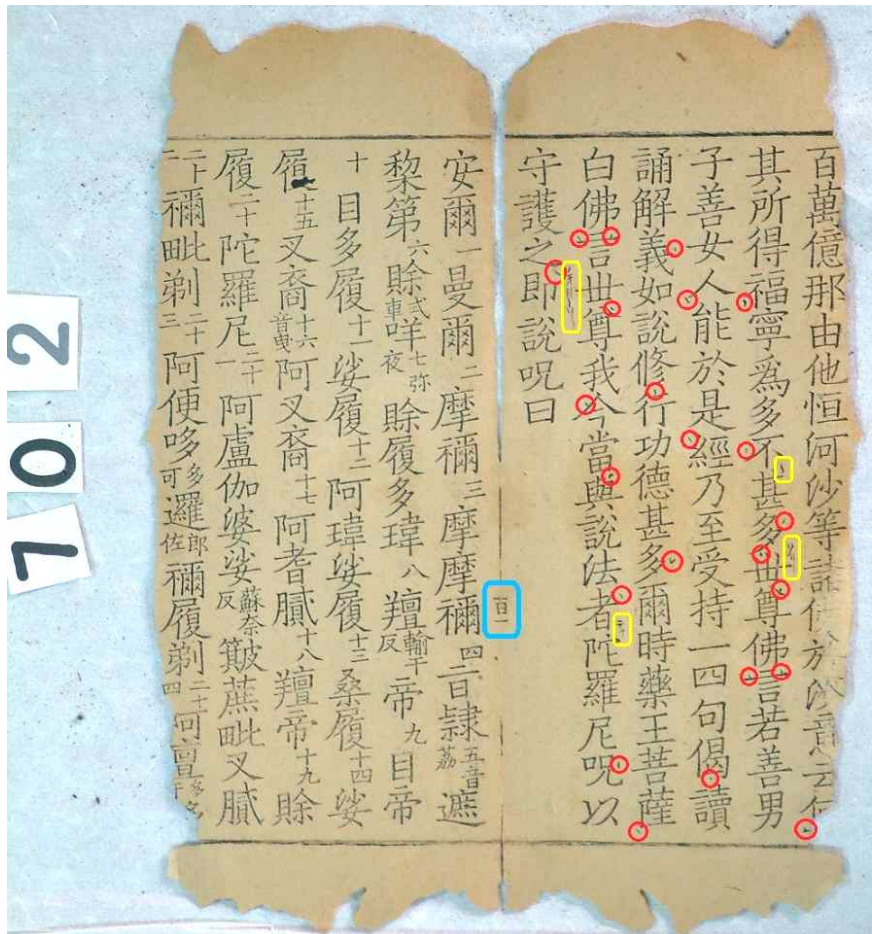
2. 형태 서지

『법화경』의 본 명칭은 『묘법연화경』이다. 부처의 40년 설법을 집약하는 정수를 담고 있는 경전으로 총 7권 28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림사본 『법화경』 권7에는 제24 묘음보살품에서 제28 보현보살권발품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화경』 권7 제24 묘음보살품은 사바세계에서 갖가지 몸으로 나타나 법화경을 설하는 묘음보살을 담고 있으며,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은 중생의 부름에 응하여 고통을 해결해 주는 관세음보살, 제26 다라니품은 악을 멸하고 선을 만들어내는 다라니, 제27 묘장엄왕본사품은 큰 신통력과 복덕과 지혜가 있는 두 아들에 의해 교화한 묘장엄왕, 제28 보현보살권발품은 『법화경』을 수지하는 자를 수호하고 법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보현보살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남경란(2016⁴⁾ ; 2020)에 의하면, 기림사본 『법화경』은 목판본이며 호접장으로 되어 있다. 표제는 없으며 서문의 제목은 ‘妙法蓮華經卷弘傳序’이다. 책의 크기는 알 수 없으며 반광(半匡)은 내광(內匡)이 약 10.4×20.8cm이며 판심과 어미는 없다. 원문은 권1부터 권7까지 하나의 장차로 매겨져 있어 다른 경전들과 다른 방식의 장차 매김의 특징을 가진다. 1장은 7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면은 6행 18~16자이다. 기림사본 『법화경』은 현재 권1, 권4, 권7이 존재하고 있는데 권1은 뒷부분이 권7은 앞부분인 95장과 96장의 3면이 낙장 되고 96장 3면부터 107장까지로 구성되어있다.

4) 이 논문에서 ‘각필 부호’의 형태에 따른 명칭은 장경준(2005)·(2008), 남경란(2005)·(2020)를 참조하였다.



[그림 1] 기림사본 『법화경』 권7 각필 부호 및 자토 구결 정보 처리(7:05-6~7)

위의 [그림 1]에서 노란 사각형 틀로 표시한 부분은 자토 구결이 나타난 부분이며, 붉은 원으로 표시한 부분은 각필 부호가 나타난 부분을 표시한 것이다. 위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림사본 『법화경』 권7은 각필 부호와 자토 구결이 함께 기입되어 있다. 기림사본 『법화경』 권7에는 50가지의 자토 구결 자형들이 기입되어있으며 이들은 결합하여 약 148여 가지⁵⁾의 결합유형을 보인다.

5) 이 결합유형의 빈도는 원문의 맨 처음 사용된 장치의 정보처리 1회만 제시하며, 정보처리는 장치-면수-행수 순서로 제시한다.

3. 각필 부호의 빈도

[표 1] 각필 부호 빈도 및 비율

부호 종류		점		선		배침		체크		반각 ⁶⁾						합계 ⁷⁾	
부호 위치		단점	쌍점	사선	직선	단배침	쌍배침	체크	역체크	ㄱ	ㄴ	ㄷ	ㄹ	ㅁ	ㅂ		
1	빈도	27.00	-	2.00	2.00	79.00	25.00	-	-	-	-	-	-	-	-	135	10.59%
	비율	20.00	-	1.48	1.48	58.52	18.52	-	-	-	-	-	-	-	-	100	
2	빈도	50	-	-	35	-	-	-	-	-	-	-	-	-	-	85	6.67%
	비율	58.82	-	-	41.18	-	-	-	-	-	-	-	-	-	-	100	
3	빈도	62	5	1	5	38	-	1	-	1	-	4	-	-	-	117	9.18%
	비율	52.99	4.27	0.85	4.27	32.48	-	0.85	-	0.85	-	3.42	-	-	-	100	
4	빈도	39	2	1	21	68	-	-	-	-	-	-	2	-	-	133	10.44%
	비율	29.32	1.5	0.75	15.79	51.13	-	-	-	-	-	-	1.5	-	-	100	
5	빈도	-	-	1	-	-	-	-	-	-	-	-	-	-	-	1	0.08%
	비율	-	-	100	-	-	-	-	-	-	-	-	-	-	-	100	
6	빈도	148	1	1	37	5	-	16	2	-	2	5	1	1	-	219	17.18%
	비율	67.58	0.46	0.46	16.89	2.28	-	7.31	0.91	-	0.91	2.28	0.46	0.46	-	100	
7	빈도	85	9	115	12	3	3	-	2	-	-	-	29	-	16	274	21.51%
	비율	31.02	3.28	41.97	4.38	1.09	1.09	-	0.73	-	-	-	10.58	-	5.84	100	
8	빈도	79	2	12	3	10	-	-	-	-	-	-	-	-	-	106	8.32%
	비율	74.53	1.89	11.32	2.83	9.43	-	-	-	-	-	-	-	-	-	100	
9	빈도	41	11	64	9	3	2	4	64	1	2	-	1	2	-	204	16.01%
	비율	20.1	5.39	31.37	4.41	1.47	0.98	1.96	31.37	0.49	0.98	-	0.49	0.98	-	100	
계	빈도	531	30	197	124	206	30	21	68	2	4	9	33	3	16	1274	100%
	비율	41.68%	2.35%	15.46%	9.73%	16.17%	2.35%	1.65%	5.34%	0.16%	0.31%	0.71%	2.59%	0.24%	1.26%	100%	

6) 반각 부호들을 간단하게 표기하기 위해 숫자를 임의로 붙였다.

7) 표에 제시한 백분율은 편의상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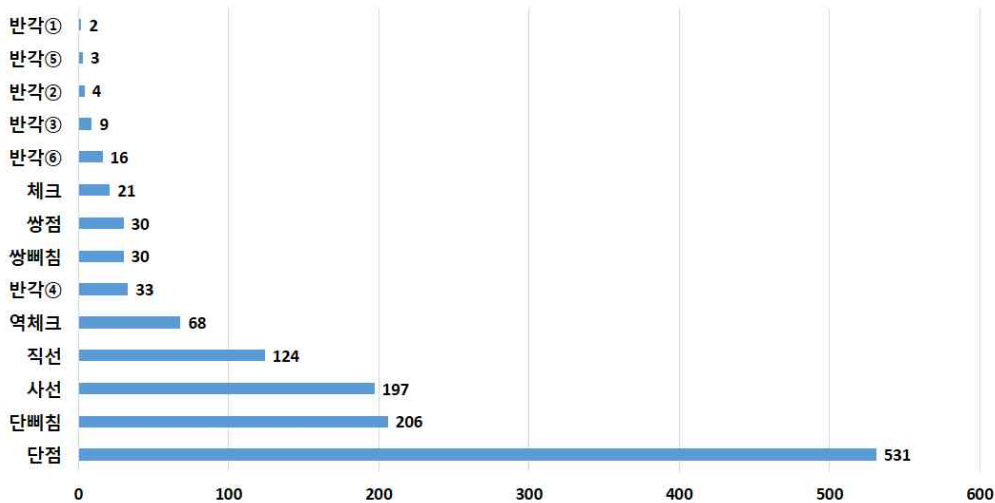
본 자료에는 점, 선, 빼침, 체크, 반각의 형태의 부호들이 기입되어있었다. 자료에 나타난 부호들의 빈도수와 부호 위치별 빈도수를 정확하게 알기위해 [표 1]과 같이 백분율로 정리하였다.

이들의 각필 부호들의 빈도수를 부호 위치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필 부호가 기입된 위치로는 ‘부호 위치7’의 빈도가 274회(21.51%)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부호 위치6’이 219회(17.18%), ‘부호 위치9’은 204회(16.01%), ‘부호 위치1’은 135회(10.59%), ‘부호 위치4’는 133회(10.44%)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밖에 ‘부호 위치3’이 117회(9.18%), ‘부호 위치8’이 106회(8.32%), ‘부호 위치2’가 85회(6.67%)로 나타났으며, ‘부호 위치5’에 각필 부호가 기입된 것은 단 1회로 나타났다.

한편, 기림사본 『법화경』 권7에는 14종의 각필 부호가 기입되어 있는데, 이들 부호 종류를 기준으로 출현 빈도가 높은 것은 단점과 단빼침, 사선이다. 대상 문헌에 기입된 각필 부호의 종류를 빈도로 제시하면 아래의 [표 2]와 [그림 2]와 같다.

[표 2] 각필 부호의 종류별 출현 빈도

부호 종류	단점	단빼침	사선	직선	역체크	반각④	쌍빼침	쌍점
빈도(회)	531	206	197	124	68	33	30	30
비율(%)	41.68	16.17	15.46	9.73	5.34	2.59	2.35	2.35
부호 종류	체크	반각⑥	반각③	반각②	반각⑤	반각①	계	
빈도(회)	21	16	9	4	3	2	1,274	
비율(%)	1.65	1.26	0.71	0.31	0.24	0.16	100	



[그림 2] 각필 부호의 종류별 출현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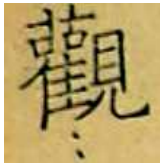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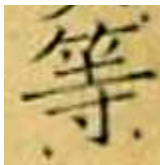
위의 [표 2]와 [그림 2]를 참고하면 기림사본 『법화경』 권7에 기입된 각필 부호 중 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단점이다. 모두 531회 기입되어 전체 각필 부호 중 41.68% 를 차지

한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은 단뿔침과 사선으로 각각 206회(16.17%), 197회(15.46%) 기입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직선이 124회(9.73%), 역체크 68회(5.34%), 쌍뿔침과 쌍점이 30회(2.35%) 나타나는데, 반각 형태의 부호 중에서는 반각④에 해당하는 ‘ㄱ’의 기입 빈도가 33회(2.5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위의 [표 1]에 제시한 각필 부호의 빈도를 살펴보면 위치에 따라 출현 빈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부호 위치9’의 경우 사선과 역체크 형태의 각필 부호가 많이 기입되어 있으며, ‘부호 위치7’에는 사선과 단점 형태의 각필 부호가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4. 각필 부호의 형태

1) 점 형태

점 단일 형태		점 복합 형태	
			
(7:06-6-5)	(7:05-6-2)	(7:05-2-6)	(7:06-7-1)

기림사본 『법화경』 권7에 나타나는 점 부호들은 한자를 중심으로 상하좌우에 나타났다. 원문에서 점 부호는 단점 형태의 ‘·’ 부호와 세로 형태 쌍점 ‘:’ 부호, 가로 형태 쌍점 ‘…’ 부호, 점 복합 형태 ‘□:’ 부호가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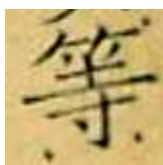
① 점 단일 형태



(7:06-6-5)

①의 한문 呪는 기림사본 『법화경』 권7의 6장 6면 5행 원문 글자를 말한다. 이때 한문 ‘呪’자의 좌측 중간 위치에 단점이 표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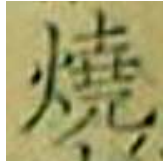
② 점 복합 형태



(7:06-7-1)

②의 한문 等は 기림사본 『법화경』 권7의 6장 7면 1행 원문 글자를 말한다. 이때 한문 ‘等’자의 좌측 아래와 우측 위·아래 위치에 단점이 표기되어 있다.

2) 선 형태

직선 형태		사선 형태	
			
(7:06-5-5)	(7:01-1-4)	(7:05-3-1)	(7:02-6-1)

기림사본 『법화경』 권7에 나타나는 선 부호들은 한자를 중심으로 상단 중간과 좌·우측의 아래에 가로 직선 ‘-’ 부호, 세로 직선 ‘|’ 부호, 사선 ‘\, /’ 부호들로 나타나며 직선 부호에 비해 사선 부호의 빈도가 높다.

① 직선 형태



(7:06-5-5)

①의 한문 者는 기림사본 『법화경』 권7의 6장 5면 5행 원문 글자를 말한다. 이때 한문 ‘者’자의 우측 중간 위치에 직선이 표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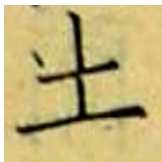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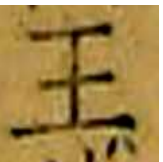
② 사선 형태



(7:05-3-1)

②의 한문 日은 기림사본 『법화경』 권7의 5장 3면 1행 원문 글자를 말한다. 이때 한문 ‘日’자의 좌측 아래 위치에 사선이 표기되어 있다.

3) 빼침 형태

단빼침 형태		쌍빼침 형태	
			
(7:08-1-2)	(7:05-2-3)	(7:05-5-4)	(7:09-2-3)

기림사본 『법화경』 권7에 나타나는 빼침 부호들은 한자를 중심으로 상하좌우 및 측면에서 일정하지 않은 부분에 나타난다. 빼침의 형태는 단빼침 ‘、’ 부호, 쌍빼침 ‘ㄴ, ㄷ, ㄹ, ㅁ’ 부호 형태로 나타난다.

① 단빼침 형태



(7:08-1-2)

①의 한문 中은 기림사본 『법화경』 권7의 8장 1면 2행 원문 글자를 말한다. 이때 한문 ‘中’자의 좌측 중간 위치에 단빼침이 표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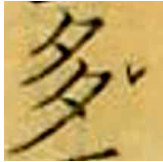
② 쌍빼침 형태



(7:05-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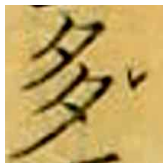
②의 한문 言은 기림사본 『법화경』 권7의 5장 5면 4행 원문 글자를 말한다. 이때 한문 ‘言’자의 좌측 위 위치에 쌍빼침이 표기되어 있다.

4) 체크 형태

체크 형태		역체크 형태	
			
(7:05-6-4)	(7:06-2-3)	(7:04-7-2)	(7:08-5-6)

기림사본 『법화경』 권7에 나타나는 체크 부호는 한자를 중심으로 좌·우측에서만 나타난다. 체크 부호의 종류로는 체크 형태의 ‘√’ 부호와 역체크 형태의 ‘∧’ 부호로 나타난다. 이중 체크 부호는 한자의 우측에서만 나타났다.

① 체크 형태



(7:05-6-4)

①의 한문 多은 기림사본 『법화경』 권7의 5장 6면 4행 원문 글자를 말한다. 이때 한문 ‘多’자의 우측 중간 위치에 체크가 표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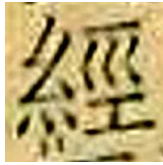
② 역체크 형태



(7:04-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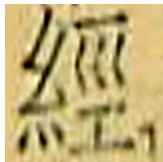
②의 한문 力은 기림사본 『법화경』 권7의 4장 7면 2행 원문 글자를 말한다. 이때 한문 ‘力’자의 우측 아래 위치에 역체크가 표기되어 있다.

5) 반각 형태

반각 형태					
ㄱ	ㄱ	ㄴ	ㄷ	ㅌ	ㅍ
					
(7:07-7-5)	(7:04-5-4)	(7:02-3-2)	(7:07-6-1)	(7:04-5-1)	(7:10-5-5)

기림사본 『법화경』 권7에 나타나는 반각 부호들은 한자를 중심으로 좌·우측에서 나타나며 6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이들은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한글 자음과 유사한 ‘ㄱ, ㄴ, ㄷ’ 형태의 반각 부호들은 한자의 우측에서만 나타나며, 한글 모음 ‘ㅏ, ㅑ’ 글자와 유사한 ‘ㅏ, ㅑ’ 형태의 반각 부호들은 한자 좌·우측에서만 나타난다. 반면 ‘ㅍ’ 형태의 반각 부호는 한자의 좌측 아래에서만 나타났다.

① ㄱ 부호 형태



(7:07-7-5)

①의 한문 經은 기림사본 『법화경』 권7의 7장 7면 5행 원문 글자를 말한다. 이때 한문 ‘經’자의 우측 아래 위치에 반각이 표기되어 있다.

② ㄱ 부호 형태



(7:04-5-4)

②의 한문 具은 기림사본 『법화경』 권7의 4장 5면 4행 원문 글자를 말한다. 이때 한문 ‘具’자의 우측 중간 위치에 반각이 표기되어 있다.

③ ㄴ 부호 형태



(7:02-3-2)

③의 한문 肩은 기림사본 『법화경』 권7의 2장 3면 2행 원문 글자를 말한다. 이때 한문 ‘肩’자의 우측 위 위치에 반각이 표기되어 있다.

④ ⊥ 부호 형태



④의 한문 嚴은 기림사본 『법화경』 권7의 7장 6면 1행 원문 글자를 말한다. 이때 한문 ‘嚴’자의 좌측 아래 위치에 반각이 표기되어 있다.

(7:07-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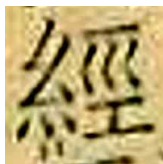
⑤ ⊥ 부호 형태



⑤의 한문 塔은 기림사본 『법화경』 권7의 4장 5면 1행 원문 글자를 말한다. 이때 한문 ‘塔’자의 우측 아래 위치에 반각이 표기되어 있다.

(7:0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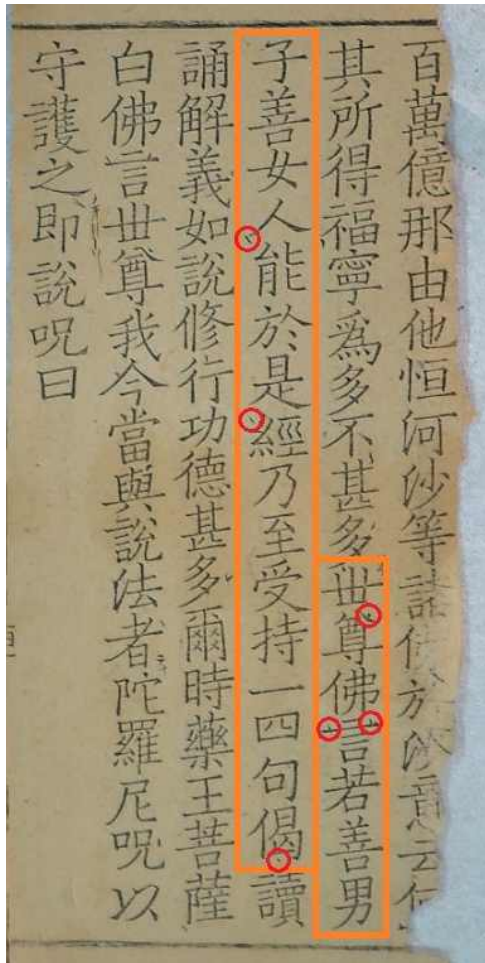
⑥ 〓 부호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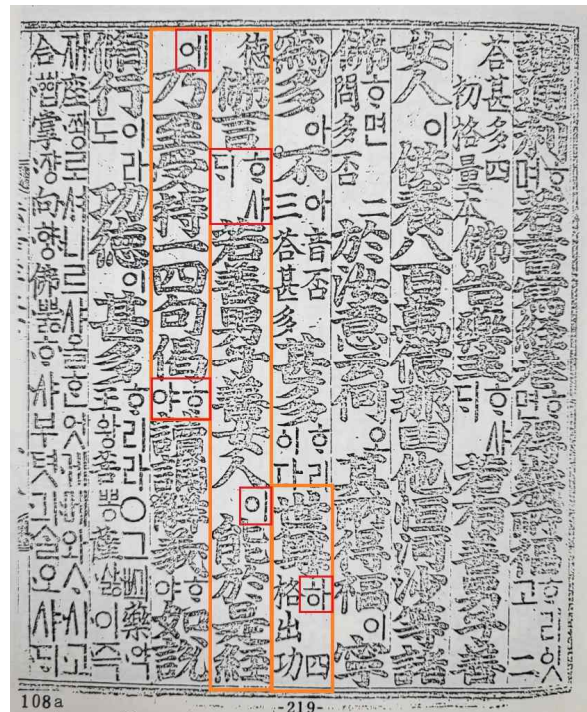
⑥의 한문 經은 기림사본 『법화경』 권7의 10장 5면 5행 원문 글자를 말한다. 이때 한문 ‘經’자의 좌측 아래 위치에 반각이 표기되어 있다.

(7:10-5-5)

5. 각필 부호와 『언해』의 대응관계 분석



[그림 3] 기림사본 『법화경』 (7:05-6)



[그림 4] 세종한글고전 『법화경언해』 (7:108a)

기림사본 『법화경』 권7은 각필 부호와 자토 구결이 함께 기입되어 있다. [그림 3]의 기림사본 『법화경』 자료와 [그림 4]의 세종한글고전 『법화경언해』 (http://db.sejongkorea.org/front/list.do?bkCode=P16_BH_v007) 자료를 비교해보면 본 자료에 기입된 각필은 『법화경언해』와 1대1로 대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이미지 자료가 선명하지 않아 각필 부호를 해석하기 위해 세종한글고전 『법화경언해』를 참고하였다. 본 자료에 나타난 부호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1 단일부호 분석

1) 점 부호 

(1) 世尊 佛言 若善男子善女人 能於是經 乃至受持一四句偈(7:05-6)

결합 양상	용례	대응 구결	부호위치									
	 (7:05-6-2)	하	<table><tr><td>1</td><td>2</td><td>3</td></tr><tr><td>4</td><td>5</td><td>6</td></tr><tr><td>7</td><td>8</td><td>9</td></tr></table>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의 한자 尊은 『법화경』 권7 5장 6면 2행의 원문 글자로, 위의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문 ‘尊’자의 우측 위인 3번 부호 위치에 단점이 표기되어 있다. 이때의 한자 ‘尊’에 표기된 단점은 『법화경언해』와 대조해 보면 한글 구결 ‘하’에 대응됨을 알 수 있다.

(1) [법언] 世尊하 佛言하사더 若善男子善女人이 能於是經에 乃至受持一四句偈하야(108a)

용례 (1)의 언해문은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이르시되,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능히 이 경전에서 〈단〉 하나의 4구계를”⁸⁾ 정도로 풀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자 ‘尊’에 3번 부호 위치의 단점이 사용된 빈도는 『법화경』 권7 전체에 총 23회 나타난다. 이들을 모두 위의 비교 분석 방법으로 확인해 본 결과 한자 ‘尊’의 우측 위인 3번 부호 위치에 사용된 단점 표기는 『법화경언해』의 한글 구결 ‘하’에 대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의 용례를 통해 한자 ‘尊’자의 9번 부호 위치에 있는 단점 표기가 ‘호칭조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5.2 복합부호 분석

2) 빼침 부호 

(2) 世尊 佛言 若善男子善女人 能於是經 乃至受持一四句偈(7:05-6)

8) 세종한글고전 『법화경언해』 자료와 현대의 번역본인 운허용하의 『법화경』(2002)이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풀이한 것.

결합 양상	용례	대응 구결	부호위치									
	 (7:05-6-2)	흐샤디	<table><tr><td>1</td><td>2</td><td>3</td></tr><tr><td>4</td><td>5</td><td>6</td></tr><tr><td>7</td><td>8</td><td>9</td></tr></table>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2)의 한자 言은 『법화경』 권7 5장 6면 2행의 원문 글자로, 위의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문 ‘言’자의 상단 양끝 1, 3번 부호 위치에 빠침이 표기되어 있다. 이때의 한자 ‘言’에 표기된 빠침은 『법화경언해』와 대조해 보면 한글 구결 ‘흐샤디’에 대응됨을 알 수 있다.

(2)′ [법언] 世尊하 佛言흐샤디 若善男子善女人이 能於是經에 乃至受持一四句偈하야(108a)

용례 (2)′의 언해문은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이르시되,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능히 이 경전에서 〈단〉 하나의 4구계를” 정도로 풀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자 ‘言’에 1, 3번 부호 위치의 빠침이 사용된 빈도는 『법화경』 권7 전체에 총 25회 나타난다. 이들을 모두 위의 비교 분석 방법으로 확인해 본 결과 한자 ‘言’의 상단 양끝 1, 3번 부호 위치에 사용된 빠침 표기는 『법화경언해』의 한글 구결 ‘하시되’에 대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의 용례를 통해 한자 ‘言’자의 1, 3번 부호 위치에 있는 빠침 표기가 ‘문장 연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6. 맺음말

이 연구에서는 기림사본 『법화경』 권7에 나타나는 각필 부호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법화경』의 본 명칭은 『묘법연화경』으로 부처의 정수를 담고 있는 경전이다. 총 7권 28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림사본 『법화경』 권7은 제24 묘음보살품에서 제28 보현보살권 발품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림사본 『법화경』 권7에 나타나는 각필 부호들은 점, 선, 빠침, 체크, 반각의 5가지 형태로 정리할 수 있었으며 각필 부호들은 단일 또는 복합 형태로 한자와 결합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를 통해 한자와 결합한 각필부호 63가지의 결합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 문헌

- 김지오(2006), 『法華經』 권3 音讀口訣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오(2021), 『합부금광명경(合部金光明經)』의 부호 연구, 어문연구, 49, 어문연구(語文研究).
- 남경란(2001), 『능엄경』의 음독 입결 연구, 대구가톨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경란(2002), 『법화경』 이본의 입결(口訣) 연구, 언어과학연구21집 언어과학회.
- 남경란(2003ㄱ), 麗末鮮初 音讀 입결(口訣)의 綜合的 考察(1) : 형태서지와 결합유형, 28, 민족문화논총
- 남경란(2003ㄴ), 麗末鮮初 音讀 입결(口訣)의 綜合的 考察(2) : 음독 입결의 문자체계, 27, 언어과학연구.
- 남경란(2004), 『법화경』 이본의 부호 입결(구결)에 대하여,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구결학회 .
- 남경란(2005ㄱ), 음독 입결(구결)의 자형과 기능의 통시적 연구-‘ㅅ’, ‘ㅁ’를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제30집,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 남경란(2005ㄴ), 음독 입결(구결)의 자형과 기능의 통시적 연구-ハ, 佳,를 중심으로, 어문학 제79집, 한국어문학회.
- 남경란(2005ㄷ), 『麗末鮮初 音讀 입결(口訣)의 綜合的 考察』, 경인문화사.
- 남경란(2008), 여말선초 음독구결문의 성립배경 - 『능엄경』, 『법화경』, 『육조대사 범보단경』 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남경란(2009), 『麗末鮮初 音讀 입결(口訣) 字形과機能의通時的 研究』, 경인문화사.
- 남경란(2010), 「음독 입결과 한글 입결의 상관성」, 『민족문화논총』 45,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 남경란(2016ㄱ), 새 資料, 初雕大藏經 南禪寺本 『四分律藏第三分』 卷四十의 角筆에 대하여, 36, 구결학회.
- 남경란(2016ㄴ), 한글 창제 전후의 음독 입결(口訣) 연구, 경인문화사.
- 남경란(2017ㄱ), 『한국어정보학』, 경인문화사.
- 남경란(2017ㄴ), 11세기 초조대장경 『四分律藏第三分』의 각필 부호 분석, 민족문화논총 65,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 남경란(2019), 재조대장경 『금광명최승왕경』 권제2의 각필 및 점토 연구, 민족문화논총 73,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 남경란(2020), 기림사 소장 고려시대 목판본 『묘법연화경』의 목서 부호 연구, 41,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남경란(2021), 『고려시대 불경에 사용된 표점(標點)의 형태와 양상-四分律藏第三分권40, 金光明最勝王經권2, 妙法蓮華經권6을 대상으로』, 언어과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전문, 언어과학회.

- 남권희(1998), 고려말에서 조선중기까지의 구결자료에 관한 서지학적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남권희, 남경란(2016), 13세기 高麗 釋讀口訣本 『慈悲道場懺法』 卷4 殘片의 구결 소개, 22, 국어사연구.
- 남권희·정재영·남경란(2005), 「金光明經 符號 口訣 研究」,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구결학회.
- 남풍현(2003) 수덕사 소장 법화경권칠의 각필 석독구결에 대하여.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박진호(1996), "奎章閣 所藏 口訣資料 楞嚴經 2種에 대하여.", 1, 구결학회.
- 박진호(2006), "晉本 《華嚴經》 卷第20의 點吐 解讀.", 16, 구결학회.
- 이승재(2000), 새로 발견된 각필(角筆)부호구결과 그 의의, 『새국어생활』 10-3, 국립국어연구원.
- 이승재(2001), 周本 『華嚴經』 卷第22의 角筆 符號口訣에 대하여, 7, 口訣研究.
- 이운허(2002), 『묘법연화경』, 동국역경원.
- 이은규(2013), 석독 입꺾 {ノろ}의 기능 연구, 민족문화논총 53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이전경(2013), 연세대 소장 각필구결본 『묘법연화경』의 부정문, 口訣研究, 구결학회.
- 장경준(2005),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의 해독 방법 연구 : 권5, 8의 단점(單點)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경준(2006), 고려초기(高麗初期) 점토구결(點吐口訣) 제부호(諸符號), 40, 한국어학.
- 장경준(2016), 남선사 소장 고려 초조대장경 『유가사지론』 권8의 점토석독구결에 대하여, 36, 구결학회.
- 장경준(2019), 범응스님 소장 『법화경』 구결에 표시된 부독자(不讀字), 한국어학, 한국어학회.
- 정재영 외(2001), 『한국 각필 부호구결 자료와 일본 훈점 자료 연구』, 태학사.
- 정재영(1996), "順讀口訣 資料 <<梵網經菩薩戒>>에 대하여.", 1, 구결학회.
- 정재영(2001), "誠庵古書博物館 所藏 晉本 『華嚴經』 卷二十에 대하여.", 7, 구결학회.
- 한국학중앙연구원(1998),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新羅 時代 啄評[水刀邑尸]의 解讀

이건식(단국대)

1. 서언

이 글은 『梁書』 新羅傳에 나오는 신라의 구역 단위 啄評의 의미를 해독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중국의 일부 문헌 자료에서는 啄評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일부 문헌 자료에서는 喙評으로 기록되어 있고, 啄評과 관련된 신라 6부 명칭이 고대 금석문 자료에서는 일관되게 ‘喙部, 沙喙部, 岑喙部/牟喙’ 등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신라의 6부 명칭을 기록한 『日本書紀』에도 ‘喙部, 沙喙部’ 등으로 기록되어 있어 啄은 잘못된 것이고, 喙가 바른 것으로 판단하여, 啄評의 啄을 ‘벌’의 의미로 이해하는 역사학계의 주장도 나오게 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자형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啄 대신에 喙로 쓰는 것은 중국에서도 관습적으로 정착착되었고 한국에서도 그러한 습관이 정착되었음을 밝혀 금석문 자료에 나타나는 喙는 본디 啄의 의미를 표현한 것으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서는 ‘물길’을 의미하는 梁으로 교체되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한편 啄評의 評에 대해 한국의 연구계에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런데 『日本書紀』 卷十七 繼體天皇 二四年(530) 九月 조에 가야 지역의 지명으로 추정되는 背評과 背評의 이칭으로 能備己富里란 명칭이 실려 있고, 또, 일본에서 7세기 말에 評里制가 전국적으로 施行되어서 일본의 연구계에서는 評에 대한 관심을 보여 왔다. 그리하여 新井白石은 『東雅』(1727)에서 評에 대한 일본어 훈 ‘己富里/コホリ’가 한국어 ‘고을’ 정도에서 유입된 것으로 파악하였고, 金沢庄三郎(1910, 1985: 11)은 ‘코호리’의 ‘코’를 大의 의미로 파악하고 ‘호리’는 한국어 ‘벌’의 의미로 이해하여 ‘코호리’를 大邑의 의미로 파악하였다. 『釋日本紀』 권17의 ‘大城/コニサシ’을 고려하면 한국어 ‘크다’라는 어휘는 ‘*그다’의 동명사형 ‘*근’은 ‘코=’로 일본에 유입된 것으로 판단되어 ‘코호리’를 大邑의 의미로 파악한 金沢庄三郎(1910, 1985: 11)의 견해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코호리’의 의미를 大邑의 의미로 파악할 경우에는 大邑의 의미와 한자 評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게 된다.

일본어에 유입된 ‘코호리’와 후기 중세국어의 ‘ᄃᆞᆫ’은 형태나 의미가 매우 유사한 것에 착안하여 후기 중세국어의 ‘ᄃᆞᆫ’이 ‘ᄃ[言]+ᆞᆫ[平/原]’ 정도의 구성을 가진 것임을 말하여 評이 ‘言+平’의 의미를 모아 만든 會意의 한국 고유한자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ᄃᆞᆫ’이 ‘ᄃ[言]+ᆞᆫ[平/原]’ 정도의 구성에서 온 것이 입증되면 ‘ᄃᆞᆫ’은 ‘말로 의사소통하는 사람들의 집단 거주 지역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다. ‘ᄃᆞᆫ’이 가진 이러한 의미의 확인은 신라에서 독특하게 정의한 사람들의 집단 거주 지역의 기준을 살피는 계기가 될 것이며, 신라 사회가 사회 집단 내에서 ‘의사 소통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인식은 신라의 和白 제도의 용어에 ‘말하다’의 뜻을 가진 白이 사용된 사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2. ‘啄/喙’의 해독

2.1. 중국 역사서에 나타난 신라의 구역 단위 체계

중국 역사서에서 신라의 구역 체계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 가. 啄評

其俗呼城曰健牟羅 其邑在內曰啄評 在外曰邑勒 亦中國之言郡縣也 國有六啄評 五十二邑勒 <梁書(636) 新羅傳>

나. 신라에서는 왕성을 健牟羅라 부르며 그 邑이 [健牟羅의] 안에 있는 것은 啄評이라고 하고, 밖에 있는 것은 邑勒이라 하니, 이것은 중국의 郡縣과 같은 말이다. <국역 중국정사조선전 1986 : 82>

다. 喙評

其俗呼城曰健牟羅 其邑在內曰喙評[喙呼穢反]在外曰邑勒 亦中國之言郡縣也 國有六喙評 五十二邑勒 <通典(735~812) 권185 邊防一 東夷上 新羅>

(1나)의 번역은 健牟羅를 왕성, 왕성의 안에 있는 것을 啄評, 밖에 있는 것을 邑勒 등의 셋으로 파악한 것이다. 한어에서 城邑은 城과 邑을 말하기¹⁾ 때문에 (1나)와 같은 이해는 잘못된 것이다. (1가)의 내용 구조를 이와 같이 파악할 경우에 郡縣과 ‘健牟羅, 啄評, 邑勒’ 등의 관계를 대응시킬 수 없다.

(1가)의 其邑에서 其는 城을 가리키는 것이고, 邑은 城 아래의 단위를 지칭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²⁾ 『三國史記』신라본기 진흥왕 2년(541) 조에 나오는 ‘掌內外兵馬事’에서 內는 중앙을 외는 지방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1가)에서의 內와 外도 중앙과 지방을 구분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하여 (1가)에서는 城 아래의 단위인 邑을 중앙에서는 啄評이라 하고 지방에서는 邑勒이라 하고 있음을 말한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健牟羅는 중국의 郡에 대응되고, 중앙의 啄評과 지방의 邑勒은 縣에 대응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健牟羅, 啄評/喙評, 邑勒’ 등의 신라의 구역 체계를 위계적으로 표시하여 말하면 다음과 같다.

(2) 중국 역사서에 나타난 신라 구역 체계의 위계

한어 1	한어 2	고유어	수량	비고
郡	城	健牟羅		王城이나 지방의 城
縣	邑	啄評/喙評	6	王城의 하위 구역
縣	邑	邑勒	52	지방 城의 하위 구역

末松保和(1954: 398)은 五十二邑勒을 신라 시대의 郡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1가)의 ‘亦中國之言郡縣也’를 고려하면 城은 중국의 郡에 해당되고, 縣에 해당되는 것은 신라 왕경에서는 啄評/喙評이 되겠고, 지방의 郡에서는 邑勒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1가)와 (1다)에서 말하는 六啄評이 신라 6부에 대응된다면 六啄評에 대응되는 五十二邑勒은 郡에 대응되는 것이 아니

1) 漢語詞典, 【城邑】. “城和邑. 泛指城鎮”

2) 新井白石의 『東雅』卷3 地輿部에서 ‘國(クニ), 郡(コホリ), 村(ムラ), 里(サト)’ 등의 단위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또 邑의 일본어 훈은 ‘ムラ’여서 일본 고대사 연구계에서는 國郡村里라는 용어 대신에 國郡邑里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일본 고대에서 邑(ムラ)은 郡(コホリ)의 아래에 편성된 단위가 된다.

라 郡 아래의 단위인 縣에 대응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2.2. 牟羅와 邑勒의 관계

삼국 시대 구역 단위인 牟羅는 『梁書』 신라전의 牟羅健, 『隋書』 백제전의 舩牟羅國, 『北史』 백제전의 舩牟羅國, 『三國史記』 백제본기 위덕왕 36년 조의 耽牟羅國' 등과 『日本書紀』에서만 나타나고 있었다. 그런데 「울진봉평비」에도 居伐牟羅가 출현하고 더군다나 悉支軍主도 함께 출현하여 구역 단위 牟羅의 성격을 추론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주어 주목된다.

(3) 新羅六部 煞斑牛謂沐

處事大人

啄部	內沙智	奈麻
沙啄部	一登智	奈麻
	男次	邪足智
啄部	比須婁	邪足智
居伐牟羅 道使	本洗	小舍帝智
悉支 道使	烏婁次	小舍帝智
居伐牟羅	尼牟利	一伐
	余宜智	
波旦	組只斯利(村)	一金智
阿大兮村 使人	奈余利	杖六十
葛尸條村 使人	奈余利	居[圖]尺
男弥只村 使人	翼[圖],	杖百
	於卽斤利	杖百

悉支軍主 啄部 余夫智 奈麻 <울진봉평비 일부>

(3)에서 男弥只村의 使人이 곤장 100대의 처벌을 받은 것이 기록되었다. 이러한 처벌을 받은 이유는 「울진봉평비」의 앞 내용에서 신라에 예속된 奴人인 居伐牟羅와 男弥只村이 余耶恩城을 불사르는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3)에서 悉支軍主가 등장한 것은 居伐牟羅와 男弥只村이 모두 지금의 삼척인 悉直州에 예속된 구역 단위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³⁾ 신라 경덕왕이 개정한 군현의 영속 관계를 살펴보면 州와 郡은 縣을 영속하고 있고, 牟羅는 村보다는 큰 구역 단위이므로 牟羅는 縣에 대응되는 구역 단위로 파악된다. 따라서 健牟羅는 양서 신라전에 나타난 ‘城, 郡’ 등에 대응되고 牟羅는 『梁書』 신라전에 나타난 ‘邑, 邑勒’에 대응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남풍현(2003)은 牟羅를 일본어에 전래된 ‘ムラ/村’로 파악하였다. 양서 신라전의 邑勒과 牟羅는 차자의 방법이 다른 것으로 생각된다. 牟羅는 모두 음차 표기의 방법을 사용한 것인데, 邑

3) 경덕왕 지명 개정 당시에 이르러서는 고구려 지배 하에서 于珍也縣이었던 蔚珍郡은 三陟郡에서 독립되어 있었고, 또한 고구려 波旦縣인 海曲(一作西)縣(경덕왕 개전 명칭)을 속현으로 관할하고 있었다. (3)의 波旦은 人名이라기 보다는 지명으로 생각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울진군의 고적 조에는 波朝縣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면 (3)의 波旦縣은 波旦縣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 波旦縣은 신라 경덕왕 때에 蔚珍郡의 속현이었으므로 (3)의 波旦은 波旦牟羅 정도에서 牟羅가 생략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勒에서 𪛗은 훈차 표기의 방법을 사용하였고 勒은 음차 표기의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2.3. 자형의 유사성에 따른 啄과 喙의 관계

앞에서 제시한 (1가)를 포함하여 『南史』(649~683) 권79, 『太平御覽』(984) 권781, 『冊府元龜』(1005) 권996, 『海錄碎事』(宋 叶廷珪 1148) 권4上, 『韻府羣玉』(1307) 권7, 『御定佩文韻府』(1711) 권23之1, 『古今圖書集成』(1726), 『方輿彙編』 邊裔典 권28, 『御定子史精華』(1726) 권80, 『欽定滿洲源流考』(1777년) 권9 新羅 등에서는 啄評이라 했다.

그러나 (1다)를 포함하여 『唐書』(887-946) 권220 東夷 新羅, 『太平實字記』(930-1007) 권174, 『新唐書』(1044-1060) 新羅傳, 『通志』(1161) 권194 東夷 新羅, 『文獻通考』(1307) 권326 新羅 등에서는 喙評이라 했다.

그런데 『欽定滿洲源流考』 권9 新羅 조에서 다음과 같이 喙評은 잘못된 것이고, 啄評이 올바른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

- (4) 按唐書通考 俱作喙評 考通典注云呼穢反 則喙字當因字形相近 而訛 <欽定滿洲源流考 권9 新羅>

『欽定滿洲源流考』에서 喙評이 아니고 啄評이 올바른 것으로 주장한 근거는 喙의 음이 ‘呼穢反’이란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欽定滿洲源流考』의 이같은 주장은 신라에 존재했던 구역 단위는 ‘획’로 읽힐 수 없고 ‘탁’ 정도로 읽어야 함을 전제한 것이라 하겠다.

熊加全(2020: 378-379)에서는 韓小荊(2009)의 논의에 기대어 啄은 흔히 喙로도 쓰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韓小荊(2009)은 可洪이 940년에 편찬한 『新集藏經音義隨函錄』을 연구하여 불경에서 啄은 흔히 喙로도 쓰고 있음을 언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新集藏經音義隨函錄』⁴⁾에서 啄이 喙로 사용된 경우를 찾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5) 가. 所啄 (音卓) <新集藏經音義隨函錄第十二冊>, 所啄 (音卓) <新集藏經音義隨函錄第十一冊>

나. 所喙 (音卓正作啄) <新集藏經音義隨函錄第十二冊>, 所喙 (音卓鳥 | 物也正作啄又許穢反悞也) <新集藏經音義隨函錄第十二冊>, 所喙 (竹角反正作啄) <新集藏經音義隨函錄第十三冊>, 所喙 (音卓正作啄) <新集藏經音義隨函錄第廿一冊>

- (6) 가. 鳥啄 (許穢反口也[此/束]也言樹花如鳥[此/束]也正作啄) <新集藏經音義隨函錄第十二冊>

나. 鳥喙 (音卓正作啄又許穢反非) <新集藏經音義隨函錄第八冊>, 鳥喙 (竹角反正作啄) <新集藏經音義隨函錄第九冊>, 鳥喙 (竹角反正作啄) <新集藏經音義隨函錄第九冊>, 鳥喙 (音卓) <新集藏經音義隨函錄第十三冊>, 鳥喙 (竹角反正作啄) <新集藏經音義隨函錄第十五冊>, 鳥喙 (音卓正作啄) <新集藏經音義隨函錄第十六冊>, 鳥喙 (音卓正作啄也) <新集藏經音義隨函錄第十六冊>

- (7) 가. 啄其 (上音卓鳥鴿物) <新集藏經音義隨函錄第六冊>

나. 喙其 (上音卓正作啄) <新集藏經音義隨函錄第十三冊>, 喙其 (上陟角反正作啄也又許

4) 고려대장경 1257번이다.

穢反悞) <新集藏經音義隨函錄第十三冊>

(8) 가. 探啄 (上音貪下音卓) <新集藏經音義隨函錄第二冊>

나. 探啄 (上他含反下音卓正作啄又許穢反悞) <新集藏經音義隨函錄第十九冊>

(5)-(8)은 ‘所啄, 烏啄, 啄其, 探啄’ 등에서의 啄은 본래 啄으로 써야 바른 것임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새로 수집한 여러 불경에서 啄으로 써야 할 것을 啄로 쓰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啄을 啄로 서사한 사례는 6세기 초 중국 자료에서도 발견된다. 청나라 邢澍가 편찬한 『金石文字辨異』 9에서는 啄을 啄으로 서사한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9) 가. [啄] 東魏中岳嵩陽寺碑(535)飲啄相鳴 案啄作啄 <金石文字辨異 9>

나. 東魏中岳嵩陽寺碑(535) 일부 하버드대 소장본



(9가)의 飲啄에서 啄은 飲에 대립되었기 때문에 ‘부리’의 뜻이 아니고, ‘쪼아 먹다’의 의미일 수 밖에 없는데, 啄을 쓰지 않고 啄을 썼다. 飲啄을 飲啄로 쓰는 것은 관습이 되어 다음과 같은 자료에서도 飲啄 대신에 飲啄을 쓰고 있다.

(10) 가. 惠以飲啄之娛 且夫察微興事者機也 <全唐文 卷八 太宗皇帝 伐龜茲詔>

나. 발두독에서 황새가 무엇을 (마시고) 쪼아 먹는 것을 보고 / 逢見鶴飲啄田壠間 <연산군일기 1506년(연산 12) 5월 23일>

다. (10나)의 이미지



(10가)는 중국에서 飲啄을 飲啄로 쓰는 것이 관습화되어 있음을 말하며 (10나)는 한국에서도 飲啄을 飲啄으로 쓰는 것이 관습화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⁵⁾

결국 신라 6부의 구역 단위에 대해 중국 역사서에서 啄評으로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啄評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된다. 또 신라 시대 금석문 자료에서 신라 육부 명칭에 喙를 서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啄을 쓴 것으로 생각된다. 鮎貝方之進⁵⁾(1938: 166)도 중국인이 (啄을) 喙로 잘못 쓴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喙의 의미를 梁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⁶⁾

2.4. 신라 6부 명칭의 의미 구성소 분석

1) 신라 6부 명칭 의미 구성소 분석의 전제

『梁書』신라전에서 신라 6啄評이라 하였다. 이것은 신라 6부의 명칭에서는 啄과 評이라는 두 가지 속성이 개재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검증하기 위하여 신라 6부의 명칭이 가진 의미 구성소를 분석하도록 한다.

신라 6부의 명칭에서 공통적인 명칭 속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금석문 자료와 문헌 자료에 나타난 신라 6부의 명칭을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한다. 신라 6부 명칭의 이표기는 연대가 가장 이른 것 하나만 제시하도록 한다. 명칭의 속성이 있어야 하나 생략된 속성은 ‘×’로 표시하여 둔다.

권인한(2008)은 ‘本波/本彼’의 ‘波/彼’를 ‘불/原’로 해독한 바 있다. 이 견해를 수용하여 영일 냉수리비의 斯波와 『三國史記』유리이사금 9년(32) 조의 翳比部에 개재된 波와 比를 ‘불/原’로 해독하고자 한다. 「雁鴨池出土調露二年銘埴」(680) 漢只伐部の 伐과 ‘波/彼/比/불[原]’은 의미는 유사하나 모음 교체에 의한 의미 분화에 따라 伐은 큰 지역을 나타내나 ‘波/彼/比/불[原]’은 작은 지역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포항중성리비』에 나오는 喙評을 ‘喙 評’으로 분리하여 이해하고 牟旦伐喙을 ‘牟旦伐 喙’으로 분리하여 이해하는 일부 역사 연구자들이 있다.⁷⁾ 그러나 권인한(2009, 2019)의 견해를 따라 喙評과 牟旦伐喙로 합해서 이해하고자 한다. 喙評의 評은 『梁書』신라전에 제시된 啄評을 실증해 주는 자료여서 주목된다.

금석문 자료나 문헌 자료에 출현한 신라 6부 명칭 이표기를 의미 구성소에 따라 분석해 보면 후행 요소로 ‘波/彼/比/伐, 喙/啄/梁, 部/評/里’ 등의 세 그룹의 속성 요소를 추출할 수 있다. 첫번째 그룹에서 ‘波/彼/比’은 ‘불[原]’ 정도를 표기한 음차 표기자가 되며, 伐은 ‘벌’ 정도를 표기한 음차 표기자가 된다. 두번째 그룹에서 ‘喙/啄’은 ‘물길’을 뜻하는 ‘*돌’ 정도를 표기한 음차 표기자가 되며, 梁은 ‘물길’의 의미를 훈차 표기자 梁으로 표현한 것이다. 세번째 그룹에서 ‘部, 里’ 등은 한자로 일정한 구역을 표시하는 단위이며, 評은 ‘ㄱ불’ 정도를 표기한 훈차 표기자로 구역을 표시하는 단위가 된다. 評과 ‘ㄱ불’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논

5) 일본 경도대학교에서 운영하는 ‘拓本文字データベース(<http://coe21.zinbun.kyoto-u.ac.jp/djvuchar>)’에는 開元 27년의 唐吏部常選隴西李敬固吳興朱夫人墓誌銘 탁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자료에 馬啄之賢이란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의 馬啄은 문맥 상 馬喙가 바른 것이다. 따라서 啄과 喙는 자형이 유사하여 혼동하여 사용된 사실을 알 수 있다.

6) 『新字典』의 조선속자부에서 喙를 표제로 제시하고 음을 ‘달’로 의미를 ‘부리’로 제시하고 있다. 『계림유사』에 나오는 ‘雞 啄[音達]’을 ‘雞 [口遂(책받침을 뺀 자형)]音達’로 파악하고 [口遂(책받침을 뺀 자형)]를 喙의 이체자로 파악한 것이다. 그런데 『新字典』조선속자부의 의미 ‘부리’는 喙에서 가져오고 ‘달’의 음은 音達에서 가져온 것으로 생각된다. 문맥 상 ‘雞 喙[音達]’에서 喙는 ‘부리’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 喙로 기사되었다고 하더라도 喙는 음차 표기자가 된다. ‘音達’의 주석을 특별하게 제시한 것이 그러한 사실을 말해 준다.

7) 이수훈(2013)은 牟旦伐喙을 ‘牟旦伐 喙’로 분리하여 이해하려는 연구이다. 이수훈(2013: 200)에서 牟旦伐喙을 합쳐서 이해한 연구와 ‘牟旦伐 喙’로 분리하여 이해한 연구 목록을 소개하고 있다.

의하도록 한다.

신라 6부 명칭에 개재된 선행 요소는 현재 그 의미를 잘 알 수 없다. 특히 『삼국유사』에서 선행요소로 及이 추가된 것도 현재 미지의 것이다.

2) 신라 6부 명칭 이표기 의미 구성소 분석 목록

이러한 관점에서 신라 6부 명칭의 이표기를 통해서 신라 6부 명칭의 의미 구성소를 분석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1) 이표기를 통해 본 신라 6부 명칭의 의미 구성소 분석

6부 명칭	이표기	자료명(연대)	선행 요소	후행요소 1			후행요소 2			후행요소 3			종류	
				波/彼/比			伐	喙/涿/梁		部/評/里				
				波	彼	比	伐	喙	涿	梁	部	評		里
及梁部	喙評	포항중성리비(501)	없음					喙				評		금석문
	喙部	포항중성리비(501)	없음					喙				部		금석문
	喙	포항중성리비(501)	없음					喙			×			금석문
	梁部	『三國史記』 유리이사금 9년(32)	없음							梁		部		
	梁	『三國史記』 신문왕 3년(683)	없음							梁	×			
沙梁部 ⁸⁾	及梁部	삼국유사 혁거세	及							梁		部		
	沙喙部	울진봉평비(524)	沙					喙				部		금석문
	沙喙	포항중성리비(501)	沙					喙				×		금석문
	沙涿	삼국유사 진한	沙						涿			×		
	沙梁部	『三國史記』 유리이사금 9년(32)	沙							梁		部		
	沙梁	『三國史記』 신문왕 3년(683)	沙							梁	×			
	沙梁里	삼국유사 해공왕	沙							梁			里	
	須梁 ⁹⁾	영전청제비(798)	須							梁	×			금석문
牟梁部	牟旦伐喙	포항중성리비(501)	牟旦				伐	喙				×		금석문
	岑喙部	울진봉평비(524)	岑				×	喙				部		금석문
	岑喙	경주단석산신선사마애불 상군(600년 전후)	岑				×	喙				×		금석문
	牟喙	경주월성해자목간-151(미상)	牟				×	喙				×		금석문
	牟梁部	『三國史記』 유리이사금 9년(32)	牟				×			梁		部		
	牟梁	『三國史記』 소사	牟				×			梁	×			
	漸涿部	삼국유사 혁거세	漸				×		涿			部		
	漸涿	삼국유사 진한	漸				×		涿			×		
	漸梁部	『三國史記』 유리이사금 9년(32)	漸				×			梁		部		
	牟梁里	『三國史記』 진성왕 10년(896)	牟				×			梁			里	
本彼部	本波喙	포항중성리비(501)	本	波				喙			×			금석문
	本波部	경주명활산성비(551)	本	波				×				部		금석문
	本波	영일냉수리비(503)	本	波				×			×			금석문
	本彼部	『三國史記』 유리이사금 9년(32) 마운령진흥왕순수비(568)	本		彼			×				部		금석문 문헌
漢歧部	漢只	국립경주박물관 부지와	漢只				×	×			×			금석문

		명문(?) 『三國史記』 진평왕 54 년(632)											문헌
	漢只伐部	雁鴨池出土調露二年銘 塼(680)	漢只				伐	×			部		금석문
	漢祇部	『三國史記』 유리이사금 9년(32)	漢祇				×	×			部		
	漢祇	『三國史記』 열전 金陽	漢祇				×	×			×		
	韓歧部	『三國史記』 지마이사금 원년(112)	韓歧				×	×			部		
	韓歧	『三國史記』 열전 金陽	韓歧				×	×			×		
	漢歧部	삼국유사 혁거세	漢歧				×	×			×		
	漢祗	『三國史記』 직관 중	漢祗				×	×			×		
習比部	習比部	『三國史記』 유리이사금 9년(32)	習			比		×			部		
	習部	국립경주박물관부지와명 문(미상)	習	×				×			部		금석문
	斯波	영일냉수리비(503)	斯	波				×			×		금석문
	習府	국립경주박물관부지와명 문(미상)	習					×			部		금석문

3) 신라 6부 명칭에 개재된 공통 의미 구성소 啄과 評

『梁書』 신라전에서는 신라에 6啄評이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신라 6부 명칭에 啄과 評의 의미 구성소가 공통적으로 개재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評은 部로 대체된 것이므로 신라 6부 명칭 모두에 評이 개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啄의 경우에는 ‘喙部, 沙喙部, 岑喙部’ 등으로 啄이 개재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2008년에 발견된 「포항중성리비」의 本波喙를 통해서 本彼部에도 啄이 개재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현재 漢岐部和 習比부에 啄이 개재된 사실을 알려 주는 자료는 없다. 그러나 『梁書』 신라전에서 신라 6부를 6啄評으로 지칭하였으므로 漢岐部和 習比部에도 啄이 개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4) 신라 6부 명칭 이표기에 나타난 특징

가. 의미 구성소 생략 표기와 그 요인

신라 6부 명칭 이표기에서 구역 단위를 표시하는 部는 흔히 생략 표기된다. 部가 생략 표기된 사례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금석문 자료나 문헌 자료에 확인할 수 없는 이표기에는 ‘*’를 표시하여 제시한다.

(12) 가. 喙部>喙, 喙評>喙, 梁部>梁

나. 沙喙部>沙喙, 沙梁部>沙梁, *須梁(部)>須梁

다. *牟旦伐喙(部)>牟旦伐喙, 岑喙部>岑喙, 牟梁部>牟梁

라. *本波喙(部)>本波喙, 本彼部>本彼

8) 『三國史記』 신라본기 眞聖王 2년 조에 나오는 少梁里는 沙梁里의 이표기일 가능성이 있다.

9) 「口刀/木」로 보이니 남풍현(2000)을 따라 梁으로 판독한다.

마. 漢祗部>漢祗, 韓岐部>韓岐

바. *斯波(部)>斯波

(12)는 評이나 部 같이 구역 단위를 표시하는 의미 구성소가 흔히 생략된 경우를 제시한 것이다. ‘선행 의미 구성소’만 표시하여도 문맥 상 ‘評, 部’ 등의 생략된 의미 구성소를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評, 部’ 등의 의미 구성소를 생략한 것으로 이해된다.

신라 6부의 명칭에서 구역을 표시하는 評이 한자 部로 교체된 것은 신라 6부의 명칭이 한자 화되어 중국어의 군현명과 유사한 음절 길이의 명칭으로 변모되기 시작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중국의 군현명이 대체로 3음절로 구성된 사실은 「樂浪郡初元四年(기원전 45) 縣別戶口簿 목간」 자료에서 볼 수 있다. 樂浪郡에 소속된 현들은 모두 縣 단위까지 포함하여 모두 3음절로 구성되어 있다.¹⁰⁾

『三國史記』 권34, 권35, 권36 등의 지리지에 수록된 삼국 시대 군현명과 경덕왕 개정 군현명의 음절 길이를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郡이나 縣 단위도 포함하여 군현명 명칭의 음절 길이를 제시한다.

(13) 삼국 시대 군현명과 경덕왕 개정 군현명의 음절 길이

음절의 길이	삼국 시대 군현명		경덕왕 개정 군현명	
	수량	비율	수량	비율
무	10			
2음절	15		9	
3음절	227		416	
4음절	161		6	
5음절	18			
합계	431		431	

삼국 시대 군현 명칭의 음절 길이에 3음절이 보편적이지만 4음절도 꽤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5음절의 군현 명칭도 있다. 그런데 경덕왕이 개정한 군현 명칭은 3음절의 군현 명칭으로 집중되어 있다. 4음절의 군현 명칭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경덕왕이 개정한 군현 명칭이 3음절로 수렴되는 것은 경덕왕 개정 명칭이 한자어화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신라 6부의 명칭도 3음절을 지향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5음절이었던 ‘牟旦伐喙(部), 漢只伐(喙)部’ 등이 ‘岑喙部/牟梁部, 韓岐部’ 등의 3음절 명칭으로 수렴된 것으로 이해된다. 『三國史記』 昔于老 조에 나오는 4음절의 沙梁伐國이 『三國史記』 신라본기 법흥왕 12년 조에 나오는 3음절의 沙伐州로 변모된 것으로 이해된다.¹¹⁾

10) 낙랑군에 소속된 현은 ‘朝鮮, 誚邯, 增地, 占蟬, 駟望, 屯有, 帶方, 列口, 長岑, 海冥, 昭明, 提奚, 含資, 遂成, 鏤方, 渾彌, 浪水, 吞列, 東曉, 蠶台, 不而, 華麗, 邪頭, 前莫, 夫租’ 등이다

11) 전덕재(1998: 38)의 경우 梁과 伐이 의미가 같았기 때문에 沙梁伐에서 梁이 소거되어 沙伐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명을 표시한 어휘에 동일한 의미의 구성 성분이 동시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언어의 경제성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역전앞, 면도칼’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 어휘에서는 동일한 의미가 개재된 경우가 있다. 즉 ‘역전앞’에서 ‘전’은 한자 前에서 온 것이어서 고유어 ‘앞’과 의미가 같다. 그리고 ‘면도칼’에서 ‘도’는 한자 刀에서 온 것이어서 고유어 ‘칼’과 의미가 같다. 한자와 고유어는 어휘를 만드는 층위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해서 동일한 의미가 아닌 것으로도 판단할 수도 있다. 또 하나 ‘역전앞, 면도칼’ 등에서 중복된 의미 요소는 소거되지 않는다. 중복된 요소가 소거 되면 그 어휘는 더 이상 어휘 체계 속에 존재할 수 없다.

신라 6부 명칭 가운데에 漢只伐部는 안압지에서 출토된 벽돌(680)에 기록되어 있고, 翳部는 월성 해자에 출토된 기와에 기록되어 있다.

(14)

雁鴨池出土調露二年銘	월성해자 출토 와 명문
	
調露二年 漢只伐部君若小舍 … 三月三日作□ …	翳部井井

「월성해자출토와명문」에서는 부 명칭을 기입하는 공간이 2음절로 제한되어서 翳比部가 翳部로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雁鴨池出土調露二年銘」에서는 부 명칭을 기입하는 공간에 제약이 없어 漢只部가 아니라 漢只伐部로 부 명칭을 충실하게 기입한 것으로 생각된다.

나. 동일한 의미의 ‘啄/喙’과 梁의 배타적 분포

신라 6부 명칭에 개재된 후행 요소들의 변별적 분포와 배타적 분포의 양상을 살펴 보기 위하여 신라 6부 명칭의 이표기를 다시 간단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문증되지 않은 후행 요소는 ()로 제시한다.

(14) 가. 喙部, 喙評, 梁部

나. 沙喙部, 沙梁部, 須梁(部)

다. 牟旦伐喙(部), 岑喙部, 牟梁部, 漸梁部, 牟梁里

라. 本波喙(部), 本波(喙)部, 本彼(喙)部

마. 漢只伐(喙)部, 漢岐(伐)(喙)部, 漢祗(伐)(喙)部, 韓岐(伐)(喙)部

바. 翳比(喙)部, 斯波(喙)(部)

(15) 가. 沾解王在位 沙梁伐國舊屬我 <三國史記 列傳 昔于老>

나. 尙州 沾解王時取沙伐國爲州 <三國史記 권34>

후행 요소들의 변별적 분포란 후행 요소들이 하나의 이표기에 동시적으로 출현하는 것을 말한다.

(14가)의 ‘喙部, 喙評, 梁部’ 등은 후행 요소 2그룹에 속하는 ‘喙/涿/梁’의 어느 하나와, 후행 요소 3 그룹에 속하는 ‘部/評/里’의 어느 하나가 하나의 이표기에 동시에 출현한 모습을 보인다.

것이다. 따라서 喙와 梁은 ‘部/評/里’와는 의미가 다른 것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한편 (14다)의 牟攄伐喙는 후행 요소 1그룹에 속한 伐이 후행 요소 2그룹에 속한 喙와 함께 하나의 이표기에 동시에 출현한 것이므로 伐과 喙는 의미가 다른 것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후행 요소들의 배타적 분포란 어떤 하나의 이표기에 동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다른 이표기에서는 다른 글자로 나타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후행 요소 3인 그룹인 ‘評, 部, 里’ 등 각각은 하나의 이표기 동시에 출현할 수 없고 다른 이표기에서는 글자를 달리 하여 나타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예컨대 牟梁部和 牟梁里에서 部和 里는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가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의 동일한 이표기에서는 동시에 출현하지 않는다.

(15가)의 沙梁伐國은 梁과 伐이 변별적 분포를 보여 준 것이다. 즉 하나의 이표기에 梁과 伐이 동시에 출현하였다는 것은 梁과 伐의 의미가 다른 것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바 있듯이 喙와 伐이 하나의 이표기에 동시에 출현하였고 梁과 伐도 하나의 이표기에 동시에 출현하였으므로 喙와 梁은 변별적 분포가 아니라 배타적 분포를 보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4)에 제시된 신라 6부 명칭의 이표기에서 喙와 梁은 동일한 이표기에 함께 출현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추정을 성립케 한다. 따라서 배타적 분포를 보인 喙와 梁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는 같다. 그리고 (14다)의 牟攄伐喙에서 보는 바와 같이 喙와 伐은 변별적 분포를 보이고 있으므로 喙와 伐은 그 의미가 다르다.

2.4. ‘물길’을 의미하는 啄과 梁

『삼국유사』 辰韓 조에서 신라 6부 명칭인 ‘沙涿, 漸涿’ 등에서 涿이 道로 읽힌다고 하였고, 또, 삼국유사 新羅始祖 赫居世王 조에서 沙梁部の 梁이 道로 읽힌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이것에 기대면 啄은 ‘*도’ 정도를 표기한 음차 표기자이며 梁은 ‘*도’에서 발달한 어형 ‘돌’ 정도를 표기한 훈차 표기자가 된다.

신라 6부 명칭에 나타난 ‘啄*/도’는 마한소국 중의 하나인 優休牟涿國의 涿와 의미가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이건식(2022)에서 논의한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優休牟涿에서 涿는 ‘*도’ 정도를 표기한 것으로 ‘물이 지나다니는 통로’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문헌 자료는 다음과 같다.

- (16) 가. 旃檀梁城門名 加羅語謂門爲梁云 <三國史記 卷 第四十四 列傳 第四 斯多含>
 나. 又崔致遠云 辰韓本燕人避之者, 故取涿水之名, 稱所居之邑里, 云沙涿 漸涿等. 羅人方言, 讀涿音爲道 故今或作沙梁, 梁亦讀道) <三國遺事 紀異卷第一 辰韓>
 다. 獐山郡 祗味王時 伐取押梁(一作督)小國
 라. (梁) 方言[突] 古云督 <頤齋亂藁, 卷二十, 擬弘文館增修東國輿地勝覽例, 三府門目第二>
 마. 仇羅梁 主 남쪽 60리에 있으며 바닷가 개펄이다. 흥선도에 들어가는 자는 여기를 경유하여야 한다. <新增東國輿地勝覽 晉州牧 山川>

(16가)에서 가라어 梁은 門의 뜻이라고 하였다. (16나)는 梁을 ‘도/道’ 정도로 읽어야 함을 말하고 있고 (16다)와 (16라)는 梁을 ‘돌’ 또는 ‘독’으로 읽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梁을 ‘돌, 독’ 등으로 읽을 경우 梁은 한자의 본래 뜻인 ‘돌(石)’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梁을 ‘도’로 읽을 경우 (16가)에서 말하는 門의 뜻이 된다.

(16마)의 “흥선도에 들어가는 자는 여기를 경유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고려하면 仇羅梁에 나타난 梁은 門을 의미하면 ‘물길’을 의미한다. 오늘날 鳴梁을 ‘울돌’로 읽는 것은 고려하면 門을 의미하던 가라어 ‘*도’는 ‘돌’로의 역사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신중진(2015:173)에서 ‘울/을’이 어휘 구성소에 참여하여 새로운 어휘를 만들어 낸 것 88개를 정리하고 그 중에서 명사가 33개, 동사가 42개, 의태어가 13개로 언급하였다. 그런데 신중진(2015:173)에서 제시한 명사 33개 중에서 ‘꺼풀, 벼슬, 수풀, 우물’ 등은 語基가 명사이다. 따라서 ‘물길’을 의미하는 ‘돌’의 선대형은 ‘*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優休牟涿의 涿는 가라어에서 門의 뜻을 가진 ‘*도/梁’로 이해되며 일본어 ‘と/門・戸’가 가진 의미 ‘물이 흐르는 곳’의 의미를 고려하면 優休牟涿의 涿는 ‘물이 흐르는 곳’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¹²⁾ 그런데 ‘물이 흐르는 곳’의 ‘도/涿’는 제유에 의해 ‘독’의 의미를 가지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이 그러한 예들이다.

(17) 가. 漆隄縣 本漆吐縣 景德王改名 今漆園縣 <三國史記 卷 第三十四 雜志 第三 地理 一 新羅>

나. 長堤郡 本高句麗主夫吐郡 景德王改名 今樹州 <三國史記 卷 第三十五 雜志 第四 地理 二>

다. 奈堤郡 本高句麗奈吐郡 景德王改名 今堤州 <三國史記 卷 第三十五 雜志 第四 地理 二>

라. 棟(一作棟)隄縣 本高句麗東吐縣 景德王改名 今未詳 <三國史記 卷 第三十五 雜志 第四 地理 二>

마. 隄上縣 本高句麗吐上縣 景德王改名 今碧山縣 <三國史記 卷 第三十五 雜志 第四 地理 二>

바. 奈吐郡(一云大堤) <三國史記 卷 第三十七 雜志 第六 地理 四 高句麗 百濟>

(17)에 제시된 堤와 隄는 유희 「物譜」 5 水 조에서나 보이는 ‘독’의 의미이다. 그런데 東方語言學의 웹사이트(<http://www.eastling.org>)에 따르면 王力이 제시한 吐의 상고음 tha, 중고음은 thu라고 한다. 따라서 (17)에서 제시된 吐는 ‘*독’에서 종성 ㄱ이 약화된 ‘*도’를 표기한 것이 아니라 본래 ‘*도’ 정도를 표기한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17)에서 吐가 ‘堤, 隄’ 등과 대응되었다는 것은 (17)의 吐를 ‘독’의 의미로 파악했음을 말한다. 결국 (17)에 제시된 吐는 본래 의미가 ‘물길’의 의미이지만 ‘물길’과 ‘제방’의 인접성으로 인하여 ‘물길’의 의미로 ‘제방’의 의미를 제유한 것으로 생각된다.

‘독’ 또는 ‘도랑’을 의미하는 吐는 조선 시대 고문서에서 흔히 사용된다.

(18) 가. 芥字 百三十四南犯道越四等圭畝 東西長五十五尺 西活四十七尺 柒負壹束 北道二方吐西別先畝 樓浦谷 起主 旧申金 今幼學李東華奴允萬 <1754년 禮安鄉校 乾隆甲戌鄉校田畝案>

나. 五十五三等句畝 南北長十六尺 陸束 三方吐東北 主舊同人 <1819년 鄭宗弼 龍泉

12) 도수희(1993: 143)은 “dol(門)이 고대일본어에 차용된 것으로 추정함이 일반적인 통견이었다”라고 하였다. 도수희(1993: 143)의 이러한 주장의 근거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를 찾을 수 없었다. 『일본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일본어 ‘と/門・戸’는 ‘출입하는 장소, 출입구, 물이 출입하는 장소, 물이 흐르는 곳’ 등의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

<精舍事蹟統錄>

- (19) 六等直田 東西長八十六尺 南北廣三十七尺 七ト九束 西山 南吐乙 二方道 起 旧全人
今校位澄二南祀渠越 <1720년 慶尙道 英陽鄉校 田畝量案>

(18가)의 北道二方吐西別先畚에서는 대상 전답의 두 쪽 방향의 표식을 따라 하고 있다. (18나)의 三方吐에서는 세 방향의 표식이 따라 하고 있다. (18)에서 말하는 따는 ‘독’이면서 ‘도랑’의 의미까지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19) 南吐乙의 吐乙은 ‘돌’을 표기한 것으로 (19)의 吐가 ‘독’이라기 보다는 ‘도랑’의 의미임을 시사하고 있다.

결국 牟涿의 涿은 후대에 형성된 ‘독’의 의미보다는 ‘물길’의 의미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하여 牟涿은 ‘독(제방)의 물길’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3. ‘評/*ㄱ불’의 해독

3.1. 『日本書紀』에 나타난 評 사용 가야 지명

『日本書紀』에 評을 사용한 가야 지역 지명인 背評이 나타나 매우 주목된다.

- (20) 가. 乃遣久禮斯己母 使于新羅請兵 奴須久利使于百濟請兵 毛野臣聞百濟兵來 迎討背評[背評 地名 亦名能備己富里也] 傷死者半 (중략) 還時觸路拔騰利枳牟羅 布那牟羅 牟雌枳牟羅 阿夫羅 久知波多枳五城 <일본국립국회도서관 北野本 日本書紀 卷十七 繼體天皇二四年(530) 九月>

나. 乃遣久禮斯己母 使于新羅請兵 奴須久利使于百濟請兵 毛野臣聞百濟兵來 迎討背[へ]評[コホリ][背評 地名 亦名熊備己富里也] 傷死者半 (중략) 還時觸路拔騰利枳牟羅 布那牟羅 牟雌枳牟羅 阿夫羅 久知波多枳五城 <日本京都大学図書館 前田本 日本書紀 卷十七 繼體天皇二四年(530) 九月>

다. 乃遣久禮斯己母 使于新羅請兵 奴須久利使于百濟請兵 毛野臣聞百濟兵來 迎討背評[へコホリ][背評 地名 亦熊[ノ]備[ヒ]己[コ]富[ホ]里[リ]也] 傷死者半 (중략) 還時觸路拔騰利枳牟羅 布那牟羅 牟雌枳牟羅 阿夫羅 久知波多枳五城。 <早稻田大學校 소장 1610년 日本書紀 卷十七 繼體天皇二四年(530) 九月>

(20)에 제시된 能備己富里 또는 熊備己富리의 위치는 문맥에 근거할 때 신라와 백제의 접경 지역인 가야 지역으로 추정된다.¹³⁾

(20나) ‘背[へ]評[コホリ]’과 (20다) ‘熊[ノ]備[ヒ]己[コ]富[ホ]里[リ]’의 대응을 통해서 ‘背[へ]’와 ‘熊[ノ]備[ヒ]’가 대응되고 評은 ‘코호리’로 혼독됨을 알 수 있다.

新井白石의 『東雅』(1717)에서 ‘코호리’가 한국에서 전래된 것을 주장하면서부터¹⁴⁾ 일본 연구계에서는 ‘코호리’가 한국어 ‘고을<고을<ㄱ을<ㄱ불’에서 유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背評의

13) 鮎貝方之進(1938: 76)은 背評을 『日本書紀』 卷十七 繼體天皇 二三年(529) 四月 조에 나오는 背伐과 동일한 지명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背評과 背伐이 동일 지명이라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14) 新井白石, 『東雅』(1717年), 卷3, 郡, “郡をコホリといひしは韓国の言に出しなり。即今も朝鮮の俗、郡をも県をも并にコホルといふは即コホリの転語なり。”

評에 대응된 ‘コホリ’가 한국어에서 유래된 것이라면 背에 대응된 能備[ノヒ]도 가야어일 것으로 추정된다. ‘ノヒ’는 ‘높새바람’의 ‘높’과 관련될 듯 하다. ‘높새바람’은 ‘북동풍’을 말하는데 여기서의 ‘높’은 ‘북쪽’을 가리키는 것으로 ‘뒤’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높’의 후기 중세국어 형태는 ‘높’인데 이 후기 중세국어 어형은 유기음화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¹⁵⁾ 『日本書紀』에 나타난 가야 지명 能備己富里는 신라 6부 명칭인 啄評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 준다. 하나는 양서 신라전에 나온 신라 6부의 명칭 啄評에서 評의 의미가 己富里인 점을 알려 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어떤 구역의 단위를 지칭한 評이 신라 고유의 것이 아닌 사실을 말해 주며, 더 나아가 신라 6부의 명칭에 사용된 評이 고구려의 內評과 外評에서¹⁶⁾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열어 주는 것이다.

3.2. 7세기 중반 이후 일본의 評 사용 실태

680년 경에 편찬을 착수하여 720년에 완성된 日本書紀는 697년까지의 일본 역사를 기술한 역사서이다. 이 『日本書紀』에는 國 아래의 단위로 郡이 사용되고 있다. 『日本書紀』卷十四 雄略天皇二二年(478) 七月 조에서는 丹波國의 餘社郡을 확인할 수 있으며 『日本書紀』卷三〇 持統十年(696) 四月 조에서는 伊豫國의 風速郡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7세기말 금석문 자료에 國 아래의 단위에 評을 사용한 경우가 발견된다.

(21) 戊戌年四月十三日 壬寅収糟屋評造 春米連広国鑄造 <日本妙心寺鐘銘(698)>

妙心寺는 현재 일본 京都市 右京区에 소재한 불교 사찰이다. (21)의 내용으로 이 妙心寺의 鐘을 糟屋評造 즉 糟屋評의 장관이 春米連広国에서 주조하여 妙心寺에 기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1)로 糟屋評은 春米連広国 아래의 구역임을 알 수 있다. 이 糟屋評은 현재 福岡市 동쪽에 위치한 糟屋郡이라고 한다. 또 (21)로 7세기 말 일본에서는 郡 대신에 評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市大樹(2010: 378)에 따르면 1950년대에 일본 고대사 연구에서 評의 실체를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郡評論爭이 있었으나 1966년 藤原宮跡에서 669년에 작성된 己亥年十月上埭国阿波評松里의 내용을 기재한 목간이 출현하면서, 일본 고대사 연구에서 郡評論爭이 종식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市大樹(2010: 378)는 鎌田元一(評の成立のと國造, 1977)의 견해에 근거하여 일본에서 大化 5년(649)에 評制가 실시되었다는 설을 소개하였다.

市大樹(2010: 44)에서는 地名이 표기된 목간을 정리하여 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명에서 評을 사용한 것만 소개하도록 한다. 또한 市大樹(2010: 367-370)에서는 和名抄¹⁷⁾의 대응 지명을 제시하고 있는데 함께 제시하도록 한다.

(22) 評이 기재된 일본 고대 목간

연호	연대	목간의 지명표기	出典	和名抄 대응지명
----	----	----------	----	----------

15)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鮎貝方之進(1938: 76)은 背評을 경상남도 熊川으로 비정하고 있다. 熊川은 조선시대 명칭이고, 신라시대에는 熊只縣이었으며 신라 경덕왕이 熊神으로 개정하였다. 熊의 훈이 ‘곰’이므로 ‘고물’에서 보는 것처럼 이 ‘곰’이 ‘뒤’를 의미하므로 背評을 熊川으로 비정한 것에는 타당한 면이 있다.

16) 『隋書』 고구려전에 ‘또 內評外評 五部 褥薩 등이 있다./復有內評外評 五部 褥薩’이 나온다.

17) 『和名抄』는 承平年間(931-938)에 편찬된 『和名類聚抄』를 말한다.

天智4	676	三野国ム下評大山五十戸	飛17-34号	武예郡大山郷
天武6	678	三野国加尔評久々利五十戸	飛藜1-193号	可兒郡[泳宮]
天武6	678	三野国刀支評恵奈五十戸	飛舞1-721号	恵奈郡上、下郷
天武7	679	尾張海評津嶋五十戸	県砾2001-52号	없음
天武9	681	三野大野評大田五十戸	飛18-176号	大野郡大田郷
天武10	682	鴨評加毛五十戸	飛17-124号	賀茂郡賀茂郷
天武12	684	三野大野評阿漏里	蔑2-544号	大野郡上、河狹郷
天武13	685	三野大野評堤野里	飛17-113号	없음
天武14	686	三野国不口評新野見里	飛17-94号	不破郡新居郷
持統元	687	若佐小丹評木津了五十戸	飛藤1-8号	大飯郡木津郷
持統2	688	三野国加毛評度里	県概2001-39号	賀茂郡曰理郷
持統4	690	三川国鴨評山田里	飛17-93号	賀茂郡山田郷
持統5	691	尾治国知多評入見里	藤1-166号	智多郡[入海郷]
持統6	692	三川国鴨[]高椅里	飛18-89号	賀茂郡高橋郷
持統8	694	知田評阿具比里	藤1-162号	智多郡英比郷
持統10	696	三野国山方評大桑里	飛9-8頁上	山廻郡大桑郷
文武元	697	若狹国小丹生評岡田里	藤1-147号	遠敷郡佐分郷[岡田里]
文武2	698	三野国厚見評□□里	飛6-13頁上	厚見郡皆太郷
文武2	698	若狹国小丹生評岡方里	飛6-13頁下	
文武2	698	波伯吉国川村評久豆賀里	飛6-14頁上	河村郡笏賀郷
文武3	699	吉備中[]評輕了里	藤-183号	窪屋郡経部郷
文武3	699	上埴国阿波評松里	県藤115号	安房郡[松樹郷]
文武3	699	若佐国小丹生[]三分里	県藤117号	
文武3	699	二方評波多里	飛6-13頁下	二方郡八太郷
文武3	699	渚評竹田里	伊場108号	
文武4	700	若佐国小丹生評木ッ里	藤1-146号	

(22)는 7세기 말 일본의 행정구역 체계가 ‘國(クニ), 評(コホリ), 里(サト)’ 등으로 편제되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 701년 이후에는 評이 郡으로 대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鮎貝方之進(1938: 171)은 일본에 귀화한 사람들에 의해 일본에서 評(コホリ)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는 649년과 700년 사이에 일본에서 전국적으로 評을 사용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일부에서는 『日本書紀』卷二五大化三年(647)에 기록되었듯이 일본에 사신으로 온 金春秋와 일본에서의 評里制 실시가 모종의 관계가 있음을 언급하기도 한다.

3.3. ‘ㄱ불/評’의 어원

1) 일본어에 차용된 ‘코호리’ 어원 설명

新井白石이 『東雅』(1717)에서 郡을 뜻하는 일본어 ‘코호리’가 한국에서 유래했다는 설명에 뒤이어 本居宣長 『古事記伝』(1798)에서도 동의를 하였고, 白鳥庫吉(『朝鮮古代諸国名称考』『史学雑誌』第6.7号, 1895)에서도 동의를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설명은 일본어 ‘코호리’가 후기 중세국어 ‘ㄱ불>ㄱ울>고을’의 고대 형태를 차용한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한편 金沢庄三郎(1910, 1985: 11)은 ‘코호리’를 大村의 의미로 파악하여 ‘코’는 大의 의미를 ‘호리’는 어떤 행정 구역 단위를 뜻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하지만 일본어에서 ‘코’가 大의

의미를 가진 어휘가 없다. 따라서 ‘코리’에 대한 金沢庄三郎(1910, 1985: 11)의 어원 설명에는 문제가 있다. 한국어에서 大를 뜻하는 ‘큰’ 정도가 일본어에 차용되기는 했지만 ‘크’가 아니라 ‘코니’의 형태로 차용되었기 때문이다. 『日本書紀』 권17에는 大城이 나오는데, 이 大城을 『釋日本紀』 권17에서는 ‘코니사시’로 주석하고 있다. ‘사시’는 신라어에서 城을 뜻하는 어휘가 차용된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日本書紀』에 나오는 가야 지명 背評에 대한 『釋日本紀』의 주석이 ‘노히코리’임은 앞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背評과 ‘노히코리’의 대응에서 ‘코리’는 評에 대응되는 것인데 ‘크’의 의미를 大로 파악할 경우에 ‘코리’와 評의 대응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게 된다.

鮎貝方之進(1938: 172)은 일본어에 차용된 ‘코리’가 한국어 ‘고블’에 관계된 것으로 설명하면서 ‘리’를 신라 시대에 사람들의 집단 거주지를 뜻하는 伐과 연결짓고 있다. 그런데 ‘고블’의 어형은 한국의 자료에서 발견되지 않는 점에서 鮎貝方之進(1938: 172)의 주장은 다소 문제가 있다. ‘고블’이 아니라 후기 중세국어에서 ‘스궤블, 스궤울, 궤울ㅎ, 궤블, 블’ 등이 어형이 있으므로 일본어 ‘리’는 후기 중세국어의 ‘블/原’과 관련된 것이다.

한편 鮎貝方之進(1938: 174)은 ‘코리’가 高句麗와 등가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런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고구려 조에 따르면 高句麗가 敦煌文書(P.1283)에 畝久理로 표현되고 있다고 한다. 高句麗와 畝久理의 대응을 근거할 때 畝는 고구려어로 ‘높다’의 뜻으로 생각된다. ‘코리’의 ‘크’를 ‘높다’의 의미로 파악하면 ‘코리’와 評의 대응 관계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

2) ‘궤블’의 형태 구성과 會意의 한국 고유한자 評의 관계

『용비어천가』 권2 22에서 ‘조궤블/栗村’이 나타난다. ‘조궤블’과 栗村의 대응에서 ‘줄’은 栗에 대응되고, ‘궤블’은 村에 대응되므로 ‘조궤블’을 ‘줄+궤블’의 구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스궤블¹⁸⁾’이 ‘스+궤블’ 정도의 구성임을 이해할 수 있으며 후기 중세국어의 ‘궤울ㅎ¹⁹⁾’ 어형에 근거할 때, ‘궤블ㅎ>궤울ㅎ’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일본어에 차용된 ‘코리’와 후기 중세국어 ‘궤블’은 형태는 물론 의미 상에도 매우 유사하여 주목된다. ‘코리’와 ‘궤블ㅎ’의 대응을 통해서 ‘크’와 ‘궤’의 대응 관계, ‘리’와 ‘블ㅎ’의 대응 관계를 상정할 수 있다. 일본어 ‘크’와 ‘리’는 ‘o’ 모음을 가진 것이므로 한국어 모음 ‘ㅏ’와 유사한 음이 된다. 한편, ‘궤블ㅎ’과 評의 대응을 통해서 ‘궤블ㅎ’이 ‘궤[言]+블ㅎ[平]’ 정도의 구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ㅏ→ㅕ’의 변동이 일어난 것이며, ‘궤블ㅎ’의 구성을 ‘궤[言]+블ㅎ[平]’ 정도로 파악하게 되면 評은 ‘言+平’으로 구성된 회의자가 된다.

후기 중세국어에서 ‘말하다’의 뜻을 가진 ‘*궤-’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후기 중세국어에서 ‘말하다’의 뜻을 가진 ‘고-’가 있어 ‘말하다’의 뜻을 가진 ‘*궤-’를 상정할 수 있다. 즉 이

18) ‘스궤블’이 출현한 것으로 ‘스궤블 軍馬를 이길찌 克복사 물리조치샤 / 克復鄉兵 挺身陽北 維此兇賊 遂能獲之 <용비어천가 권5 31b>’를 들 수 있으며 ‘스궤울’이 출현한 자료로 ‘光祿大夫 龔勝이 王莽이 政事 자뻐다 亨야 辭壯하고 스궤울 갇더니/光祿大夫龔勝 以王莽秉政 乞骸骨歸鄉 <삼강행실도충신도 8a>, 겨τικ 먼 스궤울 소니 꾸물 꾸엿거늘 / 傍有遠鄉客作夢이어늘 <금강경삼가해 3 37a>’ 등을 들 수 있다.

19) ‘궤울ㅎ’은 ‘本鄉은 本來 제 사는 궤울하라 <월인석보 4 59b-60a>, 나라해 궤울히 잇고 궤울해 무솔히 잇느니 / 國有邑邑有聚落 <월인석보 12 20b>, 巷은 궤울 앓 길히오 陌은 저젧 가온디 거리라 <석보상절 19 1b-2a>, 나라해 궤울히 잇고 궤울해 무솔히 잇느니/國有邑하고 邑有聚落하니 <법화경언해 2 54b>’ 등에서 나타난다.

송녕(1961, 1992: 61-65)에 따르면 ‘아, 오, 으’ 등의 輕薄音系와 ‘어, 우, 으’ 등의 深重音系에 의한 의미 분화 현상이 15세기 국어에 존재했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송녕(1961, 1992: 61-65)에서 제시된 양성 모음 대 음성 모음의 대립으로 의미가 분화된 어휘들의 목록이다. 유형별로 2개의 예만 제시한다.

- (23) 가. 아 - 어 대립 : 밧다(脫衣) - 벳다(면하다), 남다(餘) - 넘다(溢)
 나. 오 - 우 대립 : 도답다(篤) - 두텁다(厚), 도르다(廻) - 두르다(揮)
 다. 으 - 으 대립 : 늣다(故) - 늣다(老), 𪎐(邊) - 𪎐(末)
 라. 셋 이상의 대립 : 바드라운(危) - 보드라운(軟) - 부드러운(柔)
 하근(微) - 효근(細) - 혀근(小)

(23가)-(23다)와 같이 이항의 대립에 의한 의미 분화만 있다면 ‘고-’의 대립형으로 ‘*ㄱ-’를 상정할 수 없다. 그러나 (23라)와 같이 셋 이상의 대립에 의한 의미 분화도 존재하므로 ‘고-’의 대립형으로 ‘*ㄱ-’를 상정할 수 있다. (23라) ‘바드라운(危) - 보드라운(軟) - 부드러운(柔)’의 삼항 대립은 ‘아 - (*어)’의 이항 대립과 ‘오-우’의 이항 대립이 동시에 나타나는 사항 대립에서 ‘어’ 계열만 어형이 나타나지 않은 삼항 대립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말하다’의 뜻을 가진 후기 중세국어의 ‘고-’는 ‘고-(*구), (*ㄱ)-(*그)’ 등의 4항 대립을 이루었으나 후기 중세국어에서는 ‘고-’ 계열만 존재한 것으로 생각된다.

‘말하다’의 뜻을 가진 후기 중세국어 ‘고-’에 대해서는 평북 방언의 ‘고다’를 ‘떠들어 대다’의 의미로 설명하면서 유창돈(1957: 375)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유창돈(1957: 375)의 논의에서는 ‘말하다’의 뜻을 가진 후기 중세국어의 ‘짓괴다’와 ‘과ㅎ다’가 소개되었다.

- (24) 가. 諍은 말 꺾골씨오 諍은 모다 짓꺾씨라</sent> <능엄경언해 4:8b>
 나. 飛燕의 앓이 양지 도커늘 쫓 불러 드리시니 左右 에 본 사르미 다 혀 차 과ㅎ다
 리 <내훈 1 5b>

(24가)의 ‘짓괴-’는 ‘짓-+괴-’ 정도의 구성으로 ‘괴-’는 ‘고-’의 사동형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짓괴-’는 ‘짓어서 소리를 내다’ 정도의 의미를 가진 것이다. ‘소리를 내다’의 뜻은 오늘날 ‘지저귀다’에 남아 있다. (24나)의 ‘과ㅎ-’는 ‘칭찬하다’의 의미인데 유창돈(1957: 375)은 ‘과ㅎ-’가 ‘고-+-아+ㅎ-’ 구성에서 온 것으로 파악하였다.

‘ㄱ불’에서의 ‘불’은 후기 중세국어에서 한 예가 발견되는데 권인한(2008: 89)에서 ‘불’이 原의 의미임이 연구되었다.

- (25) 가. 夫人이 쫓 무로디 이어긔 갓가비 사르미 지비 잇느니잇가 比丘 | 날오디 오직 이
 브래 子賢長者 | 지비 잇다 듣노이다 <월인석보 8 94a>
 나. 熊川州(一云熊津) 熱也山縣 伐音支縣 西原(一云臂城 一云子谷) <三國史記 권37>
 다. 各別히 平原에 짖 가출 파 브리고[原은 늣고 ㅍ훈 짜히라 / 別於平原에 穿去地皮
 ㅎ고 <능엄경언해 7 9a>

(25나)의 西原과 臂城의 대응에서 原과 臂의 대응을 통해서 한자 또는 훈차 표기에 대응하는 우리말이 ‘불’ 정도임을 언급하면서 (25가)의 ‘브래’에 나타난 ‘불’이 原의 뜻임을 언급하였다.

(25가)에서 ‘불’은 (25다)와 같이 지형적으로 ‘높고 평평한 땅’이 아니라 사람들의 집단 거주지를 말한다. 물론 사람들의 집단 거주지를 뜻하는 ‘불’이 ‘높고 평평한 땅’의 의미에서 출발했음은 전제된 것이다. 이러한 의미 확대는 ‘들’에서도 보여진다. ‘들’은 지형적으로 평평한 땅을 말하지만 의미가 확대되어 ‘작물이 자라는 농경지’의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

오늘날 ‘벌’은 ‘평평한 땅’의 의미만 가지고 있고 ‘사람들의 집단 거주지’의 의미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삼국 시대 신라에서는 『三國史記』에 나타난 ‘徐那伐, 比自火郡, 比斯伐’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伐/벌’은 ‘사람들의 집단 거주지’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권인한(2008: 88)은 고대 자료에 나오는 ‘벌/伐’과 ‘불/波’에 대해서 벌/伐을 ‘불/波’보다는 큰 단위로 파악하였다. 앞에서 말한 양성 모음 대 음성 모음의 대립에 의한 의미 분화에 따라 ‘벌/伐’은 큰 단위 ‘불/波’은 작은 단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발 - 벌’의 이항 대립과 ‘불 - *불’의 이항 대립이 합쳐진 사항 대립 ‘불, *불, *발, 벌’에서 ‘불’과 ‘벌’만이 대립된 것으로 생각된다.

후기 중세국어 ‘ㄱ불’은 ‘말하다’를 뜻하는 동사 어간 ‘ㄱ-’에 ‘언덕이면서 사람의 집단 거주지’를 뜻하는 명사 ‘불’이 결합된 어휘로 생각된다. 이러한 ‘ㄱ불’은 삼국 시대에 일본어에 전래되어 ‘コホリ’로 남아 있게 되었으며 ‘コホリ’와 대응되는 評은 ‘言+平’의 의미로 구성된 회의의 한국 고유한자로 생각된다. 評에서 言은 ‘말하다’의 뜻인 ‘ㄱ-’의 의미를 나타낸 것이며 平은 原의 뜻인 ‘불’의 의미를 나타낸 것이다.

결국 ‘ㄱ불’과 신라 6啄評은 ‘말이 통하는 사람들의 집단 거주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신라의 和白 제도에서 白은 ‘말하다’의 의미이므로 신라 사람들은 사람들간의 의사 소통을 중시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4. 결론

(생략함.)

참고문헌

1. 자료

『高麗史』(아세아문화사, 1972)

『국역중국정사조선전』(1986)

『金石文字辨異』()

『楞嚴經諺解』(대제각, 1985)

東方語言學의 웹사이트(<http://www.eastling.org>)

- 『東雅』(新井白石, 1727, 日本國立國會圖書館)
- 「東魏中岳嵩陽寺碑(하버드대 소장 탁본)
- 『杜詩諺解』(초간본, 권15, 홍문각, 1988)
- 『三國史記』(대제각, 1987)
- 『三國遺事』(대제각, 1987)
- 『釋日本紀』(日本早稻田大學校 소장)
- 『新集藏經音義隨函錄』(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https://kabc.dongguk.edu>)
- 『梁書』新羅傳(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 『新字典』(朝鮮光文會, 1915)
- 『新增東國輿地勝覽』(한국고전번역원정보시스템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 『연산군일기』(한국사데이터베이스)
- 『龍飛御天歌』(대제각, 1985)
- 『頤齋亂藁』(韓國學資料叢書, 한국학중앙연구원, 1998, <http://yoksa.aks.ac.kr>)
- 『李朝語辭典』(劉昌惇,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4)
- 『日本國語大辭典』(일본 小學館, 소화 47년)
- 「日本妙心寺鐘銘(698)」(早稻田大學校 소장 탁본)
- 『日本書紀』(일본국립국회도서관 北野本)
- 『日本書紀』(日本京都大學圖書館 前田本)
- 『日本書紀』(早稻田大學校 소장 1610년)
- 『全唐文』()
- 『朝鮮王朝實錄』(<http://silook.history.go.kt/main/main.jsp>)
- 「1754년 禮安鄉校 乾隆甲戌鄉校田畝案」()
- 「1819년 鄭宗弼 龍泉精舍事蹟統錄」()
- 「1720년 慶尙道 英陽鄉校 田畝量案」()
-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http://www.korean.go.kr/09_new/index.jsp)
- 『韓國漢字語辭典』(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97)
- 『漢語詞典』()

2. 논저

- 권인한(2008), 「고대 지명형태소 ‘本波/本彼’에 대하여」, 『목간과문자』 제2호, 한국목간학회 83 - 95.
- 권인한(2009), 「포항 중성리비의 어문학적 검토」, 『포항중성리신라비발견기념학술심포지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권인한(2019), 「포항중성리신라비의 국어사적 탐색 - 신라 3비문의 고유명사 표기자 분석 및 비교를 중심으로」, 『신라 왕경과 포항중성리신라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김영만(2007), 「신라 지명 喙와 啄의 字音상 모순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명학』 13, 한국지명학회, 47-84
- 金沢庄三郎(1910, 1985), 「郡村の語原に就いて」, 『国語の研究』, 同文館, 95-102, 日韓古地名

の研究, 草風館, 9-13.

남풍현(2003), 「居伐牟羅와 耽牟羅」, 『탐라문화』 23,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63-171.

남풍현(2000), 『이두연구』, 태학사.

도수희(1993), 「마한어'에 관한 연구 (속)」, 『동방학지』 80,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31-177.

末松保和(1954),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市大樹(2010), 飛鳥藤原木簡の研究, 주식회사 塙書房.

신중진(2015), 「어휘 구성소 '-을/을-'의 분포와 의미 양상」, 『진단학보』 123, 진단학회, 173-193.

熊加全(2020) 『玉篇疑難字考釋與研究 上冊』, 中華書局.

유창돈(1957), 「平北語散考 -문헌어와의 관련을 중심으로」, 『일석이희승선생송수기념논총』, 일조각

이건식(2022), 馬韓小國 優休牟涿國 표기와 조선 시대 富平都護府 注火串面 표기의 의미 유사성과 차별성에 대하여, 발표 예정.

이수훈(2013), 「浦項中城里新羅碑의 牟旦伐과 金評」, 『역사와 세계』 44, 효원사학회, 197-225

이승녕(1961, 1992), 『중세국어문법 개정증보판』, 을유문화사.

李在俊, 「沙啄部銘平瓦에 대한 小考」, 『西原學報』 2, 서원학회, 1981.

전덕재(1995), 「上古期 新羅六部の 性格에 대한 考察」, 『新羅文化』 12,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35-90,

전덕재(1998), 「新羅 6部 名稱의 語義와 그 位置」, 『慶州文化研究』 1, 경주대학교 경주문화연구소, 32-70.

전덕재(2009), 「포항중성리신라비의 내용과 신라 6부에 대한 새로운 이해」, 『韓國古代史研究』 56, 한국고대사학회, 85-129.

鮎貝方之進ㄱ(1938), 『日本書紀朝鮮地名考下』, 雜攷 第7輯, 朝鮮印刷株式會社.

鮎貝方之進ㄴ(1938), 『俗字考』, 雜攷 第7輯, 朝鮮印刷株式會社,

정연식(2018), 「신라 초기 習比部 高耶村」, 『한국사연구』 183, 한국사연구회, 149-193.

韓小荊(2009), 『可洪音義研究-以文字為中心』, 巴蜀書社.

